이 세상의 인간은 둘로 분류된다.일반인 그리고 마법사.태어날 때부터 마법을 할 수 있는 타고난 선천적 마법과 신수와 계약을 맺어 신수의 능력을 자신의 것처럼 쓸 수 있는 후천적 마법.선천적인 마법이나 후천적 마법은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고, 마법사 혈통이 있는 마법사의 피가 흐르는 인간에게만 그 능력이 주어진다.내 이름은 아인 발렌스.나는 마법사와 관련도 없었고, 엮일 일 조차도 없는 일반적인 인간이었다.허리까지 오는 새하얀 머리카락이 거칠게 휘날린다.서늘한 바람에서 어느새 시린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와서 아인의 두 뺨을 스치며 빨갛게 물들였다.아인은 제국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동 쪽의 끝 쪽 지방에 살고 있었다.하얀 은발의 긴 머리에 앞머리 또한 길어서 눈을 포함한 얼굴의 반을 앞머리가 가리고 있었고,입고있는 의복은 여성의 옷인지 남성의 옷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중간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해 준 일터에 가서 빨랫감을 받아들고 강가로 향했다.흘러내리는 은발 머리를 질끈 묶고, 차가운 물에 빨랫감을 적시며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힘껏 빨았다.언제나 그랬듯 한참을 물가에서 빨래로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려고 할 때쯤 때를 뺀 빨랫감을 널어주는 것까지 마치고 남들에겐 적은 돈이지만 아인에겐 너무나 큰돈인 동전 몇 개를 받아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주머니 제일 안쪽에 쑤셔넣고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향했다.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완 다른 집 안의 분위기가 아인을 감싸왔다.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니 아니나다를까 불청객이 찾아와있었다.일 년 전, 아인의 아버지는 도박중독으로 얼마 없던 집의 재산이란 재산은 도박장으로 모두 보내 버렸다.아버지를 뜯어말리던 때도 있었지만 말릴 때마다 오는 가차 없이 오는 폭력에 지쳐, 조용히 도박장에 보내주는 수밖에 없었다.어머니는 진즉에 아인이 열여섯 살일 때 한량같이 사는 아버지에게 지쳐서 집을 나가셨고, 그뿐이면 괜찮을까.아버지는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나서는 이어서 술에 빠져 살기를 허다했다.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술에 빠져서 눈이 풀려있었고, 오늘은 거기에 추가로 덩치 큰 두 남자가 집을 난동을 부린 광경이 보였다.탁자는 반 토막이 나고, 의자도 날아갔으며 다른 가구들 또한 부서지고, 날아갔다.집을 따뜻하게 해 줄만한 땔감을 살 돈조차 없어서 두꺼운 긴 옷을 입고 추위를 버텨가 면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 추위를 막아주던 창문마저 깨져버렸다.이 둘은 고리대금업자였다.아버지는 집에 있던 것을 다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진 것이었다.두명의 대금업자는 아인을 훑어보았다.“이 년이라도 데려가야겠어.”아버지를 보았더니 아버지는 술에 너무 취해서 몽롱한 눈으로 내가 끌려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다.'빚이 있으면 술값이라도 아껴야지. 이게 뭐 하는 건지.'남자 한 명이 아인의 코까지 내려온 앞머리를 걷으며 턱을 들어 좌우로 돌려보며 제법 값을 치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하였다.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끌려가서 사창가에 팔려갈 게 불보듯 뻔했다.“잠시만요! 가, 갚으면 되잖아요!!”“그래? 갚아 그럼. 얼마인 줄은 알고?”“얼마인데요?”이자까지 적진 않을 거란 생각했지만 곧이어 들리는 말에 벙쪄 버렸다.“10만 골드.”'일 년을 벌어도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금액을 빌렸다고? 진짜 미친 거야?'10만이면 작은 집 정도는 가볍게 살 수 있는 돈이며,식당이나 잡일 등을 하면 일 년을 일하면서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아야 만들 수 있는 큰돈이었다.“제.. 제게 시간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벌써 일 년이 지났어. 기다려 줄 만큼 기다려 준 거 같은데? 힘 빼게 하지 말고 가자 아가야?”“딱! 딱 한 달만. 아님 4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금 알았는데 그 큰 금액을 며칠 만에 구하긴 힘드니 4주만.. 4주만 시간을 주세요.”“우린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4주를 더 기다리라니 미친 소리지.”“삼, 삼주만 그럼 삼주만 주세요. 진짜 꼭 구할게요.”아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간청했다.고리대금업자는 씨 익 웃으며 생각을 잠시 하더니“그때도 돈이 없으면 그땐 얌전히 가는 거야. 도망가면 너네 아버지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아인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이렇게 착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 복이 있네, 우리아가는.”아가라는 단어에 아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두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휙, 몸을 돌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밖을 나갔다.아인과 얘기를 했던 남자는 같이 온 동료에게 말했다.“나중에 저년 돈 구해오면 돈 받고, 쟤도 넘겨버려.”남자들은 나갔고 아인은 가만히 서있었다.남자들이 나가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다.한 시간을 울었을까.맘을 추스르고 조용히 집을 정리했다. 창문이 깨져 텅 빈 창틀에 비닐로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막았다.널부러진건 제자리에 놓고, 부러진 건 버리면서 머릿속을 정리했다.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곰곰이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질 않았다.'그냥 아버지를 데리고 멀리 달아나버릴까.. 그럼 안 잡힐수는 있을까? 잡히는 순간 팔리기도 전에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수도..’한참동안 벽에 등을 기대어 바닥에 앉아 생각을 했다.해는 지고, 밤과 새벽이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다시 아침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다가 아인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났다.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나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북쪽 지역의 데리와 리즈번 중간쯤에 살았었다.열여덟살 때쯤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엄마를 찾기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동 쪽 지방인 라우스의 이 곳 아르디에 오게 되었다.동생의 이름은 유디안 발렌스.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애칭으로 율이라 불렀다.동생 율은 어릴 때부터 북쪽에 있는 리즈번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을 나간 엄마를 찾으러 동쪽 라우스로 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자신은 안가겠다며 버티다가 아버지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엄마처럼 동생도 소리없이 사라졌다.결국 나와 아버지만 아르디에 오고, 이년동안 어머니를 결국 찾진 못했지만 여기서 살림을 꾸리고 살았다.열여덟에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 어느 날, 갑자기 동생과 나에게 엄마는“혹여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목걸이를 이용하렴.”그런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그땐 왜 그 말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을까.엄마는 그 때부터 떠날 결정을 했었나보다.그 목걸이는 외가에서 대대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보석이었다.동생의 말에 의하면 희귀성이 꽤 높은 보석 종류이며, 그만큼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알려주었었다.동생이 보석 쪽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석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동생은 이 보석의 가치를 수차례 설명하며 이 물건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누나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자신이 잘 갖고 있겠다며 가져갔다.지금 어디서 뚝, 하고 돈이 떨어질 일도 없고, 십만골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구할 방법 또한 없었다.아인은 그 목걸이가 동아줄이라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율한테 일단 가야겠어.’아인은 급히 시장을 향했다.아버지가 술만 먹지 않게 당분간 먹을 수 있는 빵과 식재료 등을 사와 수프, 감자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그릇에 담아 놓았다.밖에 널려있는 빨래들도 다 걷어 와서 차곡차곡 개서 쌓아 놓고, 아버지의 머리맡에 있는 방석 위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올려놓았다.이 돈으로는 제발 술만큼은 안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잠든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쓸쓸하게 웃으며 먼 곳을 떠나기 위해 아인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어차피 원래 갖고 있는 짐도 얼마 없어서 챙길 짐 또한 별로 없었다.먼길을 가야하니 중간에 대충 끼니를 때울수 있게 사과 한개를 챙기고, 하나 있는 작은 배낭안에 옷 두벌 정도 싸고 나니 더 챙길것도 없었다.술에 찌들어 자고 있는 아버지를 등지며 나는 북쪽 지역의 동생이 있는 리즈번으로 출발하였다.동생 율이 일하는 곳인 리즈번은 꽤 음지 같은 곳이었다.리즈번 전체가 일단 음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범죄도 잘 일어나고, 불법적인 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동생은 그래도 그나마 합법적이랄까. 나쁜 불법적인 일은 안했으니.일하는 곳이 좀 불법적인 곳이었지만 나름 합법이라고도 할 수 잇는 장물아비였다.말이 장물아비이지. 보석의 금액을 봐주면서도 음.. 살짝 허드렛일위주로 일을 했다.나이도 어리고 착해서 사람들이 허드렛일을 잘 시켰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은 열심히 일했었다.아인은 율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동생을 본다는 생각에 한 편으론 설레었다.개인 마차 같은 것이 없는 아인은 돈이 넉넉치 않아, 마차를 빌리는 돈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걷고 또 걸었다.마차로만 여섯 시간이라 걸어서 간다면 한참 걸릴듯하여 마차 대여하는 곳에 가서 마부에게 돈을 내고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걸었는데도, 걷는 것만 여섯 시간이 걸렸다.아침에 일찍 집을 나선 것 같은데 초저녁에는 도착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늦은 밤에 도착하였다.‘그래도 다행히 새벽이 오기 전에 도착했네.’걸어오면서 집에서 챙겨온 사과를 씹으며 동생 율이 일하던 곳으로 향했다.오랜만에 보는 동생 생각에 서서히 올라가는 입꼬리를 힘주어 내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문 앞쪽에 있는 작업대같은 선반에서 보석을 조심스레 케이스에 정리하는 긴머리의 사내는 누가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눈치였다.그에게 다가간 아인은 그의 어깨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렸다.“안녕하세요. 유디안을 찾으러왔는데요. 유디안 여기에 있나요?”동생이 일하는 건물에 직원으로 보이는 긴머리의 남자는 아인의 물음에 약간 황당한 얼굴을 하였다.“유디안은 그만둔 지 1년도 넘었는데요?”“네?”동생과는 연락을 안했긴 했지만 당연히 여기서 일 할거라 생각했는데.급하게 나와 살던 집으로 가보았지만 살던 집마저도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유디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다.아인은 시간이 너무 늦어 일단은 숙소에 방을 잡고 며칠을 머물며 여기저기 계속 찾아다녔지만 동생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혹여나 하는 생각에 일하던 곳에 가서 직원들에게 아는 정보가 있으면 말해달라했지만그만 둔 이후로 연락한통을 안했다는 말을 들었다.‘어떡하지..’길거리에서 우울해 하고 있는 아인의 앞쪽에서 인기척이 났다.“시아언니?”“..지유니?”지유는 아인의 몇 안되는 친한 사람 중에 한명으로 친동생 같았던 아이였다.“언니!! 이년동안 연락도 안되고, 무슨일이 있던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한줄 알아?”“미안, 미안.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연락자체를 생각을 못했어.. 잘살고 있었어?”참 많은 일이 있었다. 돈도 없어서 연락 같은 건 할 여유도 없었고.. 벌면 아버지가 쓰고 또 벌면 아버지가 또 쓰고. 쉴새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이었다.오랜만에 만난 지유와 이런 저런 여태 어떻게 살았고 얘기를 하다가여기를 온 사정을 말하며 동생 율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그런일이 있었구나.. 글쎄..나도 그 놈 이 년 전에 보고 못 봤는데.”지유의 말에 아인의 얼굴엔 울적함이 생겨났다.“근데 언니 내 친구한테 들은 말이 있긴 한데.. 그 얘들 기억해? 그 알리쉬네 패거리들? 최근은 아니지만 한달전쯤인가? 걔네 무리랑 같이 오마스 공원쪽에서 있었다던데..”너무 놀란 아인은 입을 떡 하니 벌리고 벙쪄있었다.알리쉬네 패거리얘들은 이 쪽 북쪽지방에서는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한 양아치들이었다.소문을 들어보면 안 좋은 불법적인 일도 한다고 들었었는데.‘그런 얘들 무리랑 있었다니.. 넌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거야...’“오마스공원 확실해? 오마스공원 어디쪽에서 봤대?”“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아인은 지유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를 알려주고, 나중에 만나자는 인사를 한 뒤에 급히 오마스공원을 향해 갔다.오마스 공원에서 동생을 찾아보았지만 동생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공원 바깥쪽의 상점에도 들려 상가들의 상인들한테 물어보면서 찾았지만 하나같이 모른단 말밖에 못듣고, 마지막 상점인 빨간지붕으로 된 무기판매점에 들어갔다.문의 종소리에 이마에서 눈쪽으로 흉터가 깊게 새겨져있는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가 나왔다.“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근처에서 오프 알리쉬란 아이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갈색머리에 눈이 땡글땡글하게 생긴 얘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갈색머리는 모르겠다만 오프 알리쉬는 저 쪽으로 나가서 왼 쪽에 긴 호수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폐건물이 보일 거다. 그곳에서 그저께 보긴 보았다.”“정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한참 고생 끝에 정보를 접한 아인은 들뜬 마음으로 폐건물쪽으로 나섰다.부랴부랴 급한걸음으로 긴 호수를 따라 내려가서 앞에 보이는 폐건물 쪽으로 갔다.해는 벌써 지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급한걸음으로 다리를 건너니 어두워서 잘 안보였지만 높은 폐건물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주변은 휑했고 폐건물 쪽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아인이 들리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느낌이 쎄했다.음산한 느낌은 그냥 밤이어서 그런걸까.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던 곳은 건축이 완성이 안 된 세 채의 건물이 있었고,..칼과 무서운 망치 같은 걸로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미친!!놀라서 소리를 낼 뻔 했지만 간신히 말이 나오기 전에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목이 잘려 데구르르 굴러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나마 깔끔하게 목은 붙어있는 쓰러져있는 시체 다섯 체..저 시체들은 그래도 깔끔하게 죽었나보다..다행이어야 할지. 동생 율은 그 자리에 없었고, 오프 알리쉬와 같이 다니는 무리 또 한 없었다.혹여나 긴 머리카락이 휘날리다가 눈에 띄게 될까봐 잡아보았더니 다행히 이 곳을 오기 전에 질끈 묶은 상태라 휘날리지 않았다. 머리를 묶고 나온 자신에게 속으로 칭찬을 하며 천천히 상황확인을 위해 머리를 내밀었는데..“저 년 뭐야!! 잡아!!”“헙!”내밀자마자 이쪽을 보던 무리 중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며 걸려 버렸다.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인은 뒤돌아서 사람들이 있는쪽에서 반대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잡히면 저 시체처럼 목이 댕강 떨어져 죽을거란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달리다가 운동 부족인 몸이 서서히 숨이 차는 걸 느끼며, 안되겠다 싶어 숨기 편해 보이는 동네 골목길로 숨어들었다.다행히 집들이 많이 있어서 어두운 이 밤에 숨기는 나름 좋았다.혹시라도 걸릴세라 제일 자리 좋아 보이는 곳을 급속도로 스캔하고 리어카 옆쪽에 지붕이 길게 뻗어있고, 옆쪽에는 숨을 수 있게 안쪽으로 공간이 있는 집을 찾았다.지붕 때문에 빛이 아예 차단될거라 생각하며 후다닥 숨었다.혹여나 옷의 끝자락 이라도 보일 수 있단 생각에 옷의 끝자락을 잡아 몸을 한껏 구석 안쪽으로 붙였다.곧이어 사람들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다.“아까 그 년 꼭 찾아야해. 그년이 신고하면 우리는 모가지야. 깔끔하게 없애버려.”“네!”한 명이 대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직속부하인지 명령에 힘차게 대답을 한 뒤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뒤지기 시작했다.몇 몇 사람의 걸음은 아인의 근처로 점점 가까워져왔다.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작은 거친 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들키지 않기 위해 안들리게 숨쉬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었다.머리라도 보일 새라 구석에 완전히 구겨진 채로 벽에 붙어있었더니 고개가 숙여져있어서 소리만 들리고 어디쯤에 있는지 볼 수가 없어 불안감이 최고치였다.한 명의 발자국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어?!"고개라도 올려서 확인해볼까 생각하던 중에 누군가에게 손목이 잡히며 구겨져 있던 몸이 펴지며 앞으로 당겨져 나왔다.“찾았습니다!! 여기있습니다!!”“꺄악!!!!!!!!!”퍽"컥!"아인은 너무 놀래서 반사작용으로 남자의 옆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컥하는 소리를 내며 남자는 아인의 손목을 놓쳤다.아인이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목을 힘껏 쳐버린것이었다.제 행동인데도 자신이 놀란 나머지 잠시 벙쪄있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느낀 아인은 미친 듯이 어두운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쪽으로 냅다 달렸다.‘이런 곳에서 죽고 싶지않아! 아직 이런 어리고 어린 꽃다운 나이에 벌써 죽을 수 없어!’다리는 떨리다 못해서 힘이 풀릴 지경이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바로 잡힌단 생각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집중력을 다해서 달렸다.건장한 남자들에게 쫓기는 거라 쉽게 잡힐 수 있단 생각에 나름의 계산하에 골목골목으로 숨어들었다.다행히 가는 골목마다 막히는 곳이 없었는데..“어?”항상 운이 좋을 순 없는 것인가.눈앞에 막힌 길이 보였다.주위에 어디를 봐도 갈 길이 없었고, 사람들의 뛰어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왔다.“이 년이 어딜 튀어. 이리 와.”“그,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저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었을 뿐이에요..”“하하, 그럴 거였으면 쫓지를 않았겠지.”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몇 마디 던졌지만 가소롭단 듯이 웃으며 무시한 남성이 아인을 질질 끌고 갔다.아인은 뒷덜미가 잡힌 채로 아까 있던 싸움 현장에 끌려가서 바닥에 내던져졌다.주변엔 시체와 다친사람이 깔려있었고, 그 여러 시체 가운데 아인이 내팽개쳐졌다.“어떡할까요. 지금 바로 죽일까요?”“좀 더 살려둬서 뭐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지금 죽여.”“꽤 곱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사창가에 팔죠?”"젊은 여자노예로 팔아도 쏠쏠할 것 같긴하네."남자들 사이에서 여러 무서운 말이 오고 갔다. 어떤 말이든 나한테는 적신호였다.나오는 말들로 본 내 미래는 팔리던지 죽던지 둘 중 하나였다.이 험악하게 생긴 무리들은 지들끼리 팔지 죽일지를 논의를 하고 있었다.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려 해도 이젠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고, 사방에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두세 걸음만 나아가도 바로 잡힐 듯하여 시도조차 못하였다.만약 또 도망가다 잡히면 진짜 죽겠지..?한참 논의 끝에 결정이 났는지 한 남성이 칼을 손으로 가지고 놀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살,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낄낄, 뭐든지? 뭘 할 수 있는데?”남자는 가까이 와서 아인의 앞머리를 걷으며 두 볼을 잡고, 히죽 웃으면서 아깝단 듯이 말했다.“음.. 진짜 그냥 죽이긴 아깝긴 하네.머리카락을 치우니까 상품가치가 꽤 있어 보이는데.”“짐 만들지 말고 얼른 죽여. 슬슬 정리하고 가야지.”“네. 알겠습니다~”히죽이던 남자가 칼을 다시 제대로 잡는 순간아인은 이젠 칼에 찔리겠구나. 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드디어 잡았네. 쥐새끼들”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목소리가 지금 있는 남자들과 달리 많이 앳되어 보였다.뭐랄까 나이가 있어도 십 대,이십 대 정도로 들렸다.지금 앞에 있는 남자 무리들이 30대에서 40대의 걸걸한 목소리라면 이 남자의 목소리는 많이 청량해 보였다.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더니 두 개의 단추가 풀어진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 오고 있었다.새까만 머리카락이 이마가 보이게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 눈은 약간 찢어졌는데 찢어진 눈이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으나 눈 밑 애교 점이 그의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듯 있었고, 햇볕을 안 보고 살았는지 피부는 눈송이처럼 하얗고 키는 180 이상은 되어 보였다.입고 있는 얇은 와이셔츠가 바람에 날리며 보이는 상체는 와이셔츠에 가려져있음에도 다부진 체격이 눈에 보였다.'몸이건 얼굴이건 참 잘생겼다..'이 상황에서 내가 미쳤나 보다. 때를 안 가리고 얼굴에 감탄을 하고 있다니.“넌 뭐야?”“나? 너네 잡으러 온 사람이지.쥐새끼들처럼 하도 잘 튀어서 못 잡다가 오늘 드디어 잡았네.”아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모여들었고, 바로 싸움 장면으로 급전개 되었다.아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다.남자 무리는 자기들은 10명 이상이나 있으면서 혼자 온 남자를 향해 무기를 들이대며 달려들었다.눈물점 남자는 손을 탁, 튕겼다.순간 남자의 손위에서 거대한 불길이 일더니 점차 커져 아인을 죽이려던 남자 무리의 주위를 에워쌌다.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듯 보였다. 그러고는 그 남자는 그 원형의 불 안에 들어갔다.그 모습을 보던 남자무리들은 계획한 것마냥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한 10분이 지났을까? 할 말을 잃었다.한 명이 혼자서 열 명 이상의 한 무리를 다 쓰러뜨렸다..'이 새끼들.. 그냥 양아치인가? 뭐 이리 한 두 대 맞고 허무하게 쓰러져?..'이 무리가 약한 건지. 남자가 지나칠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건지.눈물점 남자는 내 쪽으로 고개를 쓱 돌렸다..“너도 같은 무린가?”“네? 아, 아뇨!!”'뭐를 봐서 같은 무리냐고 물을 수 있는거야?'부시럭, 다른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다.“괜찮으십니까!? 왜 같이 가지. 먼저 가셨습니까. 위험하게.”눈물점 남자의 지인인 듯한 긴 머리의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위험하다 싶으면 빨리 와야지.”“그냥 예의상 던진 말이죠. 카엘님이 위험하실 리가 없잖습니까.그런데 이 여성분은 누구...?”“모르겠네. 일단 이 바닥에 있는 것들 처리부터 하지.”주위를 막고 있던 불들이 사라지고, 눈물점 남자와 긴머리의 남자가 눕혀져 있는 무리들한테 시선이 가있을 때.때는 이 때다 하는 생각에 부리나케 바깥쪽으로 달려갔다.이런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건 피하고 싶었다.이 두 사람이 누구이건 저 무리들이 누구이건 그건 중요치 않다.어차피 헤어질 인연이고, 아인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긴 머리의 남자가 나를 붙잡으려 했던 것 같았지만 뛰어가는 나를 다행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지 않아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한참을 달렸을까. 근처에 잡아놓은 숙소근처에 도착하였다.혹여나 누가 따라왔을지도 모른단 생각에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아무도 없는걸 확인한 뒤 조심히 숙소로 들어왔다.방안까지 들어온 아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다시피 무릎을 꿇었다.‘오늘 뭔 일이 있던 거지?’아직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혹여라도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새벽이라도 잡혀서 죽을 수 있단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 떨었다.'안되겠어. 숙소를 다른 곳으로 잡아야지..'내일의 행선지와 숙소 잡을만한 위치를 한참 동안 종이에 끄적이며 생각하였다.아무래도 숙소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그래. 무기 상점에 가서 알리쉬 페어리에 대해 좀 물을 겸 그 근처에 일단 숙소를 잡고..한참 계획을 세우던 아인은 쌓인 피로에 스르륵 잠이 들었다.커튼도 제대로 치지 않고 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아침 일찍 눈을 떴다.어제 너무 무리하게 뛰어다니고 늦게 잠들어서 너무 피곤했지만 한 시라도 일찍 나가서 찾아야 했다.씻고 나서 펼쳐져 있던 짐들을 가방에 빠짐없이 싸 들고 숙소 밖으로 나갔다.어제 갔던 건물에 오늘 다시 가면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아인은 길거리에서 두 다리를 팔로 감고 쭈그려 앉아,햇살을 맞으며 생각에 빠졌다.연락을 할 수도 없고, 어딨는지도 모르고 미칠 지경이었다.'시간도 얼마 없는데..'가만히 쪼그려 앉아, 다리를 감싸고 바닥을 보며 아인은 우울해했다.땡그랑, 아인의 눈앞에 동전이 굴러왔다.동전의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폐건물에서 만난 눈물점의 잘생긴 흑발 남자였다.얼굴에 잠시 홀리듯이 넋 놓고 보고 있다가 굴러온 동전에 시선을 옮겼다.아 동전을 나에게 굴렸..“동냥하는 거 아니거든요!”남자는 살짝 개구진 표정으로 웃더니 아인을 보았다.“어제 나 기억나지?”'날 잡으러 왔나봐!'놀란 표정을 들킬세라 얼굴을 휙 돌렸다.순간 머리를 나름 굴려 모른척 잡아떼는것이 상책이란 결과를 내놓았다.다시 고개를 원위치시켜 무표정으로 입을 열었다.“처, 처음 뵙는데요?”"거짓말할 때는 말을 더듬으면 안 돼.”“사람 자,잘못 봤어요!”아인은 짐가방을 힘주어서 쥐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피하려는 아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물점 남자는 자연스레 아인의 옆에서 걷고 있었다.“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해. 엄연히 도와준 거나 다름없는데 서운하게. 그때 위험했던 것 아니었어?”‘..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왜, 왜 따라오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봤다니깐요.”“흐음?"아인은 남자의 반응이 어떻건 빠른걸음으로 걸었다.한참을 빠른걸음으로 걸었더니 따라오던 발걸음의 소리가 멈추었다.아인은 뒤의 남자를 무시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제 갈길로 빠른 속도로 걸었다.참 이상한 사람이야..아인은 한참을 걸어서 멀어졌을때 뒤를 돌아보며 남자의 형체가 아예 사라진걸 확인하고, 안심의 한숨을 쉬며 전에 갔던 무기상에게 가보았다.혹여나 다른 정보도 있을 수 있어.무기상점 안에는 전에 있던 그 무기상 아저씨가 다행히 있었다.아인은 해맑게 웃으며 무기상 주인에게 다가갔다.“안녕하세요!”무기상은 대답도 없이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 덕에 칼자국이 있는 얼굴은 더 무섭게 느껴졌다.겁먹지마. 겁먹으면 안돼. 그냥 사람이다.아인은 자신의 겁먹은 얼굴이 무기상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티를 안내기위해 노력했다.“제가 그 폐건물에 어제 갔다 왔는데요..”“어제 언제?”“그.. 한 밤 8시쯤...아니... 아닌가.. 언제는 왜요..?”“아니다. 하던 얘기 계속 해봐.”"음.. 근데 갈색 머리도 없고, 그 알리쉬랑 같이 다니던 무리들도 없더라고요..혹시나 다른 정보 아시는 것 있으시면 다른 아시는 거라도 좀 알려주세요.”무기상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인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그 무리는 안 마주치는 게 좋아. 어디 가든 사고만 치고 다니지.동네 사람들도 다 피하는 아이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어. 그런 녀석들을 왜 그렇게 찾는 거냐.”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본 적도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조금 조심스러웠다.그나마 나한테 친절한 것 같기는 하다만.. 어느 정도는 말해야 할까?“..리즈번 21번 도로에 있는 레모네이드란 가게에 앨리란 여자아이를 찾아가 보거라.그 아이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확실치는 않다.”내가 대답하는 걸 꺼려한다는걸 눈치챘는지 무기상 아저씨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넘어갔다리즈번 21번 도로란 어릴 때부터 익히 유명한 곳이었다.여자들이 술을 파는 곳으로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과 술을 먹기 위해 가는 술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다.그런 어두운 곳을 가라니..“그 아이가 이곳에서는 정보 쪽으론 빠삭하지. 가보면 득이 되는 이야길 하나쯤은 들을 수 있을거다.”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곤 밖으로 나왔다.아인은 발걸음이 무거워졌다.초저녁이 되며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아인은 더 늦기전에 서둘러서 리즈번21번 도로로 출발하였다.리즈번21번가거리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의 술집들이 즐비 서있고, 그 가운데 커다란 밝은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있는 레모네이드 간판이 보였다.건물 외벽 쪽엔 붉은 꽃들이 넝쿨처럼 얽혀있었고, 간판 아래의 가게의 앞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노란 조명이 화려하게 켜져 있었다.조심히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자들이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여자 한 명씩은 기본으로 팔짱을 낀 상태로 오가고 있었고, 대화소리가 홀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도 삼킬 만큼 참 시끄러웠다.말 그대로 시장터였다.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시장터..앨리란 사람을 찾기 위해 물어볼 사람을 찾는 도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홀 중간 쪽에서 푸른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하고 있는 게 이곳의 책임자 같았다.푸른색 투피스를 입은 여인에게 아인이 다가갔다.“저기 혹시 앨리란 분 계시나요?"“무슨 일이시죠?”“아..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시 볼 수 있을까요?”여자는 잠시 동안 아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단 물어보겠다며 자리에서 사라졌다.남녀들이 오가는 곳의 홀 중간에 가만히 서있으려니 무안해져서 구석으로 가서 서있는데구석에 있어도 불편함이 가시질 않았다.오분 정도 지났을까? 여기랑 어울리지 않는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저한테 물어볼 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누구시죠?”“아.. 안녕하세요.”아인은 급하게 누구를 찾고 있는데 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며 조곤조곤 설명을 하였다.“흐음.. 알리쉬랑 갈색 머리라.. 갈색머리는 모르겠고 갈색머리는 본 적이 있긴 하죠. 눈에 띄는 애들이잖아요? 하는 짓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여기서도 찾을 수 없는 건가. 약간의 희망이 보였던 아인은 다시 축 처졌다.축 처진채로 힘이 빠진 아인은 알겠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앨리 언니. 그 갈색 머리라는 아이 주르아님이랑 같이 있던 그 아이 아냐?”“보셨나요?!”아인은 앨리의 옆에 있는 여자아이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앨리란 여자아이의 옆에 있던 아이는 날카로운 외모와 다르게 친절하게 지도로 그려주며 상세히 설명해주었다.“진짜 감사해요. 시간은 없는데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해서 난감했거든요.”“언니, 근데 이걸 안다 해도 거기는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에요?"“네?”“멜포니 가의 저택은 가주 주르아님이나 아님 가족의 허락하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주르아님이나 그 가족분들이 너그럽게 들여보내진 않을 텐데요.”그것까진 생각을 못 했었던 아인은 미간이 찌푸려졌다.아인의 마음을 읽었는지 여자아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하였다.“흠.. 보안 때문에 쉽게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누굴 찾으러 왔다 하면 귀담아듣지도 않고 말도 끝마치기 전에 내칠 수도 있고요. 약속을 했거나 높은 귀족이 아닌 이상 쉽게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흐음.. 글쎄요.”"몰래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그렇지만 몰래 들어가면 주르아님께 물어보진 못하고, 찾는 분이 그 저택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거예요.""찾으려면 여기저기 다 뒤져야 할 텐데 그때까지 안 잡힐 수 있을까요?"세 명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내가 들여보내줄까?”남성의 목소리에 세 명 모두 미어캣처럼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그때 그 남자였다. 눈물점의 흑발 남자.“카엘님도 못 들어가시지 않아요? 그 집안 아드님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개판 싸우지 않았어요?”앨리란 여자아이는 그 남자와 친한지 말하는 게 편해 보였다.“개판이라니. 그 독두꺼비 놈이 개처럼 달려드는 걸 처리한 거지.”'...그게 그거 아닌가?'아인이 보는 시선을 알아챘는지 아인 쪽으로 시선이 왔다.“또 보네?”아인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홍등가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도 웃기지 않은가?참 뻔뻔한 남자다.반반하게 생겨서 여자도 잘 꼬이겠는데 이런 곳까지 오다니 여자가 얼마나 좋으면.아인은 속으로 혀를 찼다.“난 반가운데 내 앞의 분은 아닌가 봐? 서운하려 하네.”“안녕하세요. 그럼 이만.”첫인사와 끝인사를 한 번에 하고 앨리란 아이와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왔다.술집 안의 연초 냄새랑 시끄러운 소리와 저 남자까지 있으니 머리가 아팠다.지난번에 사람들을 쉽게 눕혀버리고, 불도 만드는 거로 봐선 분명히 높은 마법산데.마법사는 얽혀봤자 좋을 게 없다.일반 사람이랑 마법사의 세계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마법사는 황실의 기사이거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내 동생은 전에 일하던 곳도 불법이 아닌 보석감정을 하는거였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합법적인 곳도 아니었다.장소 자체가 음지에 가까운 불법인 곳이었으니.지금도 불법인 곳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마법사랑 엮이면 나라에 잡혀가게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엮이면 안 돼.’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니 좀 아쉬웠지만 동생과 엮여서 동생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다.밖으로 나와 보니 해는 저물었고.. 안되겠어. 오늘은 일단 멜포니가의 건물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고..“어디 가?”“엄마! 뭐예요 거기 왜 서있어요?”남자는 레몬에이드 술집의 지붕 위에 끝쪽에 걸쳐서 서있는 상태로 한손은 주머니에 한손에는 불에 붙은 연초를 들고 있었다.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게 얼마나 아찔한지 바라보는 내가 손에 땀이 났다.남자는 살짝 중심을 잘못 잡아도 바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음에도 남자의 표정은 편해 보였다.“얼른 내려와요. 위험하잖아요.”남자는 가뿐하게 뛰어내렸다.아인은 뛰어내린 남자를 보다가 휙 돌려 제 갈 길을 갔다.남자는 그런 아인을 따라왔다.“저기요. 왜 따라오세요.”“거긴 왜 가려는거야?”“모르셔도 돼요.”“거길 들어갈 방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려고? 특히나 이 늦은 시간에 들어간다고?”“아뇨.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 근처에 숙소에서 머물고.. 아니..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머리가 바보가 되었는지 자연스레 대답하고 있었다.“들어갈 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야?”“...”“나는 도와줄 수 있는데.”아인은 옆으로 고개를 돌려 남자를 쳐다보았다.흑발남자는 아인을 향해 예쁘장하게 웃었다.흑발남자는 예쁘장하게 웃었다.이 사람은 미소만으로 사람을 홀릴 줄 아네.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다.하지만 그 웃음자체에 경계심이 더 강해졌다.어른들 말씀 중엔 예쁜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고 하질 않던가.더군다나 초면인 내게 이런 호의라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아인은 카엘을 쏘아보듯이 올려보았다.“절 왜 도와주시는데요?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이유가 뭐가 중요해? 들어가려는 이유를 알려주면 안으로 데려다줄게.”“낮에도 그런 술집에 드나드는 분을 믿기는 좀 위험한데요.”“아?”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더니 풋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여길 온다고 다 여자랑 놀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야. 볼 일이 있어서 올 수도 있지. 성격이 꽉 막혔네?”여자가 술 파는 곳에 볼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여러 번 들렸던 것처럼 익숙하게 지붕까지 여유롭게 서있었으면서.“어떻게 데려다주실 건데요? 계획을 좀 얘기해봐요.”아인은 속으로 계획만 일단 들어보고 헤어질 계획을 하였다.“에이, 협상이 안되었는데 알려줄 순 없지.”'쳇, 생각보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제가 알아서 할게요.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살펴 가세요.”아인은 일말의 아쉬움도 없애고 인사를 했다.“흠 아쉽네. 잘 가."아인은 남자가 계속 귀찮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 달리 남자는 시원하게 돌아서서 사라졌다.'이상한 남자야.'아인은 잠잘 곳을 찾기 위해 걸었다. 머릿속에선 남자를 생각하며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과 잘 떨쳐냈다는 생각이 오고 갔다.얼마 안 걸어서 앞에 숙소가 보였다.아인은 쉴 피곤에 절어 얼른 들어가서 방을 빌렸다.숙소 아주머니가 건넨 키를 받고 방으로 향했다.여기 와서 방을 빌려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신의 집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늑하여 기분이 좋았다.각 잡혀 접혀있는 이불을 펼치고 푹신한 이불에 대자로 뻗은 아인은 천장을 보며 생각에 빠졌다.여기에 머물며 숙박비에 식비까지 해서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최대한 아끼기 위해 빵조각으로 배를 채우고, 고기는 쳐다도 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헤프게 없어졌다.내일부터는 빵도 사치인가? 아인은 빵마저도 못 먹는단 생각에 우울해졌다.'얼른 동생을 찾아야 다시 집으로 가야지 일해서 돈이라도 벌 텐데..'아버지는 잘 살고 있을까. 동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답함에 이불을 걷어차버렸다.한참을 온갖 생각을 하다가 요 근래 너무 돌아다니느라 몸이 피곤했는지 점심시간까지 자버렸다.급하게 세수랑 이만 닦고 숙소를 나오는데 배가 너무 허전했다.‘배고프다..’진짜 너무 배고프다. 어제는 저녁도 안 먹고 잠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더 배가 고팠다.빵이라도 사 먹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아인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서 위쪽으로보니.“늦게 일어났네?”흑발의 남자가 어제와 같은 자세로 지붕 쪽에서 여유롭게 서있었다.자칫하면 다리 하나 정도는 못 쓰게 되는 건데 참 겁이 없었다.아인은 남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여긴 어떻게 알았어요?”“뭘?”“제가 여기 있는 거요!”'어찌 쉽게 떠나더라니. 따라 왔을줄이야.'“여긴 내가 저번 주부터 숙소로 잡고 있는 곳인데.”남자는 바람 새는 웃음소리를 내며 이상한 아이를 보는 듯이 아인을 보았다.“아, 아니 여기 리즈번 쪽에서 살고 계신 분 아녜요? 왜 숙소를 잡아요?”행색을 보면 집이 없어 보이진 않은데.“흠.. 내가 따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남자는 씩 웃으며 가볍게 뛰어내리더니 느긋하게 기지개를 켰다.꼬르륵“...”꼬르륵아인은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무표정으로 일관했다.“밥 먹어. 배가 울잖아.”아인은 배에서 울리는 커다란 뱃고동 같은 소리에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졌다.“먹을 거예요! 빵 사 먹을거거든요?”부끄러움에 아인이 바락바락 대답하였다.“빵 정도로 가볍게 먹었다간 배가 더 화를 낼 것 같은데.”“신경 쓰지 마세요.”몸을 획 돌려 재빨리 장소를 떠났다.길거리에 나온 아인은 거리에 파는 빵 가게에 들러 제일 저렴한 거로 골라서 입에 물고 천천히 걸었다.‘그래.. 빵은 참 가벼워.. 배가 그다지 차질 않잖아.’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두고 천천히 빵을 음미했다.맛이라도 음미하자. 양보다는 맛이지.빵을 먹던 아인은 다시 생각에 잠겨 침울해졌다.어떻게 알리쉬가저택 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그냥 일단 문을 두드리고 당당하게 말이라도 해볼까?앨리에게 들어보니 귀족도 아니라고 문전박대를 할 것 같긴 하지만.일단 앞에서 지켜보면서 분위기라도 살펴봐야겠단 생각에 한 입 크기의 마지막 빵조각을 안에 쏘옥 집어넣고 출발하였다.아인은 알리쉬가(家) 저택 안을 쓱 훑어보았다.'너무 앞에 대놓고 보고 있으면 수상하게 생각하겠지?'앞쪽이면서 너무 앞쪽이지 않고,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면서도, 눈에 안 띄는 곳을 찾다가 저택 앞의 큰 나무 뒤쪽으로 숨었다.아인이 저택을 편하게 잘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눈에 안 띌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었다.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사람들이 왕래는 자주 하는데 그중에 갈색 머리의 사람은 없었다.건물 안에서 안 나오는 걸까, 잠시 다른 곳에 갔나, 없는 건 아닐까?여러 생각을 하며 계속 지켜보았다..지켜보던 저택 안에서 조그마한 귀여운 강아지가 빼꼼 머리를 내밀더니 깡총하면서 밖으로 나왔다강아지는 출입이 자유롭구나. 나도 너처럼 편하게 출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아인은 편하게 드나드는 강아지가 내심 부러워졌다.강아지는 토끼처럼 얇으면서 새하얀 몸을 하고, 꼬리의 긴 털을 좌우로 흔들면서 돌아다녔다.얇은 다리는 길게 뻗어있고, 껑충껑충 뛰는 게 마치 토끼 같았다.‘너무 귀여워..’강아지는 아인이 숨은 나무쪽에 오더니 킁킁대며, 근처를 맴돌았다.아인은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며 강아지의 행동에 눈에 띄어 혹여나 사람들이 이쪽을 집중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다.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있으면, 몰래몰래 보는 걸 들킬 수 있으니.강아지는 아인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킁킁대며 돌아다니더니 한자리를 돌기 시작했다.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스럽게 강아지를 보는데 강아지는 도는 것을 멈추더니 일을 보기 시작했다.그러고 보니 강아지는 볼일을 볼 때 한자리를 돈다고 어디서 본 것 같네.“저세상 힘까지 끌어모아서 쓰는 것 같네.. 입모양이 참 열정적이야.”말이 심하네. 아무래도 자세도 그렇고 입 쪽도 힘주느라 꾹 다물고 살짝 힘주고 있는 보이긴 하지만.. 어..?아인은 화들짝 놀라 목소리가 돌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눈물점 남자가 서있었다.강아지도 말을 알아듣는지 온 힘을 쓰는 와중에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냈다.“여기 왜 있어요?”“들어갔나 하고 궁금해서."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허...”남자와 나 사이엔 적막이 흘렀고, 그 사이로 뱃고동 소리가 났다.꼬르륵“밥도 안 먹고, 여길 온 거야?”“아, 아녜요 빵 먹었는데.. 그냥 소화되는 소리에요.”“흠?”흑발 남자는 피식 웃었다.빵을 먹었어도 꼬르륵 소리는 참 컸다.부끄러움을 감추려 알리쉬가 건물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내가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생각해보니까 나도 밥을 안 먹었네.”“아녜요. 괜찮아요.”“정말 괜찮아? 배는 안 그렇다는데?”“괜. 찮. 아. 요. 그쪽이나 먹어요.”민망함에 빨리 가라고 한 글자 한 글자 악센트를 주며 말했다.“그래. 그러지 뭐.”남자의 시원하게 휙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이 피어났다.‘.. 밥값을 아끼려면 얻어먹는 것도 괜찮진 않을까.. 밥만 얻어먹고 깔끔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아인은 배고픔에 경계심이 차차 사라지며 남자의 권유가 달콤하게 느껴졌다.고민 끝에 아인은 두 걸음 정도 뗀 남자의 소매를 잡으며 멈춰 세웠다.“사 주신다는데, 한 번 먹죠 뭐.”남자는 피식 웃으며 그러든지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뗐다.아인은 남자를 조용히 따라나섰다.식당에 들어간 둘은 마주 보고 앉았다.‘아, 어색해라.’남자는 직원을 불러서 메뉴판을 펼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음식을 주문했다.남자의 주문을 받은 직원은 내 쪽으로 시선을 두며 어떤 걸 주문하겠냐고 물었다.살짝 눈치는 보이지만 요새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을 참고 살았기 때문에 체면과 양심 보단 음식이 우선이었다.메뉴판을 보며 꼴깍, 침을 삼키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천천히 보면서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지만 배는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았다.급속도로 훑어본 아인은 직원에게 크림을 얹은 크루아상과 살짝 매콤한 봉골레 파스타와로제파스타 그리고 제일 먹고 싶었던 안심스테이크를 주문하며 후식으로 셔벗까지 주문하였다.'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얻어먹는 건데, 철면피 좀 깔자.'주문을 하고 맞은편을 보니 남자는 재미있는 걸 보듯이 아인을 보고 있었다.민망함에 살짝 얼굴에 열이 올랐다.“배가 그렇게 고팠어?”“얻어먹는 김에 제대로 먹어 보려고요.”좋아. 당당했어.남자는 피식 웃더니“그래, 많이 먹어.”이 말을 하고 창가를 구경했다.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공기가 흘렀고, 어색함을 이기지 못한 내가 말을 걸었다.“근데.. 이름이 뭐예요? 전에 그 남자들은 정체가 뭐예요? 그 남자들을 왜 잡은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어떻게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여태 하나도 안 물어봤어?”“음.. 하나씩 물어볼게요.”“전에 그 남자들은 누구예요? 그때 찾았다 했었잖아요. 찾았다는 건 이미 알던 사람이란 거잖아요.”“걔네를 안다기보다는 그놈들의 신상정보만 알고 있었다고 봐야지. 잡아야 했으니까. 간단한 신상정보 말고는 그다지 알고 있지 않아.”뭐지.. 기사단 그런 비슷 한 건가?“왜 잡아야 했는데요..?”“흠. 일이니까?”“아니.. 그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음.. 글쎄 뭐라고 해야 하나.”남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였다.“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아인이 기다리는 대답이 아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이 왔다.“그때, 그 불 그쪽이 만든 거 맞죠? 마법사인 건 알겠고.. 혹시 황실 그런 데서 일하시는 건가요?”꿀꺽.기사단 그런 거면 난 밥이고 뭐고 도망을 가야 했다.엮이면 동생이 혹여나 불법적인 일을 할 경우엔 동생의 신변을 알려준 셈이 되지 않는가?대답이 뭐라 나올지 궁금하고 긴장되어 죽겠는데,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남자는 답을 바로 안 하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날 빤히 보았다.그러던 와중에 식사가 나왔다.아인은 빨리 먹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남자의 대답이 더 궁금했다.“말해줘도 상관없는데, 갑자기 말해주기 싫어졌어. 밥이나 먹어.”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말없이 식사에 집중했다.대답 같지 않은 대답을 들은 남자를 보던 나도 더 이상 묻는 걸 잠정 중단하고,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다.일단은 음식이 더 중요했다.‘와.. 진짜 너무 맛있어.. 고기의 식감을 내가 잊고 살았나 봐, 그래 이 맛이지.’한입을 씹었더니 나오는 육즙에 감동하여 눈물이 나올 것처럼 황홀했다.아인은 크루아상과 파스타, 스테이크를 동시에 먹기 시작했다.짧은 시간에 그 많던 음식들은 사라졌고, 마지막 스테이크 한 조각까지 다 먹어치웠다.너무 행복해서 미소가 절로 나왔다.맞은편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어보니,남자는 식사를 멈추고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돼지가 빵을 먹었으니, 배가 성에 안 차지.”빠직, 행복한 얼굴에서 화로 인한 핏줄이 이마에 생겨났다.식사 그릇은 치워지고 후식으로 홍차와 셔벗이 나왔고, 아인은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꿋꿋이 셔벗을 밑바닥까지 다 먹었다.“그거는 알려줘요.”“뭘?”“이름이요. 밥 사준 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흠?”싫은가?“대답하시기 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잘 먹었습니다.”안 알려주면 뭐. 할 수 없지.미련없이 나는 먼저 일어나서 가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섰다.“카엘.”“네?”“카엘. 카엘 블리스.”카엘 블리스라.. 뭔가 익숙한 이름인데, 어디서 들었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넌?”“네?”"넌 이름이 뭐야?""아.."순간적으로 생각없이 바로 대답을 하려다가 다행히 내뱉기전 정신차려서 입밖으로 내뱉진 않았다.아무래도 마법사에게 실명을 말하긴 뭔가 찝찝했으나 이름은 흔한거니 괜찮겠다 생각하였다.“아인이요.. 아인.”“아인?”“네.”카엘이란 사람의 얼굴엔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보였다. 왜 그러지?“왜 그러세요?”“음, 아냐. 일단 해지기 전엔 저택 안에 들어가야지? 이러다간 식당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어.”식당에 온 지도 벌써 한 시간 넘게 먹긴 했으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었다.“들어갈 방법 알고 계시다면서요. 알려주세요.”“응? 필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더니 왜 물어?"카엘은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지었다."일단 한번 들어보려구요."아인이 뻔뻔하게 곧장 대답했다."하긴, 방법이 있었으면 나무 뒤에 숨어 있진 않았겠지."대꾸할 말이 없는 나는 눈만 돌렸다.“도와줄까?”“네.”카엘의 해맑은 웃음과 호의에 뭔가 이질감이 들었지만 아인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계속 저택 앞에서 숨어 있을 순 없었으니.“내가 이런 건 좀 귀찮아 하긴 하는데, 뭔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카엘은 뜸을 들이다가 결정을 했는지 무표정으로 따라오라며 앞장서서 걸었다.카엘은 아까 아인이 숨어있던 나무에 아인이 숨어있던 위치에 다시 아인을 숨기고 자신도 옆에 붙어서 같이 숨었다.나무에서 머리를 살짝 내밀어서 주위를 계속 살펴보다가 숨고, 다시 내밀어서 살펴보다가 숨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니 지금이라며 나를 이끌었다.그렇게 카엘이 이끈 곳의 앞엔 식량을 운송하는 마차가 서있었다. 앞쪽에는 마차로 마부가 앉을 좌석과 운송을 도와줄 말이 있고, 그 뒤엔 바퀴가 달린 식량이 담겨 있는 칸이 철로 이어져 있었다.카엘은 식량을 가리고 있던 천막을 들쳤고, 멜포니 가문으로 들어갈 식량들이 보였다.마차 주인은 문지기한테 들어간단 허락을 받는 것 인지 마차에서 내려서 문지기와 둘이서 말을 하고 있었고, 카엘은 식량 칸 안에 재빠르게 들어간 뒤, 손짓과 눈짓으로 나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뭔데.’나는 남자에게 입모양으로 물었다.그 알고 있다는 들어가는 방법이 이런 허접하면서도 허무한 그런 거였던 거야?남자를 잠시 동안 멍하니 쳐다보다가 누가 볼세라 식량칸에 후다닥 들어갔다.“안 들키고 가려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걸 이용하는 게 좋지.”카엘은 아인에게 작게 속삭였다.그래. 그건 그렇네..남자의 말을 수긍한 나는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혹여나 누가 열어보진 않을까. 긴장이 되어 손엔 땀이 났다.다행히 마차는 둘이 탄 걸 눈치 못 채고 조용히 출발을 하였다.다그닥, 다그닥, 앞 쪽에 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식량이 담긴 칸은 들썩거리며 마차의 몸체가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였고, 식량 칸의 들썩임이 심해지며 몇몇 개의 과일과 야채들이 튕기듯이 뛰어올랐다가 내려앉았다.큰 저택이라 그런지 식량을 놓는 곳에 가는 것인데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마차의 소리가 서서히 조용해지면서 말들의 발소리도 멈추었다.드디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긴장한 아인에게 카엘이 귓속말로 먼저 내려서 상황을 보겠다며 식량 칸에서 나갔다.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 칸 천이 거둬지며 카엘의 얼굴이 보였고, 손짓으로 얼른 나오라는 신호를 보고 아인이 곧바로 내렸다.나가는 중에 발에 야채가 치이기라도 했는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다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덜컹 내려앉으며 얼어있었으나 다행히 카멜이 손목을 잡고 식량 칸에서 나오게 이끌어주었다.둘은 식재료 넣는 리어카에서 벗어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주위를 살펴보며 이동했다.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는데 카엘은 와본 적이 있는지 길을 아는 것처럼 내 손목을 잡고 인도했다.아인은 갈색 머리의 자신의 동생을 찾아 두리번거렸다."뭘 그렇게 찾는 거야?""동생이 어딨는지 찾아야죠.""찾기 전에 잡힐걸.""아니, 그럼 왜 들어온 거예요?""굳이 몸을 써서 찾을 필요는 없잖아?"카엘의 말에 의문을 품은 아인이 미간을 찌푸렸다."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찾아요?""정면돌파해서 묻는 게 낫지.""몰래 들어와놓고 정면돌파요?"카엘은 말없이 아인의 손목을 잡고 한곳으로 향했다.수많은 방문들을 거치고, 복도를 거치고 계속 걷다 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주변에는 시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살짝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있었고, 몇몇의 여자 시종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남자의 옷매무새를 정돈해주고 있었다.“쟤야. 주르아 멜포니.”카엘은 천천히 남자가 있는 방 쪽으로 이끌었다.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는 뭐가 맘에 안 드는지 표정이 안 좋았다.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인상도 그렇고 얼굴의 본판 또한 성격이 참 안 좋아 보였다.아인은 눈앞에 있는 남자에게 동생에 대해 물어보기가 살짝 겁이 났다.'시종들의 수가 좀 줄어들면 가볼까?'순간 옆자리의 허전함이 느껴져서 보니, 카엘이란 남자는 언제 갔는지 멀찌감치에서 자신에게 손으로 인사를 하고 있었다.뭐야.. 데려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건가..카엘의 예고 없는 떨어짐에 더 겁이 났지만'그래, 어렵게 들어왔는데 목적은 달성해야지.'얼굴을 보고, 물어보고 후다닥 나가자.옷매무새를 정돈해주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뒤이어서 다른 시종들도 하나둘씩 나가고 있었다.지금이 기회라고 느낀 나는 천천히 발을 뗐다.보는 사람이 있나 고개를 좌우로 돌려 확인한 뒤,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남자는 내가 낸 문소리에도 놀라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단 듯이 태연하게 날 보고 있었다.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넌 뭐야?”“저.. 실례지만 여쭤볼 것이 있어서 무례를 범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무얼?”“그..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혹시 남자아이인데 갈색 머리에 눈은 동그랗고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한 아이 기억하시나요?”아인은 그 외에 자신보다 두 뼘 정도 키가 크다. 등등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그 아이의 행방을 알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고작 그 아이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이 집을 침입했다라...”“고의는 아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선 죄송해요.”“설명에 비슷한 아이를 본 적은 있지.”“보셨다고요?!”“흠, 그 아이가 맞는 것 같은데.”“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대충 생각나는 것은 있긴 한데.”남자는 말을 끝맺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을 흔들었다.종소리가 울리고 곧이어 시종들이 들어왔다.“굳이 알 필요 없잖아? 보지도 못할 텐데.”“네?”“이렇게 몰래 침입한 것을 고작 죄송하단 말로 쉽게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남자는 시종들에게 나를 잡으라고 지시했다.이대로면 경비대에 붙잡혀 갈 수 있었다.주르아 멜포니의 시중들은 아인의 손목과 어깨를 잡았다.놓아달라고 부탁하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지만 여러 명의 시종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도망가지도 못하게 잡힌 나는 남자에게 간절히 말했다.“한 번만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촉박해서 무례를 범했습니다.부탁드릴게요.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큰 소리로 간절히 말했건만 남자는 아인을 벌레보듯이 흘겨보더니 무시했다.쿵,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문의 열리는 방향을 따라 같이 방 쪽으로 쓰러졌다.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의 뒤쪽으로 카엘이 서있었다.‘간 거 아니었어?’“둘이 쥐새끼처럼 몰래 이 안에 들어온 거야?”“고생 좀 했지.”“여자도 끼고 다니고. 별일이야~ 카엘 블리스가 여자를 끼고 다니는 날도 있다니.”“보는 거 하곤, 생각이 참 천박해.”카엘은 혀를 찼다.“몰래 침입한 네가 할 말은 아닐 텐데. 넌 오늘 조용히 못 돌아가.”둘은 아는 사이였던 듯, 서로에게 반말을 하며 익숙하게 으르렁 싸웠다.“너네 둘은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아니 난 왜.. 너네가 사이 안 좋은 거잖아..“어차피 쟨 대화가 어려운 놈이야. 어느 정도 때려놔야 그 갈색 머리인가 똥색 머리인가 걔에 대해 말해 줄 거야. 성깔머리가 어찌나 더러운지.”“다 들린다. 이 새끼야. 그래, 넌 오늘 내가 특별하게 갈기갈기 찢어줄게.”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황을 최악에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주르아는 조용히 읊조리더니 주르아의 앞에 두꺼비의 형체가 생겼다.두꺼비는 혀를 내밀고 좌우로 휘둘렀다.“쟤가 데리고 있는 권속은 독 두꺼비야. 저 두꺼비 입에서 나오는 독에 닿으면 닿은 몸이 빠르게 썩지.”“.. 네?”독 두꺼비는 생각할 틈도 없이 독을 쏘려는 듯 입을 오물거렸다.“꺄아아악!!”위험을 느낀 나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방 밖으로 달려갔다.여유롭게 독을 설명하던 이 인간은 긴 다리로 나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가고 있었다.'이런 미친! 매너라고는 쥐뿔도 없는!!'살기 위해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해 달렸지만, 독두꺼비는 겅중겅중 뛰어서 금세 아인의 바로 뒤에 섰다.나에게 독을 쏘려는 듯 정자세로 쭈그려 앉아,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었다.머리는 움직이라고 말했지만 몸은 고장이 난 듯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겁에 질린 채로 그대로 멈춰 있는 순간이었다.카엘이 나에게 오더니 한 팔로 내 어깨를 받치고, 다른 한 팔로 다리를 들어서 가볍게 뛰어 장식 테이블 위쪽으로 올라갔다.진즉에 먼저 도망가지 않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가뿐히 오른 카엘은 나를 내려주었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서있질 못하고 주르륵 바닥 쪽으로 쓰러지듯이 무릎을 꿇었다.카엘은 날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여기서 기다리라면서 바닥에 뛰어내렸다.탁, 카엘이 공중에서 손가락을 튕기면서 불을 만들고 불이 점차 크기가 커지며 독두꺼비 쪽으로 엄청난 화력으로 달려 나갔다.독두꺼비는 피하면서 카엘 쪽으로 입으로 독을 쏴댔고, 카엘은 몸을 가뿐히 피해 가면서 계속해서 불을 만들어 두꺼비를 공격했다.두꺼비의 독이 닿은 물건들은 염산을 맞은 것처럼 타들어가는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다.'와.. 저건 너무 심하잖아..'아인은 독이 닿인 물건들을 보며 낯빛이 창백해졌다.사람이 저 독을 맞으면 생길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멀리 서 있는 주르아는 카엘을 죽일 생각인지 독두꺼비에게 계속 독을 쏘라고 소리를 질러댔다.주르아를 보다가 독두꺼비와 카엘에게 시선을 돌려보니 카엘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두꺼비의 눈을 발로 차고 있었다.그 장면을 보니 제 눈이 맞은 것처럼 아파지는 것 같았다.“꾸에엑!"두꺼비는 너무 아픈지 고통에 소리를 지르며 몸이 뒤로 엎어진 상태로 좌우로 뒹굴뒹굴했다.주르아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두꺼비에게 달려갔다.주르아가 두꺼비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순간 두꺼비와 주르아의 사이에 불이 생기더니 두꺼비의 주변으로 불이 원을 그리며 두꺼비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었다.“질문에 대답해.”“뭘!”“갈색 머리 어딨냐고 물어 봤을텐데."카엘은 나를 눈으로 가리키며 말했다.“이 불부터 꺼!!”“두꺼비는 뒷다리가 맛있대.”‘개구리 아냐..?'“이 새끼가!!”주르아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살살 익고 있을지도 몰라. 얼른 말해. 통구이가 되기 전에.”“.. 나도 잘은 몰라. 그놈은 암시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어디 쪽.”"암시장이 항상 위치를 옮기는데 그때 본 암시장이 지금 있겠어? 전에 본 암시장은 없어졌어. 다른 곳으로 옮겼겠지.”암시장은 아무래도 사람도 팔고 하는 불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동생이 그런 불법적인 곳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인은 충격에 빠졌다.자신이 없을 때 동생은 뭘 하고 산 건지 아인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질 못했다.“북쪽 지역 위주로 암시장을 알아봐. 나도 아는 건 그게 다야. 그니까 얼른 이제 불 꺼!!”주르아의 얼굴은 화남과 불안이 섞여있었다.^^^우르르,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많은 사람이 몰려온 듯, 발소리가 웅장했다.두꺼비를 감싸던 불길은 거센 바람이 분 듯 불길이 바람에 휜 갈대처럼 휘며 꺼졌다.카엘은 내 손목을 잡고, 복도 쪽으로 달렸다.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점 우리가 있는 쪽에 가까워지는 듯했고, 주르아의 잡으라는 비명에 가까운 명령이 들렸다.큰 저택이다 보니 방이 얼마나 많은지 다다닥 붙어있는 문들이 보였다.카엘은 그 많은 문들 중에 약간의 이질감이 드는 하나의 방문 손잡이를 잡고, 활짝 열며 내 손목을 잡고 들어갔다.미친듯이 달리다보니 숨이 목 끝까지 차다 못해 따갑기까지 했다.“일단은 여기서 기다려.”나는 끄덕이며 숨을 골랐다.헐떡이던 숨이 차차 진정되며 방을 슥 훑어보는데, 벽쪽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부적 수 십장이 붙어있는 커다란 알이 보였다.'새알치고는 너무 큰데.'카엘도 이상한 알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이게 뭐예요?”“무언가를 봉인한 것 같은데.이 집안은 뒤가 구린 짓을 워낙 많이 해.”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밧줄도 그냥 일반 밧줄이 아닌 얇은 철로 된 단단한 밧줄이었다.알 주변으로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이건 뭐지? 은은한 빛을 살짝 만졌더니 큰 섬광을 일으키듯이 빛이 알에서 퍼져나갔다.빛이 퍼져나가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가구 등등의 사물들이 사라졌다.카엘에게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카엘 또한 없었다.주변은 온통 새하얗고, 주위엔 털끝 하나도 없다 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다.“네가 나를 깨웠구나.”어디서 들려오는 거지?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누, 누구세요?”“나는 주르아 멜포니에게 이곳으로 봉인되었단다. 너는 봉인되어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웠고.”‘내가 어떻게 깨웠단 거지?’“제가 깨웠다고요?”“그래.”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알 수가 없었다.형태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주르아 멜포니란 아이는 자신의 그릇이 작아서 나를 담을 수 없단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가득하여 날 놓지 못하더구나.너라면 나를 여기서 꺼내고, 나를 담을 수 있겠구나.”담는다는 게 무얼 말하는 건지.아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말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다.“네 옆에 있는 아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앞으로 더 크게 될 아이인데 저 아이가 날 먼저 깨웠다면 좋았을 지도..”아쉬움이 담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권속과의 계약이요?”“그래. 육신도 무엇 때문인지 불완전하고.. 그래. 너라도 괜찮겠구나. 계약을 해주겠다.”내 입장은 없는 건가요?알인지 무엇인지는 당연히 내가 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자신감이 큰 알이었다.“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너는 그저 나와 계약을 하면 되는 거란다.”“뭔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권속과의 계약이라면 마법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마법사가 아닌데요.”마법사도 아닌 일반인은 계약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무슨 소리 냐구.아인은 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아니다. 넌 할 수 있다."“아니, 제가 마법사가 아닌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너에게 마법사의 힘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마법을 써 본 적이 없는걸요.”“여태 몰랐다니.. 그건 내가 차차 보여주겠다. 일단은 계약을 하여 이곳에서 나를 꺼내거라.”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이 형태 없는 목소리는 나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등 참으로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말을 하였다.“저를 그럼 다른 마법사들처럼 권속 계약을 하겠단 말이신가요?”“그렇지.”내가 마법사가 될 수 있다니.마법사란 원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족들 중에 마법사가 있어야 하거늘.난 가족들 중에서 주술사가 단 한 명도 없는데?알은 계속 나에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계약을 하자며 재촉했다.아무래도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마법사가 되면 나야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마법사가 되면 취업도 문제없고, 마법사를 높게 대접해주는 사회에서는 좋은 기회였다.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손해 볼 것은 없어 보였다.“그래요. 뭐.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계약해요.”눈앞에서 허공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졌다가 사라지더니 공간이동을 하듯 방에 있던 사물들이 다시 보이며 카엘이 눈에 들어왔다.방에 있던 밧줄로 꽁꽁 묶여서 부적까지 붙어있던 알은 사라지고, 밧줄과 부적만 힘없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역시 내 감이 맞았어.”“무슨 감이요?”“처음 봤을 때, 마법사의 힘이 크게 보이는 데 권속이 없더군. 신수급이 되는 권속을 능히 가질 수 있는 힘이 보였는데 이상했지. 위험한 상황이 와도 작은 마법 하나도 못 쓰고, 처음엔 바보인가 생각도 하며 많이 의문스러웠어.”그래서 내가 마법을 쓸 줄 알고 아까 그렇게 두꺼비 앞에 위험에 처해 있는데 냅다 앞서서 달려 나간 거였나..“어쨌든, 권속을 갖게 되었네. 축하해.”“그렇지만... 전 마법사가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마법사의 기운이 크게 퍼져 나오는걸.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얼른 나가야겠어.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카엘이 말이 맞는 듯 쫓아온 사람들이 가까워졌는지 사람들의 뛰는 소리가 들렸다.카엘은 방문 쪽은 이제 나갈 수가 없다며 갑자기 나를 안아 올리더니, 창가에 올라가서 아무런 신호도 없어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뛰어내렸다.탁, 바닥에 착지하는 느낌이 났고, 나는 본능적으로 목숨의 위험을 느꼈는지 저도 모르게 카엘의 목을 팔로 목도리처럼 꽁꽁 감싸 안고 있었다.괴로운 듯 풀어달라고 말하는 카엘의 말에 힘주어 감싸고 있던 걸 깨달은 나는 황급히 팔에 힘을 풀고, 카엘이 바닥 쪽으로 팔을 내려주어서 조심히 내려왔다.“잡히기 싫으면 제대로 따라와. 더는 안 잡아줘.”웃으면서 시원하게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에 놓칠 새라 따라잡기 위해 뛰어갔다.멜포니가 시종들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왔지만 카엘이 불을 보여주면서 불에 몸을 부풀리듯이 크게 만들어 던져버릴 것처럼 겁을 주니, 알아서들 떨어져 나갔다.덕분에 들어올 때는 몰래 들어왔지만 나올 때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나왔다.카엘의 긴 다리 보폭을 맞추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다시피 따라갔다.건물에서 나와서 한참을 걷다가 건물의 모습이 아예 안 보일 때쯤이었다.카엘은 걸으면서 말했다.“암시장은 너 같은 약한 마법사들을 심심치 않게 잡아 사고 팔곤 해. 마법사의 신체는 마법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신체로 마법을 못 쓰는 일반인들도 작은 마법이라도 쓸 수 있게 하지. 일반 사람들이 불법인 걸 알아도 암시장에 드나드는 이유 중 하나지. 너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인거지. 널 위해서라도 암시장은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카엘의 말에 겁이 났지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전..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찾아야 해요. 찾는 사람이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생겨서 암시장에 잡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율은 좀 어두운 곳에서 일은 했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던 아이였다.도박장에서 일하며 도박, 마약 등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 텐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장물아비 일만 하였다.그런 동생이 암시장에서 있었다니, 목걸이도 목걸이지만 동생 또한 찾아서 암시장과의 연을 끊게 해야 했다.“암시장은 어떻게 찾으려고?”“그.. 그래서 말인데요. 부탁 좀 드릴..”“흐음?”“왜요?”"귀찮은 부탁 같은데.”아인은 차마 아니란 부정은 못했다.“그..전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만약에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그.. 그니까.. 음..”아인은 바닥에 있는 모래를 발끝으로 그으며 말했다.“그니까.. 혹시나 제가 찾는 사람이 암시장이랑 연관이 된 사람이면.. 잡으실 건가요?”암시장은 불법인 만큼 암시장에 관련된 자들이 잡히면, 감당하기 힘든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나오거나 오랜 시간동안 형량을 채워야 했다.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동생의 꼬리가 잡혀 감옥에 가두는 누나가 될 수는 없었다.“그건 왜 묻는거야?”카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인을 쳐다 보았다.“전에 그 폐건물에서도 남자무리들 잡았었잖아요. 혹시 암시장과 연관 된 사람이면 이번에도 그때처럼 잡으실 건가요..?”카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흘렸다.그 미소에 아인은 두려움이 생겨났다.^^^아인은 카엘을 보며 마른침을 삼켰다.“내가 뭐 하러?”“네?”“내가 뭐 하러 그것들을 잡아. 귀찮게.”아인은 눈을 크게 뜬 채, 껌뻑 거리기만 했다.“난 정해진 해야 하는 일까지만 하지. 일을 찾아서 하는 성격은 아냐. 암시장은 없애도 결국 다시 생기는데 뭣하러 일을 벌여.”“어...”머릿속에서 예상했던 말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게 말하니까 긴장 상태에서 당황 상태로 변했다.“진짜요..?”“나중에 혹시나 잡아야 하면 잡을 순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지.”털썩, 카엘은 피곤한지 하품을 하며 나무에 등을 기대며 누워서 눈을 감았다.'그래. 이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일을 찾아다닐 성격은 아닌 것 같아..'“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 길래 사람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알려주기 싫어졌다니까.”“혹시.. 황실의 기사인가요?”카엘은 눈을 감은 채로 끄덕였다.“그런 비슷한 거지.”황실 기사단 비슷한 것이라.. 그것도 마법을 할 수 있는.. 이건 좀 위험한데..자기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다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동생이 만약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잡아간다고 하면 잡혀가는 걸 그저 보는 수밖에 없으니..“기사단에서 일한다 하면 보통 일반 범죄자를 잡기보다는 전쟁에 참여를 하는 편이지.범죄자를 잡는 치안대가 따로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지.”카엘은 내 생각을 읽는 건지 친절히 설명해주었다.“저를 도와준 이유가 뭐예요?”따지고 보면 카엘이 나에게 잘해줄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본 적도 얼마 안 되고, 본 적이 없는 만큼 잘해줄 이유 또한 없었다.게다가 나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다른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눈을 뜬 카엘은 눈꼬리가 축 처진 아인을 보더니 씨 익 웃었다.“궁금한 게 생겨서.”아인은 고개를 갸웃했다.“그게 뭔데요?”“나중에 봐서 말할게.”너무 궁금하지만 해사하게 그의 웃는 얼굴에 자신의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아 쳐다볼 수 없어 계속해서 못 물어보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다..'내가 이렇게 얼굴에 약했었나.'카엘은 억울할 정도로 자신의 이상형이긴 했다.남자와 연애해 본 적은 없지만 나름 머릿속에 로망이 있지 않은가.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 본 남자의 외모와 이 남자의 외모의 특징이 비슷했다.아니, 오히려 생각해왔던 것보다 그 이상일 수도.아인은 머리를 흔들며 이상한 생각을 털어내고, 정신을 차리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였다.'그래 뭐.. 일단 잡아가진 않는다 하고, 나 혼자서 정보도 없이 암시장을 찾아가는 건 산에 산삼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야.'길드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길드에 의뢰를 요청할 만한 큰돈이 나에겐 돈이 없었다.난 결심을 하고 카엘에게 말했다.“암시장에 같이 가주세요.”“당돌한데?”카엘은 웃으며 더해보란 듯이 쳐다보았다.“암시장을 저 혼자서 찾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안되면 길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찾아야 해요.”“연인이야?”“... 아니요.."아인은 생각에 잠기더니 카엘을 보며 말했다."친동생 이예요. 연락도 안 되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다니는데 암시장은 아무래도 제가 혼자 찾긴 힘들 것 같아요.”카엘의 얼굴엔 흥미로운 표정인 것 같으면서도 고민하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표정이 담겨있었다.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카엘은 말이 없었다.뭐지? 거절할 말을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말을 섬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그래.”“네?”“같이 가줄게. 한 질문에 대답하면.”“질문이 뭔데요?”"마법을 아예 할 줄 몰라?"뜬금없는 질문에 아인이 고개를 갸웃했다."네.""마법을 한 번도 안 해봤어?""그럼요. 할 수가 없잖아요?"카엘은 아인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암시장은 많이 위험할 수 있어.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마법사야.아까도 말했다시피 마법사의 피, 신체 등등 그리고 살아있는 일반 사람, 마법사도 팔지.암시장엔 없는 게 없단 말도 있어. 그만큼 위험하단 얘기야.그럼에도 갈 거야?”“네! 전 꼭 가야 해요.”나는 카엘에게 떨지 않고, 두 주먹 불끈 쥔 채로 나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그래. 참으로 대단한 용기네. 멋있는걸.”카엘은 무표정으로 높낮이가 없는 칭찬을 했다."영혼이나 넣고 말하죠?"“한참 찾았습니다.”전에 폐건물에서 카엘과 같이 있던 긴 머리의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났다.“카엘님!!”“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카엘의 얼굴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다.“멜포니 가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더니 벌써 나가셨다길래 주위를 뒤졌죠.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치신 겁니까? 아니, 먼저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소식도 없이 사라지셔서 한참 찾았습니다!”“뭐 좀 찾아다녔어.”“무엇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소식 하나 없으셨습니까!”“있어. 몰라도 돼.”“기사단장이라는 분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시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기사단도 제대로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긴 머리의 남자는 카엘에게 한참을 잔소리를 연달아 퍼부어댔다.카엘은 말없이 긴 머리의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조용히 긴 머리 남자의 두 볼에 손을 대고, 양손의 첫 번째, 두 번째 두 손가락을 이용해 꼬집어서 잡아 늘렸다.“넌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심하게 많아. 잔소리가 귀를 뚫을 것 같아. 작작 좀 해.”“아으.. 놔요.”카엘은 남자의 앓는 소리를 무시하고, 한참을 볼을 꼬집어서 늘리더니 볼이 사과처럼 붉어지고 나서야 놔주었다.긴 머리의 남자는 많이 아픈지 두 볼을 감싸고 앓는 소리를 냈다.“데인. 할 게 있어. 암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 북쪽 지역에 열고 있는 암시장들 모두 다.”“암시장은 왜요?”“누구 좀 찾을 사람이 있어.”“암시장에 가시려고요? ‘공작이란 분이 암시장에서 있었다.’ 이런 소문나면 위쪽에 우리 다 끌려갑니다. 잘릴 수도 있어요!!”“나만 조용히 갈 거니까 일단 알아봐.”“그건 일단 나중에 알아보던 하고요, 기사단 복귀는 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일단 알아보고 나서 얘기해. 빨리 가."남자는 한참을 투덜대며 이것저것 묻다가, 카엘의 묵고 있는 숙소 위치를 알아내고 나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조용해졌다.긴 머리의 남자는 찝찝한 표정의 얼굴로 나와 카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숙소에 조만간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며 오지 말라는 카엘의 말을 무시하며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기사단장 이란 게 기사단을 관리하는 그 기사단의 단장을 말하는 거예요?""다른 뜻의 기사단장도 있어?"기사단장이라고?항상 단추 몇 개 풀어진 셔츠 차림에 정갈한 옷차림은 절대 볼 수 없고, 위엄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항상 귀찮은 듯한 얼굴로 별거 안 하며 여유 있게 노는 이 남자가 기사단장이라고..?카엘은 아인에게 기사단장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나태한 남자였다.“그런데 왜 방랑을 해요?”아인의 뜬금없는 말에 카엘이 크큭대며 웃었다.“방랑?”“기사단장이라면 보통 바쁘지 않나요? 일도 안 가고, 떠돌아 다니시잖아요.”“너는 한가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아니, 저는 찾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나도 볼 일이 있어.”기사단장이란 사람이 일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되는 건가?많이 나태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일도 손 놓고 다닐 줄이야.아인은 카엘을 보며 그래도 기사단장의 직급이 있는 사람한테 너무 편하게 대한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그.. 제가 실례를 저질렀네요. 앞으로 단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뭘 이제 와서 호칭을 바꿔. 그냥 하던 대로 해.”“그동안 부른 호칭이 없는걸요?”그동안 호칭조차도 없이 항상 말해왔었던 아인이었다.“그냥 편하게 불러. 그런 거에 의식하지 말고.”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전에 나이가 열아홉이라 했으니, 저는 열여덟이니까.. 그럼 제가 더 어리니까 오라버..”마주 보는 두 사람의 얼굴엔 오글거리다 못해 소름 돋는다는 듯한 얼굴이 되었다.“하지마. 그딴 호칭.”“그럼 뭐라고 불러요.. 단장님도 싫고 오라버니도 싫으면 부를 호칭이 없는걸요?”“이름 부르면 되지.”“단장님인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그냥 이름 불러. 내가 불편하니까.”“네..”열아홉에 기사단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니 이 남자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다.놈팡이로 봐서 그런지 더더욱 그랬다.긴 머리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카엘의 부재로 인해 기사단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 보면 기사단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기사단을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보통은 시험이다, 훈련이다 해서 더 늦게 들어가지 않아요?”“다 다르지 뭐. 나 같은 경우엔 신수급의 권속이 계약되어 있으니 더 빨리 들어갔겠지.그것들은 신수에 집착하는 면이 있어.”아무래도 마법사이다 보니 어디서든 붙잡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다. 이 나라 자체가 마법사를 사랑하는 나라이다 보니, 더군다나 신수급 권속까지 있으니 꼭 붙잡고 싶을 것이다.“아마.. 너도 신수급 권속이 생겼으니 어쩌면 길드나 기사단에서 너를 잡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나를?'아카데미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던 아인은 카엘의 말에 살짝 설레었다.현재 마땅한 직장도 없는 아인에겐 희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그런데.. 기사단을 이끄는 분으로 있는 것치곤 너무.. 한량 같은데.. 일은 안 해요?”카엘은 감았던 눈을 뜨고, 아인을 보더니 바람 새는 웃음을 흘리며, 할 말은 다 하는 여자라며 칭찬하듯이 말했다.“들었잖아. 일하기 싫다니깐.전에 쉰다고 서류도 냈고, 지금은 엄연히 허가받은 휴무 상태라고.”진짜 한량이네.카엘은 떴던 눈을 다시 감았다.한 시간 전만 해도 쫓기고 다녔는데.난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려서 있는데 이 사람은 천하태평이다.어떻게 방금 전까지 쫓기던 사람이 이렇게 느긋하게 잠에 들 수 있을까.남자의 여유로움을 지켜보던 나까지 조금의 여유가 생겨, 바닥에 앉아서 쉬었다.바람에 눈을 가리던 앞머리가 옆쪽으로 날리면서 앞머리에 덜 보였던 하늘이 보였다. 앞머리에 가려져 맑은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언제였던가.맑은 하늘을 보며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느꼈다.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다.항상 고민에만 휩싸여서 눈앞에 일들만 쫓아다니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암담하기만 했는데.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안전도 나름 보장이 되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도와주어서 해결이 되었다.‘아마 나 혼자였으면 암시장에 동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보조차 찾지 못 했을 거야.지금 이 평화로운 기분도 못 느꼈을지도.’오늘따라 초겨울인데도 춥지도 않고, 봄같이 따뜻했다.햇빛은 둘이 있는 쪽을 쬐고 있었다.여유를 느끼는 것도 잠시였고, 아인은 마법 생각에 빠졌다.나중에 마법으로 일을 한다 치면 할 줄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연습조차 하질 못했다.맘 같아선 열심히 하고 싶지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걸 시도조차 할 수 없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웠다.'그래 혼자선 뭘 알아야 하지. 카엘이 일어나면 알려 달라 해야겠어.'내 앞의 한량은 잠에 빠졌는지 나지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햇빛 때문인지 빛 때문에 더 잘 생겨 보이네..자주 느끼는 거지만 잘생겼어.높은 코에 잡티도 없는 얼굴에 작은 애교 점 하나까지 외모의 한몫을 단단히 했다.무슨 남자가 나보다도 입술이 빨간 것 같기도 하고..빨간 입술이 카엘의 요염함을 추가해주었다.살짝 억울해 질만큼 부러울 정도로 여자보다도 요염한 얼굴이라니.휙, 아인은 살짝의 억울함이 생겨 카엘의 얼굴을 보던 고개를 돌려 보는 것을 중지했다.아인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자는 사람을 깨우기도 뭐 해서 주변을 감상했다.'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다음 날 차 한 잔을 여유 있게 마신다고 하던데.차가 맛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이었어.'아인은 여유의 맛을 즐겼다.잠시만 잠잘 것 같았던 카엘은 슬슬 해가 저물어가고, 더 강해지는 차가운 바람에 아까보다 추워지는데도 일어나질 않았다.아인은 결국 깨워야겠다 싶어서 넘겨졌던 앞머리를 정리하고, 카엘을 흔들어 깨웠다.“저기요 슬슬 해가 지는데 계속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갈 수도 있어요.”부스럭, 카엘은 나무에 기댄 몸을 세우며 기지개를 하며 일어났다.“으.. 슬슬 가볼까?”“어디요?”“해도 곧 지는데 슬슬 숙소로 들어가야지.”숙소로 가는 길에는 야외 테이블들이 줄 서듯이 놓여 있었다.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 하하 호호 하며 술이나 밥을 먹고 있었다.“저기요.”아인이 걸어가던 카엘의 소맷자락을 잡아 세웠다.“제가 그동안 해드린 건 없고, 밥이라도 사드리려 하는데..”카엘은 그럼 어디 얻어먹어볼까 말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아인이 음식을 주문하고 맞은편에 앉았다.“카엘님.”긴 머리의 남자는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서류를 가지고 나타났다.남자는 아인에게 고개를 숙여 눈인사를 하고, 서류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카엘의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내일 이스탄 시계탑 뒤쪽에 있는 숲 쪽에서 암시장이 열린다는 정보입니다.”긴 머리의 남자는 서류에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여주며, 숲 쪽의 암시장이 열리는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그런데 도대체 뭐 하시려고 거길 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설마 저 여성분도 같이 가시는 겁니까?”“그래.”“그런 곳을 어떻게 여성분을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매너라는 건 쥐뿔도 없는 건 알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부하인 것치곤 긴 머리의 남자는 상사에게 거리낌 없이 할 말을 다하였다.“됐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가봐.”“신경을 어떻게 안 씁니까. 제가 신경을 안 쓰게 하고 싶으시면 가지 마시고 복귀나 하세요.”“그만 잔소리해. 시끄러.”“휴..그러면 저도 데려가십시오.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넌 네 일이나 열심히 해.”“제 일이 카엘 님을 보필하는 일입니다. 카엘 님이야말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카엘의 얼굴엔 또 시작했다는 짜증이 묻어났다.“일을 하셔야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카엘님의 뒤치다꺼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아, 그럼 너도 쉬던지.”“가뜩이나 빠진 한 명 때문에 엉망진창인데 저마저도 쉬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시끄러워! 떽떽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단 말 못 들어봤어? 엉?”둘의 모습은 흡사 부부 같았다.마치 일 좀 하라는 부인과 놈팡이 짓 하는 남편의 모습이랄까.한참을 싸우던 긴 머리의 남자는 아인을 쳐다보았다.머리로 얼굴의 절반 가까이를 가린 여인과 카엘이 같이 며칠을 다니는 모습이 수상한 모습 그 자체였다.카엘님은 이런 의문스러운 여인과 같이 뭘 하겠다는 건지.암시장의 위치를 알아내라는 것 또한 이상했다.둘은 분명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휴.. 크 흠, 그건 그렇고 두 분은 대체 어떤 사이십니까?”“별 사이 아냐.”“별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같이 다니신다고요? 카엘님은 누구랑 같이 다니신 적이 없잖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며칠을요.”긴 머리의 남자는 혼자 다녔으면 다녔지. 누구랑 같이 다닐 사람이 아니라며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며 캐물었다.카엘은 그냥 제발 좀 그만 가라며 긴 머리의 남성을 눈빛으로 떠밀어냈다.표정에는 귀찮아 미치겠다고 말해주고 있었다.그런 카엘을 무시하고, 아인에게 시선을 돌려 아인에게 재차 물었다.“실례지만 카엘님이랑 무슨 사이신가요?”“아... 그..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누굴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 주시고 있어요”“카엘님이 같이 찾아주신다고요?"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긴 머리의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에 빠지더니 카엘에게 다가가서 귓속말을 했다.“속내가 무엇입니까?”“무슨 속내.”“작은 이득이 있다 한들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잖습니까.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카엘님이 누굴 돕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욕을 해. 그냥”“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 무얼 대가를 받은 겁니까? 돈이 필요하신 겁니까?기사단으로 복귀만 해도 돈이 생기는데 그럼 일을 하시지. 아님 길드 놀이하시는 겁니까?"카엘은 속삭이며 말하는 긴 머리의 남자의 입을 밀어냈다.“제발 그만 좀 묻고 가."“암시장은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꺼져.”긴 머리의 남자는 카엘의 단호하면서도 날카로운 말에도 절대 굴종하지 않고, 단단히 버텼다.긴 머리의 남자는 카엘이 별거 아닌 일을 하질 않는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분명 무언가가 있다며, 자신이 막으리라 속으로 다짐하며 꿋꿋하게 카엘의 꺼지라는 말을 무시했다.“일단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머무시는 숙소로 다시 오겠습니다.아가씨도 내일 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아, 네. 조심히 가세요.”“오지 마.”긴 머리의 남자는 카엘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서 가버렸다.대화에 정신이 팔려 몰랐는데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차려진 음식은 시간이 꽤 지난 듯 열기 없이 식어 있었다.“이 자식은 왜 식사할 때 와가지고.”“그분이랑 왜 같이 안 가시려는 거예요?”“많이 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눈에만 띄는 짓이지.”하긴 둘도 눈에 띄는데 셋이면 더 그럴 것이다.“그리고 쟨 잔소리가 너무 심해.”먹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카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음식의 반 이상이 남겨져 있었다.“잘 먹었어. 내일 일어나는 대로 가는 거로 하고 먼저 들어가볼게.”“네. 쉬세요.”카엘의 숙소로 들어가던 모습을 보다가 배가 덜 찬 아인은 다시 조금씩 깨작깨작 먹다 결국엔 남기고, 숙소로 들어가서 잠에 들었다.똑똑, 자고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아인은 잘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문 앞으로 기어가듯이 다가갔다.“누구세요?”“나야.”‘카엘?’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탈칵, 문이 열리며 커튼이 쳐져서 암흑이었던 방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아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다.“나 늦잠 잔 거예요?”“아니, 늦잠은 아냐. 아직 새벽이거든.”아인은 새벽에 자기를 깨웠다는 이야기에 미간을 찌푸렸다.“이런 이른 시간에 왜 깨우는 거예요.”“데인이 오기 전에 가야지. 같이 가면 골치 아파.”어제 긴 머리의 남자 이름이 데인이구나.“그래도 가기로 말해놨는데, 놓고 가면 어떡해요.”“그건 괜찮으니까, 얼른 준비하고 나와. 앞에 있을 테니깐”아인은 카엘의 의욕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욕실로 가서 후다닥 씻고 밖으로 나왔다.눈앞에는 카엘의 계획이 틀어진 장면이 보였다.데인이 아인과 카엘이 출발하기 전에 딱 맞춰서 도착 한 것이었다.카엘의 표정은 썩어 있었고, 데인은 승자의 표정을 지으며 의기양양해 하고 있었다.“절 놓고 가시려고 일찍 가실 것 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리 일찍 와보았습니다.역시 잘 생각했네요.”카엘은 아무말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다 같이 암시장으로 출발하였다.데인이 카엘에게 말을 해도 카엘은 대꾸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조용히 걸었다.카엘에게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한 데인은 아인에게 대화를 하며 걸었다.아인과 데인은 소소한 대화부터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다.“아, 원래는 여기 북부 쪽에서 살았던 거예요?”“네. 열여섯 살까지 살다가 동쪽 지역으로 갔어요.”“그렇구나. 아, 제가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인 아이시스입니다.”“아, 저는.. 아인이라고 해요.”“그런데 아가씨는 어찌 암시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그.. 찾는 사람이 있는데 암시장에서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흐음.. 혹시 암시장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그게..”아직 확실친 않지만 그럴 확률이 높았다. 그렇다고 그걸 곧이곧대로 말을 할 순 없지 않은가.아인이 우물쭈물하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암시장에서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카엘은 내가 대답하길 난처했던 걸 눈치챘는지 데인이 그 질문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말을 끊었다.암시장은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마차를 대여하는 곳으로 향했다.카엘이 마부에게 돈을 건네주며 여섯 명은 족히 탈 수 있는 꽤 큰 마차를 빌렸다.마차 안은 편히 쉴 수 있을 정도로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있는 의자와 쿠션이 놓여 있었다.긴 머리의 남자는 카엘의 맞은편에 앉았고, 카일의 옆에는 아인이 앉게 되었다.가는 내내 데인은 카엘에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일터로 복귀하라고 일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듣던 카엘은 그 말을 무참히 무시했다.10분 뒤.카엘은 잠을 자는지 팔짱을 낀 채로 의자의 목 받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데인은 수많은 종이서류들을 넘기며 업무를 하고 있었다.할 것도 없고, 잠도 안 오던 아인은 창가밖의 경치를 구경했다.겨울이 오면서 나무에 있던 잎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나뭇가지들은 잎이 한두 개 정도만 붙어 있었다.살짝 차가운 바람을 쐬며 창밖을 보는 아인을 향해 데인이 말을 꺼냈다.“두 분은 어떻게 같이 다니게 되신 겁니까?”데인은 업무를 다했는지 서류들을 한쪽으로 정리해놓고, 아인을 바라보고 있었다.“전에 그 리즈번 쪽의 폐건물 쪽에서 뵌 분 맞으시죠?”“네.”“거기엔 왜 계셨던 겁니까?”“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찾으러 갔었어요.”“흠.. 그 이후에 암시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암시장을 찾고 있는 건가요?”“네, 거기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몰라서 가보려고요.”“그런데.. 카엘님은 왜 같이 가시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생각해보니 멜포니 가 저택까지는 같이 가기로 했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도 동행하고 있었다.“아마 저 혼자 암시장 간다는 얘기에 도와주시나 봐요.”“흠.. 그게 맞다면 신기하네요. 누구를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신데.”데인은 턱을 잡으며 의아해했다.아인은 데인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그런데 혹시나 제가 찾는 사람이 암시장이랑 관련되어 있으면 잡아가실 건가요..?"“네? 아..? 하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쪽은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닌걸요.전 제 할 일만 하는 것도 벅찹니다. 아시겠지만 상사분의 자리 비움으로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하고 있느라 하루하루 폭삭 늙고 있습니다.”데인은 그래도 웬만하면 나중을 위해서 찾는 사람이 암시장과 연관되어 있으면 암시장과의 연을 끊게 하라고 말을 덧붙였다.데인의 눈 밑이 많이 어두운 게 진짜 힘들어 보이긴 했다.“고생이 많으시네요..”“네.. 뭐, 아무쪼록 지금 일이 해결되면 바로 어떻게든 카엘님을 복귀시키는 게 제 목표이죠.”데인의 눈동자가 열정으로 이글거렸다.꽉 쥔 주먹에는 카엘의 복귀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어 낼 것이라는 포부가 보였다.데인과 아인은 대화를 오랫동안 하며 서로에 대해 점차 알아갔다.“흠, 원래는 북부지역에서 사셨었군요.”“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갔어요.”“그럼 여기서 찾고 계신 분을 만나면 바로 동부로 가시는 겁니까?”“네.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실 테고, 저도 일을 해야 해서요.”“저런.. 마음이 급하시겠군요. 이렇게 된 거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인상착의나 특징 같은 걸 알려주세요.”“갈색 머리에 키는 저보다 두 뼘 정도 더 크고요. 둥근 눈을 가지고 있어요.살짝 까무잡잡 한 편이고 아, 그렇다고 너무 까맣진 않아요.”아인은 데인에게 자기가 생각나는 동생의 모습을 세세히 설명했다.“둘 다 말이 너무 많아.”카엘이 언제 잠에서 깼는지 눈을 뜨고 둘을 쳐다보았다.“아, 죄송해요..”아인은 자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열정적으로 동생 설명을 한 것에 미안해졌다.“뭐.. 다 와가니까 됐어. 어차피 깨야 했으니.”카엘의 말이 맞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의 움직임이 멈췄다.마부가 문을 열며 도착했음을 알렸다.암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린 셋은 나란히 암시장을 향해 걸었다.암시장을 들어가기 전 카엘은 길거리 상인에게 긴 로브를 사서 아인에게 건네주었다.“얼굴은 가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아인은 끄덕이며 겉에 로브를 걸치고, 로브에 달린 모자 쪽을 앞쪽으로 당겨서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카엘과 데인도 로브를 걸쳐서 얼굴을 가렸다.“카엘님. 이게 더 수상하지 않을까요? 아인님까진 그렇다 치지만 셋 다 가리니 너무 수상해 보이는데요.”“괜찮아. 여기는 수상한 놈들 천국이니깐.”셋은 암시장 안으로 들어갔다.카엘의 말이 맞게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살인자같이 무서운 인상의 상인들, 눈이 풀린 남자, 기이한 인형을 들고 다니는 사람 등등.오히려 로브를 걸친 셋이 평범해 보일 정도였다.혹여나 셋이 다 얼굴을 가려서 수상하게 볼까 했지만 몇몇 사람들도 로브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 다른 몇몇 사람은 로브로 얼굴을 가리고 추가로 눈을 뺀 나머지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걷는 사람도 있었다.그에 비하면 셋은 평범했다.시간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숨어서 하는 곳이라 그런지 햇빛을 차단하여 밤인 처럼 암흑같았다.햇빛이 아예 차단되어 암흑인 이곳에 곳곳에 있는 촛불이 어두운 이곳을 그나마 밝게 밝혀주고 있었다.암시장에는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는 물건부터 위쪽에 진열된 부적, 기다란 머리카락 묶음, 기이한 표정을 한 머리 등등의 별것이 진열되어 있었다.어느 한쪽에는 다른 곳과 달리 밝은 조명으로 환하였다. 진열장 위에는 투명한 유리병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고, 유리병 안에는 눈알이 둥둥 떠 있었다.“동물의 눈알은 왜 파는 거예요?”아인이 작은 소리로 질문하였다.“아인 님, 저건 동물의 눈알이 아닙니다.”“그럼, 모형인가요?”“저건 인간의 눈알입니다.”“네?! 사람이요?”아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데인을 보았다.“네. 마법사의 몸은 죽어도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마법사의 신체를 불법 무기 같은 목적으로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습니다.마법사라고 하기엔 애매한, 능력이 미미한 사람들은 저렇게 운명을 다하는 경우가 있지요.”데인의 충격적인 말에 아인은 벌려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자신의 미래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마법사이며, 권속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마법을 못 쓰는 아인은 신체로 팔리기 좋은 조건 아닌가.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데인의 말에 울적함에 아인의 눈꼬리가 축 처졌다.암시장은 작은 크기로 협소해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종류가 정말 다양했다.한쪽에선 살아있는 인간까지도 판매되고 있었다.팔다리가 족쇄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서있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세심히 훑어보며, 묶여진 사람들의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아인은 팔, 다리가 족쇄로 채워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아인은 한참을 암시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판매하는 사람까지 열심히 보았지만 동생 율은 보이지 않았다.“저 아이는 아냐?”“네.. 아니에요."카엘이 옆에서 갈색 머리 남자들을 볼 때마다 가리키며 맞는지 물었지만,그 가리킨 사람들 중에서 동생 율은 없었다.암시장 안을 전부 다 살펴봤지만 동생은 없었다.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두 훑어본 셋은 별 소득 없이 암시장에서 나왔다.“암시장은 여기 하나가 다가 아니니 걱정 마세요. 다른 암시장에 있을 거예요."데인은 힘없는 아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오늘 못한 업무를 해야 한다며 암시장의위치를 알게 되는대로 바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다.'오늘은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암울한 아인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시간은 계속 흐르니 조급함이 커져가는데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찾을 거야. 걱정 마.”“네...”“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지.”카엘은 아인을 데리고 얼핏 보아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다.둘은 마주 앉아 테이블 위에 있는 메뉴판을 하나씩 들고 보았다.아인은 아무 생각 없이 메뉴판의 표지를 넘겨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동그라미가 몇 개야?’메뉴판에 쓰여 있는 음식의 이름도 생소했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동그라미는 더 생소했다.태어나서 이 정도의 가격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뭐 먹을래?”“아, 전.. 음.. 어떤 게 나을지..”“그냥 추천하는 거로 주문하지 뭐.”카엘은 직원에게 잘나가는 음식 네 가지 골라서 달라 하면서 추가로 와인 두 잔을 시켰다.얼마 지나지 않아, 흰 와이셔츠에 검은색 베스트를 깔끔하게 입음 남자 직원이 와인잔과 와인을 들고 나타났다.카엘은 직원이 따라준 와인을 두, 세바퀴 돌리더니 짧게 목을 축였다.아인도 따라서 먹어볼까 생각하다가 술은 내키지 않아 잔을 빙글빙글 돌리기만 했다.“북부지역에 암시장은 많이 있나요?”“많진 않지. 하지만, 북부가 마법사들의 요지인 건 알지?그러다 보니 암시장은 이 제국에선 이쪽 북쪽 지역에서만 거의 열리니 적지도 않지.지금 예상으론 현재 열린 곳은 두 곳이 더 있을 거라던데.아마 그 두 곳만 더 가보면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동생이 암시장에 있다면 말이지.”"네.."잔을 계속 제자리에서 돌리던 아인이 카엘을 쳐다보았다."그.. 원래 멜포니 가 저택을 가는 것까지만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그런데 이번에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아인은 도와주는 카엘의 생각이 궁금했다.카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아인을 쳐다보았다."재밌을 것 같아서.""..네?""요새 좀 지루한 참이었거든. 겁먹은 표정, 어설픈 행동 보는 게 재밌었어. 암시장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갔고."재미 때문이라면 말이 되긴 했다.카엘은 항상 나태하게 있다가도, 재미있는 일이다 싶으면 흥미를 보이며 행동하는 편이랄까?“이제 슬슬 따라다니는 건 끝내야지. 나도 이제 뭘 찾으러 가야 하거든.”"아.. "“그동안 재밌었어.”땡그랑, 아인의 손에서 수프를 뜨던 스푼이 바닥에 떨어졌다.“치워 드리겠습니다.”떨어진 스푼을 본 직원이 재빠르게 치우고 새 스푼으로 가져다 주었다.“아.. 감사합니다.”아인은 카엘이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당황과 조그마한 씁쓸함이 생겨났다.‘하긴 지금까지 도와준 것도 많이 고마운 일이지..’아인은 씁쓸함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포장하고 카엘을 보았다.“네. 너무 감사했어요. 저 사실 많이 무서웠거든요.암시장 같은 곳은 가본 적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람도 팔고 신체도 팔고.. 그런 곳에 같이 가주시고 밥까지도 사주시고.. 제가 빚은 꼭 갚을게요!”아인은 두 주먹을 쥔 채로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카엘은 그 모습을 보며 픽 웃었다.“내가 그냥 해준 거니까 마음 쓰지 마. 나름 재밌었어.”“아뇨. 제가 꼭 갚을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건 마음이 무거워서 못해요.”“그래, 그래.”카엘은 아인을 보며 턱을 괴고 쳐다보았다.“그런데 그 동생은 왜 그렇게 찾는 거야? 꼭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실은 동생을 찾는 게 아니라 동생이 갖고 있는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물건을 가지고 약속한 날짜 안에 집에 도착해야 해서요..”“흐음.”음식이 나오고 둘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아인은 괜찮던 속이 갑작스레 속이 불편해서 맛있는 게 눈앞에 있는데도 반도 못 먹고 남겼다."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먹어."“아.. 오늘은 속이 안 좋은지 많이 못 먹겠네요..”아인은 평소라면 다 먹어 치울 음식들을 반이나 남겼다.카엘도 때마침 식사를 다했는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와인을 비우며 식사를 마쳤다.둘은 식당에서 나와 숙소로 향했다.“숙소는 계속 있을 거예요?”“아직은.”“아.. 뭘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으실 거예요.”카엘은 아인을 보며 옅게 웃었다.“너도.”달칵, 둘은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아인은 이젠 혼자서 암시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꽉 쥔 손에 땀이 맺혔다.아무래도 카엘에게 자신도 모르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다.자신의 욕심으로는 당장 카엘의 방으로 가서 제발 좀 더 도와달라고 바지자락을 잡고 떼부탁해서 붙잡고 싶었지만 이것만도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러지 못하게 했다.밤이 지나 새벽이 될 때쯤에도 불안감에 못 잔 아인은 해가 뜰려고 할 무렵쯤 잠에 들었다.“조오은아치임이다아!!”아인은 힘차게 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발로 차며 일어났다.아인의 눈가 밑에는 두시간도 못 자서 생긴 검은 그림자가 퀭하니 있었다.‘힘차게 가 보는 거야!!’아인은 힘찬 발걸음으로 욕실을 향했다.욕실의 거울 안에는 퀭한 몰골의 여인이 보였고, 그 모습에 놀란 아인은 자신의 얼굴을 쓸어 만졌다.샤워를 하고 나온 아인은 숙소를 잡은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던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머릿속엔 잡생각이 가득해서 가만히 있기엔 불안감만 더해져서 최대한 움직이며 불안감과 잡생각을 덜어내려 했다.이제 혼자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함과 데인이 암시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대로 알려준다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함이 겹쳐져서 불안 덩어리 상태였다.불안함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그도 그럴게 사채업자와의 약속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그렇다고 달리 자신이 암시장의 위치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밖에 나가있을까, 혹시 까먹었나..? 아님 카엘에게 말해주고 간 건 아닐까?’여러 생각이 아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방 청소를 끝낸 아인은 생각 끝에 결국 카엘의 방 앞에 섰다.조심히 문에 손을 대고 두드림과 동시에 문이 열렸다.문이 열릴 줄도 모르고, 두드리던 아인은 문을 연 사람의 가슴에 톡톡 두드리는 꼴이 되었다.“아.. 죄송..”카엘은 아인을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다.“어쩐 일이야?”“아.. 그 혹시 암시장 위치를 들으셨나 해서요.. 알게 되는대로 알려주신다 했는데 혹시 오셨었나요?”“아니, 좀 걸리는가 보네. 숙소 주인한테 데인이 오면 네 방으로 가라고 말해놓을게.”“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시게요?”“응. 이제 슬슬 찾아봐야지.”“아.. 조심히 다녀오세요..”아인은 알 수 없는 어색함에 머리를 긁적였다.같이 다니다가 각자 볼일을 보러 간다는 게 당연한 건데도 어색하게 느껴졌다.카엘이 출구 쪽으로 가는 계단 두 칸 정도 내려갔을 때 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다들 나와 계셨네요.”데인은 아인과 카엘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계단을 올라왔다.“암시장 열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메네디르에 있는 메르산 출구 옆쪽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다네요.”“지금 바로 가면 되겠네.”카엘은 아인을 보며 잘 갔다 오라며 말한 뒤 계단을 내려갔다.데인은 인사하고 나가는 카엘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 떴다.“어? 같이 안 가시는 겁니까?”“네. 오늘은 저 혼자 가려고요."아인은 데인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그곳을 혼자 간다고요?"아인의 말에 데인은 한 번 더 놀라더니 아인을 말렸다.“혼자 가시기엔 위험하십니다. 제가 같이 가드리고 싶은데, 어제 못한 업무가 쌓여 있어서요. 지금도 잠깐 시간 내서 들른 거라..”“아녜요! 마음만이라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더 폐 끼치는 거도 죄송스럽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한번 가봤으니까 괜찮아요.”아인은 데인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다.“휴.. 오늘 꼭 가셔야 하는 게 아니면 내일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제가 시간 내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아인은 데인의 말이 살짝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기다릴만한 시간이 아인에겐 없었고, 더 이상의 도움을 받긴 미안한 마음에 아인은 두 손을 좌우로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괜찮아요. 이것만도 정말 감사드려요.”“휴.. 그럼 제가 다른 암시장이라도 얼른 알아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감사해요.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숙소에 없으면 숙소 주인분께 전해주시겠어요?”“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데인은 걱정이 묻어난 얼굴로 아인을 보다가 뒤돌아서 일터로 향했다.‘정말 친절한 사람이야.’아인은 데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겉옷을 걸치고, 돈주머니를 옷 안주머니에 넣으며 나갈 채비를 하였다.길거리로 나온 아인은 요 근래 돈을 쓰지 않은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 빵을 두 개를 사 먹었다.‘한 개를 먹는 것과 두 개를 먹는 것의 든든함의 차이란!’어젯밤에 저녁도 조금 먹은 탓에 아침부터 어찌나 배고프던지. 빵 두개로 배를 채우니 포만감에 긴장감이 덜어지는 것 같았다.지도를 보며 헷갈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암시장을 향해 걸었다.한 시간을 걸었을까. 걷다 보니 찾던 메르산이 눈에 들어왔다.‘거의 다 왔어.’꿀꺽, 아인은 마른침을 삼키며 산의 출입구로 향했다.산의 출입구 근처에서 암시장 입구를 찾지 못해 한참을 여기저기 서성이다가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찾았다.앞에 있는 문이 암시장의 문이란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문을 열고 들어가서 동생을 찾아야 하는데 긴장감으로 인해 손에 땀이 차며, 심장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졌다.긴장을 풀기 위해 깊은 심호흡을 수십 차례 하였지만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별수 없어 긴장 푸는 것을 포기하고 아인은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키며 안으로 들어갔다.조심스레 문을 열었더니 입구쪽에 독특한 문양의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커튼 너머로 문지기로 보이는 남자가 살인을 일으킬 것 같은 무서운 가면을 쓰고 서있었다.무서운 가면의 얼굴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아인을 보고 있었다.수상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같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보이게 서있는데 등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문지기를 보다가 천천히 안쪽으로 발걸음을 떼는데 누군가가 아인의 손목을 잡았다.화들짝 놀란 아인이 몸을 돌려 잡은 사람을 보았다.‘문지기는 아닌 것 같은데..’“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은발의 남자가 아인의 손목을 잡고 물었다.은발의 남자는 검은 와이셔츠에 대충 보아도 고가일 것 같은 재질의 흰 정장을 걸치고 있었다.얼굴은 말끔한 정장과는 상반된 웃고 있는 피에로 가면으로 가려져 눈동자와 입 밖에 보이지 않았다.“네? 아, 그게..”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인은 어버버 말했다.부스럭, 당황한 아인은 로브 모자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얼굴 쪽으로 내렸다.“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들어오신 겁니까? 위쪽 산을 올라가려다가 잘못 들어오신 건 아니신가요?”수상한 사람이라 생각해 잡은 건 줄 알았던 아인은 남자의 말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아녜요. 여기 오려던 것 맞아요.”남자는 아인을 빤히 보더니 천천히 손목을 놓았다.“그럼 이만..”아인은 몸을 돌려 문지기를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섰다.‘전에 간 곳 보다 훨씬 어두운 것 같아.’전에 갔던 암시장은 햇빛은 안 들어와도 촛불이 많아서 그런지 나름 환해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보는데 불편함이 없었건만 이곳은 물건의 색도 잘 안 보일 만큼 너무 어두웠다.천천히 걸어가며 물건을 보듯이 행동하며 동생을 찾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 동생을 찾기가 어려웠다.눈에 안 띄게 재빠르게 보고 나가고 싶었지만 잘 보이지 않아 뜻하지 않게 하나하나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한참을 요리조리 뚫어져라 보니, 사람들은 하나둘씩 아인을 이상하단 듯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아인은 결국 반도 보지 못한 채 경비원에게 어깨를 잡혔다.“뭐 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다니는 겁니까?”“네? 그, 그게 아니라..”아인은 눈을 굴렸다.“제가 물건을 찾고 있는데 찾는 물건이 안 보여서 여기저기 찾고 있을 뿐이에요.”“일단 이쪽으로 오시죠.”“아, 아뇨! 전 물건만 사고 빨리 가야 하는데요.”“일단은 이쪽으로 오십시오.”“아, 아니. 잠시만요!”경비원은 아인의 손목을 잡고, 힘을 주어 질질 끌고 갔다.예의상 많은 힘은 안 주었지만 그럼에도 아인은 힘없이 질질 끌려갔다.버텨보려 힘을 주었지만 슬프게도 눈밭에서 스키 타듯이 발이 끌려갔다.“놓거라.”아까 문 쪽에서 보았던 피에로 가면의 은발 남자가 아인과 경비원의 앞에 서있었다.남자의 말에 아인의 어깨를 잡았던 경비원은 재빠르게 잡았던 어깨를 놓으며 고개를 숙였다.“내가 해결할 테니, 가 보거라.”“네.”암시장의 높은 사람인지 아인의 손목을 잡았던 경비원과 그 뒤에 같이 왔던 경비원들은 은발 남자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떠났다.가면을 썼는데도 알아보는 걸 보면 암시장과 연관은 없진 않을 것 같았다.“괜찮으십니까?”“네? 아, 네..”“이곳은 보안이 생명이라 의심스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많이들 예민해진답니다. 놀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아.. 네..”“어떤 물건을 찾으시는 겁니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괜찮아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또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제가 빨리 찾아드리겠습니다.”"아니에요. 제가 폐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걸요.""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지요."아인은 속으로 제발 가달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차마 입으로는 거절의 말을 내뱉지 못하였다.“그.. 러면..”‘뭘 찾고 있다고 해야 하나..’아인은 암시장에서 팔던 물건들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다.잠시 후 아인의 손엔 눈알이 둥둥 떠 있는 유리병이 들려있었다.생각나는 물건이 이것밖에 없어서 말은 했지만 손에 들려 있다는 것만도 소름이 끼치는 물건이었다.“담을 봉투를 주게.”“네. 주인님.”‘주인님?’아인의 생각보다 남자는 더 높은 사람인 듯하였다.판매상은 투명한 유리병 안의 눈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일만한 불투명한 갈색 봉투에 넣어주었다.“물건도 구매하셨으니 이제 가실까요?”“네..”아인은 더 머물며 혹여나 동생이 있진 않을까하는 생각에 찾아보고 싶었으나 상인들의 시선과 경비원들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혹시나 동생이 보일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눈을 찌푸려가며 사람들을 보면서 밖으로 나갔다.바깥세상으로 발을 딛자 마자 암흑이다 할 정도로 컴컴한 곳에서 있다가 나오니 눈이 부셔서 쉽게 떠지질 않았다.시간이 지나 겨우 눈을 뜬 아인은 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가면의 남자는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아인을 쳐다보고 있었다.“아! 방금 전엔 감사했어요.”“그런데.. 이걸 찾으신 건 맞으십니까?”남자는 눈으로 눈알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리켰다.“네? 아.. 네. 이게 급하게 필요해서요.”“혹시 무엇에 쓰시려고 하는지 여쭤도 될까요?”"그.."아인은 무슨 말을 하던지 의심을 살 만한 말이 나올 것 같아 돌려댈 말조차도 할 수 없었다.남자는 아인의 답을 조용히 기다렸다."개,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이만 가볼게요!"아인은 말을 둘러대는 실력이 없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급하게 자리를 벗어났다.암시장의 형태도 안 보일 만큼 걸었을 즘에 앞에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율이는 찾지도 못하고, 이상한 눈알만 샀네..”눈알은 또 어찌나 비싼지.눈알 하나가 천 골드라니.. 빵이 십 골드인데 빵을 백 개는 족히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아인은 땅이 꺼지라 한숨을 푹 쉬었다.가면을 쓴 남자와 가면을 찾으러 갈 때에도 밖을 나올 때도 암시장 안을 그렇게 샅샅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을 못 찾은 아인은 벤치에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다가 한참이 지나 축 처진 몸을 끌고 눈알이 든 봉투를 들고 벤치에서 일어나서 터덜터덜 숙소로 갔다.한참을 걸었더니 숙소 근처의 시장이 보였고, 겨울이 되면서 해가 떠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하늘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저녁이 되면서 시장 안은 천막 밑에 옹기종기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아인은 배가 고파왔지만 돈주머니엔 겨우 숙소를 잡을 돈만 남아있었다.‘눈알 하나가 그렇게 비쌀 줄이야.. 그냥 비싸서 안 산다고 할 걸 그랬나?’돈주머니를 보며 울상이 된 얼굴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눈앞의 빵을 사 먹지 못하고 숙소에 가려는데“악!”아인의 키보다 조금 작은 어린 여자아이와 몸이 세게 부딪혔다.여자아이는 자기가 먼저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빠른 걸음으로 아인을 지나쳐갔다.‘뭐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삼키고 다시 걸어가려는데 쎄 한 기분이 들었다.나름 무게감이 있던 부분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설마..’아인은 천천히 돈주머니를 놓던 옷 주머니 부위를 만져보았다.“없어졌어..”여자아이는 아인의 눈앞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아인은 여자아이 쪽으로 몸을 돌려 뛰어가며 소리를 질렀다.“야! 너 거기 서!”빠른 걸음으로 걷던 여자아이는 아인이 뛰어오자 달리기 시작했다.전 재산이 걸린 일이란 생각에 아인은 무서운 표정으로 사냥개처럼 여자아이를 물어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쫓았다.여자아이는 잽싸게 이쪽, 저쪽으로 틀며 이 골목, 저 골목을 들어갔다.‘훗, 다른 건 몰라도 달리기 하난 잘한다고.’아인도 질세라 같이 몸을 틀며 쫓아갔다.달리기는 어릴 때부터 잘해서 여자아이의 빠른 스피드에도 아인은 미친 듯이 달려서 거의 따라 잡았다.둘은 닿을락 말락 하는 거리로 좁혀졌고, 아인은 옷을 잡아 멈춰 세우기 위해 손을 뻗었다.하지만 손을 뻗어서 잡히려 하면 거리가 살짝 멀어지고, 다시 거리가 가까워져서 잡힐까 싶어 손을 또 뻗으면 또 거리가 생겨 잡힐랑 말랑하며 잡히지 않았다.그렇게 한참을 추격한 끝에 앞에 막다른 길이 나왔다.건물과 벽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여자아이는 서있었다.“내놔. 일단 주머니부터 내놔.”아이는 아인의 말을 무시하고, 옆에 있던 건물에 쏙 들어갔다.아인은 악에 받친 얼굴을 한 채 아이를 따라 건물에 들어갔다.건물은 사람이 당연히 살 것같은 멀끔한 외관과 달리 안에는 폐건물인 거 마냥 아무것도 없고, 음산한 기운이 맴돌았다.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는 아이를 잡기 위해 아인은 두, 세 칸씩 뛰어 올라갔다.건물은 진짜 폐건물인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었다면 불이라도 켜져 있을 텐데 안은 온통 컴컴했다.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있어서 다행히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삼층까지 올라왔을까.여자아이는 아까와 달리 계단 위로 올라가지 않고, 몸을 틀어 안쪽으로 들어갔다.아인도 여자아이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텅 비었을 줄 알았던 공간엔 예상과 달리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큰 철통에 나무장작들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고, 낯익은 몇 명의 남자들이 섞인 여러 명의 남자들과 아인의 지갑을 훔친 여자아이가 서있었다.‘이 남자들 어디서 본 얼굴인데..’얼마 지나지 않아 아인은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이 났다.북부 처음 온 날 리즈번 쪽에서 동생을 찾던 아인을 쫓던 남자들이었다.아인은 현재의 사태 파악을 위해 생각에 잠겼다.생각 끝에 결론이 추려졌다.‘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날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해 내 주머니를 훔쳐서 내가 따라오도록 유인해서 이곳에 이 남자들을 만나게 해준 미끼 역할을 한 것인 거지? 그런 거지?’“오랜만이네?”그때 보았던 날 팔아넘기려던 비열하게 웃던 놈이었다.“그때 잡혀 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큭, 세상엔 돈으로 안되는 게 없지. 뒷돈만 주면 풀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돈 몇 푼만으로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야?참 더러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잠시하고, 아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슬금슬금 뒤쪽으로 무리와의 거리를 두며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뒤로 슬금슬금 가던 아인을 빤히 보던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너네 뭐 하냐. 잡아.”남자의 말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바로 아인에게 달려들었고, 아인은 잡힐세라 얼른 몸을 틀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아인은 재빠르게 이층까지 뛰어 내려갔다.일층의 출구가 코앞이었지만 출입구 쪽에서 다른 남성들이 들어오는 게 보여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삼층과 일층 사이인 이층에서 밑으로도 위로도 길이 막힌 아인은 이층 안쪽으로 들어갔다.텅 빈 곳에 혹여나 다른 출구가 있을까 찾았지만 다른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결국 출구는 하나뿐이었다.‘창문!’나갈 수 있는 출구는 창문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아인은 곧바로 창틀에 올라섰다.곧바로 일층으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머리와는 반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다리는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이 높이로 뛰어내리면 최소한 안 다쳐도 다리는 다치겠지?’아인은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아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남자들은 아인을 보며 비웃으며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었다.남자들의 가까워짐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던 아인은 결국 뛰어내렸다.실버 길드카엘은 아인에게 잘 갔다 오라며 인사를 하고, 숙소에서 나와 목적지로 향했다.길거리에는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길바닥에 누워있고, 몇몇은 동냥을 하고 있었다.눈앞의 집들은 사람 사는 집이 맞는지 죄다 무너져 갈 것같이 폐가에 가까운 상태로 위태롭게 서있었다.안쪽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니 흉측스러워 보일 정도의 낡은 저택과 사람들이 절대 안 살 것 같은 건물이 보였고, 그 건물 중 제일 음산해 보이는 건물 안으로 카엘이 들어갔다.일층 건물엔 사람 자체가 아예 안 보였고, 이층으로 올라가니 안쪽이 잘 안 보이는 반투명한 유리 판으로 가려져있는 카운터가 있었다.툭, 카엘은 금전을 카운터에 놓으며 맞은편의 유리창 안의 사람을 쳐다보았다.“발렌스 가의 최근 정보 알아낸 거 다 말해.”“크흠.”유리창 안쪽에 있는 길드원은 안경을 올려 쓰며 앞에 놓인 금전의 개수를 눈으로 세어갔다.금전을 다 센 길드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금전을 쓸어갔다.“전에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가 열심히 알아봤습죠.다른 길드는 저희처럼 알아내더라도 오래된, 필요없는 정보밖에 없겠지만 저희는 다릅지요.”“그래서 뭘 알아냈는데?”“발렌스 가의 여식이었던 영애가 일반 평민을 만나 결혼을 했었죠.태어난 피가 평민이라 그런지 여자 덕을 받고 귀족의 성을 물려받았는데 그 귀족의 가문이 돈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가문을 팔아넘겨 버렸죠.귀족 가문을 팔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귀족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테고, 평민들은 귀족이었다가 평민이 된 인간들이니 귀족들에게 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귀족에게 쌓였던 걸 그 집안한테 풀었겠지요. 아, 차 좀 드릴까요?”“됐어.”길드원은 말하느라 마른 목을 적시기위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어서 말했다.“그런식으로 미친짓을 했는데 어찌되었겠습니까. 결국엔 그 남자를 사랑했던 부인이 떠났지요. 그런짓을 해놓고 남편은 그 부인을 찾겠다고 떠나고요. 자식들은 아카데미를 중퇴하였으니 소속도 없어서 어디서 사는지 정보가 없었지요.”“그건 나도 알고 있으니 필요 없어. 다른 걸 말해.”“에헴, 보자보자~ 아 북부지역에서 살다가 자식이랑 아비는 2년 전에 동부지역 라우스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아, 그리고 딸은 동부지역으로 갔지만 아들은 혼자 여기 북부에 남았다더군요."말을 끝내며 길드원은 카엘에게 뿌듯하단듯이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었다.“더 없어? 그게 다야?”“네? 그게 다냐고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알아낸 것인데!”길드원은 자신이 잠도 덜 자가며 어딜 갔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읊으며앓는 소리와 함께 섭섭함을 토로했다."그래서 이게 다라고?"“알아낸 게 더 있긴 한데.. 동부 지역 쪽에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그 가문을 팔아넘긴 평민이었던 남자는 알코올중독에 도박중독에 도박 빚까지 있고, 같이 살던 딸은 얼마 전에 집을 나갔는지 현재는 집에 없다더라군요.아들은 이 북부의 암시장 쪽에서 보았단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거 말곤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요."“북부지역에서 있다는 남자 정보를 종이에 적어봐.”“네, 여깄습니다요.”길드원은 근처에 있는 아무 종이나 잡아서 알아낸 정보를 적어 카엘에게 종이를 슥 내밀었다.“더 알아봐. 보상은 할 테니.”“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살펴 가십시오~”카엘은 밖으로 나와 건물 앞에 섰다.쉽게 찾을 수도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을 갖고 있던 가문이 가문을 다른 일반인에게 팔고, 그 가족들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서 정확히 현재 어디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돈이 필요했다면 그 목걸이를 팔 텐데, 왜 가문을 팔았을까.가문이 아닌 자신이 찾고 있는 목걸이를 팔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카엘은 생각을 끝내고, 앞으로 손을 뻗었다.손바닥 위로 불이 화르르 일어나면서 붉은 매가 손위에서 날갯짓을 하며 나타났다.“가서 데인에게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오라고 해.”매는 날갯짓을 하며 높이 올라가더니 사라졌다.카엘은 자신이 머무는 숙소로 발걸음을 향했다.이렇게 흐지부지한 정보를 들을 거였으면 같이 암시장이나 갈 걸 그랬나 생각하며 아인을 떠올렸다.두 손을 불끈 쥐며 패기 있는 모습으로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면서 테이블 밑에 있는 다리가 덜덜 떨려 테이블이 같이 떨렸던 걸 회상하며 길거리에서 얼굴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그 겁쟁이가 암시장을 혼자 갈 생각을 하다니.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아이를 찾았다며 쿡 웃었다.마법이라도 좀 가르쳐 줄 걸 그랬나?카엘은 아인을 생각하다가 아인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바람 새는 웃음을 흘리며 숙소로 향해 계속 걸었다.숙소를 도착하니 숙소 앞에서 기다리는 긴머리의 남성이 보였다.“어디 다녀오십니까?”“뭐 좀 알아보고 왔어.”카엘은 길드에서 받아온 종이를 꺼내 데인에게 건넸다.“이 아이 좀 찾아봐.”데인이 접혀져 있는 종이를 펴보았다.“유디안 발렌스. 나이는 열일곱이라..아, 그 발렌스 가군요. 열일곱이면 그 집안의 아들이겠군요.”“그래. 북부에 있을 확률이 높다니까 알아봐.최근 행적은 암시장에서 보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쪽 위주로 먼저 알아봐.”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접어 자신의 옷 안쪽 주머니에 챙겼다.“암시장이면 그 아가씨랑 동행했으면 좋았었겠군요. 혼자 잘 갔을지 걱정이네요.”데인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났다.“어? 저기 그 아가씨 아닙니까?”데인의 시선이 머무는 쪽으로 카엘이 시선을 돌렸다.멀리서 아인은 은색의 긴 머리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었다.달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앞의 여자를 쫓고 있었다.카엘의 얼굴엔 흥미로운 기색이 피어올랐다."데인.""네?""사람들 불러서 같이 와."데인에게 말한 뒤 카엘은 아인의 뒤를 따랐다.아인이 간 곳으로 정확히 따라왔지만 아인과 아인이 쫓던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아인의 마력이 느껴졌으나 너무도 미미하게 느껴져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 주변을 두리번댔다.“흐음. 건물 안에 있으려나?”카엘은 아인의 기운이 느껴지는 쪽에 가까운 건물 쪽으로 다가갔다.건물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더니 위쪽에서는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위 쪽을 보니 나름 거리가 있음에도 확연히 보이는 핏기가 없는 창백한 얼굴에 겁먹은 표정의 아인이 보였다.아인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듯 자세를 잡기 시작했다.보통은 뛰어내릴 때 밑을 한 번 정도는 보고 뛰어내리는데 아인은 밑도 보지 않고 눈을 질끈 감고 바로 뛰어내렸다.밑에서 보고 있던 카엘이 아인이 뛰어내린 쪽으로 가벼우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였다.눈을 뜨고 바닥을 보면서 떨어져서 최대한 덜 다칠 수 있게 자세를 취하려고 했지만 무서운 높이에 차마 바닥을 볼 수 없어 결국 아인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탁,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인은 바닥에 엎어지다시피 쓰러졌다.많이 아플 거라는 생각과 달리 고통 없는 약간 푹신한 느낌이었다.‘아픈 감각조차 없을 만큼 아픈 건가?’눈을 스르르 떠보니 엎어진 곳이 바닥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아인의 밑에는 카엘이 아인에게 의해 깔려있었고, 아인은 누워져 있는 카엘에게 올라탄 채로 엎어져 있었다.어리둥절한 아인은 카엘을 코앞에 두고 눈만 꿈뻑거렸다.“무거워.”“네? 아.. 죄송.”아인은 재빠르게 카엘의 위에서 내려왔다.“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그건 나중에 말하고, 일단은 저것들부터 처리해야지.”두 사람 앞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카엘은 무표정으로 남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아인은 겁에 질려 카엘의 옷자락을 쥐었고 카엘은 표정없는 얼굴로 남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남자들은 금세 둘의 눈앞까지 와있었고 둘의 주변은 사방이 남자들로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아인은 어떡해야 할지 몰라 카엘을 쳐다보았지만 카엘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있었다.“어.. 쩌죠?”아인이 조심스레 카엘에게 물었지만 카엘은 나도 모르겠단 듯 어깨를 들썩였다.곧이어 비열하게 생긴 남자가 아인과 카엘에게 다가왔다. 남자의 길을 만들어주듯이 둘을 둘러싸던 남자들이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거리를 벌리고, 남자가 그 벌어진 거리 안으로 걸어왔다.카엘은 남자를 보며 씩 웃었다.“돈만 주면 풀려나고 참 좋아. 그치?”“훗,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지.”자신만만하게 웃는 남자를 보며 카엘은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그냥 들어간 게 나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줄게.”남자는 자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뒤쪽으로 물러나며 말했다.“죽여.”남자의 명령에 무리들이 각각의 무기를 들고 카엘에게 다가왔다."틈이 보일 때, 틈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어."카엘은 아인에게 귓속말로 작게 속삭이고, 다가오는 두 명의 남자들에게 다가갔다.다가온 남자는 도끼로 있는 힘껏 위쪽으로 들어 올려 카엘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카엘은 가볍게 몸을 틀어서 피해서 뒤에 같이 다가온 남자의 배를 발로 차버렸다.뒤에 있던 남자는 앞의 도끼를 든 남자를 믿고 방심했는지 피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나가떨어졌다.앞에 있던 남자는 카엘이 피해서 카엘을 찍어 버리려던 도끼가 바닥에 박혀버려 꺼내기 위해 힘을 다해서 빼내고 있는데 그걸 본 카엘이 발꿈치를 들어 올려 도끼로 내려찍듯이 남자의 머리를 발로 꽂아버렸다.“순서 정하는 거야 뭐야! 다 같이 가버려!”비열하게 웃는 남자는 하는 짓마저 비열했다.한 명을 여러 명이서 공격하라고 하다니.맨 뒤에 있는 한 명을 제외한 여덟 명의 남자들이 다 같이 카엘에게 달려들었다.카엘은 가소롭단 듯이 비웃음을 날리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남자부터 하나하나씩 처리해갔다.싸웠다고 해야 할지, 때렸다고 해야 할지.카엘은 상처 하나 없이 상대방들만 죽어났다.한 명이 때리려 하면 그 즉시 피해서 옆의 다른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자신에게 때리려 했던 사람에게 다시 가서 발로 차버렸다. 가벼운 몸놀림이 과장하자면 한 편의 예술 같았다.무기도 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쓰러지다니.여덟 명의 남자는 사이좋게 바닥에 있었고, 뒤 쪽에 있던 한 명의 남자는 앞의 남자들과 다르게 입고있는 판쵸에 붙어있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채로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있었다.가만히 있던 것도 잠시. 얼굴을 가린 남자는 알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인듯한 말을 내뱉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뱀의 형태가 생겨났고, 카엘에게 이빨로 물어뜯을 기세로 입을 벌린 채 달려들었다.카엘은 뱀의 공격을 피해 뒤 쪽으로 뛰었고, 카엘이 서있었던 자리의 바닥은 뱀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폭탄이 떨어진 거 마냥 깊게 파였다.카악, 뱀은 계속해서 카엘을 재빠르게 공격하였다. 카엘은 뱀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다치지 않고 피했다.카엘의 주문에 용의 형태가 생겨나며 그 형태는 점차 선명해지더니 완벽한 큰 용이 되었다.용과 뱀의 싸움이었다.용은 불을 뿜어 뱀을 공격했다.입에서 나온 큰불이 뱀을 한순간에 제압시켰다.용에게 덤빌 수 없다고 계산한 뱀은 경로를 바꿔 아인을 공격했다. 뱀은 아인에게 입을 벌린 채로 씹어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갑자기 눈앞에 뱀이 달려들자, 겁에 질린채로 도망도 못 가고 팔로 얼굴을 감쌌다.시야가 가려진 채로 곧 다칠거라고 예상했지만 고통 없이 조용했다.천천히 감싸고 있던 팔을 걷고, 질끈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 뱀이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거센 불길이 아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이윽고 카엘의 용이 뱀의 몸을 감싸버렸다. 용은 뱀의 몸을 감싸며 점차 뱀을 숨통을 조였다.“뱀뱀아!”뱀의 이름이 뱀뱀인지 얼굴을 가린 마법사는 뱀뱀을 부르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시간이 지나면서 뱀은 조여짐에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수그러 들었다.뱀은 점차 형태가 흐려지더니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들어가.”카엘의 말에 용도 점차 형태가 흐려지더니 언제 있었냐는 듯 감촉같이 사라졌다.비열하게 웃던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아예 보이질 않았고, 마법사는 카엘에게 붙잡혀 나무에 몸이 묶였다.긴 머리를 휘날리며 데인과 다른 기사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기사들은 마법사와 쓰러져있는 남자들을 포박한 채 질질 끌고 갔다.모든 게 정리된걸 보던 아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아인은 설움에 복받쳐 울기 시작했다.“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울어.”“어어엉, 내 돈주머니.”아인은 얼마 없던 돈마저도 없어졌단 거에 엉엉 울기 시작했다.“돈 때문에 우는 거야?”“빵도 안 사 먹고 아껴둔 건데. 흡..”아인은 울분이 격해지며 땅에 팔로 얼굴을 감싸고, 엎드린채 격하게 울었다.서러운 마음이 격해진 아인은 대성통곡을 하다시피 울다가 이내 숨이 넘어갈 듯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우는 사람을 달래본 적도 없고, 돈 때문에 우는 사람도 처음 봤는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카엘은 그냥 잠자코 내버려 둔 채로 가만히 있었다.한참 시간이 지나 이내 지쳤는지 훌쩍 거리는 소리만 들렸다.“다 울었어?”“흐.. 네.. ”땅에 박고 있던 머리를 들며 조용히 일어났다.카엘은 바닥에 눈물로 젖어있는 낙엽을 내려다보았다.“많이도 울었네.”“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아인은 훌쩍이며 카엘에게 물었다."시장에서 달려가는게 보이길래 따라와봤지. 따라와봤더니 안 보이더라고.근처에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위쪽에서 떨어지던데."“고맙습니다. 으.. ”죽을뻔했던걸 떠올리며 다시 눈물이 치솟았다."더 울다간 붕어눈 될 것 같은데."“으.. 안 울어요. 가요.”“카엘님!!”데인이 카엘과 아인 쪽으로 달려왔다.“하아.. 카엘님은 괜찮으실 테고, 아가씨께선 괜찮으십니까?”아인은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다.“다행입니다. 큰일 날뻔하셨네요.”"왜 나는 당연히 괜찮은 건데?""사지 멀쩡히 있지 않으십니까?"“사지 멀쩡한 채로 배만 뚫려볼래? 그래도 사지는 붙어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치?”"전에도 쉽게 처리했던 무리 아닙니까."둘의 작은 투닥임을 보다 보니, 아인은 점차 진정이 되었다.아인은 옷소매로 눈가의 눈물을 닦으며 카엘과 숙소로 향했다.“오늘은 찾았어?”“아뇨..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혹시 데인이 다른 암시장 위치를 알려주었나요?”“아니, 그런데 다른 곳에서 듣긴 했지.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내일 가 보는 게 나을 거야.”“지금도 열어 있을까요?”당장 갈 기세로 아인이 물었다.돈도 없으니 빨리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다."지금은 늦었어. 지금 가면 이상한 놈들 들끓을 거야. 낮에 가는것보다 더 위험해."“아..”마음은 급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위험해지는 건 사양하고 싶었다.숙소의 근처에 있는 시장이 보였다.늦은 시간이라 상인들은 가게를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들을 보던 아인의 시야에 빵가게가 들어왔다.‘저 빵을 먹었으면 차라리 덜 서글플 텐데.’카엘은 아인의 슬픈 눈으로 시선이 빵 가게에 있는 걸 보더니 빵을 파는 상인에게 다가갔다.“이것들 남은 거 다 계산해.”문을 닫기위해 가게를 정리하던 상인은 살가운 웃음을 보내며 제값보다 싸게 준다며 다음에도 오라며 인사했다.카엘은 빵이 담긴 봉투를 아인에게 건넸다.빵을 받은 아인은 눈만 껌뻑였다.“먹어.”“아.. 감사해요.. 으..”감동하여 다시 울먹거리는 아인을 보며 카엘은 더 울면 빵은 못 먹을 줄 알라며 경고했다.아인은 빵을 자신의 품으로 더 끌어당기며 소매로 눈가를 닦고 언제 울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둘은 숙소에 도착했고 숙소 앞에 바닥을 쓸던 숙소 주인이 둘을 맞이했다.“두 분 같이 들어오시네요.”숙소 주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인을 쳐다보았다.“아가씨, 오늘 숙박비 결제 안 한 거 아시죠?”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숙박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다.돈까지 없어진 마당에 여기서 묵을 다른 방법은 없었다.“죄송한데, 제가 돈을 잃어버려서 오늘부터 숙박을 못할 것.. 같아요..”아인은 다시 울먹거리며 눈에는 곧 쏟아질듯한 눈물이 차올랐다.“아이고, 왜 울어요.”“으..”“돈을 어디에다 잃어버렸길래 그래요?”아인은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숙소 주인이 놀란 눈으로 토닥이며 달래주었고, 아인은 그 토닥임에 울컥함이 폭발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시간이 좀 지나서 진정한 아인이 간단한 전후 사정을 말하자, 숙소 주인은 오늘은 늦었으니 그냥 자라며 이불 덮고 푹 쉬라며 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아인은 감사하다며 다시 울고, 카엘이 울고 있는 아인을 끌고 올라갔다.“흡. 은혜는 꼭 갚을게요, 감사합니다!”“그래요~ 푹 쉬어요.”방문 앞에 도착한 아인이 카엘을 쳐다보았다.“오늘 감사했어요..”“그래.”카엘은 대답 한 마디를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다.아인도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침대 옆의 의자에 앉아 카엘이 사준 봉투에 있는 빵을 꺼내서 야금야금 씹으며 오늘을 회상했다.겁먹고 바들바들 떨었던 게 한 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카엘을 보는 순간 긴장이 확 풀리고, 지금은 빵 맛을 음미하는 자신의 모습이 웃겼다.‘이렇게 쉽게 긴장이 풀릴 일이 아닌데.’빵으로 배를 두둑이 채운 아인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몸을 녹이다가 스르르 잠에 빠졌다.전날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잠든 아인은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눈이 떠졌다.시간을 확인한 아인이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욕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씻고, 밖으로 나갔다.똑똑, 카엘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선 아무 소식이 없었다.‘어디 나갔나?’아인은 계단을 내려와 숙소 주인에게 물었다.“저, 그 어제 보신 제 옆에 있던 남자 혹시 오늘 보셨나요?”“숙소 앞에 계실 거예요. 한 번 가봐요.”“네, 감사합니다.”숙소를 나왔더니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있는 데인과 카엘이 보였다.“안녕하세요.”“어제 일로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데인이 아인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다.“네, 괜찮아요. 푹 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저.. 근데 말 놓으세요.”데인은 귀족이었고 아인은 귀족이 아니었으니, 거기에다 나이도 아인보다 많아 보였다.데인이 나이가 더 어리더라도 데인은 얼마든지 아인에게 반말을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오히려 존댓말을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네? 반말이요? 할 수가 없죠. 두 분이 어떻게 되실 줄 알고 말을 놓습니까?”“네?”“그런 사이 아니라고 오늘 몇 번을 말하냐.”“처음은 다 아무사이 아닌 거로 시작하죠. 처음부터 나중의 일을 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이렇게 며칠을 매일 보시면서.”“숙소가 같으니까 안 보려 해도 볼 수밖에 없지. 소설 그만 써.”데인은 나와 카엘이 지금 연애 초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비 커플로 보는 것 같았다.카엘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으니 반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겠지.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인을 무시하고, 다른 얘기로 주제를 돌렸다.“다른 암시장의 위치 알려주세요.”“아, 카엘님과 아인님에게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들렸습니다.카엘님이 알려주신 다른 암시장은 오늘 원래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슨 일인지 암시장을 정리하였습니다.”“정리했다는 건 아예 안 연다는 건가요?”“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암시장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아..”“제가 다른 곳에 열리는 소식이 들리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아, 그리고 카엘님이 알아보라 하신 것도 알아내는 대로 바로 알리겠습니다.”“네.. 감사해요..”“그래.”“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거라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데인은 인사를 하고 일터로 향했다.“찾을 수 있을 거야.”힘이 빠진 아인을 보며 카엘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아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아인은 데인이 앉았던 자리에 털썩 앉아서 한숨을 쉬었다.“땅이 꺼지겠네. 찾을 수 있을 거야.”“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기다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그렇죠."아인은 씁쓸하게 웃었다.“아! 오늘 저 마법 좀 알려주세요. 해보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아예 몰라서 아무런 시도도 못해요.”“하긴, 전처럼 위험할 수 있는데 마법사가 마법도 한 번 못써보고 도망 다니기만 하면 슬프지.”아인이 카엘을 째려보았다.“그래요. 마법 한번 못써보고 뛰어다니기만 하면 슬프니까 알려줘요.”“새알은 불러봤어?”“그전에 본 알이요?”“그래.”“새알이라고 부르면 나오나요?”아인을 잠시 동안 조용히 보던 카엘이 키킥 대며 웃었다.“한 번도 안 부른 거야? 설마 잊고 있던 건 아니지?”“그.. 요새 바빴잖아요. 생각할 겨를이..”“남들은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신수급 권속을 가졌는데도 무관심하다니. 새알이 불쌍하네.”카엘은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그래, 일단은 배부터 채울까? 배가 또 성을 낼 것 같은데.”아인은 오늘 카엘이 자신을 놀리는 재미를 붙인 것 같아 미간이 찌푸려졌다.“아침이니 간단한 걸로 먹을까?”“네, 간단한 거로 많이 사주세요.”“그래. 조금 먹으면 안 되지.”카엘의 시선 끝엔 아인의 배가 있었다.“그만 좀 놀리고 빨리 가요.”식당 안 둘의 사이엔 과일샐러드와 여러 종류의 빵, 버터와 크림이 놓였다.빵과 같이 나온 버터와 생크림을 듬뿍 묻혀 입에 쏙 넣었더니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으로 퍼져나갔다.어젯밤에도 빵을 먹고 자고 요 근래 계속 빵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지만 빵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었다.둘은 대화 없이 식사에 집중했다.남김없이 음식을 다 해치우고, 직원이 비운 그릇을 치우고 후식으로 아인의 홍차와 카엘의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이제 방법을 알려줘봐요.”“방법이라.. 글쎄, 나도 잘 몰라. 마법을 한지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마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뭐 준비 자세 같은 것 없어요?”“음.. 몸에서 기를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해봐.”아인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었으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았다. 자신의 몸속에서 있던 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느낌을 상상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아무것도 안 생기는데요?”“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 계속해봐.”‘피가 뽑힌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려나?아인은 눈을 감고 몸속에서 피가 뽑혀나가는 것을 상상했다.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처음부터 욕심낼 필요 있어? 나중에 천천히 하고 차 마셔.”“아뇨. 잠시만요 좀 더 해볼게요.”“열심히 하네.”“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이거로 직업도 할 수 있다면서요.”“그래, 그래. 열심히 해봐.”카엘은 커피를 먹으며 아인을 구경하였고, 아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집중했다.열심히 한참동안 피가 뽑힌다는 생각과 기를 내보낸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마법은 생각처럼 되질 않았다.“오늘 꼭 안 해도 돼.”“아뇨! 첫걸음을 얼른 떼야 두 번째 걸음을 하죠.”카엘은 턱을 괴고, 집중하는 아인을 보며 말했다.“상황을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어떤 상황이요?”“동생을 아끼니까 동생으로 상상을 해봐.”“네?”“눈앞에서 동생이 어제 본 족제비한테 맞고 있어. 어때?너는 그 놈을 때려 눕히질 못하니, 마법을 써서 동생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야.”족제비는 어제 본 비열하게 생긴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동생을 때리고 있다라..눈을 감은 아인의 앞에 상처가 나있는 맞아서 쓰러져 있는 동생과 비열하게 생긴 족제비가 그려졌다.아인은 인상을 찡그리며 분노했다.“마법은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냐.”다행히 카엘의 말은 아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내보낸다. 내보낸다.몸속의 일부를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율이 맞고 있고, 내가 보호해줄 수 있다..’순간 아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쩌적 소리가 나며 테이블은 실금이 가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로 되어있는 꽃병과 옆쪽의 유리창이 금이 가더니 와장창 깨졌다.이어서 사람들의 놀라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아인이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 주변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은 깨지고, 꽃병에 있던 꽃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테이블은 반으로 큰 금이 가 있었고, 옆의 유리창은 깨진 채로 바닥에 가루로 되어있었다.‘어.. 이게..’아인은 상황이 이해되질 않아 눈만 껌뻑였다.카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의 커피를 마시려 입에 갖다 대었다.탕, 입에 갖다 대었던 찻잔이 손잡이만 카엘의 손에 남은 채 몸통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카엘의 커피잔마저 깨진 탓이었다.찻잔의 손잡이만 들고 있게 된 카엘은 바닥에 찻잔의 손잡이를 놓았다.“어머, 이게 뭐야?”“무슨 일이야?”사람들이 놀란 눈을 하고 아수라장인 아인과 카엘의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저 여자한테서 빛이 나면서 이것들이 깨졌다니까?”“빛이 났어?”“마법사야?”‘내가 했다고?’“이.. 거 제가 한 건 아니죠?”아인이 카엘을 보며 물었다.“어머! 이게 뭐야! 이게 무슨일이야!”어디선가 여성의 큰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목소리의 주인공은 인파들 사이사이로 들어와 아인과 카엘에게 왔다.식당의 주인이었다.“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식당의 주인은 무서운 표정으로 둘에게 잡아먹을 기세로 물어왔고, 아인은 여전히 벙찐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깨진 유리창을 보고 있었다.“장소를 잘못 잡았네.”식당 주인의 무서운 얼굴을 보던 카엘은 킥 웃으며 식당 주인에게 수리비로 쓰라며 금전을 내밀었다.식당의 주인은 자신의 손바닥에 놓여진 금전을 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얼굴이 독기가 사라진 채로 온화한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인의 손목을 잡고 식당을 나갔고, 식당 주인은 허리가 꺾일 듯 최대한 숙이며 인사를 하며 다음에도 다시 오란 인사까지 하며 문 앞까지 배웅했다.식당을 나온 카엘이 아인의 손목을 놓고 걸었다.카엘이 다섯 걸음 정도 걸었음에도 아인은 뒤따라오지 않고, 가게 앞에 가만히 서있었다.“안 따라와?”카엘은 뒤돌아서 아직도 얼이 빠져있는 아인을 불렀다.카엘의 목소리에 눈을 크게 뜬 아인이 부랴부랴 카엘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놓고 가기 전에 잘 따라와.”“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앉을 의자가 있는 곳.”카엘은 공원 안으로 향했다.아인도 뒤따라서 공원으로 들어갔고, 카엘이 공원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며 말했다.“정체가 뭐야?”“네? 무슨 말이에요?"“처음 마법하는 거라면서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 아무리 마법을 잘 다루는 고급 마법사도 처음엔 작은 마법밖엔 못 써. 실력이 상당한 마법사가 아까처럼 식당에서 처음 했다면 고작 유리잔 하나를 금이 가게 할 수 있을 거야.”“그렇지만 진짜 처음 인걸요.”카엘은 팔짱을 낀 채로 서있는 아인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마법사들은 일반적으로 물, 불, 바람으로 마법을 발현하지. 보통의 속성이 이 세 가지란 말이야.”“저는 그럼 속성이 뭐예요?”“그걸 나도 모르겠네.”“아까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바람 아닐까요?”“그럴 리가 없지. 식당 안에선 유리들이 깨지는 순간에도 바람 한 점이 없었거든. 생긴 거라곤 빛밖에 없었어."“빛이요? 그럼 제가 빛이 속성이란 건가요?”“빛의 마법사가 현존한단 이야긴 어디에도 없어. 만약 있었다면 여태 없었던 빛의 마법사의 나타남으로 크게 소문이 났을 거야. 하지만 내 귀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갑자기 나타난 여자아이가 물, 바람, 불의 마법이 아닌 다른 마법을 쓴다라.자신이 마법사인지도 모르고 처음 마법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니.카엘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여자였다.카엘은 아인을 보며 웃었다."일단은 마법이 더 익숙해지면 확인이 될 테니 확실하게 알려면 연습부터 해야겠네. 그런데"“네?”“그전에 한 번도 마법을 쓴 적이 없어? 무의식적으로도?”아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카엘을 보았다."이 정도의 마법이라면 어릴 때 무의식적이라도 쓴 적이 있을 텐데."동부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아버지는 갑자기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며 나에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결혼을 보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아저씨들이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아버지에게 돈을 줄 터이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아버지나 아저씨들이나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남자들이 많았다.그래도 어떻게 열 여섯때부터 결혼을 보내려고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돈으로 여자를 합법적으로 사는 거나 다름없었다.이상한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할 때마다 싫다고 완강히 거부하였었고, 동생과 어머니도 말리고, 주변 사람들도 말려서 다행히 결혼은 피할 수 있었다.이상한 남자들이 자신과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게 지저분하게 앞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듯한 옷을 입고 살았다. 여자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였다.아버지는 내 모습에 혀를 차며 잔소리를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이렇게 해야 남자들이 아예 결혼할 생각도 안 들 것 같았다.덕분에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게 꾸며보는 그런 일은 절대 못했으나, 어차피 가난해서 꾸밀 돈도 없었으니 상관없었다.특히나 나이 든 남자에게 팔려 갈 바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았으니.여자다운 면은 일도 없고, 가문도 팔아먹은 집안의 여식이라며 다들 꺼려 했는데 그중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남자를 용케도 찾았나 보다.“싫어요! 전 그런 결혼 안 해요!”“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시집이나 가. 계집은 결혼하기 위해 태어나는 거야. 여자의 본분을 지켜라.”여자의 본분이 결혼이라니. 그딴 게 어디 있어.분명 결혼 지참금을 노리고 벌인 일일 것이었다.“아버지!”“시끄럽게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그 대화가 있고 이틀이 지난날 오십 대로 보이는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남자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아인을 위아래로 훑었다.그 시선에 역겨움이 일어났다.키는 아인과 거의 비슷한 정도였으며 어울리지 않게 길면서도 반짝이는 화려한 귀걸이도 하고 있었다.그것도 하필 아무도 없고, 나만 있을 때 찾아오다니.“잠시 들어가겠습니다.”남자는 집주인에게 대답을 듣지도 않고,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제 집처럼 편하게 의자에 앉았다.“누구시죠?”“아버지께 들었겠지요?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 왔습니다.”아인은 아버지가 말한 남자가 이 남자란 것이 확신이 들었다. 누구냐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남자를 째려보며 말했다.“난 결혼할 생각 없어요. 나가주세요.”남자는 내 반응을 대충 예상했는지 여유롭게 웃으며 코트 안쪽에 있는 종이를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꺼내어 들고 흔들었다.“이게 뭔지 압니까?결혼 계약서입니다.”남자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종이에는 결혼의 내용과 결혼한다는 목적으로 남자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여기 아버지의 서명도 보이지요?”남자는 아버지 이름이 자필로 쓰여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능글능글 웃었다.계약서가 있다 한들 이렇게 결혼할 수는 없었다.애초에 자신의 의사가 아예 없는 계약서였으니.“그 돈은 나랑 상관없는 돈이에요. 나가세요!”아인은 남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남자는 다른 사람처럼 웃음기를 지우고 굳은 얼굴을 한 채로 의자에서 일어났다.“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내 의사가 없다면서 나 몰라라 잡아 떼려고 해?”“나, 나랑은 상의 없이 벌인 일이잖아요!”“그렇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아? 존댓말을 해준다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 안 되지.”남자는 아인의 손목을 잡았다.“이, 이거 놔요! 소리 지를 거예요!"“쿡, 질러. 남편이 부인 손목 잡는데 무슨 죄라고.질러, 질러봐. 이 계집이 꽤 앙칼지네?”남자는 손목을 잡은 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아인의 얼굴을 쓸어내렸다.손길은 얼굴 쪽에서 목 쪽으로 내려왔다.“이 미친! 놔, 놔 이 미친 새끼야!”“더 질러. 크큭, 소리 질러도 와줄 이웃은 있어? 사람들이 꺼려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소리를 지른다 한들 누가 와. 계속 질러.”이 남자는 변태였다.지보다 한참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남자는 즐기듯이 웃으며 아인의 목 주위를 손으로 더듬었다.“놓으랬지!”햇빛이 지면서 집안에 노을이 비친 건지 집안이 빛이 났고, 남자는 갑자기 뒤에 있는 벽 쪽으로 몸이 날아가더니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부딪힌 벽은 충격으로 인해 금이 갔고, 그 벽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남자는 기절했는지 입을 벌린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다.곧이어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였고, 기절한 남자를 보고 놀래서 달려가 몸을 흔들며 깨웠다.남자는 아버지에 흔듦에 정신을 차리더니 아인을 보고 식겁한 듯이 귀신을 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집을 뛰쳐나갔다.다행히 그 이후로 결혼은 무효 처리되었었다.아버지에겐 자신의 뜻대로 안되었다며, 무슨 수를 써서 저 남자를 기절시킨 거냐며 쥐어 터지도록 맞았으나 좋았다.팔려 갈 바엔 쥐어터지는 게 훨씬 좋았었다.그 당시에 남자가 벽으로 날아갔다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었지만 파혼을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크게 생각을 못 했었다.‘그럼 그때도?’“전에 아까와 같이 비슷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게 제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때도 물, 불, 바람 같은 건 없었어?”“네, 그냥 해가 지면서 생긴 노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노을인지 아까처럼 빛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그때도 유리들이 깨졌어?”“아뇨. 사람이 벽으로 날아갔어요.”아인의 말에 카엘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잘 보여야겠네. 나도 벽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카엘의 놀리는 듯한 말에 맞대응을 하려고 노려보았으나 웃는 얼굴에 맞대응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저런 얄미운 말을 하는데 말과 다르게 해맑게 웃는 천사의 얼굴이었다.‘저 남자의 얼굴은 무기야.’오늘부터 잘 곳이 없어진 아인은 오늘은 어디서 자야할지 생각에 빠졌다.‘지유가 있었어!’지유의 집이 이 근처이니 지유네 집에서 잠시 동안 신세 좀 져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잘 곳이 있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아, 찾는다는 건 찾았어요? 어제 찾으러 간다 했었잖아요.”“아니. 꼭꼭 숨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다음 암시장은 열면 같이 가면 되겠어. 나도 암시장에서 찾을 게 있거든.”“네. 그럼 제가 숙소로 내일 아침에 올게요.”“숙소에 있을 거면서 숙소로 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어제는 숙소 주인분이 무료로 묵게 해주셨지만 오늘은 다른 곳 가야죠.”“갈 곳은 있고?”“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 있어요. 그 집에 부탁하려고요.”“그냥 있어. 번거롭게 뭘 왔다 갔다 해. 내가 내줄 테니-”“아녜요! 여태까지 해주신 것도 너무 많고, 식당도 저 때문에 변상까지 하셨는데 더는 빚을 질 수 없어요.”아인의 단호한 표정과 말에 카엘이 피식 웃었다.“그래, 그럼 일단 숙소로 갈까?”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숙소로 간 아인은 짐을 챙겨서 내일 일어나는 대로 오겠다고 말하고, 지유네 집으로 향하였다.‘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하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 결국엔 노숙밖에 길이 없었다.이러나저러나 노숙이니 아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전에 지유가 말해주었던 지유의 집을 향해 걸었다.금세 해가 져서 어둡고, 찬바람이 점차 더 거세졌다.찬 바람을 뚫으며 한시간 정도 걸어서 지유의 집에 도착하였다.똑똑, 문의 두드림이 있고, 얼마 안 되어 문이 열렸다. 문의 안쪽에는 지유와 지유의가족이 아닌 낯선 중년의 여자가 있었다.‘지유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친척인가?’“누구세요?”“여기 지유네 집 아닌가요?”“지유? 전에 살았던 사람을 찾는가 보네. 그 집은 얼마 전에 이사 가고 저희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아..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아인은 집주인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묵을 곳이 여기 밖에 없었던 아인은 갈 곳이 없었다.터벅터벅 길거리를 걷다가 찬바람에 너무 추워서 짐 가방을 열어 겉옷을 하나 꺼내서 걸쳐 입고 공원 벤치에라도 앉아 있기 위해 공원 안으로 들어갔지만 앉을 수가 없었다.벤치의 의자는 노숙자들의 침대가 되어 있었고, 공원은 오갈 곳이 없는 아인과 같은 처지의 남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몇몇의 안 자는 노숙자들은 아인을 보고 있었다.시선이 불편한 아인은 결국 공원에서 나왔다.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마땅히 쉴 곳도 없으니 체온이라도 올리고자 정처 없이 걷고 걸었다.한참을 목적지 없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숙소가 보였다.숙박했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있던 때를 회상하며 숙소를 바라보았다.‘그때가 좋았지. 그 여자 아이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밖에서 밤을 지새울 일은 없었을 텐데.’돈주머니를 훔쳐 간 여자아이를 잠시 생각하다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체념한 아인은 숙소의 앞에 있는 기다란 의자에 앉았다.아직도 춥긴 하지만 여기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다.‘해는 언제 뜨려나.’해가 뜨면 그나마 덜 쌀쌀할 텐데. 시간이 새벽에 가까워지며 차가운 바람이 아인을 덜덜 떨게 만들었다.그래도 초겨울이라 그나마 버틸 수 있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짐 가방에서 옷을 꺼내어 춥지 않게 이불처럼 몸을 감쌌다.차가운 바람 때문에 잠을 못 잘 거라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아.. 입 돌아가면 안 되는데..”아인은 결국 잠에 빠졌다.“세상에! 아가씨 괜찮아요?! 아가씨 일어나 봐요!”숙소 주인이 아인을 목이 거세게 흔들릴 정도로 깨웠지만 아인은 눈을 뜨질 않았다.“객사한 거 아냐?”“어머, 객사라뇨. 아직 그 정도의 날씨는 아니에요.”“숨 쉬나 코에 손 대봐.”“난 무서워서 못해요. 당신이 해봐요.”“다른 사람을 불러오지.”“남자가 얼른 해보지. 어유 겁도 많아서 어디에다 써먹겠어요.”“겁이 나서가 아니라 시체는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랬어!”둘의 투닥거림에 시끄러울텐데도 아인은 반응하지 않았다.“안되겠어. 이층 방 손님 모셔와.”“그분을 어떻게 데려와요! 것도 이런 이른 시간에!”“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자주 같이 다니시던데.”“그건 그렇지만..”“아픈 거면 병원을 가고, 죽은 거면 장례를 치러야 할 것 아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살 수 있는데도 죽겠어.”“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녜요.”숙소 주인 부부의 대화 끝에 부인이 이층으로 향했다.똑똑, 이른 시간에 웬만하지 않으면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문을 두드려도 소식이 없었다.열 번 정도의 두드림 끝에 카엘이 문을 열었다.“뭐야.”“어유, 이런 이른 시간에 죄송해요. 사안이 큰지라.”“뭔데.”“이층에 묵던 여자분 있죠? 그분이 지금 숙소 앞의 의자에 누워있는데 눈을 뜨질 않아요.”어제 잘 곳이 있다면서 짐 싸 들고 갔던 여자가 왜 뜬금없이 밖의 의자에 누워있는지.카엘은 곧바로 방문도 닫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밖으로 나가보니 숙소 주인 부부가 아인을 깨우고 있었고, 아인은 눈을 감은 채 아무반응도 하질 않았다.“저리 비켜봐.”“네!”카엘이 아인의 코 쪽으로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찬바람 때문에 아인의 코에서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숨 쉬는지 확인이 어려워진 카엘은 아인의 머리를 쓸었다.숙소 주인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아이고, 갈 곳 없으면 하루만 더 신세 지게 해달라고 하지!”주인 여자는 크게 울면서 아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아인의 머리를 쓸던 카엘은 머리끝 쪽으로 손이 내려가며 머리끝 쪽을 잡았다.은발의 머리칼이 들어올려지며 머리 끝부분을 아인의 코에 간질였다.순간 아인의 몸이 자그마한 발작이 일어나듯이 꿈틀했다.작은 경기를 일으키듯이 꿈틀거린 몸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굳은 것처럼 움직임이 없었다.“살, 살아있구먼. 송장이 아니야. 살아있어.”아침부터 장례를 치를 뻔했다며 부부의 안도하는 말이 들려왔다.카엘은 아인의 허리와 허벅지에 팔을 넣어 들어 올렸다.“일단 옮기지.”“네!”주인 부부는 아인의 짐을 가지고 카엘의 뒤를 따랐다.카엘은 아인을 안아 들고 이층으로 걸음을 향하였다.방에서 나갈 때 문을 안 닫고 가서 살짝 열려있는 방문을 발로 활짝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부부는 짐을 들고 뒤따라와서 문밖에서 서있었다.“거기 두고 가봐.”카엘이 아인을 침대에 눕히며 이불을 덮어주며 숙소 주인에게 말하였다.“네, 쉬십시오.”부부는 방 한편에 짐을 놓고, 조심히 문을 닫았다.항상 가리고 다니던 앞머리가 옆으로 넘어가서 아인의 가려졌던 얼굴이 드러났다.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수상하게 보며 거리를 두던 아이였다.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자기 모습이 더 수상해 보이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가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나 보다 생각했지만 가려졌던 얼굴은 흉터도, 잡티마저도 없는 깨끗한 얼굴이었다.못생겨서 가렸다고 보기도 어려웠다.얼굴은 어딜 가도 못생겼다고 들을만한 외모가 아니었다. 가련해 보일듯한 여성상에 남자들을 어느 정도는 울릴 수도 있을법한 얼굴이었다.뭣하러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다닌 걸까.카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팔을 기대어 턱을 괴고 아인을 보았다.밖에서 많이 고되었는지, 악몽을 꾸는 건지 간간이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잠에 든 아인을 뚫어져라 보았다.잘 곳이 있다면서 짐을 들고 가더니 잘 곳이 사라졌는지 밖에서 노숙을 하다니.갈 곳이 없어졌으면 자신의 방도 알겠다. 와서 돈을 빌리든지 하지. 밖에서 잠들건 뭐람.제 몸을 건장한 사내로 착각하고 있는 건가.카엘은 아인의 은빛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로 넣었다가 뺐다가 동그랗게 꼬며 손장난을 하였다.똑똑, 노크 소리에 카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문 앞에는 데인이 서있었다.“뭐야. 왜 왔어?”“왜 왔냐고 하셨습니까? 섭섭한 말씀을 어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그거 알아내라 한건 알아낸 거야?”“일단 들여보내시고 물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어? 저 침대에.. 은발.. 뭡니까! 아인님 맞으시죠? 맞죠?”데인의 큰 목소리가 다른 방도 잘 들리게 복도를 울렸다.카엘은 복도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데인의 옷자락을 끌고 방안으로 끌어당겨서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시더니. 역시 제 감이 틀리질 않았군요.”“무슨 헛소리야. 그런 거 아냐.”“아니면 단둘이, 그것도 남녀가 한 방에 있는데. 뭐란 말입니까? 괜찮습니다.카엘님이 부끄럼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하아..”카엘은 한숨을 내뱉으며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였다.“밖에서 자고 있길래 데리고 온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둬.”“밖에서 자고 있었다니요? 대체 왜..”“일단 서재로 가지.”“네? 아, 네.”카엘은 서재로 들어와 사무용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알아보라는 건?”“아 그 유디안이라는 아들은 북부 쪽에 있는 게 확실하긴 한데, 요 근래 잠적을 한 듯이 종적을 감추어서 찾는 게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숨는 걸 잘하는 집안인가 보네.”“아들말고 다른 가족이라도 찾아볼까요?”“그래. 그 가족에 대해서 다 뒤져봐.”“네. 알겠습니다.”“암시장에 대해선 아직 소식 없어?”“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 자리에서 암시장만 옮긴 거라 생각하고 다른 곳에 암시장이 연 곳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암시장은 연 곳이 없습니다.”이렇게 하는 일이 진척이 없던 적이 없건만. 얼마나 잘 숨었으면 정보를 잘 찾는 사람들마저 못 찾을까.“일단 아인에게 마법을 가르쳐놔.”“마법이요? 마법사였습니까? 마법의 기운이 전혀 안 느껴졌는데.”“저렇게 큰 기운이 안 느껴진다고?”“크다니요? 전혀 안 느껴지는걸요.”데인도 기운을 읽는 능력이 좋은지라 마법의 기운 정도는 냄새 맡듯이 느낄 수 있는 마법사인데 데인은 카엘이 느끼는 아인의 큰 기운 자체를 못 느끼는 게 이상했다.“흠, 일단은 마법 기초를 가르쳐봐. 작은 마법이라도 쓸 수 있게.”“마법사인데 작은 마법을 못 쓰나요?”마법사라면 어릴 때부터 쓰기 때문에 지금 나이면 기초 마법 정도는 못 쓰는 게 이상했다.“마법사인 걸 계속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알게 돼서 쓸 줄 몰라.”“그럴 수도 있나요?”“특이한 케이스지.”“그럼 일단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기초 서적을 가지고 들르겠습니다.”데인은 일하다가 잠시 들른 거라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하고, 다시 일터로 향했다.데인을 보내고 혼자 남은 카엘은 서재에 들어온 김에 팔을 뻗어 책장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책을 꺼내어 펼쳤다.책을 읽으면서도 찾기 힘든 목걸이의 꼬리를 잡을 생각이 머릿속을 채워오는 바람에 두, 세 페이지만 읽은 책을 읽기를 포기하고 책상에 뒤집어 놓았다.아직도 조용한 걸 봐선 아인이 아직도 잠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카엘은 불과 일 분 전 만 해도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답답하였음을 잊고, 아인의 생각에 피식 웃었다.아인 생각을 잠시간 하다가 송장 소동 때문에 평소 때보다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여 감겨오는 눈을 껌뻑거리다가 서재 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빛의 쏟아짐에 생긴 노곤함에 결국 눈을 감았다.서재 안에는 새근새근 숨소리만 들려왔다.추우면서도 더운 것 같은 알 수 없는 느낌에 눈이 떠졌다.“으..”잠든 곳은 분명 의자 위였는데 눈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다.밖이 아닌 알 수 없는 방에 누워있다는 걸 깨닫고 얼떨떨한 채로 일어났다.몸을 일으키자마자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몸을 웅크리면서 자는 바람에 허리에 담이 걸렸는지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앓다가 천천히 침대에서 벗어났다.‘여긴 어디지?’벽에는 남성의 옷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의 방에 들어와 있다고 예상하며 방을 나와 보았다. 거실에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다.아무런 소리가 없는 고요한 집안에 계속 있어야 할지, 위험한 곳이니 밖으로 얼른 나가봐야 할지 고민에 빠지고 있던 찰나에 아인의 시야에 다른 방이 보였다.그냥 빨리 나가자 아니, 저 방문만 열어보자.잠시간의 고민 끝에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서재가 보였다.책장에는 듬성듬성 책이 몇 권이 꽂아져 있었고, 그 옆쪽에는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잠들어 있는 카엘이 보였다.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이곳은 어제까지 묵었던 숙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카엘의 방은 문을 열자마자 거실 겸 방인 아인의 방과는 다르게 넓고 좋아 보였다.이 넓은 거실에 추가로 방이 두 개라니 그것도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서재라니.딱 보아도 이 숙소 안에서 제일 좋은 방일 것이다.아인은 다시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햇빛이 카엘을 내리쬐고 있었는데햇빛에 눈이 부셔서 못 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카엘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잘 자고 있었다.혹여나 춥진 않을까 싶어서 방으로 가서 자신이 덮고 잤던 이불을 가져와 살포시 몸 위에 덮어주었다.카엘에게 더 이상 빚지기 싫어서 밖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도 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건만, 결국 카엘의 도움을 또 받고 말았다.카엘은 말은 얄밉게 잘하고, 놀리는 것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자신에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기도 했다.성도 말하지 않는 누가 봐도 평민인 자신에게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챙겨주기까지 하다니.아인은 카엘을 보며 꼭 은혜를 갚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햇빛에 의해 카엘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한 폭의 그림 같았다.‘남자가 뭐 이리 속눈썹까지 길담.’여자인 자신보다도 카엘의 속눈썹이 더 길어 보였다.자신의 속눈썹을 만져보며 씁쓸해하고 있던쯤 카엘의 눈이 떠졌다.둘은 눈을 마주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고 있었다.“뭐야.”카엘이 입을 뗐다.“왜 그렇게 빤히 보고 있어. 반한 거야?”“네?”“얼굴이 반한 얼굴인데.”“뭐요? 허, 참나 아닌데요?”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나 말하려 했지만 카엘의 얼굴 정도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뭐, 아니면 말고. 그런데 왜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 뚫리는 줄 알았어.”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카엘은 능청스러운 장난을 쳤다.아인은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면 보고 있었다는 거에 더 캐물을까 봐 대화 주제를 돌렸다.“전 왜 여기 있는 거예요?"“넌 왜 의자에서 자고 있었는데?”“아, 그.. 아는 동생이 이사를 갔더라고요.”“잘 곳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의자에서 노숙을 해? 그것도 이런 날씨에?”“그냥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들었네요.”“객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걱정하는 건지, 저주하는 건지.아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엘을 쏘아보았다.“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노려보면 상대방은 타격감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나 노려보는 걸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할걸.”“진짜 얄밉게 말하는 거 알죠?”“반응이 재밌질 말던가.”카엘은 장난꾸러기처럼 웃으며 받아쳤다.꼬르륵아인의 배에서 뱃고동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서 울려 퍼졌다.어찌 이 배는 기다림이 없는지. 기다림의 미학도 모르나.“오늘은 올 사람도 있으니, 숙소에서 식사를 할까?”카엘은 아인을 지나쳐 방으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엘과 마주 보며 테이블에 앉았다.테이블에는 숙소 주인이 갖다 준 바게트와 오일 파스타, 스튜가 놓여 있었다.“먹어.”아인은 말없이 포크를 들어 스튜의 고기를 콕 집어먹었다.둘은 말없이 고요하게 식사를 하였다.스튜와 파스타를 다 비우고 바게트를 뜯어먹으며 아인이 카엘에게 말하였다.“고마워요. 오늘 밖에서 데리고 온 것도, 식사도..”“그래.”카엘은 담백하게 대답했다.“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 있잖아요.”“어떤 거?”“숙소비용 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럼 그냥 여기 이 방에서 오일만 신세 좀 지게 해주세요.”“흐음?”카엘은 고개를 갸웃하며 아인에게 물었다.“겁도 많고, 의심도 많으면서 남자의 방에서 오일을 같이 지내겠다고?”“다른 방을 하나 더 구하기엔 돈이 추가로 들고, 그리고 자는 건 제가 소파에서 자면 되지 않을까요? 조용히 지낼게요.”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러워하던 여자가 이런 쪽에선 무감한 모습에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그래, 그렇게 해.”똑똑, 남은 바게트를 입으로 넣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아, 그릇 가지러 오셨나 봐요."아인이 문을 활짝 열었다.문앞에는 숙소주인이 아닌 데인이 서있었다.'올 손님이 있다더니 데인이었구나.'"아, 일어나셨군요."데인은 보따리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다."아, 안으로 들어오세요."안으로 들어온 데인이 탁, 묵직한 책을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놓으며 헥헥거리며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었다."허유, 나눠서 가져올 걸 한 번에 가져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제가 물 좀 갖다 드릴게요."아인은 급히 카엘이 물을 따르던 잔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데인에게 가져갔다."누가 방주인인거야?"아인은 카엘의 말을 못 들은것처럼 무시하고, 데인에게 건네었다.데인은 아인과 아인이 들고 있는 잔을 보며 살짝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웃으며 벌컥 마셨다."카엘님이 따라주신 물이라 그런지 물맛이 좋네요. 아, 밖에서 주무셨다던데.""아.. 네. 문제가 생겨서 잘 곳이 없어졌었거든요.""그래도 그렇지, 여성분이 밖에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이상한 것들이 접근할 수도 있어요."데인은 다신 무슨 일이 생겨도 밖에서는 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아인은 데인의 걱정에 살짝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데인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예? 아닙니다. 하하"데인은 아인의 칭찬에 부끄러운 듯 웃었다."데리고 온 건 나야. 나한테 감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말 몇마디 해준 사람에게 감동하는 거야?""카엘도 고마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짐들은 뭐예요?""아, 아인님이 마법사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기초 마법을 못하신다고 하셔서 기초 마법을 가르쳐주라고 카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법에 관한 기초 서적을 가지고 왔습니다."데인은 짐 꾸러미를 풀고, 아인에게 안에 있던 책들을 보여주었다. 책들은 한 권 한 권마다 다 페이지 분량이 어마어마해 보였다.'저걸 언제 다 읽지?'데인이 아인의 생각을 읽었는지 웃으면서 말하였다."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인물 얘기는 건너 뛰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데인의 말에 아인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마법을 쓰려면 몸속에 있는 기를 빼낸다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뜻대로 되질 않네요.""네? 몸속에 뭘 빼요? 기를 빼요?""몸속에 기를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데인의 반응에 카엘이 혹시 자신을 놀린 건가 생각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풋, 그게 뭡니까, 누가 그딴 식으로 가르쳤습니까?"아인의 날선 시선이 카엘을 가리키고 있었다."아, 카엘님이라면.. 네, 아주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간 몇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일 겁니다.카엘님은 워낙에 마법을 능수능란하게 숨 쉬듯이 하시니 기초 마법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시기엔 무리시지요."데인은 잠시간 입을 가리고 웃더니 표정을 정리하고 말하였다."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매보단 정식 초급 단계로 알려드지요."야매.."그래, 어디 한번 정식 코스를 보지."카엘은 얼른 정식을 보이라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데인을 지켜 보았다."기초를 배우려면 어떤 속성인지 알아야 하는데 어떤 속성인지 혹시 아십니까?""어떤 속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법을 썼을 때는 그냥 주위에 있는 유리들이 깨지기만 했었어요.""마법을 처음 썼는데 유리가 금이 아니고 깨졌습니까?"데인은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네."아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다."처음 썼는데 그랬단 말이죠? 흠, 그 정도의 마법을 쓰는 사람의 기운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텐데 왜 아인님에게서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는지 의문이군요.그때는 어떻게 마법을 쓰신 겁니까?""며칠 전에 카엘과 마법을 썼을 때는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고 상상하며 제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였더니 유리들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제가 한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맞아. 너한테서 빛이 났었고, 너에게서 기운이 느껴졌으니.""빛? 카엘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흠, 그럼 빛으로 보인 불의 스파크아닐까요?"데인의 말에 카엘은 고개를 내저었다."스파크는 작기라도 하지. 그 빛은 컸어. 불도 안보였고.""그럼.. 하지만 빛 속성은 책에서만 나오던 것 아닙니까 설마 속성이 빛일까요..?""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기초 마법을 쓰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카엘은 데인이 마셨던 찻잔을 들고 와 아인의 앞에 놓았다."네?""지난번처럼 깨뜨려봐. 데인, 깨뜨릴 수 있게 가르쳐.""흠.. 그러면 아인님, 이 찻잔을 집중해 주십시오.아인님만의 주문을 만들어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면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손끝으로 저 찻잔을 가리키시고, 총을 쏘듯이 손에서 총알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며 해보십시오.""이거 정식 맞아? 내가 한 거랑 뭐가 달라. 야매라더니, 따라 하고 있어.""저도 빛의 속성은 처음 보니, 아무리 저라도 어떻게 가르칠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일단은 이것저것 해봐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일단은 한 번 해볼게요."아인은 둘의 대화를 끊어 버리고, 데인의 가르침대로 두 번째손가락을 유리잔에 가리키며 총알을 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주문이라.."오이!""방금 저거 주문이라고 외친 거지?"카엘이 데인에게 물었다."집중되게 조용히 하십시오. 오이가 친근하신가 보지요.""나는 친근하질 않네. 데인, 넌 친근해?""저는 오이 냄새를 싫어합니다."둘의 대화를 애써 무시해가며 집중을 했다.허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법은 나오질 않았다.아인은 오랜 시간 집중하였지만 손가락 끝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아인은 오랜 시간의 집중에도 마법은 쓸 수 없었다."아인님, 맘 편히 가지시고 하시지요. 오늘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데인의 배려에 아인은 더욱 보여주고 싶어졌다.어떻게 해야 마법이 나올지 생각하다가 잠시간의 생각 끝에 주문을 바꿔 다시 시도해 보았다."바게트!""음식 주문은 식당에서 하셔야죠."카엘의 말장난에 데인이 웃음이 터져 소매로 입을 가렸지만 소리를 숨길 순 없었다.'저 방정맞은 남자.'아인은 마법을 제치고 카엘을 노려 보았다."그만하시지요. 아인님이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음식 이름이 친숙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데인은 말을 하다 말고 튀어나오듯이 터진 웃음에 다시 소매로 입을 막았다.카엘도 데인과 같은 마음인지 손으로 눈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카엘의 가리지 않은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둘은 사이좋게 어깨가 잘게 경련하듯이 흔들렸다.아인은 고개를 돌려 찻잔을 보며 무시하려 했지만 카엘의 방정맞은 장난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인의 신경 하나하나를 건드렸다.그때였다.찻잔에서 빛이 생기더니 빠각, 소리가 나며 유리잔이 누군가가 꽉 쥐어서 깨진 거처럼 그 자리에서 조각조각 나며 바닥에 내려앉았다."해내셨군요!"데인이 물을 마시다 말고 잔을 내려놓으며 다가왔다."아.. 그렇네요.""이 정도면 잘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연습하시면 다른 마법도 가능하실 겁니다."데인은 어린아이에게 칭찬하듯 아인을 잘한다며 치켜세워주었다.데인의 기분 좋은 말에 아인이 저도 모르게 배시시 웃었다."감사해요."“그런데..”“네?”데인은 무엇을 말하려는지 뜸을 들였다.“지금은 배우는 단계이니 고쳐가며 배우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깐요.”“어떤 걸요?”“그.. 아무래도 음식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시는 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밖에서도 마법을 쓰실 때 바게트! 이런 주문을 외우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왜?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새는 자기만의 개성 있는 것도 좋지. 개성이 있으면 나중에 많이 알려지고 그만큼 유명해질 거야.”카엘은 아인에게 그 개성을 절대 저버리지 말라며 말하였다.\“카엘님, 말이 되는 애길 하시지요.”데인은 아인에게 저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혹여나 믿을까 봐 걱정하는 얼굴이었다.음식 이름을 주문으로 외우는 마법사라. 남들과는 확연히 다르기는 했다.너무 개성이 있어서 웃음거리로 알려지기 딱 좋았다.“바꾸는 게 낫겠네요..”“그게 낫겠죠? 일단은 오늘 실전 연습은 여기까지로 하고 끝내죠.기초 서적들을 읽어보시면 응용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십시오.”“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별거 아닙니다. 이만 저는 요새 통 잠을 못 자서 못 잤던 잠까지 자러 가보겠습니다.”본인 업무에도 힘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도와준 데인에게 너무 감사했다.“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하하. 안 그러셔도 되는.. 아, 그러면 혹시 카엘님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복귀를 좀-”“피곤하다며, 얼른 가서 자.”카엘이 데인의 말을 잘라먹으며 멀리 안 나간다며 데인의 벗어두었던 외투를 건네었다.“알겠습니다. 갑니다. 가.”아인은 데인을 출구까지 배웅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카엘은 방으로 들어갔는지 거실은 조용했다.아인은 데인이 놓고 간 책 더미가 있는 바닥에 앉아 책 한 권을 들어보았다.책은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울 만큼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손에 든 책을 책 더미 위에 놓고 책의 커버를 넘겨 보았다.책의 커버는 책의 두꺼운 무게를 버티기 위한 것처럼 단단하며 두꺼웠다.아인은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책의 앞쪽에는 마법의 유래와 마법사의 고유한 혈통 가문 설명 등등이 내용들이 있었고, 몇 페이지를 더 넘겼더니 물의 마법으로 물의 형태를 바꾸는 응용 마법의 내용이 있었다.유명한 서부지역에 있는 마법사가 서부지역에 홍수가 일어나서 민가 쪽으로 물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물들을 형태를 바꾸어 방패처럼 만들어서 물이 물을 막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밑 단락에 있는 사람들의 잃을 수도 있었던 목숨을 구해주어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아인은 생각했다.‘나도 마법을 제대로 익히게 되면 이런 응용 마법도 할 수 있을까?’책을 보다가 벽을 보며 생각에 빠진 아인의 옆에는 그것을 보는 소파에 앉아있는 카엘이 있었다.“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아, 여기 마법의 응용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저도 할 수 있을까 해서요.”“마법 응용이라.. 응용이 어렵긴 하지. 배워도 배워도 끝도 없고.”“응용하는 건 많이 어렵나요?”“응용 자체를 못하는 마법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니 어렵다고 할 수 있지. 마법을 쓴다고 다 응용을 할 순 없으니. 기초적인 마법을 좀 더 크게, 좀 더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응용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많이 어렵구나..”“많이 어려워도 안 되는 건 아니야. 넌 신수급 권속도 있으니, 그 권속의 힘을 쓰면 다른 능력도 쓸 수 있으니 그것도 어찌 보면 응용이라고 할 수 있지.”카엘의 말에 아인은 살짝 죽어있던 기분이 살아났다. 가끔 불쑥 자상해지는 카엘을 보며 아인은 해맑게 웃었다. 아인의 웃는 모습을 앞머리에 가려져서 카엘은 보지 못했다.아인은 다시 책에 집중하고 읽기 시작했다.한창 책에 빠졌을 즈음 덜컥, 문 손잡이 소리에 놀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소파에 있던 카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카엘이 밖으로 나간 듯했다.‘어디 갔지?’카엘이 어디 갔는지 생각하는 것도 잠시, 아인은 다시 책에 빠졌다.책으로 지식을 쌓으면 마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집중하여 정독하였다.책의 몇십 페이지가 넘어갈 즈음 다시 덜컥, 소리가 들리며 카엘이 안으로 들어왔다.술집을 갔다 온 것인지 카엘의 손에는 술 한 병이 들려있었다.카엘은 소파에 편하게 털썩 앉아 술을 홀짝였다.아인은 술이 맛있는지 술병째로 들이붓는 카엘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맛있어요?”손에 들린 술병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본 카엘이 물었다.“술 먹고 싶어?”카엘은 아인이 술이 먹고 파서 쳐다보았다. 생각하였는지 술이 먹고 싶냐고 물었다.“아뇨,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서 맛있어서 먹는 건지 궁금해서요.”“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먹어봤어?”제국은 술을 먹는 쪽으론 관대하여 비교적 어린 열여덟 살에 생일만 지나면 음주를 허용하였다.그러나 아인은 열아홉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보지 않았었다.거의 매일을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탓에 술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더 크게 있었다.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카엘은 아인을 물끄러미 보더니 시선을 돌려 몸을 일으켰다.일어나서 어딜 갔다 오나 했더니 다시 온 카엘의 손에는 잔이 들려있었다.가져 온 잔에 술을 졸졸 따르더니 아인에게 건네었다.“한 번 먹어봐.”얼떨결에 술잔을 받은 아인은 입에 대지 않고 빤히 보기만 하였다.“술맛이 궁금하지 않아?”“조금은 궁금하기는 하지만..”“조금만 먹어봐.”“왜 나쁜 걸 권유해요.”“인생의 재미 하나를 알려주는 거지. 남들 즐겨본 것 정도는 한 번 해보는 게 좋잖아?”악마의 속삭임 같은 말에 아인이 흔들렸다.‘한 번 먹어볼까?’카엘의 권유에 아버지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생각보다 호기심이 더 커지며 아인은 결국 맛보기 위해 잔을 입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댔다.잔에 입을 대고 입으로 들이붓자, 입안에는 술맛이 느껴졌다."풋!!"술의 비현실적인 쓴맛에 놀라 그만 앞에 있는 카엘의 얼굴에 분무기처럼 분사해버렸다.‘이 맛없는 걸 왜 만든 거야!’술의 맛에 놀란 것도 잠시였다.아인이 분사한 술이 얼굴에 촉촉하게 내려앉은 카엘의 얼굴을 보았다.“아.. 죄, 죄송해요..”당황한 아인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카엘의 얼굴에 톡톡 두드리며 술을 닦아 내었다.“술맛에 놀라서.. 죄송해요.”카엘은 수건에 얼굴이 다 닦일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그 모습에 아인은 미안함이 더 커져갔다.“이런 맛일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즐겨 먹길래, 어느 정도는 먹을 만할 줄 알았는데..”“.. 안 취한 술이 다 깨는 것 같아.”아인은 미안한 마음에 잔에 술을 따라주고 옆에 놓았던 술병을 다시 카엘에게 조심히 쥐여주었다.“다시 취하는 느낌을 만들라고?”“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아닌가? 다시 취하는 느낌이 들어야 술을 먹는 기분이 날 테니.. 아닌가?”아인의 정신이 혼란스러운 말에 카엘이 웃음이 나왔다."하여튼 죄송해요.”“그래. 술 먹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카엘은 다시 소파에 편하게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다시 술을 홀짝였다.홀짝이는 카엘을 아인이 빤히 쳐다보았다.“왜.”카엘이 몇 분이 지나도 빤히 쳐다보는 아인에게 물었다.“술이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맛으로 먹는 건 아니지.”“그런데 그 쓴 걸 왜 먹어요?”“맛보다는 어쩌다 한 번 먹는 재미 같은 거지.”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이 없던 아인이 말하였다.“그 쓴 술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술에 의존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뭐 그런 거겠지? 둘 다 일 수도 있고.”아인은 다시 생각에 잠긴 듯 한 얼굴로 말이 없더니 몇 분이 지난 후 고개를 돌려 카엘을 쳐다보았다.“.. 그런 사람이 술을 멀리할 수는 있을까요?”“의욕 문제겠지?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지.”“그렇겠네요..”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욕이라..아버지에게 그런 의욕이 생길 날이 올 수 있을까? 마음을 비우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인은 씁쓸하게 웃었다.술을 입속으로 탈탈 털던 카엘이 소파에서 일어나서 문쪽으로 향하였다.“어디 가요?”“술 가지러.”아인이 재빨리 일어나서 카엘의 손목을 잡았다.“그만 먹어요. 그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잖아요.”“이거 다 내가 먹은 게 아니잖아.”“해봤자 한잔 따랐는데 그거 갖고 한 병 더 먹는 건 아니죠. 그냥 자요.”“이런 어중간하게 먹은 날은 잠이 더 안 와.”“취하셨네요. 들어가요.”아인은 카엘을 방의 문을 열어 카엘을 밀어 넣었다.힘을 주면 밀어 넣지 못했을 테지만 카엘은 힘을 주지 않고, 질질 끌려 들어갔다.카엘을 침대에 앉히며 잘 자라고 말하며 아인은 문을 닫았다.카엘의 방문을 닫은 아인은 소파에 눕다시피 털썩 앉았다.방문은 카엘이 다시 열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였지만 먹기를 포기한 모양인지 방문은 잠잠하였다.카엘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술을 즐기는 모습이 싫어서 한 병만 더 먹겠다는 것도 안 된다며 방에 집어넣어 버렸다.‘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술을 왜 굳이 쓴맛까지 참아가며 마시는지 이해가 안 돼.’고개를 좌우로 내젓던 아인은 책 더미에서 책을 하나 집어 들어 읽기 시작하였다.꽤 오랜 독서를 했음에도 아인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책에 재미가 붙어 눈을 반짝였다.자신이 살던 세계랑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도 들어 책을 읽는 것보다 그만 읽는 게 오히려 싫었다.세 권을 읽고도 지치지 않은 아인은 다른 책을 읽기 위해 책들을 뒤적였다.권속?‘권속에 관한 이해’라는 제목의 책이 내 시선을 잡았다. 곧바로 그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였다.책을 보니 권속의 세계는 너무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곤충류, 파충류 등 의외의 권속도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곤충을 권속으로 쓰면 어떤 능력을 가질까? 그러고 보니 내 권속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이러다가 그냥 서로 말도 없이 남남처럼 쭉 지내는 건 아닌지.생각을 치우고, 다시 책을 쭉쭉 읽어 내려가던 아인이 한 글에 시선이 멈췄다.‘마법사의 역량은 마법사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권속과의 합이 좌우한다.’아직 권속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니 권속과의 합을 시도도 못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필요성을 깨달았다.‘내일은 카엘에게 배워봐야지.’그전엔 일단 이론을 머리에 쌓아놔야겠다며 아인은 다시 권속에 관한 책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였다.책을 한참 읽던 중 달칵,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카엘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왜 일어났어요? 설마 술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일어날 때가 되었으니 일어났지. 설마 여태 안 잔 거야?”카엘의 말에 아인이 고개를 갸웃대더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시계의 시침이 아침 아홉시를 넘어가서 열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벌써 시간이 이렇게?”커튼을 치우고 창밖을 내다보니 밖에는 햇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책은 천천히 봐도 되는데 뭘 그렇게 밤새우면서까지 보는 거야?”카엘은 책을 훑어보면서 말하다가 아인을 보더니 놀란 듯 눈이 살짝 커졌다.“몰골이 장난이 아니네. 거울은 봤어?”카엘의 말에 아인은 테이블 위에 있는 손거울을 들어 얼굴을 보았다.거울 속 비춰진 여자는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다.순간 아인은 책을 볼 때 눈앞을 가리는 앞머리가 불편해서 옆으로 넘겼던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앞머리를 앞으로 정돈하며 얼굴을 가렸다.카엘은 잠시간 말없이 서있더니 아인에게 밥 먹으러 가게 준비하라며 욕실로 향하였다.카엘은 몰골 좀 보라는 싹수가 노란 말들을 툭툭 내뱉으면서도 밥 같은 사소한 것들을 꼬박꼬박 잘 챙겨주는 꽤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아인은 준비란 것을 할 것도 없이 카엘이 씻고 나간 욕실에 들어가 대충 세수와 양치만 하고 나왔다.밖으로 나온 둘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식사가 끝나고, 커피로 후식을 마시고 있을 즈음이었다.밤도 지샌 상태에서 배까지 부르니 눈이 점차 무거워져 가기 시작하였다.손에 들려있던 커피 잔을 앞에 내려놓으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버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임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갔다.창가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카엘은 어느 한곳의 이상한 움직임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인이 고개를 꾸벅이고 있었다.카엘은 피식 바람 새는 웃음을 흘리며 아인을 구경하였다.아인은 위아래로 꾸벅이는 정도가 점차 커지더니 점점 상체가 바닥으로 향하며 결국 테이블에 이마를 쿵, 박았다.이마의 충격에 화들짝 놀란 아인이 고개를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눈앞에는 구경하는 카엘이 보였다.“숙소에 가서 좀 자야겠어. 이러다가 식당에서 잠들 것 같은데.”카엘의 말에 아인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안돼요. 오늘 암시장 위치 알게 되면 바로 가봐야죠.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아인은 앞에 놓여 있는 커피를 벌컥벌컥 밑바닥까지 마시고 내려놓았다.쓴맛이 조금의 피로감을 덜어 가주는 것도 같았다.“들어가서 쉬어. 오늘 열게 되면 깨워줄게.”“진짜요..?”아인의 물음에 카엘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저 진짜 놓고 가면 안 돼요. 알겠죠?”“그래. 난 좀 더 있다가 갈 테니 들어가서 쉬어.”카엘의 건넨 방의 키를 받으며 아인은 끄덕였다.숙소가 코앞이라 금방 방으로 도착한 아인은 겉옷을 벗으며 소파에 털썩 엎드렸다.아인의 눈앞에는 아직 못 읽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한 권만 더 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잠이 더 절실한 아인은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몇 시간이 지났을까. 방안이 컴컴한 것으로 보아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알게 된 아인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카엘이 덮어 놓았는지 아인의 몸 위에는 이불이 덮어져 있었다.흘러내린 이불을 소파 위에 올려두고 카엘의 방문을 열었더니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다.욕실과 서재까지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설마 나 놓고 암시장 간 거야?’아인은 대충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숙소 주인에게 찾아간 아인은 카엘을 보았는지 물었다.“아까 나가시는 건 봤는데 어디 가신지는 모르겠네요.”“언제쯤에 나갔나요?”“아마 한 시간 전쯤 일 거예요. 얼마 안 되긴 했어요.”숙소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아인은 밖으로 나왔다.‘이럴 줄 알았으면 안 자고 버티는 건데.’숙소 앞의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뱉었다.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찾아야 하는데 잠을 자버리다니.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깨워 있었어야 했다며 아인은 후회했다.카엘이 갔다 오면 위치를 알아내어 바로 가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아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카엘을 기다렸다.방으로 들어온 아인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한동안 보다가 보고 있자니 느리게 가는 시계 침에 답답하여 소파에 털썩 누워버렸다.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불안감이 일었다.불안감을 떨쳐내려 몸을 뒤척이던 중에 책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책을 보며 편하게 기다릴까 생각하며 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았다. 하지만 글귀는 머리에 들어오질 않고, 튕겨져 나가듯 했다.책을 옆에 뒤집어 놓고, 소파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아 버렸다.한참을 소파에서 뒤척이며 기다리다가 덜컥, 문소리에 몸을 벌떡 일으켰다.아인은 방안으로 들어오는 카엘과 데인에게 달려갔다.“어디 갔다 온 거예요?”“암시장.”“왜 안 깨웠어요? 깨워준다 해서 믿고 잤잖아요!”- 다섯 시간 전 -카엘은 찻잔에 있던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테이블에 앉아 경치를 즐기다가 한참 지나서 계산을 치르고 식당을 나와 전에 들렸던 길드로 향하였다.길드 안에는 전에 있던 정보 길드원이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알아냈다는 소식이 없던데.”“아 그.. 저희가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게..”“알아보고는 있으나, 그다음은?”“최근에 열었던 암시장에서 보았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알려드리려고 할 때 즈음 갑자기그 암시장이 폐쇄하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연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급히 정리를 하고 없었던 것 마냥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남기고 사라져 버렸더군요!”조금 더 빨리 갔다면 알아낼 수 있었을까.하긴, 아쉬움도 이미 지나간 일에는 필요가 없었다.카엘의 무표정에 화가 났다고 생각한 정보원이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말하였다.“저희가 안 그래도 그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여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정보를 얻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지요.”밖으로 나온 카엘은 다시 숙소로 향하였다.“카엘님!”숙소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등 뒤로 들리는 데인의 목소리에 몸을 돌렸다.데인은 마차에서 내려 카엘에게 달려갔다.“찾았습니다. 암시장이 오늘 열었답니다.”“지금 가보지.”발걸음을 떼려던 카엘이 멈췄다.바로 출발하려 했지만 오전에 꼭 깨워달라고 했던 아인의 부탁을 떠올린 카엘이 데인에게 마차에서 기다리라 말하고 숙소로 들어갔다.숙소로 들어서니 소파 위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는 아인이 있었다.“일어나.”아인은 카엘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그 후로 몇 번을 더 깨웠지만 도무지 듣질 않는 아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깨워달라며. 떼놓고 간다?”“으으..”아인은 짜증 난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린 채로 몸을 뒤척이면서도 일어나질 않았다.카엘은 안되겠다 싶어서 흔드는 강도를 높여서 깨웠다.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인의 몸이 들썩이듯이 흔들렸다.“... 져”아인은 웅얼거리듯이 뭐라고 말하였다.“뭐라고?”“리.. 져”아인이 또 뭐라고 말하였지만 웅얼거리듯이 하는 말에 카엘이 알아들을 수 없어 귀를 가까이 대며 재차 물었다.“뭐라고?”“저리.. 꺼져.”카엘은 멍한 표정으로 아인의 어깨를 내려놓으며 한동안 가만히 서있었다.한동안 서있던 카엘이 어깨를 들썩였다.“어쩔 수 없지 뭐.”카엘을 쿨하게 뒤돌았다. 이불도 없이 잠에 든 아인의 몸 위에 방에 있던 이불을 덮어주며 데인과 암시장으로 향하였다.- 현시점 -“안 가신다 한 것 아닙니까?”데인이 카엘을 보며 물었다.“맞아.”“제가 언제 안 간다고 했어요!”“흔들어서 깨웠더니 저리 꺼지라고 했잖아.”“아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아인이 카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그것도 세 번. 꺼지라는 말을 세 번을 했어.”“으.. 지금이라도 갈래요. 어딘지 알려주세요!”“데인과 내가 보았지만 갈색 머리는 중년의 남성 한 명 밖에 없었어.”“.. 가서 제가 다시 확인해볼래요.”“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가실 거면 내일 가시지요.”아인의 말에 데인이 말렸다.“암시장이 또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요..”아인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듯 살짝 떨렸다.“그래. 데인, 너는 이만 가봐. 내가 같이 가지.”“갈색 머리의 십 대, 이십 대 남자는 아예 없지 않았습니까.”“직접 확인하고 싶다잖아. 암시장이 진짜 없어지면 울 것 같은데, 가보지 뭐.”데인은 조심히 갔다 오라는 말을 하며 집으로 향하였고, 카엘과 나는 암시장으로 출발하였다.둘 사이의 침묵을 아인이 먼저 깨뜨렸다.“저 혼자 가도 되는데..”“암시장을 이 시간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암시장은 다행히 한참 걸을 필요 없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금방 도착하였다.급한 마음에 후다닥 들어가려는 아인의 손목을 붙잡아세웠다.“왜요?”“그러고 가려고?”카엘이 손을 뻗어 로브의 모자를 내려 아인의 얼굴을 가려주었다.“아.. 고마워요.”카엘의 모자도 내려쓰고 둘은 암시장으로 들어섰다.‘오늘은 있어야 하는데..’오늘도 없다면 다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암시장을 기다리는 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급함과 불안감이 일었다.한 명이라도 놓칠 새라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혹여나 갈색 머리를 염색했을 수도 있으니 갈색 머리가 아닌 사람들도 샅샅이 보며 동생의 얼굴을 찾아댔다.다행히 실내가 전보다는 밝은 편이라 보는 것은 쉬웠다.밤에 온 암시장은 낮에 왔던 것보다 사람들이 두 배는 더 많아 보였다.인상이 무서운 사람들 또한 많아서 조심히 카엘의 소매를 잡은 채로 주변을 보았다.사람들을 보다가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와 눈이 마주쳐서 급히 시선을 돌리며 카엘의 소매를 더 힘껏 잡았다.“거봐. 낮과는 다르지?”카엘이 피실 웃으며 물었다.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엘의 소매를 놓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보았다.암시장 전체를 다 돌았지만 카엘의 말처럼 갈색 머리는 거의 없었고, 동생의 얼굴은 아예 보이질 않았다.“이제 나가볼까?”“네..”밖으로 나온 아인은 어깨가 축 처져있었다.“다음도 있잖아.”‘다음에는 내가 없을 것 같아요.’아인은 머릿속의 말을 삼키며 다른 말을 꺼내었다.“카엘은 오늘 찾았어요? 찾을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아니, 나도 오늘 못 찾았어.”“아.. 카엘도 기분 안 좋을 텐데 나 때문에 고생까지 했네요. 미안해요.”“됐어. 내가 가겠다고 한 거잖아. 이제 숙소로 가볼까?”숙소로 가던 중 카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술집으로 향했다.“어디 가요? 술집은 왜?”“식사는 해야지. 지금 연 식당은 없을 테니, 술집에서 먹어야지.”술집 안으로 들어선 둘은 자리 잡고 앉았다. 카엘은 메뉴판을 아인에게 건네었다.“골라.”메뉴판에는 와인 전용 술집이라 그런지 와인에 어울리는 치즈, 비스킷 같은 간단한 안주들이 메뉴판에 쓰여있었다.그중에 그나마 배가 찰 만한 것들을 고르자, 카엘이 주문하며 와인도 추가로 주문하였다.앞에 주문한 와인잔을 보며 지난번의 술맛이 떠올라 미간을 찌푸리며 슥, 카엘 쪽으로 밀었다.“안 먹게? 술이 쓴맛이 있긴 해도 나름 맛은 있어. 특히 와인은 전에 마셨던 술과는 맛이 다르지. 한 번 먹어봐. 아, 얼굴은 옆으로 돌려서 먹어.”카엘은 지난번의 얼굴에 술 맞은 기억이 생생히 난다는 말을 덧붙이며 와인잔을 다시 아인 앞으로 밀었다.얄밉게 하는 말에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지난번의 술을 뿜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직 남아있어 참았다.지난번과는 술맛이 다르다는 카엘의 말에 또다시 지난번처럼 호기심이 생겨났다.이상하게 술엔 관심도 없는 자신을 한 번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악마 같기도 했다.와인잔을 들어 킁킁, 냄새를 맡아 보았다.지난번 술은 진한 알코올 냄새였다면 이건 희석한 알코올에 달콤한 향을 첨가한 것 같은 냄새였다.한번 먹어볼까?잔에 입을 갖다 대고 홀짝이려는 순간, 갑자기 카엘이 손을 뻗어왔다.아인이 카엘의 뻗어오는 손에 놀라 움직임이 멈추었다.카엘의 손은 아인의 얼굴에 닿았고, 아인의 고개는 옆으로 돌아갔다. 카엘이 손가락으로 아인의 고개를 돌린 것이었다.‘이 인간이!’순간 욱한 아인이 카엘을 노려보며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안 먹어요!”“왜 그래, 먹어봐.”“안 먹는다고요!”카엘이 킥킥거리며 삐친 아인을 달래었다.“혹시나 전처럼 얼굴에 뿜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 여기서 또 내 얼굴에 술을 뿜으면나 진짜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상처는 무슨.키킥 대면서 웃으면서 신뢰도 안 가는 말을 하다니.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한 번 먹어보라는 카엘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잔을 들었다. 이상한 자존심이 생겨 고개를 옆으로 완전히 돌리지는 않고,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홀짝여보았다.“어?”카엘이 턱을 괴고 웃었다.“어때? 맛있지?”달콤한 향과 달달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전과는 많이 달랐다.“네. 이건 먹을 만하네요.”“전엔 독한 보드카라 이 와인과는 많이 다르지.”“정말 다르네요.”새로운 걸 알아낸 듯이 아인은 신기하단 반응을 보이며 와인을 잔의 밑바닥까지 마셨다.“또 시킬까?”아인의 끄덕임에 카엘이 웃으며 와인을 잔이 아닌 병째로 주문하였다.아인은 카엘이 따라준 와인잔을 쪼르륵 마시기 시작했다.“과일이랑 같이 먹어. 속 버려.”“네.”아인은 사과를 야금야금 먹고 난 뒤, 다시 와인만 마셔댔다.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는 맛이랄까? 끝 맛은 목이 타는 느낌이 나서 별로지만 입안에 있을 때의 맛은 달콤했다.처음 먹을 땐 알코올 맛이 살짝 났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알코올 맛이 희미해지더니 지금은 마시면 달콤한 맛만 느껴졌다.조금씩 마시는 카엘과는 달리 아인의 잔은 금세 비워지고, 또 금세 비워졌다.안주로 배를 채우러 들어온 의도와는 다르게 술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이놈 맛있네요.”와인을 잔에 따르기 위해 거꾸로 들었더니 한 방울 나오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 아인은 와인병을 흔들며 안에 있는 나오지 못한 와인 한 방울까지 털어냈다.“그만 마셔야 할 것 같은데.”카엘의 말에 아인이 고개를 돌려 카엘을 쳐다보았다.“어중간하게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했잖아요.”그전에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해내서 써먹는 아인을 보고 웃음이 새어 나왔다.“어중간하게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아뇨! 어중간해요오.”자신의 말투가 어눌해진 줄도 모르고 어중간하게 먹었다니, 취한 게 다름없었다.와인병을 혼자서 거의 다 먹어놓고는 계속 더 시키자는 아인의 말에 결국 한 병을 더 시켰다.새로 채워진 와인잔을 원샷으로 입에 털은 아인은 속으로 감탄하였다.내가 이렇게 술이 셀 줄이야. 이렇게 먹고도 정신이 말짱하다니.자신의 주량에 한껏 감탄하는 아인이었다.먹으라고 시킨 안주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맛만 보라고 시킨 술만 연속으로 따라 먹는 아인의 얼굴이 술에 취해 붉어져있었다.술을 나발불듯이 먹으며 붉어진 아인을 보며 카엘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아인 혼자서 반병을 비웠을 즈음, 갑자기 카엘을 쳐다보았다.“너! 내가 오늘 꼭 깨우라고 햇오, 안햇어오?”혀가 꼬인 아인이 갑자기 카엘에게 따져댔다.“깨웠다니깐.”“그런데 내가 안이러낫다고오? 허, 참나-”그럴 리가 없다는 듯 어이없다는 듯이 씩씩대었다.“내가 오늘 언마나 오만가지 생각을 했는지 알오? 넌 몰라도 난! 나안!”아인이 자신의 가슴께를 탁탁 치며 말했다.“나안 한시가 급하다고오..”“왜 한시가 급한데? 숙소에 오일 머물기로 해서 그런 거면 더 있어도 돼.”“그거만이면 다행일 수도..”아인은 열이 오른듯이 말하다가 갑자기 침울해지며 와인을 들이마셨다.카엘은 말없이 아인을 보기만 할 뿐이었다.“난 다시 빨리 그곳을 가야한다고오.. 가기 싫지만 가야 해.. 빨리..”알 수 없는 그 말을 끝으로 아인은 테이블 위에 뻗었다.잠시 후 카엘의 등에는 물에 젖은 솜마냥 축 처진 아인이 있었다.아인은 카엘의 등에 기대어 딸꾹질을 하며 잠을 자고 있었다.딸꾹!카엘은 늘어져 있는 아인을 업은 채로 숙소 안으로 들어섰다.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맛에 들려 연거푸 들이마시는 아인이 살짝 무서웠다.소파에 내려놓자, 몸을 뒤척이며 편한 자세를 잡나 싶더니 아인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너.”아인은 또다시 카엘에게 반말을 하였다. 카엘은 아인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였다.“너어!”“왜 불러.”“너는 왜 그렇게 얄미운 거야. 이 못된 놈아아!”술 주정이 화가 생기는 건지 여태 참았던 걸 술기운에 푸는 건지 아인은 계속해서 카엘에게 화를 냈다.카엘은 의자를 끌고 와서 아인의 앞에 가져와 앉았다.“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참았어. 오늘 다 말해봐.”계속해서 말해보라며 아인에게 손짓했다.“툭하면 짓궂은 장난치고 넌 못됐어!”술집에서와는 달리 발음이 또박또박 해져서 술이 깬 건 가 싶었지만 눈은 풀려있었다.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숙이는 아인을 보며 끝난 건가 생각했는데 아인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그렇지만 좋은 사람이야.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남인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해주고..”일 분 전 만 해도 성질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하다니. 아인은 두 사람의 인격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턱, 아인이 앞에 카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고마워.”- 다음날 -심한 갈증에 아인은 눈을 떴다.가만히 있다간 물이 모자라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기어가듯이 물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물을 연거푸 마셔댔다.세 잔을 먹고 나니 그럭저럭 갈증이 해소되었다.어젯밤 와인바에서 술맛이 좋다면서 벌컥벌컥 먹은 기억까진 나는데 어떻게 집에 온 거지? 그 이후가 기억이 안 나.술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러워서 다시 소파에 몸을 맡겼다. 이것이 숙취라는 것을 몸소 배웠다.시계를 보니 시간은 아침을 지난 오후였다.“이렇게 오래 자다니.. 카엘은 나갔으려나?”암시장 가면 같이 가야 하는데..아인은 무거운 몸을 끌고 카엘의 방문 앞에 섰다.똑똑“자요?”아무런 응답이 없자,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쓱, 문이 열리며 침실 쪽을 보자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카엘이 엎드린 채로 자고 있었다. 상체는 근육들이 몸을 감싸듯이 몸에 힘을 주지 않아도 보일 정도로 도드라져있었다.그 모습이 너무 야해서 충격으로 소리를 낼 뻔했으나 입을 막았다. 다행히 카엘은 아무 인기척도 못 느꼈는지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눈 감고 있는 청초한 얼굴을 잠시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뒷걸음질해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얼굴이 새빨개진 아인은 소파로 가서 털썩 앉았다.아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아인이 정신을 차리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 씻었다.만약 카엘이 깨있었다면 변태로 몰릴 것이었다. 적어도 며칠을 놀려먹겠지.카엘이 잠들어있기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인이 머리카락의 물기를 닦으며 나왔다.소파에는 카엘이 언제 일어났는지 앉아있었다.아까와는 달리 상체에 옷을 걸쳐 입고 있는 걸 보며 또다시 아까의 기억이 떠올랐다.“얼굴이 왜 그렇게 붉어? 열나?”'그새 또 얼굴이 달아올랐나 봐.'아인은 고개를 급하게 옆으로 돌리다 못해 뒤틀었다.순간 목의 뻐걱 소리와 고통이 찾아왔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동작에 목이 삔 듯했다.“아뇨.”“목 부러진 거 아냐? 방금 뼈 부러지는 소리 났어.”“네? 저는 못 들었어요.”아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했다. 움직일 때마다 찾아오는 목의 통증 또한 없는 척했다.“움직일 때마다 목이 움찔거려.”그럴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때마다 목 쪽으로 통증이 생겼으니.아무렇지 않은 척 아인은 의자에 앉았다.서있다가는 움직임에 계속 아플 것 같아 의자에 앉아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오늘따라 이상하게 부자연스럽네. 나한테 숨기는 것 있어?”“아뇨. 그런 것 없어요.”“그럼 어제 일 때문에?”어제 일이라니. 와인 바에서 술 먹던 것 이후로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을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어제 왜요?”“어제 기억 안 나? 하긴 너무 많이 마셨지.”“무슨 일 있었어요?”“정말 기억 안 나?”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아인은 카엘을 쳐다보았다.“..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무슨 일인데요?”“나는 말 못 해.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내가 무슨 실수 한 건가?’카엘은 상처받은 듯한 얼굴을 내비쳤다.이런 얼굴에 더 이상 캐묻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무래도 실수한 듯한데.“일단은 씻고 올게.”씻고 온다고 말하는 카엘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였다.카엘이 욕실로 들어가서 씻는 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흐릿한 쓸데 없는 조각들만 기억날 뿐이었다.흐릿한 기억 조각에는 카엘의 등에 업히는 장면도 있었다.술에 취해 업혀 들어온 걸 기억해낸 아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끄럽게 업혀서 들어오다니.설마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아냐.. 그런 건 아닐 거야.그러고 보니 카엘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설마 그런 일이..?아인은 답답함에 머리를 감싸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목의 극심한 통증에 이내 멈추었지만.‘아냐, 난 옷을 입고 있고 따로 자고 있었잖아.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있을 리 없지.’카엘은 욕실에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다.아인은 무슨 생각에 빠진 건지 자신이 나온 것조차 모른 채로 깊은 생각에 빠져있었다. 분명 자기가 한말을 생각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며 방으로 들어갔다.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숙소에 음식 주문을 한 후에도 아인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않고 있었다. 숙소 직원이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주는 동안에도 아인은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았다.“그만하고 먹어. 식겠어.”아인은 숟가락을 들어 수프를 휘저으며 말했다.“말해봐요.”“어떤 걸?”“아까 그 말 뭐예요?”“내가 직접 말하기 어렵다 했잖아.”말하기 어렵다는 사람치고는 얼굴엔 장난기가 묻어있었다.“장난 그만 치고 말해 봐요.”“장난 같아?”카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상처받은 얼굴로 바뀌었다.“아, 아니.. 아닌가요?”카엘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일어나던 그 때였다.콕콕, 창가의 부딪히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다가 목의 통증에 놀라 몸을 돌려 보았더니 새 한 마리가 창문을 부리로 찍고 있었다.카엘이 창문을 열어 새를 들여보냈다. 새의 발목에는 종이가 묶여 있었다.묶여있던 종이를 풀어 보며 카엘이 말했다.“한두 시간 뒤에 데인이 온다네.”카엘은 새 종이를 꺼내서 펜을 들어 써 내려갔다. 한참을 쓰더니 종이를 접어 다시 새의 발목에 묶었다.새는 자신이 할 일을 아는 듯 날아갔다.카엘은 다시 의자에 앉아 식사를 이어갔고, 아인은 술 때문인지 속이 메스꺼워서 얼마 못 먹고 식사를 마쳤다.식사를 마친 후 아인은 숙취에 의해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다.데인이 온다는 소식에 잠을 자지 않고, 눈만 껌뻑거리며 몸을 뒤척이다가 천장을 보기를 반복했다.한참 지났을 때, 생각도 안 했는데 어젯밤의 있었던 기억이 돌아왔다.“아..”어젯밤이 기억난 아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제가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맞는다면 어제는 야한 일 자체가 아예 없었다.아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것이 확실했다. 시간의 흐름이 끊긴 부분이 없었으니.‘그럼 그렇지! 내가 덮칠 리가 있겠어? 난 또 내가 벗긴 줄 알고 주야장천 벗긴 기억만 찾고 있었네!’“이상한 말을 해서 괜히!”아인은 카엘이 들어간 서재의 문을 째려보았다.그러나 카엘의 입에서는 야시시 한 일이 있었다는 말이 아닌 애매모호한 말만 했었으니 약은 오르지만 가서 뭐라고 따질 수도 없었다.자신이 혼자서 멋대로 오해한 거나 다름없으니.‘아니, 그렇다 쳐도 무슨 상처받은 표정을 해서 오해를..’아인은 카엘에게 상처를 줄만한 어제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아.. 지랄을 했구나. 내가.. 반말은 물론이고..어제 술을 먹으면서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안 취하는 자신의 모습에 속으로 감탄하였지만 그전부터 이미 취한 상태였던 것을 생각하며 어제의 자신의 주량에 감탄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아직도 술이 안 깨서 머리가 띵하고 속까지 불편하니 원.바람을 쐬면 좀 나아질까?밖에 나간 사이에 데인이 올 수 있으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다.창문 너머 들어오는 바람은 산들바람인 줄 알았건만 칼바람이 금세 아인의 코를 빨갛게 만들었다.좀 더 있다가는 얼굴 전체가 얼 듯하여 금세 바람 쐬는 것을 포기하고 창문을 닫고 소파 위의 담요를 뒤집어썼다.삼십분 지났을 즈음. 똑똑, 노크 소리에 아인이 담요를 소파 위에 던지며 문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조심스럽지 못한 움직임에 생긴 목의 통증에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으며 문을 열었다.“데인 왔어요?”데인은 두드리자마자 곧바로 활짝 열리는 문에 놀라서 팔을 올려 주춤하더니 아인을 보았다.“네, 제가 오는 걸 들으셨군요.”“카엘이 말해줬어요. 아, 들어와요.”아인이 뒤로 물러나며 길을 열어주니 데인이 웃으며 들어왔다.“카엘님만 계셨다면 한참 뒤에 열어 주셨을 텐데 아인님 덕분에 기다리지 않아서 좋네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누가 문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지 말고 누군지 물어보세요. 위험한 세상입니다.”“네.”아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카엘님은 방안에 계십니까?”“네. 저쪽 서재에 있어요.”아인이 서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똑똑“카엘님, 다녀왔습니다.”“들어와.”\*몇 시간전카엘이 식사하던 중 서신을 가지고 온 새가 창가를 부리로 콕콕, 찍었다.창문을 열고 새의 발목에 묶여 있는 접혀진 서신을 펼쳐보니 정보상에서 온 서신이었다. 서신에는 발렌스가의 여식에 관한 작은 정보를 알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작은 정보라면 자신이 굳이 가서 들을 필요까진 없는 내용일 것이 뻔했다.새로운 종이를 꺼내어 데인에게 정보상을 가서 정보를 대신 듣고 오라는 글을 적어 새의 발목에 묶어 새를 데인에게 보냈다.현재서재 안에서 카엘은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정보료도 내고 왔습니다. 뭐 이리 비싼지 저도 정보원으로 돈을 벌고 싶더군요. 아,오늘 낸 돈은 까먹지 말고 주셔야 합니다.”“얼른 정보나 말해봐.”“정보원이 말하길, 메블린 가의 장남 엘르 후작이 발렌스 가의 여식을 찾으러 동쪽 지역의 집에 갔었답니다.”“그 녀석이 왜?”“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엘르 후작이 그 집안에 대해 아는 게 있지 않을까요?”카엘이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들기며 생각에 잠겼다. 무엇 때문에 그 집안사람을 찾는 것인지, 그 집을 갔다면 그 여식이 이곳 북부 쪽으로 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테고 찾아야하니 이미 이쪽 지역으로 와있거나 오는 중일 것이다.“데인, 그 녀석 어딨는지 찾아서 만나자고 해.”“네, 알겠습니다.”달칵, 서재의 문이 열리며 데인이 서재에서 나왔다.“데인!”아인은 데인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데인에게 다가갔다."네, 아인님."“저 마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책은 이론적이라 실기로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있고요.”데인은 아인의 말에 눈썹 끝이 내려갔다.“어쩌죠? 제가 급히 찾아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데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 묻어났다.그 얼굴을 보던 아인이 두 손을 들어 흔들었다.“아녜요! 급한 일부터 해야죠. 전 괜찮아요.”“대신 빨리 찾고 시간 나는 대로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고마워요.”데인의 말에 아인은 해사하게 웃으며 데인을 배웅했다.“아, 카엘님이 마법을 잘 못 가르치긴 하셔도 어느 정도는 배울만하실 겁니다. 아무리 못 가르쳐도 조금이라도 배우실 거예요. 아쉬운 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아인의 끄덕임에 데인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떠났다.하긴 그러고 보니 정작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배울 생각 자체를 안했었네.아인은 카엘에게 마법 교육을 부탁하기위해 서재의 문을 두들겼다.두들겼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아인이 다시 두들겼다.“나 들어가요.”알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벌컥, 문을 열었더니 카엘은 책을 읽고 있었다.“바빠요?”“아니, 왜?”“지금은 독서중이니 나중에 시간 될 때, 저 마법 좀 가르쳐주세요.”아인의 말에 카엘이 책에서 눈을 떼고 아인을 올려다보며 비웃었다.“왜? 야매마법을 뭣하러 배워. 아, 데인이 바쁘니 날 이용하겠다?”“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피를 빼낸다는 느낌으로 마법을 쓰는 방법이 야매교육이라고 한 건 제가 아니에요.”“그때 동조를 했던 건 확실하잖아?”“그.. 그건..”‘하지만 야매 맞잖아.. 엄연히 방법이 다르던데.’“말로는 하진 않지만 야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치?”자신의 생각을 읽는 건지 카엘의 말에 뜨끔하고 놀라서 눈을 요리조리 돌렸다.“흐음?”카엘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앉아.”아인은 잠시 주춤하더니 의자에 앉았다.카엘은 다리를 내려놓고 책상에 가까이 몸을 붙이며 턱을 괴었다.둘은 일 미터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어떤 걸 배우고 싶은데?”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만큼 카엘의 얼굴이 확연하게 잘 보였다.살짝 턱을 들어 내려다보는 긴 눈이 오만해 보이면서도 그만큼 색기가 있었다.아인의 시선이 긴 눈에서 높은 코로 내려와 입술에 머물렀다. 여자의 입술보다도 새빨간듯한 입술이 한층 더 야해 보였다.눈 감고 잘 때의 모습은 때타지 않은 천사 같은 얼굴이더니 눈 떠있을 때는 요염한 악마 같았다.천사일 때나 악마일 때나 사람을 매료시키긴 했지만.한참을 보던 아인이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 부담을 느끼고, 의자의 등받이에 최대한 등을 붙여 둘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봤자 한 뼘 정도 멀어졌지만.“크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싶어요. 지난번처럼 유리를 집중해서 깨뜨린다든지 그런 실전들도 더 배우고 싶어요.”“실전은 싸우면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야. 나 같은 경우도 대련을 해서 거의 배운 거나 다름없거든.”“마법을 잘 쓸 줄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련을 했다고요? 그건 크게 다치거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 아녜요?”“대련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나 같은 경우에는 날 완전히 죽일 사람이 아니었어. 그 덕분에 목숨은 붙어있었지. 그 당시 반죽음 상태였지만.”'그럼 나도 반죽음 정도는 예상하고 대련으로 배워야 하나?'얻어맞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얼굴이 하얘져 갔다.지나가다가 가구에 발가락이 찧어도 죽을 것 같은데 얻어터지는 건 원치 않았다.‘마법으로 대련하는 것이니 아버지한테 맞던 것보다 훨씬 아프겠지..?’입을 살짝 벌린 채로 생각에 잠긴 아인을 보며 카엘이 크큭 웃었다.“대련하자는 말은 아니니 걱정 마. 음..”카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손을 펼쳐 손바닥 위에 불을 만들어냈다.“마법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하니 이것부터 연습하는 게 좋겠어. 나처럼 손 위에 만들어 봐. 자, 나가서 연습해.”“안 도와줘요? 나 혼자 해요?”“숙제야. 만들 수 있게 되면 말해.”카엘은 다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독서를 이어가기 시작했다.서재에서 나온 아인이 손바닥을 보며 멍하니 서있었다.손바닥 위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마법이란 게 뚝딱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기초 서적에 도움이 될만한 책이 있나 뒤적여 보았으나 마땅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책 더미 맨 아래쪽에 있는 책들까지 뒤적여보았더니 ‘기초 마법의 운용’이라는 책이 보였다.‘이 책이라면 도움이 되려나?’아인은 곧바로 책을 펼쳐 읽어내려갔다.어려운 단어도 있어서 이해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카엘이 독서하는 데 불편을 주기는 싫어서 감으로 맞춰가며 읽어갔다.책의 반 정도를 읽었을 즈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때맞춰서 서재의 문이 열리며 카엘이 나왔다.“데인이야.”카엘이 문을 열며 데인을 들여보냈다.“찾아냈어?”“네, 현재 메블린 가의 본가에 있습니다.”“지금 바로 가지.”카엘은 방에 들어가 겉옷을 걸치며 나갈 채비를 하였다.급히 나가려는 모습에 아인이 카엘을 보며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하였다.“왜?”카엘이 그 모습을 보았는지 아인에게 물었다.“오늘 혹시 암시장 가시나요? 가시면 같이 갈까 해서요.”“그래.”“네?”“볼일 보고 올게. 암시장 가기 전까지 아까 그거나 연습하고 있어.”카엘의 말에 아인이 웃으며 끄덕였다.카엘과 데인이 나가고 난 뒤 아인은 소파에 앉아 다시 책을 읽어 나갔다. 책의 내용은 간단한듯하면서도 어려웠다.책에서는 한 번 만들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쉽다고는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쉽든 안 쉽든 할 텐데.아인은 한숨을 쉬며 몸을 소파 속으로 밀어 넣었다.잠시간 소파에 기대서 눈을 감고 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연습하였다.손을 펼치고 카엘과 데인이 알려주었던 방법들과 책에 있는 내용도 생각하며 한참을 연습했다.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손바닥 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았다.세 시간이 지날 때쯤이었다.“꺄악!!!”세 시간의 노력 끝에 손바닥 위에서는 빛나는 형태의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도 단지 한 번의 우연이 아닌 원할 때마다 손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아인은 드디어 해냈다는 승리감에 환호를 지르더니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기까지 했다.\*카엘은 엘르 메블린을 만나러 메블린 가의 본가 저택에 도착하였다.옆에 서있던 데인이 문지기에게 엘르 메블린의 만남을 요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의 문이 열리며 둘을 안으로 들어섰다.저택의 사용인이 둘을 엘르의 서재로 안내하고, 지배인이 서재의 문을 두드리며 카엘의 방문을 알렸다.엘르의 허락이 떨어진 뒤, 문이 열리며 데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카엘만 안으로 들어갔다.카엘은 자신의 집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앉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어쩐 일이지?”“차도 안 주는 거야?”엘르는 살짝 찡그리며 사용인을 불렀다.“난 커피.”엘르는 사용인에게 커피 한 잔 갖고 오라고 말하며 카엘의 맞은편에 앉았다.“놀러 온 것은 확실히 아닐 테고, 무슨 일로 온 거야.”“발렌스 가의 여식을 찾으러 갔다더군.”발렌스 가의 얘기에 엘르가 놀란 듯 살짝 눈을 크게 떴다.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카엘을 마주 보았다.“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지?”“그 여식이랑은 무슨 관계야?”“내가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그 여식은 왜 찾은 건데?”“그 역시 내가 말할 필요는 없지.”카엘은 섭섭하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었다.“너무 딱딱한 거 아냐? 이렇게 매정하다니.”“발렌스 가의 여식에 대해선 왜 묻는 거지?”엘르는 카엘의 슬픈 표정을 무시하고 물었다.“뭐 좀 알아볼 게 있어. 넌 그 가족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듯한데.”“그 가족에 관해서 물어보려는 거였다면 잘못 찾아왔어. 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테니.”“느낌이 그 가족을 감싸는 듯한데,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건가?”엘르는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듯 소파에서 일어섰다.“나가.”“여식에 관해선 모르는 것 같고, 그 집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어?”엘르는 말없이 지배인에게 눈짓하였다.눈짓을 알아들은 지배인이 카엘에게 다가갔다.“배웅해드리겠습니다.”카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별 거부 없이 말없이 지배인의 안내에 따라 서재를 나왔다.서재에서 나온 카엘을 발견한 데인이 카엘 쪽으로 걸어왔다.둘은 지배인의 배웅에 예의 있게 건물 밖으로 내쫓겼다.“뭐 좀 알아내셨습니까?”“아니.”“역시 그렇군요.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어쩌긴, 어차피 기대도 안 했잖아? 일단은 그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냈어. 일단은 저놈 지켜볼 만한 괜찮은 사람 구해서 감시해.”데인과 카엘에게 보여줄 생각에 들뜬 아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기다리다가 슬슬 무료해질 즈음, 문이 열렸다.“카엘!”고개를 문쪽으로 휙 돌리며 맞이한 탓에 목의 통증이 다시 일었다.목덜미를 주무르며 카엘에게 다가간 아인은 뒤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데인의 부재에 의아한 얼굴로 카엘에게 물었다.“데인은요?”“볼 일 보러 갔어.”“그럼 카엘 먼저 봐요!”아인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으며 손을 팍, 펼쳤고 손바닥 위에는 빛나는 원형의 형태가 생겨났다.“이제 만들 수 있어요!”카엘은 아인의 손 위에 있는 빛을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쳐다보았다.“이렇게 하는 거 아녜요?”“맞아.”“그런데 반응이 왜..”반응이 왜 무미건조해요?“처음 해본 거 맞아?”“손 위에 만드는 거요? 그럼요,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애먹었다는 말과는 다르게 최단 시간에 자유롭게 보여주는 아인을 보며 기가 막히듯 했다.누가 몰래 만들어주고 있거나 자신이 현재 꿈을 꾸고 있는 게 더 말이 될 정도로 기이한 발전 속도였다. 자신이 마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늦게 알 정도로 마법에 둔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빠르게 늘다니 기이함 그 자체였다.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 빛인 것도 신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배움 속도가 너무나도 월등해서 빛이 눈에 그다지 들어오질 않았다.카엘은 말없이 아인을 유심히 보았다.“왜 그렇게 봐요?”잠시간을 말없이 보던 카엘이 웃으며 잘한다는 말을 던지곤 물을 마시러 아인을 지나쳐갔다.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들떴던 탓인지 카엘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들뜬 마음이 가라앉았다.“겉옷 벗기 전에 암시장부터 가봐야겠지?”아인의 등 뒤로 카엘이 암시장을 얘기하자, 아인이 다시 밝아졌다.“잠시만요!”아인은 급히 로브를 걸쳐 입고, 카엘의 로브도 챙겨 왔다.“이제 가요.”카엘과 아인은 식당에 들러 식사도 하고 나서 암시장을 출발하였다.아인은 처음 암시장을 갔을 때처럼 긴장이 되었다.그도 그럴 것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오늘은 꼭 찾아야 하는데..’매일 새로운 암시장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오늘 가는 암시장에서 못 찾으면 현재는 다른 암시장이 열린 곳도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 두 가지 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어제 갔던 암시장을 다시 가는 거지만 제발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오늘 가는 이 암시장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발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랬다.한참이 지나서야 아인은 암시장을 나왔다.카엘은 따로 볼 일이 있다며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아직 볼일이 남았는지 카엘은 없었다.아인은 옆에 있는 나무에 등을 기대었다.“후우..”오늘도 역시 찾지 못한 아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오늘은 갈색 머리인 사람이 아예 보이질 않았다.곧이어 카엘도 볼일을 마쳤는지 암시장을 나왔고, 아인의 모습에 오늘도 동생을 못 찾았음을 확신하였다.아인의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절반이 가려져 잘 안 보여도 검은 우중충한 먹구름이 껴있는 듯이 어두웠다.자신 또한 알고 있는 정보가 찾고 있는 집안의 성과 아들의 이름밖에 아는 것이 없었고 이 부족한 정보로라도 암시장에서 알아보았지만 소득이 없었다. 특히나 암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분의 노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명도 쓰기 때문에 더욱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아인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왔어요? 볼 일은 봤어요? 잘 해결됐어요?”“아니, 소득이 없네.”“저도 그렇네요.”아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둘은 숙소로 향하였다.카엘은 욕실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 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씻고 있는 듯했다.아인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혼란스러웠다.가만히 앉아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답도 안나오는 고민을 일단 접어두고 혼란스러운 속을 식힐 겸 늦었지만 바람을 쐐야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와 근처 한 바퀴를 돌 생각으로 걸었다.늦은 시간이라 어둡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음산함이 느껴졌다.‘그냥 방에서 쉴 걸 그랬나?’얼마 걷지도 않아, 아인은 살짝 후회스러움이 들었지만 계속 걸었다. 이왕 나온 것 금방 돌고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다.오 분 정도 걸었을까, 자신의 발소리만 들리던 길거리에 다른 발걸음 소리가 겹쳐져 들려왔다.다른 발걸음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진 아인은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댔지만 길거리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였다.‘잘못 들었나?’밤이라 소리가 울려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걸어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인의 발걸음 소리가 아닌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아인은 다른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겁에 질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걸음 속도를 더 높여서 빠르게 걸었다.아인은 숙소에 곧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걸었고, 뒤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도 간격이 점차 빨라졌다.목숨에 위협을 느낀 아인은 빨리 걷다 못해서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같이 들려오던 발소리도 더 빨라지며 점점 가까워져왔다.‘집에 그냥 있을걸!’나는 크게 후회하며 이내 달리기 시작했다.뒤에 들려오던 저벅저벅 걸어오던 발소리도 달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이내 나의 바로 뒤까지 가까워진 것이 느껴졌다.가까워진 사람은 뒤에서 턱, 하고 내 어깨를 잡았다.절대 이대로 끝날 순 없었다.“꺄아아악!!! 아빠! 아빠! 딸내미가 위험해요! 딸이 위험합니다!!”여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빠를 부르면 딸을 두고 있는 아빠들이 나와서 도와준다는 말을 어느 곳에서 보았었다.부디 나와서 도와주길 바라며 전국의 모든 아빠를 부를 기세로 목청껏 불렀다.“아빠..”뒤에 있던 사람이 아빠를 부르려던 내 입을 막았다.남의 집 아빠조차 소환하지 못한다면 끝이다.아인은 힘껏 저항해서 자신의 입을 막은 사람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쉽게 품에서 벗어났고, 그 사람에 의해 아인의 몸이 돌려세워졌다.돌려세워지며 자신을 쫓아왔던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카엘?”숙소에서 씻고 있던 카엘이 내 앞에 서있었다.“왜 여기서 아빠를 찾는 거야.”“여, 여기에 왜 있어요?”“말없이 사라졌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와 봤지.”카엘은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닌 눈을 살짝 크게 뜬 채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구나. 잠깐 감탄하고 있던 와중에 문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근처에 있던 몇몇의 집들이 불이 켜지며 아저씨들이 나왔다.“무슨 일이야?”“우리 딸이 날 불렀는데?”“이봐, 방금 형씨 딸 목소리 아니었어?”아빠를 부르던 아인의 외침을 듣고 나온 아저씨들이 여자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다.“전 치한인 줄 알고..”카엘은 입에다가 손을 대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손짓을 하고, 일단은 조용히 숙소에 가자며 이끌었다.숙소 안으로 들어선 카엘은 뒤돌아서 뒤따라온 아인을 쳐다보았다.“걱정하는 마음에 나온 사람에게 변태 취급하는 거도 모자라서-”“아니, 변태가 아니고요..”“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집의 아저씨들까지 부르고.”“그건.. 사람 일이란 게 혹시 모르니까..”“진짜 별일을 다 겪네.”“아니, 그니까.. 죄송해요..”카엘은 많이 화가 났는지 말이 없었다.하긴 나여도 걱정되어서 나갔는데 변태 취급을 오해받았으니 기분이 상할 거야.아인은 카엘의 얼굴을 보고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 카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카엘은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숙인 채 한 쪽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놀란 아인은 다급히 카엘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많이 화났어요?”카엘의 어깨는 조금씩 들썩였다...설마 이거로 우는 거야? 그렇게 수치스러웠나?아인은 카엘을 달래기 위해 어깨를 잡았다.우는 사람치곤 들썩이는 간격이 너무 짧은데.. 약간의 떨림도 있고..“혹시 웃고 있어요?”카엘은 우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었다. 그것도 몸을 떨며 웃고 있었다.손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보더니 풋 하며 크게 웃었다. 웃으면서 별일을 다 겪는다며 계속 웃었다.저 사람이 저렇게도 웃는구나. 카엘의 웃음에 민망함 반 신기함 반이 일었다.“딸이 위험하대. 크큭..”달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인은 말없이 잘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잠에 들었다.다음날 아침이른 시간에 들린 식기의 소리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부스스한 채로 일어난 아인은 차를 끓일 준비를 하는 카엘을 발견했다.“일찍 일어났네요.”잘 떠지지 않는 눈을 뜬 채로 아침인사를 했더니 카엘은 아인을 마주 보며 무표정한 채로 한마디를 던졌다.“아빠.”또 시작이다.어젯밤에도 내내 저걸로 놀리더니 눈 뜨자마자 또 놀리기 시작한다.아인이 카엘을 째려보았다. 아인이 만약 개였다면 물 기세로 카엘을 노려보고 있었다.카엘은 그런 아인을 여유롭게 무시하며 차를 끓였다.차가 다 끓자, 찻잔에 따르고 의자에 앉아 티타임을 가졌다.그런 카엘의 모습에 얄미움이 배가 되어 결국 못된 마음이 생겨났다.“마시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차를 마시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늦은 밤 남의 집 아빠를 부르는 것보다는 신사적이지.”아인의 비아냥에 카엘은 이 또한 여유롭게 대응했다.아인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씩씩대었고, 카엘은 아인의 반응을 즐기며 차의 맛을 음미했다.차를 다 마신 카엘은 씻고 나와 숙소에 음식을 주문하였고, 여느 때와 같이 아인의 몫도 주문하여 둘은 나란히 식사를 하였다.“오늘은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어디 가요?”“여우굴에 갈 거야.”“여우굴이요?”“그래, 전에 가본적 있지?”“전 여우 무서워하는걸요.”아인의 말에 카엘이 피식 웃었다.“그 여우 말고. 전에 레모네이드란 술집 가본 적 있잖아?”레모네이드? 생각이 났다. 여자들이 예쁘게 치장하고 남자들에게 술 판다는 곳.“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에?”카엘은 식기를 내려놓으며 아인을 지긋이 쳐다보았다.“전부터 듣고 싶었는데 날 대체 뭐로 보는 거야? 넌 전에 거기 갔던 이유가 여자 만나러 간 거였어?”“제가요? 전 엄연히 남자 좋아해요! 무기상 아저씨가 거기만큼 정보가 많은 곳은 없다고 가보라고 해서 간 거예요.”“그래, 말 안 해줘도 잘 알고 있네. 나도 그 이유로 간 거야. 애초에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였다면 이런 이른시간에 일어날 필요는 없지.”하긴 카엘의 말이 맞긴 했다. 술집에 술을 먹으러 일찍 갈리는 없으니.“그럼 나도 갈래요. 나도 가서 물어볼래요.”“그러던지.”식사를 마친 아인은 그릇을 정리해놓고 준비에 나섰다.씻은 후,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로브도 걸쳤다.로브의 모자까지 쓴 아인은 평상시에도 가려졌던 얼굴이 더욱 안 보였다.카엘은 얼굴을 아예 가린 듯한 차림새로 나타난 아인을 흘끗 보더니 레모네이드로 향했다.“그런데 왜 여우굴이에요? 여자만 있어서 그런가?”“거기 있는 여자들은 권속이 다 여우라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여우를 숭배하는 집단이라고도 부르지.”아인을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그런데 앞은 보이는 거야?”“원래 잘 안 보이는 거에 익숙해서 괜찮아요.”아인은 어릴 적부터 앞머리로 시야의 반 이상을 가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걷는 감을 익혔다.그렇기 때문에 로브로 더 안 보이게 된다 한들 남들처럼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다.비록 위 쪽을 잘 못 보지만 어차피 걸을 때는 거의 밑쪽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다.이곳은 두 번째이지만 여전히 낯선 거리였다.술집들이 모여있는 거리라서 그런지 거리에는 어여쁘게 치장한 여인들이 꺄르르 웃으며 오가고 있었고, 가려진 로브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중간중간 카엘에게 요염한 미소를 보내는 여인들도 몇몇이 보였다.‘카엘도 저런 여자 보면 좋아하겠지? 남자니깐..’곁눈질로 카엘을 흘끗 보았더니 카엘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무덤덤한 표정이었다.무덤덤한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잠깐, 내가 왜?’내가 뭐라고 안심을 하는지. 연인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아인은 그런 생각을 하며 건물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건물의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내가 카엘이어도 이런 모습의 여자는 여자로도 안 느껴지겠지.’비친 자신의 모습에 한탄을 하며 로브의 모자를 힘을 주어 내려쓰며 얼굴을 더욱더 안 보이게 가려버렸다.한탄을 하는 건 잠시였고, 의문이 생겨났다.‘그런데 이 남자는 저런 여자들에게 어떻게 저리 무심하지? 눈길이라도 갈만한데.’아름다운 여자들이 길거리에 깔렸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앞만 보고 가는 카엘이 살짝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다.로브로 인해 시야가 거의 다 가려진 상태여서 카엘이 레모네이드로 몸을 돌려 들어가는 걸 미처 못 보고 앞만 보고 걷는 아인을 카엘이 다행히 옷 덜미를 잡아서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모자는 보일 정도로 내려써야지. 그렇게 푹 내려쓰면 뭐가 보여?”카엘의 말에 아인이 로브의 모자를 살짝 올려 쓰며 가게 안을 보았다.낮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안은 휘황찬란하고 현란했다.벽 쪽에 놓인 가구들도 보석이 박힌 건지 반짝거리고, 천장 위의 반짝이는 샹들리에도 빛에 의해 더욱더 반짝거렸다.이곳의 주인은 반짝이는 걸 참 좋아하는 듯했다. 그중에서도 샹들리에를 많이 좋아하는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보였다. 출입구 쪽 홀에만 해도 열 개 넘게 있었으니.카엘은 여자들만 보이는 이곳에서 남자를 찾아내 잡아 세웠다. 남자는 이곳의 사용인으로 보였다.“어딨어?”“삼층 계단 끝 쪽 룸에 계십니다.”사용인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굴 찾는지 아는 듯 대답을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사라졌다.카엘은 곧바로 삼층 룸으로 향했고 아인도 뒤따랐다.카엘은 노크도 없이 활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엘을 따라 들어간 룸에는 이곳 외관을 감싸고 있는 붉은 꽃이 어울리는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있었다.그 주변에는 여러 여인들이 그녀의 치장을 돕고 있었다.“오랜만이네.”여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카엘을 쳐다보았다.여인의 말에 여인의 치장을 돕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카엘님!”“카엘님, 왜 요새 안 왔어요. 보고 싶었잖아요.”“네가 왜 보고 싶어. 이년아.”“조용히 해. 카엘님, 마실 것 좀 드릴까요?”여자들은 다들 카엘과 친한지 이런저런 말을 하며 반가워했다.여자들 사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전에 이곳에서 엘리쉬 패거리에 대해 알려준 앨리였다.“앨리?”앨리는 아인의 말에 고개를 갸웃대며 쳐다보았다.“아, 그때 그 언니 맞죠? 패거리 놈들 찾던!”앨리는 한 번 밖에 안 본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였다.“앨리, 아는 분이니?”붉은 꽃이 어울리는 여인이 앨리에게 물었다.“네! 전에 만났었어요.”“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겠구나. 나가서 이곳을 구경시켜주고 하렴. 너네들도 이제 나가보렴.”여인은 카엘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냈다.아인의 손을 잡고 나온 앨리가 삼층의 다른 룸에 아인을 이끌었다.“언니, 여기 앉아서 이거 마셔요.”“아, 고마워요.”아인은 앨리가 건네준 주스를 마셨다. 여러 과일을 갈아 넣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어우러진 게 미묘하면서도 맛있었다.“맛있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주스예요. 집에서 해먹으려고 물어봤는데 어떤 과일을 넣었는지 얼마나 넣었는지 물어봐도 절대 가르쳐 주질 않네요.”이런 주스라면 비법을 숨길만했다. 어딜 가서도 이 주스를 판매한다면 굶어 죽을 일이 절대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그때 찾던 사람은 찾았어요? 갈색 머리 소년이라고 했었죠?”앨리의 물음에 아인이 고개를 저었다.“아니요.. 아직도 찾질 못했어요.”“아직도요?”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혹시 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들은 소식은 없나요? 알리쉬네 패거리나 갈색 머리 남자애에 관한 소식이요.”“흐음.. 진짜 이상하게도 언니 간 뒤로도 그 무리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북부지역에 있다면 소식이 들릴 텐데 이리 조용하다니 이상해요.”진짜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다. 내 동생을 소식이 없는 건 그렇다 치지만 알리쉬 패거리는 이렇게 조용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철들어서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고..“그런데 언니, 카엘님이랑은 어떤 사이에요?”“네?”“오늘 같이 왔잖아요. 둘이 무슨 사이에요? 혹시 만나는 사이에요?”“아, 아뇨! 같이 알아볼 게 있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아인은 자신의 고개를 양옆으로 세차게 저으며 격렬하게 부정했다.“하긴, 여자한테 관심도 없으신 분이니.”“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이곳엔 이렇게 어여쁜 여인들이 많은데 그 어여쁜 여인들이 몇 년 동안 카엘님에게 관심을 쏟아붓는데도 여태껏 눈길을 제대로 준 적조차 없어요. 관심이 없는거죠.”그래도 한 명쯤은 관심이 있을만한데 몇 년 동안 그중에 한 명도 관심이 없었다니. 이상형이 없었나? 아니면 혹시 카엘은 여자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저도 한때 카엘님에게 관심 있었어요. 어릴 때였죠. 한 삼 년 전? 카엘님이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그 얼굴에 관심이 생겼지만 저렇게 무심하니. 결국 전 마음을 접어버렸죠. 저한테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 접을 수밖에요.”앨리는 여자는 사랑을 하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 경우는 냉정하게 접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앨리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레모네이드를 여기저기 구경하다보니 세시간이 훌쩍 넘어갔다.구경을 하던중에 앨리를 찾는 손님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홀로 남겨진 아인은 근처에 놓여 있는 꽃들을 구경하였다.이 많은 걸 누가 관리할까라는 의문이 들정도로 꽃이 수북하게 많이 있었다.남자들이 선물로 주고 가는 것인지 수십 병의 수북한 꽃병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햇빛을 받고 있었다.꽃의 향기를 맡으며 앨리를 기다리던 중 아인의 등 뒤의 사람에 의해 그림자로 어두워졌다. 고개를 돌려 들어보니 카엘이 서있었다.카엘은 아인을 내려다보며 웃었다."이제야 찾았네."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룸 안에는 카엘과 리엔만이 남겨졌다.“그래, 오늘은 무엇을 알아보러 온 것이니?”“점쟁이야? 바로 아네.”“네가 다른 여자랑 이곳을 온건 놀러 온 것은 아닐 것이니. 그래, 무얼 알아보고 싶어서 왔니?”리엔의 물음에 카엘이 인상을 찌푸리며 집게손가락을 펴서 돌렸다.“일단 본모습으로 돌아와. 그 얼굴은 어색하니깐.”“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었거늘.”“난 백발 마녀 얼굴이 익숙해.”“예끼! 이 녀석 말본새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리엔의 주변으로 연기가 일더니 금발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하고, 숙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중년의 마담 얼굴로 바뀌었다.“내가 그 얼굴에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자신의 얼굴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 아냐? 왜 자꾸 모습을 바꾸는 거야?”“내가 이곳의 간판이나 다름없는데 아름다워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됐고 자, 이제 말해 보거라.”“발렌스 가에 관해서 아는 정보 다 알려줘.”“대가는?”“나중에 원하는 걸 들어줄게.”카엘의 대답에 리엔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발렌스 가라.. 한 남자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가문을 잃은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냐?”리엔의 말에 카엘이 한숨을 쉬었다.“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로 올 것을 시간만 버렸네. 그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흐음..”리엔은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전의 기억이 아니다 보니 뚝딱하고 바로 기억이 나지는 않았다.리엔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상태에서도 와인을 계속 홀짝였다. 지금 기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을 음미하는 중이 아닌가 묻고 싶었지만 카엘은 말을 삼키고 조용히 기다렸다.“이 지역에 살 적엔 그 가족들은 귀족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았었지. 귀족 신분을 평민에게 팔아넘긴 수치스러운 가문이라나 뭐라나.”리엔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연초에 불을 붙이고 말을 이어갔다.“후우.. 그 때문에 밖에도 잘 나오지도 않아서 나도 그리 아는 건 없다만. 흠.. 남편의 욕심으로 한순간에 자신의 성을 잃은 여인은 결국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다더군. 떠난 여인을 찾으러 그 남편과 여식은 이 지역을 떠났고, 아들은 이 지역에 남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그건 나도 알고 있어. 다른 건 없어?”“이 지역을 떠났으니 내가 알만한 게 그리 많이 있겠느냐?”“이 지역의 정보통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다니.”“네 녀석이 내 자존심을 건드는구나. 허니 그래도 아는 건 없다. 그게 전부야.”어떻게 이리도 알아내기가 어려운지.카엘은 살짝 지친 기색으로 연초에 불을 붙였다. 한참을 말없이 피어대던 카엘이 입을 열었다.“가족들의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은 알고 있지?”“꽤 오래되어 흐릿하지만 얼굴은 얼핏 기억이 나는구나. 길거리에서 그 남성과 그의 여식을 본 적이 있었지.”“여식?”여식의 얼굴에 관한 정보라면 찾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그래, 그가 자신의 여식을 끌고 가고 있었지. 여식은 싫다고 외치는 중이었고 그 남성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본분을 다 하라던가?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억지로 싫은 곳에 데리고 가는 것 같더구나. 여자의 본분이란 말에 듣던 내가 기분이 상했었지.”“생김새에 대해 말해봐. 생김새가 어떤데?”“은발의 긴 생머리에 얼굴은 열이 오른 듯 새빨개진 상태였지만 원래의 얼굴은 새하얄 것 같더구나. 얼굴을 제외한 다른 목이나 손 같은 부분은 참 하얬었지. 눈송이 같았달까?”리엔은 또 뭐가 있더라.라고 말하며 생각에 잠겼다.“그리고 갸름한 얼굴형이었지.”또다시 정적이 흘렀다.다른 말이 당연히 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얌전히 기다렸지만 리엔의 입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다.“그게 다야?”“그 당시 그 아이를 보긴 했지만 내가 기억하기론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덥수룩한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단다.”“그럼 이름은?”“이름을 듣긴 했었다만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두 글자는 확실한데 정확히는 뭐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볼일을 끝냈다고 생각한 카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볼 일 끝났다고 가차 없이 가려고 하다니 쯧, 못된 녀석.”“나중에 그 정보를 대가로 이상한 부탁 같은 건 하지 마. 딱 그 정도의 정보에 맞게 대가를 말해.”카엘은 아인을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나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나는 양심이란 게 있단다. 걱정 말거라.”카엘이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 한 발자국을 뗐을 때 등 뒤에서 리엔의 말이 들렸다.“아, 그래. 그 여식이 키가 아까 너랑 같이 온 소녀쯤 되었던 것 같구나.”레모네이드에 다녀온 아인은 소파에 누워있었다.엎드려도 있다가 왼쪽으로 돌아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돌아누우며 뒤척였다.한참의 뒤척임. 후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정자세로 누운 채로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이 혼란 그 자체였다.아냐,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냐, 그럴 리가!레모네이드에서 햇빛을 등지고 내려다보며 웃던 모습이 방금 본 것처럼 생생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착각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다.‘단지 얼굴에 조금 설렜던 것뿐이야.’얼굴이 조금 잘생겼어? 여러 여자들이 유혹을 해 댈 정도인걸.한참을 엎치락뒤치락하며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했다.내일 바로 이별하는 사이에 무슨.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사이이고, 못 본다고 한들 그러려니 할만한 사이인 것을.‘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해. 지금은 마법을 일단 더 배워야 해.’나중에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실력을 키워놔야 나중에 독학을 해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아인은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뜨고 얼굴 끝까지 끌어올렸던 이불을 팍, 내렸다.아인의 얼굴 위에는 카엘이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다.“꺄악!”“놀랬잖아.”“내가 더 놀랬어요!”아인은 카엘의 얼굴 쪽을 피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인기척도 없이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놀라잖아요.”“인기척 없이 온 것 같진 않은데. 이불을 뒤집어쓰고 뒤치락 거리길래 뭐 하는 건가 본 거야.”‘그냥 보면 봤지. 얼굴을 왜 내민 거야.’아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물었다.“오늘 어디 나가진 않죠?”“글쎄, 왜?”“오늘 마법을 꼭 배우고 싶어요. 특히 권속 소환하는 것을 꼭 배우고 싶어요.”“열의가 대단하긴 한데, 내가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하겠어? 데인은 오늘 안 올 듯한데.”“아뇨, 카엘에게 배울래요. 카엘은 권속 부르는 것도 마법 쓰는 것도 능수능란하잖아요.”아인의 부탁에 둘은 테이블을 두고 마주 보고 앉았다.“먼저 권속 소환하는 법부터 배우고 싶어요.”“권속이라..”카엘은 턱을 괸 채로 테이블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아인을 바라보았다.“그 권속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지 않을까?”“데인은 지금 바쁠까요?”아무래도 데인이 필요할 듯하다.“보통 이름 부르면 나오던데, 한번 불러봐. 나올지도 모르잖아.”“이름이.. 뭔지 몰라요.”“새알? 새알이라고 불러봐.”“새.. 새알님?”카엘이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다.“제대로 불러야지. 못 알아들을 거야.”“새알님, 나오세요. 나와 주세요. 새알님?”“잘 안 들리나 봐. 크게 말해봐.”“새알님! 새알!”“큭, 크큭..”저 인간, 또 놀렸어.아인이 차오르는 분노에 손을 움켜쥐며 양 주먹으로 테이블 탁, 내리쳤다.“또 놀린 거죠!”“아냐, 근데.. 크큭.. 새알님이라고 부르는 게 웃기잖아.”“이름 불러서 권속 부르는 건 맞긴 해요?”“맞아, 맞다니깐. 후우,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름을 불러서 소환하는 게 빠를 것 같아.”“하지만 이름을 모르는걸요..”“일단 이것저것 불러봐. 하다 보면 듣는 놈이 답답해서라도 나타나서 제 이름을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아인은 카엘의 말이 제법 그럴듯해 보여 이름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했다.알, 아 알, 큰 알, 대왕 알, 새알, 흰 알알을 붙여가며 그럴듯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말해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었다.“흐음, 알이 아닌 것 아닐까? 부화했을 수도 있잖아?”“..그럴까요?”아인은 다시 생각에 잠긴 끝에 다른 걸로 말해보았다.“새! 공작새! 타조! 닭! ..”생각나는 조류를 읊던 아인은 이제는 생각나는 조류가 없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카엘은 기다리다가 지루해졌는지 아인이 보던 책을 뒤적거리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도대체 뭘까? 아니, 이름이라면 새 종류나 알 종류로 이름을 지을 리는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이름 같은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건데 그 이름을 어떻게 때려 맞추냐고.’아인은 답답함에 은색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헝클어댔다.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테이블에 얼굴을 박고 있던 아인에게 카엘이 말했다.“여기 있네. 소환하는 방법.”“네?”카엘이 읽고 있던 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곳을 가리켰다.‘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권속을 부르는 주문이라며 긴 한 줄의 문장이 써져 있었다. 그 밑에는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을 하라는 그런 부수적인 내용이 있었다.이런 내용이 있는 책이 있었던가? 의아했던 아인은 의문을 넘기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주문을 외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이 방법 진짜 맞아요?”카엘은 어깨를 으쓱였다.“글쎄?”“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 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 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그만 불러, 시끄러워!”수십 번을 외쳤을 즈음 카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놀란 아인이 고개를 번쩍 들어 주위를 살폈더니 붉은 머리카락의 여인이 서있었다.“허.. 어?”“불러놓고선 무슨 말도 없고 벙쪄 있다니. 뭐 하자는 거야?”여인은 굉장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서 용건을 말하라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그.. 새 알이세요..?”“새알이라니! 안 그래도 알 어쩌고저쩌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알아?”“들었어요? 들었으면 그때 나오-”“흥, 내가 그때 나타나면 내 이름이 그딴 이름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냐?”여인은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 앉으며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씩씩 거리고 있었다.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처음엔 온화한 듯한,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불같았다.활활 타오르는 불.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태워버릴 듯한.자신이 알과 조류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이름이 뭔지 몰라서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아인은 불같은 여인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곤조곤 말했다.“실리아나.”“실리아나.. 앞으로 실리아나라고 부를게요.”“흥, 그러던지.”“그런데 실리아나는 어떤 권속이에요?”“새네. 색이 화려한 걸 보니 공작새인가?”“공작새라니!”카엘의 말에 불끈한 실리아나가 카엘을 째려봤다. 붉은 눈동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법 무서웠다.실리아나는 붉은 눈동자에 붉은 긴 머리카락, 입고 있는 옷도 흰색과 붉은색이 섞인 옷을 입고 있는게 레모네이드의 리엔이 붉은 꽃이 어울린다면 실리아나는 그냥 레드 그 자체였다.나이대는 제 나이대와 비슷해 보였지만 실리아나가 자신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다.카엘은 그런 날카로운 눈빛에 끄떡하지 않고 지긋이 쳐다보았다.“그럼 뭔데?”“날 공작새 따위로 취급하면 안 되지. 난 고귀한 영물이라고.”“영물이라.. 알에서 태어났고.. 사람의 형태로까지 변할 수 있다니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대체 뭔데? 피닉스라도 되는 거야?”카엘의 말에 불끈할 줄 알았던 실리아나는 아인의 예상과 다르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은 듯 미소를 잔잔하게 지었다.“그래, 맞췄네.”피닉스? 그 불사조? 권속에 관한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이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 불사조를 권속으로 둔 대 마법사가 있었고, 그의 죽음 이후로는 불사조를 볼 수 없었다고.이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족히 백 년은 넘게 나오지 않았다는 그 불사조가 제 눈앞에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권속이 되었다니.아인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옛날 옛적에 있었다는 피닉스라..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불사조가 너라고?”카엘 또한 이상했는지 재차 물었다.“그래! 내가 그 불사조님이시란다.”실리 아나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어깨를 펴며 답했다.잠시동안 침묵이 흘렀고, 생각을 정리끝에 아인이 물었다.“.. 그런데 권속은 고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불사 조면 능력이 불사인 건가요? 그럼.. 절 영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미쳤니?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신급이라고도 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영생시키는 건 신이면 모를까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해. 그 불사란 뜻은 오로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란다.”다행이다. 권속의 고유한 능력이 영생이었으면 하등 쓸모없는 능력이었으니.아인은 이 말을 실리아 나가 들었다면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오래전 대마법사가 죽으면서 나도 잠들었지만 나는 다시 깨어났고, 또다시 다른 인간과 계약을 맺을 몸이었지만 어찌어찌 산전수전 공수전을 보내다가 심지어 그 욕심쟁이에게 잡혀서 세상 밖으로 보이질 못한 것뿐이지, 난 계속해서 살아있었어.”“그러면.. 능력이 뭐예요? 불인 가요?”영생이 능력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불일 것 같았다.“불?”실리아나는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워 손끝에 불을 만들었다.아인이 그 모습을 보며 놀라며 손뼉을 쳤고, 실리아나는 별거 아니라며 그만하라면서 흡족한 듯 입꼬리가 올라갔다.그 모습을 카엘이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물었다.“기본이라면 다른 능력도 있다는 건가?”“그럼.”실리아나의 대답이 끝난 뒤 방안에는 창문도 닫혀있음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와..”“후훗, 이런 나랑 넌 계약을 했단다.”“좋네요..”“네가 능력을 더 키운다면 나는 더 강해지고, 그럼 넌 더 강해질 수 있단다.”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하게도 쓸 수 있게 되며 그만큼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아인은 실리아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네, 열심히 노력할게요.”실리아나는 웃으며 아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흡사 언니와 동생의 모습 같았다.실리아나와 아인은 한 시간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오랜만의 외출이라 피곤하다며 실리아나는 쉬러 간다며 인사하곤 사라졌다.“축하해. 권속을 불렀네.”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다.“권속의 능력까지 합치면 빛, 불, 바람 세 가지네. 이 능력을 키우면 훗날에 네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마법사가 되고 싶잖아? 그것도 되기 쉬워질 테지.”카엘의 말에 벌써 마법사가 된 거 마냥 설레었다.어찌 보면 카엘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어쩌면 지금도 자신이 마법을 쓸 줄 모른다 생각했을 것이다. 권속 또한 카엘이 그 방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테고 계약 같은 건 없었을거다.카엘은 너무나 큰 걸 자신에게 주었다. 그런 카엘에게 당장 아무것도 보답할 방법이 없어 속이 답답함에 손을 조몰락거리며 말했다.“카엘..”“왜?”“너무 고마워요.. 이 모든 게 카엘과 만나면서 이뤄진 거니깐..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받기만 해서 미안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보답할 필요는 없다니깐.”“아뇨. 너무 많이 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꼭.”카엘은 아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웃었다.“그래.”카엘의 웃는 얼굴에 머리를 누가 때린 듯 충격받은 것 마냥 멍해졌다. 심장도 쿵 하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해사하게 웃는 카엘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이제는 도저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다.‘내가 사랑에 빠졌구나..’하필 이렇게 허무한 사랑이라니.. 자신의 신분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남자. 결국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니. 카엘의 얼굴을 보며 설렘과 절망을 오갔다.아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머리카락에 감사하며 편하게 표정을 숨기지 않고 씁쓸하게 웃을 수 있었다.겨울이라 이른 저녁이 찾아오며 해가 지고 있었다.내일 일찍 떠나야 하니 얼마 없지만 미리 짐을 싸기 시작했다.‘먼 길을 걸어야 하니 새벽에 떠나고 싶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하니 카엘이 일어날 때쯤 출발하는 게 낫겠지?’아인은 널어놓은 빨래들을 걷어놓고, 짐을 챙겼다.“뭐해?”“아, 내일 떠나야 하니 미리 짐을 싸놓으려고요.”“내일이 떠나는 날이었나? 동생도 못 찾았는데 가도 돼? 여기 더 있어도 돼.”카엘의 권유에 아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가서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요.”가자마자 사채업자에게 줘야 할 돈의 조금이라도 벌어놔야 했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싸기 시작한 짐은 애초에 별로 없었기에 금세 다 싸버렸다.“그럼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그러네요.”카엘의 말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조금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기에.“마지막인데 좋아하는 와인 먹을까?”“안 좋아해요! 그냥 먹다 보니 계속.. 먹게 된 거죠.”내 술주정이 입에 계속 술을 붓는 건 줄도 처음 알았고.“그래, 그래도 마지막인데 이별주는 해야지?”카엘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술집으로 향했다. 술집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서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조금 슬펐던 기분이 이곳의 밝은 음악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니 한결 나아지는 듯했다.카엘은 와인을 주문하며 전처럼 메뉴판을 아인에게 건네어 안주를 고르게 했다.지난번의 술집과 다르게 배가 차는 식사 거리도 있어서 안심 스테이크와 치즈와 구운 토마토, 콩 수프를 골랐다.주방장의 손이 제법 빠른지 주문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음식이 만들어져 나왔다.콩 수프를 스푼으로 한입 먹었더니 맛 또한 제법이었다.둘은 말없이 식사에 집중하며 배를 채웠다. 배를 어느 정도 채웠을 때 직원이 와인 주문한 것을 까먹었었다며 사과를 하며 잔에 와인을 따라주었다.카엘은 잔을 들어 아인의 잔에 부딪혔다.“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네, 고마워요.”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더니 달콤한 향이 퍼지며 술의 맛이 혀 끝에서 전체로 퍼져갔다.“카엘은 찾는다는 거 계속 찾을 계획이에요?”“당분간은 그렇지.”“카엘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을 거예요.”아인의 말에 카엘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집에는 언제 들어가요? 아예 나와 살 계획인 거예요?”“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그럼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제가 이 곳에 다시 오면 카엘은 이 숙소에 계속 있을까요?”이 숙소에 있다면 찾기 쉽겠지만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마 못 찾을 것이다.“글쎄.”“제가 만약 찾는다면 어디를 통해야 찾을 수 있을지.. 보답을 하고 싶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흐음.. 만약 내가 없다면 숙소에 소식을 남겨놔. 숙소 주인에게 내가 말해놓을 테니.”카엘의 말에 다시 한번 더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네!”늦은 밤이 되면서 술집은 인산인해가 되었고, 너무 시끄러워져 카엘과 대화도 하기 힘들어 대화 한마디 없이 술만 들이켰다.이곳저곳에서 카엘에게 시선을 주거나 카엘에 관해서 속닥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잘생겨서 외모에 관한 평가나 말 한마디 건네볼까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그런 시선에 괜히 짜증이 나서 술을 들이켰다.술이 제법 들어갔는지 알딸딸해지기 시작했다.카엘은 이곳에도 자신의 이상형이 없는지 여러 시선을 다 무시하고,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어찌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여자에 관심이 진짜 없는 건가?“카엘-”카엘은 말없이 아인을 쳐다보았다.“저 시선들이 안 느껴져요?”“어떤 시선?”“저 어여쁜 여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요.”“아-”역시 알고 있었어.카엘은 더 이상의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저런 노골적인 시선이 신경 쓰이지도 않으세요?”“신경쓰인다고 가서 그만 쳐다보라고 할 순 없잖아? 그냥 내가 신경 끄면 돼지.”“아니, 그게 아니라-여자가 시선을 주는 것에 관해서 아무렇지도 않냐고요-“흐음. 별생각 없어.”이건 이상하고도 충분히 이상했다.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안 준다고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여자한테 해당하는 것이라면..“.. 혹시”아인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하였다.“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쟤네들? 응.”“아니요, 모든 여자들이요. 여태껏 관심 있던 여자들이 혹시 없었나요..?”“그런 것 같아.”“그럼 혹시.. 남..”남색이세요?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나가지 못하고 막혔다.카엘은 아인을 보며 마저 말하라고 얼굴로 말을 했다.“남...”“응?”“아녜요..”아인은 차마 묻질 못하고, 고개를 내저으며 술을 홀짝였다.그 후로 삼십 분 정도 지나자, 아인은 술기운이 강해져 궁금증을 참을 인내력의 끈이 끊어졌다.“한 번도 누굴 좋아해 본 적 없어요?”“어.”“정-말! 한 번도! 없어요?”카엘은 살짝 찡그리는 것으로 답했다.두 번 묻지 말란 건가?“혹시 사정이 있는 건가요?”“무슨 사정?”“그.. 좋아해도 티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정이요.”“빙빙 돌리지 말고 딱, 말해.”“남색이에요..? 크흠, 아니..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아인의 말에 카엘이 살짝 넋이 나간 듯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 말없이 아인을 보기만 했다.“저.. 저는 보기완 다르게 개방적이라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건 자유죠.”카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카엘은 황당한 표정에서 살기 있는 표정으로 바뀌어 나를 쳐다보았다.딸꾹!카엘의 서늘한 표정에 놀래서 딸꾹질이 나왔다.‘왜 저렇게 쳐다보지? 아직 성 정체성을 찾지 못했나?’어느 순간 카엘의 손이 훌쩍 아인의 얼굴에 와있었다. 흠칫 놀란 아인이 카엘을 보자, 볼에 강력한 통증이 느껴졌다.“엄연한 여자를 좋아하는 일반 보통의 남자야. 남색이라니.”카엘은 내 양쪽 볼을 꼬집은 채로 쭉쭉 늘렸다.“알엣어요, 우은 말인디 알엣다우요.”그 후로도 계속 꼬집어 늘리다가 조금은 화가 풀렸는지 손에 힘을 풀고 놔주었다.꼬집힌 볼을 차가운 손으로 쓰다듬으며 열을 식혔다. 지금까지 먹은 술이 다 깨는 기분이었다.카엘이 눈을 길게 뜨며 아인을 보았다.“변태 취급에 이번엔 남색가 취급이라니 너무하네.”“아니, 취급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내일 먼 길을 가야 하니 오늘은 이쯤에서 일어나는 게 낫겠어."카엘은 그 말을 하곤 자리에서 일어섰다.술을 어느 정도 먹은 둘이었지만 한 명은 육체적,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맑은 정신으로 숙소로 향하였다.카엘은 가볍게 씻고 나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아인도 베개를 베고 잘 자리에 놓으며 소파에 누워 잘 준비를 하였다.잘 준비를 끝내고 누운 지 꽤 지났음에도 쉽게 잠에 들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며 눈만 깜빡였다.카엘과 헤어질 생각에 가슴이 시큰해지는 것 같았다.후에 자신이 다시 만나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일부터 이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게 싫었다.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동생을 만약 찾아서 목걸이를 팔았다면 좀 더 머물 수 있었을 텐데..‘율은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몸은 건강히 있겠지..?’부디 건강히 잘 있기를 바랬다.한참을 천장을 보며 뒤숭숭한 기분으로 여러 생각들을 하다가 스르르 눈이 감기고, 거실에는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려왔다.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번쩍 뜨며 상체를 들어 시선을 시계로 향했다.시계는 오전 아홉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시계를 보던 아인은 곧바로 일어나 덮고 있던 이불을 고이 개어 한쪽에 정리하곤 욕실로 향했다.외풍을 잘 막아주는 욕실에서 씻는 것도 이제 끝이구나.이제 곧 외풍이 잘 들어오는 추운 욕실이 날 맞이해주겠지. 아인은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생각하며 샤워를 하였다.샤워를 끝내고 머리카락에 떨어지는 물기를 수건으로 짜내며 욕실을 나왔다.카엘은 언제 일어났는지 차를 마시고 있었다.“일찍 일어났네요.”“너도.”그 뒤로 둘의 대화는 자연스레 끊겼다.마저 못 싼 짐들마저 다 싸고,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빠진 것이 있나 체크를 하고 카엘을 보았다. 언제 나갈 준비를 하였는지 카엘은 외투를 걸치며 방에서 나왔다.“어디 가요?”“응, 바로 출발할 거지?”“네? 네.”카엘과 아인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자신이 가는 길과 반대로 카엘이 발걸음을 뗐다.“저, 저는 이쪽으로 가서 가볼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싱겁고 허무할 정도로 짧은 이별인사였지만 볼일 때문에 나가는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건 아니다 싶어 웃으며 인사하곤 몸을 돌리려는데-“따라와.”‘어딜 가는 거지?’아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없이 카엘을 뒤따랐다.카엘이 향한 곳은 말과 마차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차 대여소인 듯했다.카엘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향했다.말들을 구경하며 기다리던 아인에게 마차 한대와 카엘이 왔다.“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먼 곳에 걸어가다가는 신발이 버티질 못할 거야. 이거 타고 가.”“아, 아뇨.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아가씨, 그냥 타시죠. 어차피 환불은 안된답니다.”마부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게 둘 순 없지. 나중에 데인이 알게 되면 잔소리를 퍼부어댈 거야.”“.. 고마워요..”“가서 해야 할 일도 있다며. 일찍 도착해서 해.”“네..”“잘 가고.”“네.. 카엘도 잘 있어요..”헤어진다고는 계속 생각하였지만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실감이 제대로 나는지 눈가에는 눈물이 차오르며 시야를 탁하게 만들었다.아인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려버렸다.쏟아지는 눈물에 참기를 결국 포기하고, 닦지도 않고 계속 흘려보냈다.카엘은 가만히 아인을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다."앞머리로 얼굴 반은 가려진 채로 코만 붉은 게 웃긴 거 알아?"“뭐라고요?”마지막까지도 놀리다니.아인은 훌쩍거리며 카엘을 쏘아보았다.“그건 알아? 눈이 안 보여서 노려봐도 티가 안 나는 거.”얄미운 마법사 같으니.아인은 성질을 내고 싶었지만 훌쩍거리며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 노려보기만 했다.카엘은 한 발짝 가까이 아인에게 다가와 몸을 숙이며 손을 뻗어 아인의 앞머리를 넘기며 눈물을 닦아주었다.“못생긴 것도 아닌데 얼굴은 대체 왜 가리고 다니는 거야? 보는 게 답답하지도 않아?”“흡, 보여요. 익숙해져서 답답하지도 않고.”아인이 훌쩍이며 답했다.카엘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다음에 만날 때에는 머리를 가리지 않은 모습을 기대할게.”아인은 가만히 카엘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옷소매로 훔쳐냈다.“얼른 가.”카엘이 아인의 손을 잡으며 마차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잘 지내요.”“그래, 너도.”카엘은 마차의 문을 닫으며 마부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창문을 통해서 카엘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못 떼다가 카엘이 자리를 떠남으로써 안 보이게 되자 자세를 바로 하여 앉았다.그 뒤로 마차 안에는 엉엉 우는 아인의 울음소리가 퍼져 나갔다.이렇게 오래 울었던 적이 있었을까?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뭐라고 이리 슬픈지.한참을 울다가 동부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울음을 멈추었으니 꽤 오래도 울었다.눈이 부었는지 깜빡이는 게 영 불편했다.불편한 눈을 뜨며 바깥을 보았다. 그래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시골 풍경이 보였다.시골 풍경이 보이자,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도 그럴게 나에게는 커다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꿀꺽,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일단 푼돈이라도 벌어서 사채업자 오면 바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기한을 연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긴장감에 손에 땀이 나는 손을 불끈 쥐었다.얼마 후, 마차는 집 근처의 큰 건물에 세워졌다. 곧이어 마차의 문이 열렸다."아가씨, 도착했습니다."마부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건네었다.아인이 그 손을 잡고, 조심히 마차에서 내렸다."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아가씨도 조심히 들어가고, 오늘은 피곤할테니 푹 쉬어요."아인은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하곤 집으로 걸어갔다.'이 문을 열면 아버지가 있겠지?'아인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문을 두드렸다.짝!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만남은 따귀로 시작되었다.문을 연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고는 냅따 손을 들어 따귀를 때렸다.아인은 맞을 거란 예상은 대충 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네 년도 니 어미 따라서 집 나갔다가 갈 곳 없어서 돌아온 거냐?”아인은 옆으로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제자리로 돌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그동안 술 사 먹을 돈이 없었는지 오랜만에 보는 맨 정신 상태였다.외출 시에는 그래도 멀끔하게 면도도 하고, 얼굴이라도 씻고 나갔었는데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지 면도도 안 해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길러져 있었다.아버지 몸 옆으로 집안을 훑었다. 보이는 집안은 얼핏 보아도 그동안 집안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너저분했다.아인은 고개를 정위치한 상태로 살짝 숙였다.“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온 거예요.”“네 년이 일이 있긴 뭐가 있어?”‘보석을 팔아서 아버지가 빌린 사채업자에게 갚으려고 했어요.’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보석도 찾지 못했는데 굳이 보석을 찾아서 빚을 갚으려고 북부에 갔었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애초에 아버지는 보석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으니. 굳이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아인은 생각 끝에 사실을 말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둘러댔다.“.. 그동안 동생도 못 보고 그래서 동생도 볼 겸, 돈이 있으면 돈 좀 빌릴 겸 다녀왔어요.”“그래서 돈을 얼마 빌려 왔어?”순간 아버지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았지만 모른 체했다.“찾지 못했어요.”“쯧, 가서 찾지도 못할 거 여기서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지 뭣하러 시간낭비, 돈 낭비를 해? 여태 돈도 못 벌었을 것 아니냐? 일단 지금 있는 돈이라도 내놓거라.”“돈 없어요.”아인의 아버지는 어두운 얼굴이 더 어두워지며 의심의 눈초리로 아인을 무섭게 쳐다보았다.“진짜예요. 얼마 없는 돈에서 그때 거의 다 놓고 가고, 얼마 안 가지고 떠났었는데 있을 수가 없죠.”“그 푼돈을 돈이라고 놓고 갔다고 생색내는 거냐?”그 푼돈이라니. 나는 그 돈을 놓고 가지 않았더라면 매 끼니를 길거리에서 빵 쪼가리로 배를 채울 필요까진 없었는데.“쯧, 배고프다. 밥이나 차려라.”아버지는 그 말을 하곤 몸을 휙 돌려 집안으로 들어갔다."후우.."한숨을 내뱉으며 집안으로 들어와 짐가방을 풀지도 못한 체 한쪽 구석에다 놓고는 부엌으로 향했다.부엌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말라붙은 설거지 더미가 쌓여있었고, 이 추운 겨울에도 날파리가 생겨 날아다니고 있었다.설거지 할 그릇에 물을 부어 불려 놓고,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수납 칸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먹을거리가 하나도 안 보여 멀건 수프라도 끓여야 하나 생각하던 중 다행히 싹이 난 감자 두 개가 남아있었다.‘감자 수프는 만들 수 있겠어.’감자수프를 묽게 만들어 최대한 양을 늘려 완성한 뒤, 아버지에게 한 그릇을 퍼주고는 설거지 거리를 팔에 힘을 주어 박박 문지르며 닦아냈다.긴 사투 끝에 설거지를 끝낸 아인은 피곤함이 물밀 듯이 몰려왔지만 돈을 벌기위해 밖을 나섰다.당장 한 푼도 없어 잠시라도 쉬지도 못하고, 급히 돈을 벌어야 했다.멜 아주머니 집의 문을 두드린 뒤, 지친 얼굴을 힘을 주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로 바꾸었다.곧이어 문이 열리고, 아인은 문을 연 여인에게 고개를 짧게 숙이며 인사했다.“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어머, 이게 누구야? 요새 보이질 않더니 무슨 일 있었어? 저번 주에는 아버지가 여기 있냐면서 찾아오고 그랬었어. 가출했던 거야?”“아뇨, 볼 일 있어서 급히 가느라 아버지께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그래.. 그럼 다행이네. 걱정했단다.”아인은 멜에게 해맑게 웃어 보였다.“혹시.. 일감 있나요?”멜 아주머니는 이 동네의 일감을 연결해주는 인력소 역할을 했다. 일거리를 연결해 주며 받는 돈에서 수수료를 챙겨서 돈을 버는 이 동네의 유명한 마당발이자, 사장님이었다.푸근한 인상에 친절하고 특히 사교성이 좋아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그렇다고 사용인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무리인 마담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일거리를 많이 가져왔다.“그럼 있지. 아인 네가 없어서 일감이 밀려서 일이 줄어들지가 않더구나.”멜의 말에 아인의 얼굴은 화색을 띄었다.멜의 아주머니에게 받은 빨랫감을 이불한 채만큼 들고 강가로 향했다.일거리를 더 들고 와서 돈을 더 벌고 싶었지만 시간이 슬슬 해가질 시간이 다가와서 욕심을 많이 낼 수가 없었다.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빨래에 물을 적셔서 불려 가며 빨래를 시작했다.강물이 너무 차가워 손이 얼어붙는 듯 아파왔지만 입김으로 녹여가며 방망이질까지 해가며 옷들의 때를 빼기 시작했다.방망이질에 물이 튀어 입고 있는 옷의 반이 젖고, 젖은 옷에 찬바람이 닿으며 너무 추워져서 잇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빨리 끝내자.’한참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인 덕분에 세 시간이 지나서야 빨래는 끝이 났다.숙였던 고개를 들어 목을 뒤로 젖혔더니 해가 져버려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다.손의 물기를 안 젖은 옷에 슥슥 문질러 닦고, 끙차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쭈그려있어서 그런지 비틀거렸다.아인은 고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멜의 집으로 향했다.원래는 빨랫감을 말리고 가져와서 돈을 받아야 했지만 돈을 덜 받기로 하고 마르지 않은 옷을 주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늦게까지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외출 준비를 하였는지 면도도 한 채로 아까완 다르게 멀끔하게 해서는 나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돈을 달라는 얘기냐고 묻기도 입 아팠다. 뻔한 걸.이럴 줄 알고 돈을 어느 정도 빼놓았다.돈을 받은 아버지는 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듯 살짝 찌푸리더니 캐물을 시간이 없는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향했다.아버지가 나간 텅 빈 집에 드디어 쉴 수 있게 된 아인은 벽에 몸을 기대고 스르르 앉았다.손은 붉다 못해서 부르터 있었다. 요 근래 빨래를 안 했더니 손이 편히 쉬는 거에 적응이 되었는지 전에 비해 더 심하게 부르텄다.‘그래, 이게 내 자리였지.’아인은 벽에 기댄 몸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지친 몸의 휴식을 취했다.드르렁, 코 고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언제 들어왔는지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몇 시간도 못 잔 듯 피곤이 가시질 않았는데 해가 뜬 걸 보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잤나 보다.얼른 장을 보고 일을 하러 가야 했기에 좀 더 자고 싶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오랜만에 노동을 해서 그런지, 쭈그려 자서 그런지 온 몸에 알이 베긴 듯 찌뿌듯했다.허리 또한 피는 게 불편할 정도로 알이 배겨 있었다.조금이라도 몸을 풀어보고자 간단히 기지개를 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냄비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제 만들어 놓은 감자수프는 한 명이 한 끼 해결할 정도의 양만 남아 있었다.‘아버지 한 끼 먹으면 끝이네..’아인은 어제 제대로 된 한 끼도 못 먹어서 빈속을 채우고 싶었지만 남아 있는 양이 별로 없어 먹기를 포기하고 뚜껑을 닫았다.간단히 씻은 아인은 곧바로 장바구니를 챙겨서 시장으로 출발하였다.간단히 배를 채울 수 있는 바게트를 사고, 당근, 고구마, 감자 등등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들을 사기 시작하였다. 장을 당분간 볼 생각이 없었으니까.당분간은 장을 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야 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덜 뺏겨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자주 가던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덤으로 주어 기분이 좋았다.예전에 살던 곳과 달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의 좋은 점이라면 발달이 더딘 곳이다 보니 예전에 살던 곳보다 귀족들의 수가 훨씬 적었다. 귀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극히 소수였다.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어서 무시도 안 받으니 발달이 더뎌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들과 비슷하게 살 수 있어 좋았다.이 곳은 시골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정보도 늦고 못 듣는 정보 또한 많았다.그러다 보니 전에 받던 멸시를 이곳에선 거의 안 받을 수 있었다.다른 사람들은 그 점을 단점이라 생각하겠지만 나한테는 장점 중 하나였다.아버지는 날 시집보낼만한 돈이 있는 남자가 없어서 많이 아쉬울 테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돈 때문에 시집갈 일이 없으니 더없이 좋았다.이런 것에 좋아한다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어제 번 돈을 장 보는 것에 다 털어 쓰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팔로 안아 들고 집으로 향했다.아버지는 아직도 수면중인지 집안은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어젯밤에 나가서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는지 집안에는 술 냄새가 퍼져있었다.장 본 것들을 간단히 수납 칸에 정리해두고, 장 볼 때 샀던 바게트를 썰어 한 손에 한 조각씩 들고 일터엔 멜 아주머니 집으로 출발하였다.어제 멜 아주머니에게 내일은 오늘의 두 배를 챙겨달라고 말해놓고 갔더니 아주머니는 딱 두 배의 빨랫감을 준비해놓고 있었다.“손이 빠르긴 하지만 오늘 다 할 수 있겠니?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멜의 걱정에 아인이 배시시 웃었다.“아녜요, 다 할 수 있어요. 말려서 내일이나 오늘 밤에 갖고 올게요.”“그러렴. 아, 혹시 내일도 일 할 생각이 있니? 바닷가 쪽에 별장이 있는데 청소할 사람을 구한다 하더구나.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빨래보다는 보수가 높단다.”보수가 높다면 힘들어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제가 할게요!”아침부터 사과도 얻고, 빨래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급여의 일도 구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았다.무거운 빨랫감들을 두 손에 들고 가면서도 얼굴에 남아있는 웃음기는 사라지질 않았다.강가에는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다른 때였다면 빨래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제법 한산했다.강가에는 아인을 제외한 다른 여자아이 한 명만이 있었다.빨래를 하는 아이는 자신보다도 제법 어려 보였다.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는지 깡마른 몸에 손마저도 메말라있었다.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서 일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측은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며 빨래에 집중하였다.가져온 빨랫감의 반 정도를 빨래를 끝내자 챙겨 온 줄을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 젖은 옷들을 탁탁 털며 널었다.조금이라도 말려서 집에 가져갈 때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말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다.빨래를 너는 동안 물에 불려놓았던 빨래들을 꺼내어 방망이질을 시작하였다.겨울이라 차가운 물에 손은 새빨개졌지만 옷 안에는 빨래질로 더워져 땀이 송골송골 맺혀왔다.손이 너무 시릴 때에는 옆구리와 팔 사이에 끼어 놓고는 체온으로 최대한 녹이다가 다리사이에다가 끼어 놓고 녹이기도 하다가 한참 지나서 빨래를 마침내 끝내고, 탁탁 털어 구겨지지 않게 펴서 차곡차곡 쌓았다.힘껏 물기를 짜냈지만 그럼에도 젖은 빨랫감들은 무게감이 상당했다.낑낑 들고 어정쩡하게 걸으며 집으로 도착한 아인은 서둘러 빨래들을 해가 지기 전까지 말리기 위해 널기 시작하였다.손은 물에 젖어 있는 빨랫감들을 만지며 찬바람에 닿아서 너무나도 시렸지만 빨래만 널면 집에서 따뜻하게 손을 녹일 수 있으니 얼른 널자는 생각을 하였다.그런데..‘우리 집이 왜 따뜻하지?’냉골이나 다름없는 집이 왜..?장작도 밤에만 조금씩 태워 그나마 덜덜 떨지 않고 잘 수 있을 정도로만 서늘하게 지냈었는데 따뜻했던 것 같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장작에 불도 안 붙이고 잠에 들었었는데..아버지가 집에 와서 장작에 불을 붙였나?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술을 먹고 와서 장작에 불을 붙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자신을 깨워서 장작에 불을 붙이라 했으면 모를까.아인은 빨랫감들을 마저 널고 나서 후다닥 장작을 태우는 곳으로 달려갔다.땔감 넣는 곳에는 타 들어있는 장작들만 있었다. 언제 불을 피웠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의문만 남았다.잠시 쉬자는 생각으로 거실에 대자로 뻗어 누운 아인은 천장을 보며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작은 다 태워져 있었는데 집안은 훈훈했다.타들어있는 장작의 양을 보았을 때, 방금 다 탔다고 해도 이렇게 따뜻할 수는 없었다.이 정도의 온도라면 마법밖에는 없을 것이다.‘설마.. 카엘?’카엘이 불의 마법을 쓰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쯤은 쉬울 거야.그러나 카엘은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올 이유 따위는 없으니까.그렇다면 다른 하나가 떠오르는데 설마?아인은 곧장 밖으로 나가 주문을 외웠다.“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주문을 말하자, 허공에 불이 일어나며 실리아나가 나타났다.“실리아나!”“아, 깜짝이야! 작게 말해도 들려. 나 귀 안 먹었거든?”실리아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말했다.“미안해요. 실리아나, 혹시 실리아나가 집을-”“따뜻하게 했냐고?”실리아나의 말에 아인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그래, 맞아. 너 나 아니었음 입 돌아갔을걸? 그 차디찬 바닥에서 골아떨어지다니 제정신이니? 집이 무슨 냉골이더만. 야외인 거처럼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질 않나. 여태 그런 집에서 살았어? 용케 살았네.”실리아나는 나를 깨우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지친 내 얼굴에 말없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고마워요.”“이것뿐만이 아니야. 너, 전에는 밖에서 잔 적도 있잖아? 너 그때도 나 아니었으면 저승길 건넜어. 그때는 네가 마법 실력이 너무도 하찮아서 따뜻하게 까진 못 만들어 주었지만 그래도 숨은 붙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준 거야. 이번에는 네가 그래도 마법 실력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서 내가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거고.”하긴 그때도 초겨울이긴 했지만 새벽이 되면서 더 추워져서 객사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날씨긴 했다.“고마워요. 실리아나.”“그래그래.”내가 실력이 늘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다라.. 그럼 계약을 했으니 나도 그 불의 힘을 쓸 수 있는건가?“나도 그럼 실리아나가 했던 능력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집을 따뜻하게 한다던가. 그런 마법이요.”“네 고유 능력이 아닌 내 고유 능력이니 못하지. 날 소환해서 쓰면 되잖아. 널 얼어 죽지는 않게 해 줄 테니 걱정 마렴.”실리아나는 든든한 말을 건네었다.실리아나의 말에 마음 한편이 채워지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아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다.“오늘 마법-”덜컥.아인이 말을 하는 와중에 집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아인은 재빠르게 실리아나를 숨기고자 가려지는 집 옆쪽으로 실리아나를 퍽, 밀었다.부스럭.“너!”“쉿!”다행히 지푸라기들이 쌓여 있는 곳에 넘어져 부스럭 소리만 작게 났다.아인은 제 입술에 손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일, 일어나셨어요.”아버지 그렉이 문을 열고 나왔다.실리아나의 정체를 알게 되면 설명도 복잡할뿐더러 지금은 내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다. 특히나 실리아나가 권속이란 것을 알면 시끄러워질 껀 불 보듯 뻔했다.아버지가 내 쪽으로 오게 되면 실리아나가 보일 것 같아 내가 먼저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다.아버지는 어딜 외출하려는 듯 멀끔하게 머리도 넘기고, 깔끔해 보이는 옷으로 차려입고 있었다.“어디 가세요?”“그래, 번 돈 다 줘봐라.”그렉이 아인에게 손을 내밀었다.아인은 그 손을 보며 뒤로 주춤 물러서며 말했다.“안돼요.”아인이 고개를 내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하자, 그렉은 인상을 찌푸렸다.“뭐?”“사채업자한테 갚아야 해요. 아버지가 빌린 돈 받으러 조만간 올 거예요. 그때까지 최대한 모아놔야 조금이라도 갚죠.”“그깟 돈 얼마라고. 내가 갚을 방법이 다 있으니 내놓거라. 지금 돈을 서야 큰돈을 가져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돈 갖고 걔네가 성에는 차겠냐?”방법이 있다니. 그 방법이란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받았으나 묻지는 않았다.“그것도 그렇지만 돈도 아직 못 받았어요. 이걸 말려서 가져다주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어제 번 돈 있을 것 아니냐? 어제 돈 벌러 간 것 아니었냐?”“그 돈은 장보는 거에 썼어요.”“그래서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네.”그렉은 짜증이 묻어나는 얼굴을 하며 빨랫감들을 가리켰다.“이거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말고, 다 나한테 가져와라.”어딜 가는 것인지 급히 나가는 아버지를 보며 한 숨을 크게 내쉬었다.“너 주워 온 거야? 왜 저렇게 못되게 굴어?”실리아나는 옷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내며 물었다.아인은 실리아나의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별 말없이 실리아나의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지푸라기들을 떼고 마루에 앉아 쉬었다.겨울이지만 햇살이 강해서 나름 따뜻한 게 빨래도 잘 마를 수 있을 것 같았다.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다른 생각이 쑤셔 들어왔다.“실리아나.”“응?”“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그런데?”“그럼 이 젖은 빨랫감들도 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밖에서 마법을 쓸 수 없어 집안으로 널어놓은 빨랫감들을 죄다 걷어서 가지고 들어갔다.“실리아나.”“응.”“다시 한번 말하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말할게요. 이 거 태우면 안 돼요.”말리는 시간 줄여보려고 옷 하나라도 태웠다가는 빨래한 걸로 버는 돈의 배로 토해내야 했다.“흥, 날 뭐로 보고.”축축 젖어 있던 빨랫감들이 삼십 분이 지난 뒤에는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다.짝짝짝, 아인은 크게 박수를 쳤다.“진짜 대단해요!”“아이, 뭐 이 정도로. 이건 별 거 아냐.”별게 아닌 게 아니었다. 이 정도의 속도면 오늘 가져온 빨랫감의 몇 배를 가져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아인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행복에 빠졌다.빨랫감들을 차곡차곡 개서 멜 아주머니 네로 향하였다.똑똑두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문이 열렸다."응? 아인 어쩐 일이니?""오늘 일거리 끝내서 가져왔어요."“응? 벌써 다 말랐니?”멜은 아인이 가져온 일거리들을 놀란 눈으로 보았다.놀란 눈으로 아인이 가져온 것들을 손으로 만져 다 건조가 잘 되었는지 체크했다.“오늘이 날씨가 좋았나? 이런 겨울에 이렇게 빨리 마르다니 신기하구나.”하긴 겨울에 이렇게 빨리 마른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듯했다. 아인은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잠시 동안 머리를 굴려 둘러 댈 말을 생각하다가 말했다.“오늘 생각보다 빨래가 일찍 끝나서 일찍 널어놓아서 그런가 봐요.”아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예정보다 빨리 되어서 그 마담이 좋아하겠구나.”짧은 시간에 빨래와 건조까지 다 해서 가져온 것치곤 완벽했다. 소스에 오염되어 변색이 되었던 흰 옷도 소스의 흔적이 어디 갔는지 깨끗한 새하얀 옷이 깔끔하게 개져 있었다.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값을 치렀다.“혹시 빨랫감이 더 있나요?”“그럼 있지. 하지만 오늘 너무 고되게 일하면 몸살 날지도 몰라. 내일 별장 일도 가야 하니 오늘은 이만하는 게 낫지 않겠니?”멜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별장 가서 일하려면 차라리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고 별장 일을 끝내고 나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다.“네, 그렇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그래, 수고했구나. 얼른 가서 쉬렴.”아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집 쪽으로 걷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숲길로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본 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아인은 손바닥을 펴서 손위에 빛을 만들었다. 꾸준히 연습해야 실력이 는다는 데인의 말이 떠올라서 마법 연습을 위해 숲 속으로 들어온 것이었다.손 위에 떠 있는 빛의 크기를 키워보았다. 빛을 더 내보냈더니 쉽게 크기가 커졌다.빛은 원래의 크기가 손바닥만 했다면 그 크기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커졌다.‘매일매일 연습해서 크기를 점점 키워 나가야지.’아인은 빛은 흩뿌리듯이 없애고, 손바닥 길이의 나뭇가지를 바닥에 놓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난번에 유리병을 깨뜨렸던 것처럼 마법을 내보냈다.나뭇가지는 반으로 구겨지듯이 가운데 부분이 꺾여서 부러졌다.미숙한 솜씨로 가는 나뭇가지에 마법을 쓰려니 엉성하게 꺾인 게 영 불만족스러워 다른 나뭇가지로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했다.“후우.. 다시.”쩌적수십 번의 연습 끝에 처음보다는 덜 엉성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오랫동안의 연습 때문인지 현기증이 일어 연습을 멈추고, 나무에 등을 기댄 채로 털썩 앉았다.숲 속에는 바람소리와 아인의 약간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인은 쌓여있는 꺾인 나뭇가지들을 내려 보다가 무거워진 눈을 감았다.육체적으로 힘을 쓴 것도 아닌데 얼굴과 몸에는 추운 겨울에 안 맞게 땀이 흐르고 숨이 찼다.나무에 기대어 쉬던 아인은 얼굴에 닿는 차가운 바람에 그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서서히 현기증이 가라앉자,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네이엔 다스 세나 세인트”“왜 불렀어?”“실리아나.”“응?”“나 마법 좀 가르쳐줘요.”“내가?”“네. 마법에 관한 이야기라도 괜찮아요.”“흠.. 글쎄.. 무얼 가르쳐주어야 하나? 난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실리아나는 대마법사의 권속이었으니 마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대마법사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가르쳐 줄 것도 없었을 테다.“전에 계약했다던 대마법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 마법사인가요?”아인의 물음에 실리아나가 고개를 내저었다.“물의 마법사였어. 나와 아예 상극이었지. 물로 형태를 바꿔서 무기로도 바꾸고, 보호하는 걸로도 바꾸고 그랬지. 말이 물의 마법 사지. 거의 만능이었어.”“대단한 사람이네요..”아인이 끄덕이며 말했다.“그렇지. 자신이 대단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 좀 재수 없긴 했지만 부정할 순 없었지.”“그 사람은 원래부터 마법 재능이 넘쳐났겠죠?”“아냐. 집안이 마법사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쓸 줄 몰랐어. 마법 능력이 아예 없는 줄 알았다고 했었지. 한 열 살 쯤이었나? 그때 즈음일 거야. 우연히 강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해주려다 갑자기 마법이 발동되었고, 그때서야 아- 내가 마법사구나 알았다더라고.”실리아나의 말에 아인은 예상 밖의 이야기라 눈이 커졌다.“대마법사가 저와 비슷할 줄은 몰랐네요.”“내가 오랫동안 인간들을 보았을 때 느낀 점은 인간일은 모른다는 거야. 너도 대마법사까지는 안되더라도 더 발전할 수는 있어. 그건 내가 확신해.”실리아나의 말에 아인이 희망이 생기며 기분이 좋아졌다.“네.”“벌써 해가 져 가는데 오늘은 이만 가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내일도 있고.”내일 알려줄 만 한걸 생각하러 가겠다며 실리아나는 사라졌다.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건만 해가 짧아서 그런지 금세 노을이 지고 있었다.붉은 노을을 바라보다가 뜬금없이 카엘이 떠올랐다.잘 지내고 있으려나?아직 그 숙소에 머물고 있겠지?덕분에 잘 도착했다고 편지라도 쓸까? 그건 좀 과하겠지?노을 때문인지 갑자기 해를 등지고 서서 내려다보며 웃던 카엘의 모습과 햇살 아래서 잠자고 있던 카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보고 싶다..아인이 집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그렉이 쏜살같이 달려왔다.“왜 이제 오는 거냐?”그렉은 아인을 계속 기다린 듯했다.“왜 그러세요?”“번 돈 줘봐라.”아인의 돈을 급히 빼앗아 들고는 곧바로 밖으로 향했다.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게 영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곤 저녁에 먹을 것들을 준비했다.탁탁.야채 써는 소리가 경쾌했다.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집 청소를 시작하였다.쓰레기가 어찌나 많은지 보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이런 쓰레기는 어디서 난 건지 이상한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술 먹고 주워왔나?’쓰레기들을 모아서 집 앞에다 내놓고,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였다.한번 닦고, 한 번 더 닦으니 광이 나는 듯했다.허리를 뒤로 넘겨 몸을 풀고는 바로 욕실로 향하였다. 욕실도 수세미로 벅벅 밀며 닦아 놓으니 물때가 사라지고 광이 났다.“후우.. 오늘은 이쯤 하자.”아직도 할 것이 태산이었지만 오늘 더 했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을 지경이었다.아버지가 오면 저녁을 같이 먹으려 했지만 술을 먹고 오려고 하는지 들어올 기세가 안보였다.결국 혼자 식사를 먼저 마치고 설거지도 끝마쳤다.장보는 거에 돈을 다 써서 땔감을 사지 못해 집에 한기가 들어 어쩔 수 없이 실리아나에게 부탁하여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었다.이불 안으로 쏙 들어간 아인이 얼굴만 빼꼼 내밀었다.따뜻함에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다.슬슬 눈을 감고, 잠 잘 준비를 하는데 그제야 아버지가 들어온 듯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아인, 나와 보거라.”얼마 지나지 않아 혀가 어눌해진 발음으로 그렉이 아인을 불렀다.‘술주정을 부리려는 건가?’빨리 안 나가면 화낼 것을 알기에 바로 일어나서 방 문을 열고 나갔다.툭.아인의 앞으로 물건이 던져졌다.“이게 뭐예요?”“딱 보면 모르겠냐? 옷 아니냐?”그러니까 이 옷이 뭔데요?아인은 말없이 옷을 집어 들었다. 하늘색의 샤랄라 한 드레스였다.“이, 이게 뭐예요? 누구 거예요?”“네 옷이다.”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선물을 주다니. 그것도 사줘본 적이 없던 옷을..뜬금없어도 너무 뜬금없었다.“계집애가 옷이 그게 뭐냐? 머리도 그렇고. 쯧.”이렇게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러는 건지 아버지가 이상했다.“입술에 붉은 것도 좀 바르고,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꾸미고. 여자로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지. 옷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그런 옷 입지 말고 이런 옷을 입고 다녀라.”갑자기 왜?내 돈을 뺏어가서 내 옷을 사 왔다고?아버지의 수상쩍은 행동에 의문이 들었다.아인은 결국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버지가 말대꾸한다고 뭐라 할까 봐 최대한 말을 참았지만 더 이상 이 궁금증을 참을 수는 없었다.“갑자기 여자 같이라뇨? 왜..”“쯧, 계집애로 태어났으면 계집애 같이 보여야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게 뭐냐. 쯧쯧, 가서 자거라.”데인은 그 말을 던지곤 휙, 돌아선 가버렸다.방으로 들어온 아인이 문을 닫고, 받은 옷을 보았다.감동을 해야 할지, 의문을 품어야 할지 결정이 어려웠다.“그래도 아버지긴 한가 보네. 옷도 사 오고.”들려오는 목소리에 주위를 둘러보았다.실리아나의 목소리 같은데 실리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나는 굳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너랑 말할 수 있어.”“아..”“옷을 선물 받았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질 않네?”“얼떨떨하네요. 옷을 선물해준 적이 없었거든요.”선물해줄 만한 사람도 아니고.“그래? 왜 갑자기 옷을 사준 걸까? 달라지기로 마음먹은 건가?”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었다. 단시간에 달라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한동안 이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던 아인은 생각은 잠시 보류하고, 누워 눈을 붙였다.당장 내일 일찍 일어나는 게 우선이었다.해도 안 뜬 새벽에 일어난 아인은 무거운 눈을 힘주어 뜨며 일어났다.눈뿐만이 아니라 온 몸이 무거웠다. 어깨에 누가 추를 달아 놓은 것처럼 뻐근하면서도 불편했다.세수를 하였더니 그나마 잠이 깼다.옷에 옷을 껴입고, 또 겉에 옷을 걸치고 몇 겹을 몸에 두른 뒤 밖을 향하였다.지난밤부터 눈이 내렸는지 길바닥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뽀드득.뽀드득.걸을 때마다 발이 내려앉음에 눈이 눌려 소리를 내었다.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빨리 걷지도 못하고, 천천히 조심조심 별장으로 걸어갔다.출발한 지 삼십 분이 되었을 즈음 별장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온 건지 조용했다.'두 명이 더 온다고 했었는데.'문도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없는 아인은 어쩔 수 없이 별장 앞에 쭈그려 앉아 사람들을 기다렸다.그 후로 몇 분이 지났을 즈음이었다.뽀드득.뽀드득.눈이 밟히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눈을 밟으며 걸어온 사람은 같이 일 할 사람이 아닌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멜 아주머니였다.“아인, 좋은 아침이구나.”멜은 아인에게 많이 추웠지? 들어가서 몸 좀 녹이자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멜이 난로에 있는 장작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오늘 같이 일하러 올 사람이 집안 사정이 생겨 못 온다고 하더구나. 하필이면 그 둘이 가족이어서 둘 다 못 온다고 하니 어쩌면 좋으니. 어젯밤에 들어서 사람도 못 구했단다.”“그러면.. 제가 다 하면 제가 세 명의 몫을 받을 수 있나요?”“응? 네가 다? 이 집을 혼자선 하긴 힘들단다. 평수가 넓은 것도 그렇지만 딱 보아도 셋이 청소하기도 버거워 보이지 않니?”멜의 말이 맞았다. 집은 오랫동안 손을 안 보아서 거미줄은 기본이고, 바닥도 먼지가 쌓이다 못해서 뭉쳐서 굴러다녔다."약속 날짜까지 제가 다 할게요. 저 아시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두 명 몫을 주셔도 돼요."두 명의 몫이라면 한 명의 몫이 멜의 주머니에 들어가니 멜에게도 이득이었다.아인이 일을 꼼꼼히 잘한다는 것도 그동안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실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아인이 떠난 지 하루가 지났다.항상 거실에 있던 아인이 없으니 괜스레 허전하고 그 감정이 점차 부풀어져 조그마한 공허함까지 생겨났다.자신의 그런 모습에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거실을 쭉 훑어보던 카엘은 한 명이 비었다고 이렇게 텅 빈 느낌이라니 이 기분이 익숙지 않았다.주전자에 물을 담아 찻잎을 넣고, 불의 마법을 쓰니 얼마 안 가서 주전자 입에서 김이 나오며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찻잔에 쪼르륵 따르고 의자에 앉아 조금씩 음미하며 마시는 와중 콕콕,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창문 앞에는 블리스 가의 새가 부리로 문을 어서 열라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부리를 찧고 있었다.항상 자기 방에 있는 창문을 두드리더니 거실에 있는 건 어찌 알고 거실 창문을 두드려댔다.새머리 주제에 제법 돌아가기는 하는구나.카엘을 작은 감탄을 하며 창문 쪽으로 손을 들었다.드르륵.창문이 열리고 붉은 날개를 퍼덕이며 새가 들어와 테이블에 착지했다.카엘은 새의 발목에 묶여있는 종이를 풀고 고개를 들어 새와 눈을 맞추었다.누군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새와 교감하는 미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의 카엘은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없었다.“이제 꺼져.”카엘의 말을 들은 새가 고개를 들어 못마땅한 듯이 카엘을 노려보았다.새와 카엘은 원수지간처럼 서로 눈빛으로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하였다.아니, 새는 힘겨루기였지만 카엘은 내려다보며 귀찮은 내색을 띄고 있었다.십 초 정도 지났을까. 카엘이 손 위에 불을 만들었다.“오늘 아침은 고기도 괜찮겠어.”카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새는 몸을 흠칫하며 작게 떠올라 날개를 퍼덕였다.새의 얼굴에는 분함 반, 긴장감 반이 스며들어 있었다. 날개를 퍼덕이던 새는 이내 날아 도망갔다.“흥.”드르륵, 탁.창문을 닫고 블리스 가의 새가 삼일에 한 번 꼴로 가지고 온 서신들을 방에서 꺼내와 테이블에 펼쳐놓았다.언제 적에 온 편지인지 기억도 안 나는 제일 먼저 왔던 서신부터 온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온 서신의 내용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다.맨 처음에 온 서신은 조곤조곤 차분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갈수록 점점 거칠어진 말투와 나중에는 이놈,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제 이름같이 느껴지기까지 했다.이렇게 많은 서신에는 다른 내용이 있을 법도 하건만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 밖에는,그 외엔 쳐들어오겠다는 협박만이 들어있었다.마지막 편지까지 읽은 카엘은 읽은 서신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소파에 몸을 맡겼다.나가서 할 일이 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무엇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저 귀찮았다.그 시각 늘어진 카엘과는 다르게 아인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멜은 아인의 좋은 제안에 갈대처럼 쉽게 흔들렸으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기색을 내비쳤다.“며칠 안에 해야 하는 데요?”“삼일 뒤면 오신다 하더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삼일 안에는 다 끝내야 하는데..”“그 안엔 다해요. 제가 여기서 머무르면서라도 다 끝낼게요.”삼 일치 삯을 두 명 몫으로 받는 다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좋은 일거리였다.일하는 값도 어제 받은 이백 골드의 네 배인 팔 백 골드라면 힘들어도 몸이 절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멜은 당장 사람 구하는 골머리를 썩느니 아인의 제안에 수락해서 한 명 삯을 누워서 편하게 따로 챙길 수 있으니 좋은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멜은 잠시 고민했으나 뻔히 보이는 계산에 결국엔 웃으며 수락하였다.‘삼일이면.. 팔백 골드의 세배라.. 거기에 두 명 삯이니..’아인은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여기 일단 열쇠를 받으렴. 나갈 때마다 문은 꼭 잠가야 한단다. 혹시 모르니.”멜의 당부에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네, 걱정 마세요.”“그럼 청소하고 있으렴. 나는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챙겨 오마.”멜은 웃으며 먹을거리를 가지러 사라졌다.혼자서 이 넓은 곳을 삼일 안에 청소하려면 손이 좀 빠른 아인이어도 빠듯하였다.몸을 잠시 녹인 후 언 손이 다 녹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할 준비를 하고 맨 위층부터 청소하기 위해 올라갔다.몸속에 먼지를 묵힐 생각은 없으니 추워도 창문부터 열어야 했다.맨 위층인 사층으로 청소도구를 들고 간 아인은 보이는 창문은 죄다 열었다.창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찬바람이 귀싸대기를 때리듯 거칠게 들어왔으나 괘의치 않고 마저 다 연 뒤에 빗자루를 들어 가구 위부터 쓸어내렸다.채광이 그다지 좋지 않아 어두운 실내에 먼지와 인적 없는 흔적이 대부분인 이 곳엔 귀신이 튀어나와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음침했다.가구 위에 덮어져 있던 천들도 거둬내니 콧속에 먼지가 들어간 듯 갑갑했다.기침을 해대며 코와 입을 막고 사층에 있는 가구 위에 덮어져 있는 천들을 복도 한 곳에 다 끌어다 모아 놓았다.“이 천들만 빨아도 하루 일과가 끝날 듯한데..”시간이 없다고 재차 느낀 아인은 코와 입을 막는 건 집어치우고 분주하게 천들을 사층을 청소하기 편하게 삼층으로 끌어내려놓고, 빗자루질을 마저 하였다.천을 치우고 빗자루질을 끝마치니 나름 깨끗해진 것을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일층으로 내려가 걸레를 적셔서 힘껏 짜낸 뒤 사층의 창틀과 창문들을 닦기 시작하였다.창문을 다 닦고 걸레를 빨고 있을 즈음 멜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아인, 이거 먹고 하렴.”“네.”일층으로 내려간 아인은 테이블위에 있는 천을 거두고 대충 먼지를 쓸어낸 뒤 바구니를 올려놓았다.바구니 안에는 샌드위치와 우유가 자리하고 있었다.멜 아주머니는 안에 든 샌드위치와 우유를 꺼내어 아인에게 내밀었다.“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아인은 샌드위치를 크게 한입 베어 물었다.“..”“맛이 없니?”“아뇨, 진짜 맛있어요!”샌드위치는 사 먹는 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맛있었다.“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구나.”멜이 안심하듯 웃었다.그런 자상한 멜 아주머니를 보다 문득 엄마가 생각나 눈을 돌려 창가를 보며 허겁지겁 먹어댔다.“아인, 체한단다. 우유 마셔가면서 먹으렴.”아인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인이면서도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어린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릴 수는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멜 아주머니가 중간에 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단시간에 먹어치우고 바구니를 챙겨 집으로 가는 멜 아주머니에게 간단한 마중을 한 뒤, 곧바로 청소를 이어나갔다.급하게 먹고 바로 몸을 움직여서 그런가,속이 영 불편했지만 쉴 시간이 없었다.빗자루를 든 아인은 구석구석 쓸기 시작하였다.조명들과 장식품들까지 꼼꼼히 다 닦고 욕실까지 청소를 끝마치니 사층 청소가 드디어 끝이 났다.창가를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다.이제 겨우 사층을 끝냈는데 벌써 하루가 다 지난 셈이었다.‘늦었다. 얼른 삼층 청소하러 가자.’아인은 삼층을 청소하러 가기위해 사층의 창문들을 하나하나씩 닫아 갔다.탁.탁.계단에서 가까워져 오는 발소리에 계단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멜 아주머니가 올라오고 있었다.“아직도 안 갔을 줄 알고 이렇게 왔단다. 어유, 해도 졌는데 얼른 집에 가렴. 저녁도 먹어야지.”아인이 멜의 말에 웃으며 답했다.“아직 사층 밖에 못했는걸요. 삼 일안에 끝내려면 삼층도 어느 정도 청소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아인의 말에 멜이 손과 고개를 내저었다.“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렴. 내일 경과를 보고 안 되겠으면 사람을 쓰던가 하면 된단다.”“안돼요! 제가 어떻게든 끝낼게요. 할 수 있어요.”사람을 더 쓴다니. 나눠먹기를 할 바엔 오늘 밤을 새워 일을 하는 것이 백배 나았다.아인의 말에 멜이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다.“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끝내고 가렴. 내일 일찍 와서 하면 되지.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니.”삼층까지 청소를 얼추 끝내고 싶었지만 결국 멜의 뜻을 따르며 장작의 붙은 불들을 꺼뜨렸다.“내일 오면 장작에 불붙여서 몸 녹여가면서 하렴. 여기 나와 있는 장작들은 써도 된단다.”“네.”아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다.아인은 멜과 함께 별장을 나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갈길이 달라서 곧장 헤어졌다.홀로 집으로 향해 걷는데, 살짝 몸살 기운이 있는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그도 그럴 것이 집으로 오고 나서 계속 주야장천 일만 해댔으니 몸이 성할리 난무했다.달칵.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온 아인을 그렉이 맞이하였다.기분이 언짢은지 구긴 인상으로 아인을 내려다보며 서있었다.“왜 이제야 들어온 게냐? 계집애가 어딜 싸 돌아다니는 게야?”싸돌아다닌다니. 누가 듣는다면 자신이 어딜 놀다 온 줄 알 것이다.“.. 일하고 왔어요.”아인은 대화를 얼른 끝마치고 싶어 깔끔한 대답을 내놓았다.최대한 대화를 빨리 끝내고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이불속으로 몸을 내던지고 싶었다.시간이 지날수록 눈도 무거워지고 몸에 열기가 오르는 게 얼른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저녁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이 시간까지 일을 했다고?”“네.”“저녁 시간은 맞춰서 들어와서 밥은 차려야 할 것 아니냐? 아침, 점심, 저녁 다 차리지 않고, 네 아비를 굶겨 죽인 생각인 거야?”몸도 고된데 아버지는 정신까지 고되게 할 셈인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드실 수 있게 음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걸 드시지 그러셨어요.”“저 찬 걸 먹으라고? 참 효녀 납셨구나. 효녀 납셨어. 아버지한테 찬 음식을 먹지 그랬냐고? 하, 하하.”누구 때문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만들어 놓은 음식도 있는데 데워놓지 않았다고 뭐라 뭐라 퍼붓는 아버지가 어이없었다.참고 빨리 이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결국엔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아인은 숙였던 고개를 들어 데릭을 올려보았다.“데워 드실 수 있잖아요. 굳이 차려드려야 드실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순간 데릭이 한달음에 큰 보폭으로 걸어와 아인의 뺨을 쳤다.짝!방금 올렸던 고개는 옆으로 꺾여버렸다.아인의 한쪽 볼은 붉어지며 점차 부어올랐다.“말투가 그따위가 뭐야? 이제는 알아서 차려먹어라? 네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었다. 그러고선 다녀와선 뭐? 데워먹지 그랬냐고?”여태까지 별의별 같잖은 이유로도 맞으면서 자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러려니 했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어려웠다.아인은 옆으로 돌아간 고개를 제자리로 돌리고는 다시 그렉을 쳐다보았다.“저 일하다가 왔어요.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왔다고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돈을 구하러 갔던 거지,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이 곳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어요.”아인은 눈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가리켰다.“그러는 동안에도 드실 음식도 만들어놓았죠.”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 건지, 화가 나서 쥐어 팰 준비를 하는 건지. 말없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평소라면 이 만큼 뭐라고 하는 것도 크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제 자신에게 놀라며 멈췄겠지만, 이상하게도 한번 제대로 터진 입은 제어가 되질 않았다.“충분히 데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오셨나요?”“뭐?”“여태 쉬지 않고 오늘도 저녁시간 지나서까지 일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제가 차려 드리길 원한다면 적어도 돈만 쓰지 마시고 벌기도 하셔야죠. 사지가 멀쩡한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아인은 그 말을 한 뒤 한참 뒤에 깨달았다.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똑똑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나는 문쪽으로 다가가서 물었다.“누구세요?”“나야.”카엘의 목소리였다."..카엘? 카엘이에요?""응, 나야."카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급히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카엘이 눈앞에 서있었다.“여, 여긴 어떻게..”“보고 싶었어.”"네?"해사하게 웃으며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는 카엘에 의해 괜히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았다.“절 왜..?”“왜라니. 서운하게.”“아니, 보고 싶다고 멀리 이곳까지 왔다고요?”“너무 보고 싶어서.”“..장난치지 말아요.”“왜 장난이라 생각하는 거야?”카엘은 문가에 몸을 기대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설마 나랑 같은 마음이었던 건가?’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건가? 나 혼자 하는 짝사랑이 아니었던 거야?아냐 아냐.. 그럴 리 없어. 같이 있을 때도 별 감정도 없어 보였잖아. 아닌가..? 혹시 모르잖아?여러 생각 끝에 아인은 입을 열었다.“혹시..”뒷 말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다.카엘은 그 후로 말을 이어서 못하는 나를 보채지 않고 웃으며 기다려 주었다.그 미소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열었다.“혹시.. 날 조, 좋아해요..?”카엘은 어렵게 꺼낸 나의 물음에 갑자기 웃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눈만 꿈뻑이다가 입을 열었다.“어디가 잘못된 거야?”쩌적.카엘의 차가운 말에 마음속에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유리의 금이 가듯 하더니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아,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보고 싶어서 먼 이곳까지 왔다고 하니까..”아인은 무안함에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말하였다.카엘의 반응에 상처보다도 무안함이 커서 목소리를 키워서 변명했다.“의원을 가야 할 것 같은데.”‘아니, 잠깐만.그 말은 심하잖아.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 흉터로 만들 셈이야?’아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내저었다.“아니면 됐어요.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정신 차려.”‘아니, 근데 이 인간이?’“그만해요. 알았다고요.”아인은 카엘을 노려보며 말했다.“정신 차려.”“그만 하라니깐.”짜증에 존댓말은 생략하였다.“정신 차려.”“그. 만. 하. 라. 고. 요.”“정신 차려.”아니, 이 자식이?카엘은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댔다.나는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말하였지만 내 말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고 중간중간에 잘못된 것 같다는 심한 말도 하였다.“으!”순간 눈이 떠졌다.눈 앞에는 카엘은 없고, 집 문 앞쪽에 바닥에 나만 홀로 누워 있었다.“정신차려! 정신 차려! 어? 정신이 든 거야?”‘꿈이었어.’아인은 천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얼굴 붉힐 일이 사라져서 다행이었다.“괜찮아? 정신 들어?”실리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네.”끄응.무거운 몸을 서서히 일으켜 세워 앉았다.“아인, 정말 괜찮은 거야?”실리아나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네. 괜찮아요.”“제대로 쉬게 해도 모자랄 판에 때려서 기절을 시키다니! 내가 나타나서 흔들어 깨우고 싶었지만 너네 아버지가 집에 있어서 나타날 수가 없었어.. 네가 아버지한테는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해서..”“잘했어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알게 되면 꼼짝없이 이상한 곳으로 팔려갈 것이다. 이를 테면 마법사 노예로 팔린다거나 최악으로는 암시장 등등..어떤 식으로든 아직 마법을 잘 못 쓰는 나는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포박되다시피 힘없이 끌려갈 거야.“그래서 계속 말로 깨우고 있었어. 어디 잘못된 줄 알고 걱정했어!”실리아나의 말을 들어보니 꿈속에서 들은 말은 카엘이 아닌 실리아나가 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실제로 그런 말을 듣는다면 마음의 상처가 제법 클 듯하였다.“옷도 선물하고 그러기에 그래도 아버지구나, 생각했는데 무슨 자기 기분 상했다고 이렇게 개 패듯이 때려?”아인은 고개를 돌려 옆에 걸려 있는 전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왼쪽 입가가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다 시간이 지나 굳어있었고, 앞머리를 들춰 보니 눈 옆쪽에는 시퍼런 멍이 자리 잡고 있었다.“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서 앞머리도 넘기고 여성스럽게 다니라니!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흐흐, 아, 아아”실리아나의 하는 말에 웃음이 터져 입이 벌어지는 순간 입술 터진 부분이 쓰라려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였다.앞머리로 얼굴 반을 가리고 다닌 건 아버지가 나이 든 남자들에게 시집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거의 팔아넘기다시피 할 때,상대방 남자에게 결혼할 마음도 생기지 못하게 음침한 인상을 심어주려 한 것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가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생긴 얼굴 상처를 감추기 위한 것도 있었다.‘앞머리를 넘기게 하려면 적어도 얼굴에는 상처를 만들질 말던가.’앞머리를 다시 정돈하여 앞으로 내린 아인은 일어난 김에 아직 해도 안 뜬 이른 시간이지만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씻으러 일어서는데.“으!”머리가 핑 돌며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다시피 바닥에 넘어질 뻔하였지만 간신히 손으로 벽을 지탱해서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다.“괜찮아?”“으..”사방이 흔들려 보여 벽을 짚고 앉은 아인은 눈을 감았다.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젯밤에 머리 쪽을 맞은 충격 때문인지 너무 어지러웠고, 실리아나의 말에 골이 울리기까지 하였다.시간이 지나자,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 천천히 눈을 떴다.‘이렇게 쉴 시간이 없어.’몸보다는 얼른 별장 일을 끝내는 게 우선이었다.몸을 서서히 일으켜서 바로 준비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정신이 맑아지게 물도 데우지 않은채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위해 물을 틀었다.손에 물을 적셔 바로 세수를 하려 한 아인은 수도꼭지를 잠궜다."실리아나.""응?""데워줘요."손가락에 닿는 물의 얼음장 같은 온도에 깨달았다. 이 계절에 찬 물로 씻는 것은 미친 짓이란 걸.^^^욕실 벽에 붙어진 거울에 비친 피 흘리는 자신의 모습에 흠칫 놀란 것도 잠시, 실리아나가 데워준 물에 빠르게 씻고 나와 입맛이 없어서 허기만 달랠 정도의 가벼운 식사를 끝 마친 뒤, 별장으로 향하였다.“실리아나, 혹시 깨울 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깨웠어요?”“응,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도 꿈 쩍 안 해서 당혹스러웠어.”“다행이다.”“응?”“아녜요.”아무래도 카엘의 정신차리라는 말이 꺼림칙하게 느껴져 실리아나에게 재차 확인하였다.카엘이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아인은 한숨을 쉬었다.밤에 눈이 더 내렸는지 바닥엔 어제보다 더 높은 높이로 눈이 쌓여 있었고, 높게 쌓인눈을 밟아가며 한참을 걸어 별장에 도착하였다.문을 열고 들어간 아인은 곧바로 장작에 불을 붙였다.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불은 크게 활활 타올랐고 젖은 신발과 바지를 말려가며 몸을 녹여갔다.찬바람에 얼어있던 몸이 따뜻함을 느끼며 점차 노곤함이 일어났다.손바닥으로 볼을 때리며 노곤함을 떨치며 몸을 일으켜 계단의 난간을 잡아가며 삼층으로 올라갔다.아직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아, 혹여나 넘어질 수도 있어 천천히 걸어갔다.-“휴우.. 힘들다.”추운 겨울임에도 아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청소를 하다 창가를 보며 한 숨 돌리던 그때, 멀리서 멜이 식사 바구니를 들고 별장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본 아인은 빨래통에 가구 위에 올려져 있던 천들을 모조리 담아서 밖으로 향하였다.통 안에 물을 부어 천들을 적시던 중 멜은 근처로 가까워져 왔다.“안녕하세요!”아인은 멜을 보며 인사하였다.“세상에.. 아인! 이게 뭐니?”“가구 위에 올려져 있던 천들을 빨려고요.”“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이 왜 그러니? 안색이며, 상처하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아..”그제야 자신의 얼굴 상태를 깨달은 아인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얼굴에 가려가며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였다.“하하. 별거 아녜요.”“세상에.. 또 맞은 거니..?”아인이 아버지에게 맞고 산다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밖에서도 때린 적이 있었으니. 알지 못하는 게 웃긴 사실이었다.아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아니에요. 어제 집 가는 길에 얼음길을 걷다가 넘어졌지 뭐예요. 하하. 앗!”웃다가 입가에 난 상처가 더 찢어졌는지 쓰라렸다.“넘어졌는데 얼굴에 그런 상처가.. 아니, 됐다. 식사하러 들어가자꾸나.”아인이 맞은 걸 숨긴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멜이 모른 척 넘어가며 집안으로 들어갔다.아인도 통에 물을 마저 다 부은 다음 따라 들어섰다.“배고프지? 손 씻고 오렴.”“네.”손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간 아인은 손을 씻으며 앞에 있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허! 이게 뭐야?”거울에는 핏기가 없으며 입술은 새파랗고, 입가로 핏자국이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방금 전에 웃다가 입가가 더 찢어져 피까지 흐르니 호러 그 자체였다.‘이러니 멜 아주머니가 놀랄 수밖에..’아인은 손을 마저 씻고, 흘러나온 피를 물로 조심스레 닦아낸 뒤에 욕실에서 나갔다.테이블 위에는 닭고기 수프와 양고기구이와 빵이 놓여 있었다.‘고기는 오랜만에 먹네.’카엘과 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보는 고기였다.드르륵, 음식들을 바라보던 아인은 의자를 빼서 스윽 앉았다.“갈수록 살이 빠지는 게 걱정되어 오늘은 고기를 챙겨 왔단다. 어서 먹으렴.”“잘 먹겠습니다.”오물오물 조그만 입으로 고기를 뜯어가며 먹어가던 아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멜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안 드세요?”“난 먹고 왔단다.”“음.. 혼자 먹기엔 너무 많네요.”“어제도 늦게까지 있길래 혹시나 오늘도 늦게까지 있을까 봐, 먹어가면서 하라고 넉넉하게 챙겨 왔단다.”“아..”멜 아주머니는 처음 같이 일을 할 때부터 한결같이 배려심이 깊었다. 챙겨주는 것도 잘 챙겨주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멜 아주머니의 따뜻함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눈가에 물이 맺혀왔다.눈물이 맺힌 얼굴을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여 식사에 집중하는 것 처럼 행동했다.“그나저나 얼굴이 그래서 어쩌니. 얼굴에 상처 치료도 안 하고, 흉 지면 어쩌려고 그래.”멜은 혀를 끌끌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다른 부분은 멍이라서 흉은 안 지겠지만 입가 상처는 흉터가 지려나?전에도 얼굴에 상처가 여러 번 났지만 흉터는 없던데.“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시집도 가고 해야 하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되지.”“켁.”멜 아주머니의 말에 당황해서 목을 타고 넘어간 음식이 바깥으로 튀어나갈 뻔하였다.사례가 걸려 기침을 하던 나는 멜 아주머니가 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내려놓았다.“시집이요?”“그럼- 시집도 가고 해야지. 언제까지 아버지 곁에 있을 수는 없잖니. 시집을 가는 편이 너한테도 좋을 테고..”멜 아주머니는 내가 빨리 아버지랑 떨어지길 바라는 듯하였다.하긴, 이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아인.”“네?”멜 아주머니는 가까이 다가와 내 두 손을 잡았다.“나는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단다. 죽은 내 딸과 나이도 같아서 한 편으로는 내 딸 같기도 한 네가 힘들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그렇다. 멜 아주머니는 오 년 전에 딸이 독한 병에 걸려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죽었다고 들었었다. 나랑 나이도 같아서 내가 이곳에 이사 왔을 때부터 몇 달 동안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지.. 가끔 눈물도 흘리셨고..아인은 멜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했다.어색해진 분위기에 고요함까지 더해져 한층 더 어색했다.아인은 이 분위기를 벗어나려 웃으며 입을 열었다.“오늘 이층과 삼층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층은 다 끝났고, 이층도 반은 끝냈어요. 내일은 일층만 하면 되니까 사람은 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아인의 말에 멜이 놀랐는지 눈을 살짝 크게 떴다.“벌써? 다행이구나..”“걱정 마세요. 제가 다 끝낼게요! 아, 이제 슬슬 청소하러 가봐야겠어요.”“그러렴. 나도 이만 가보마.오늘은 그럼 늦게까지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남은 음식은 집에 가서 데워먹으렴.”아인은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문까지 멜을 마중하였다.이층은 손님방인지 삼층과 사층엔 큰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층은 긴 복도에 욕실이 딸린 작은방들로만 배치되어 있었다.그 때문에 삼층과 사층 청소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갈 것이 보였다.이층의 창고방과 복도 쪽은 청소를 끝내 놓았으니 방만 청소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다.휴, 이 방을 언제 다 치우려나.생각도 잠시, 일단은 두 방을 동시에 청소하기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어떻게 하면은 청소를 빨리 끝마칠 수 있을까? 하며 이런저런 능률 계산을 하며 청소를 시작하였다.두 시간 뒤,두 방 청소를 해치운 아인은 바닥에 털 썩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대어 휴식을 취했다."후우.. 이층을 오늘 안에 끝마칠 수 있으려나?"청소하지 않은 방문들을 훑던 아인의 눈에 아까 보지 못한 청색 의 문들과 달리 붉은 문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다른 문이 들어왔다.붉은 문에 사람의 형태 같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문은 문의 생김새 때문인지, 그냥 느낌인건지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다.'저기는 방이 아닌가?'호기심에 쉬던 몸을 일으켜 문쪽으로 다가가 조심히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문 안은 다른 방과 달리 욕실과 침대가 없고, 책장에 책이 꽃혀 있는 게 서재인가 생각하며 안쪽으로 발을 디뎠다.서재는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정리 해도 되려나?대충 훑어보다 나중에 청소를 어찌할지 생각하다가 다른 방들 청소하고 나서 생각하자. 하며 방에서 나가려는데.나가려던 중 의구스러운 점이 생겨났다.건물의 구조상 이 방의 공간이 크기가 더 커야 할 듯한데 이상하게도 밖에서 보았을 때의 짐작한 크기와 안의 서재는 크기가 달랐다.그렇다고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지도 않고..바깥 쪽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던 아인은 다시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혹시나 서재 안에 다른 문이 있을까 싶어 훑어보았지만 끝에 있는 공간은 서재가 끝인 듯 다른 문이 보이질 않았다.이상하다 생각하며 벽을 훑던 손이 튀어나온 장식에 걸렸다.손에 걸린 장식은 아인의 손에 힘없이 옆으로 꺾여버렸다."어? 어어?!"아인은 화들짝 놀라며 장식에 손을 떼며 뒷걸음질을 쳤다."설마 부러진건가..?"뒷걸음질 쳤던 아인이 부러졌는지 확인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내밀어 자세히 보았다.다행히 원래부터 꺾일 수 있는 용도였던건지 꺾인 상태에서 정위치로 돌아간 장식을보며 심장을 쓸어내렸다.덜컹."뭐, 뭐야?"갑자기 건물이 울리듯 큰 소리가 났다.그러더니 스윽하며 벽이 옆으로 움직이며 눈 앞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문이 열리며 문 쪽에 쌓여있던 먼지가 휘날렸다.휘날리는 먼지에 헛기침을 한참 내뱉고 눈물을 옷소매로 훔친 뒤, 안을 훑어보았다."이,이게 뭐야?"또 다른 공간 안에는 바닥에는 마법 주문진이 적힌 종이들이 깔려 있었고, 선반에는 약병들이 줄줄이 놓여있었고 그 안엔 이상한 액체들이 들어 있었다.약병과 주문진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이 모든 걸 중 종합해 봤을 때 저주의 방 인가.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아인.""네?""여기 이상해..""뭐가요?"아인은 서재안을 훑어보며 물었다."여기 너밖에 없는 거 맞지? 오늘 더 올 사람이 없는 거 맞지?""네, 그렇죠. 왜요?""..이상해"실리아나에 침착한 말에 위화감이 들었다."뭐가요?"아인은 실리아나의 말에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물었다."다른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실리아나 그런 장난은 치지 말아요.."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등골은 서늘했다."정말이야. 아까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고.""히익!"팔다리에 소름이 쫙 끼치며 닭살이 돋았다.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주먹만 움켜쥐었다.실리아나에 무서운 말에 겁에 질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메,멜 아주머니가 온 거 일 수도 있잖아요.""아냐, 그 아줌마 기운이 아니야."실리아나의 말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손에는 땀이 찼고, 머릿속은 공포 그 자체였다.타박타박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해가 짧아져 금세 어두워진 방안은 더더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인의 겁에 질린 두 눈에는 물기가 차올랐다.멜 아주머니가 아니면 누구일까."실리아나.. 모습으로 나타나 주면 안 돼요?"실리아나라도 껴안고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형체가 없으니 위안이 되지 않았다.아인의 말에 실리아나는 모습을 드러냈고아인은 단거리에 있는 실리아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다시피 다가가 실리아나의 손을 꽉 잡았다.실리아나는 아인의 행동에 흠칫 놀랬지만 이내 갈무리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실리아나에 손을 잡은 채로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서 책 표지가 제일 두꺼운 무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책 한 권을 챙겼다.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걸로 후려치리.나와 실리아나가 잡은 손에서 실리아나에 손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고개를 돌려 시리아나를 보니 실리아나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아인 근데 있잖아..""네?""다른 기운이 이 서재 안에도 있어.""그게 무슨 소리예요."실리아나에 말을 헛소리를 들었단 듯이 말하였지만 내뱉은 말과 다르게 몸은 부들부들 떨려 왔다.실리아나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이 상자에서."실리아나가 가리킨 손가락 끝 쪽을 따라가 보니 자물쇠가 채워진 보석함이 보였다.보석함은 두 뼘 밖에 되지 않는 크기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작은 크기였다아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실리아나를 보며 말했다."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크기잖아요. 그렇다면 설마..실리아나.. 그렇다는 건.. 시체라는 건가요?"히익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놀라서 괴상한 숨소리를 내며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몸을 곧추세우며 보석함 쪽에서 두 걸음 떨어졌다."확실히 무엇 인지는 열기 전에 알 수가 없어."실리아나와 작게 대화하는 와중에도 발걸음 소리는 끊기지 않고 점차 가까워져 왔다.눈앞에 보석함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나는 실리아나를 보며 작게 속삭였다."실리아나.. 내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불로 날 구해줘야 해요..? 알았죠..?""어떻게 하려고?""후.."깊은 한숨을 폐 속에서 끌어내 내보낸 뒤, 자리를 박차고 큰 발걸음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하였다.그 당찬 발걸음은 얼마 못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칼이 겨누어졌기 때문에.서재로 나와 방으로 나가려는 찰나에 긴 칼이 나에게로 향하였다.정확히는 내 목에.순간 놀라 눈을 질끈 감았다.나에게로 향한 칼이 당연히 나를 해칠 거라 생각하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감았던 눈을 스윽 떠보니 연보라빛 눈을 가진 낯선 남성이 나에게 칼을 겨눈 채로 무섭게 바라보고 있었다.칼에서 멀어지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려는 찰나에 칼이 내 목에 더 가까워져 왔다."도망은 안치는 게 좋을 텐데."나는 도망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책을 잡은 손에 힘만 주었다."누, 누구시죠?""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서 남자의 반응은 너무도 뻔뻔했다. 남자의 뻔뻔함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나, 남의 지,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되죠.""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 책도 훔쳐 가려고 들고 있는 건가?"남자의 연보랏빛 눈동자가 내가 들고 있는 책에 가있었다.'내가? 니가 아니라 내가요?'"저는 엄연히 허락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 이건 그니까.."널 치려고 들고 있는 건데요. 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심기를 건드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그것도 그렇고..칼날이 목 끝에 거의 닿아있으니 말이 편히 나올 수 없었다.어느 누가 흉기 앞에서 편할 수 있냐고!"침묵으로 답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너라면 칼이 목에 겨눠져 있는데 말할 수 있겠냐?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목에 힘을 주어 말했다."그, 그게 아니라.. 일단 칼 좀 내려놓고 대화해요.""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남자는 나의 말에 개도 웃겠다는듯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웃음을 선사했다.얼굴만 보자면 얼굴의 큰 몫으로 아름다운 그림일 것 같지만 상황이 뒷받침하니 섬뜩 그 자체였다.아인은 식은땀이 맺힌 손가락으로 목에 겨누어져 있는 검을 가리켰다."이 것 때문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남자는 아인의 말에 순수해 보이는 하얀 얼굴을 갸웃거렸다."지금 한 건 말이 아니야?"남자의 검을 내려놓는 건 할 수 없을 듯하여 포기하고 입을 열었다."나는 여기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저택에 사는 분들도 곧 올 것이고 당신이 나한테 해를 가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최대한 침착하게 차근차근 남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을 택하였다.남자는 아무런 말없이 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잠시간 서로의 눈을 맞추며 아무런 말이 없는 그때, 남자의 손에 있던 칼이 내 목에서 멀어졌다."후아.."긴장이 살짝 풀리며 큰 숨을 내쉬던 그때, 다시 재차 목에 칼이 겨눠졌다."아니, 또 왜?!"눈을 커다랗게 뜬 아인이 남자를 보며 물었다."저 서재에 있던 방에는 어떻게 들어갔으며 왜 들어간 거지?""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어쩌다 보니 열어져서 들어가 본 거예요. 청소를 해야 하니 들어가야 하기도 했고요. 제발 좀 칼 좀 내려줘요."침입자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라니.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살아야 했다.남자는 다시 칼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빠진듯했다.무슨 생각인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생각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하얀 얼굴에 강아지같은 눈을 가진 순수한 인상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그런 얼굴로 나에게 칼을 겨눴으니.재빠르게 남자의 옆쪽으로 달려 나가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같이 있던 실리아나가 떠올라 뒤편에 실리아나가 있던 곳을 보았지만 다행히 실리아나는 모습을 감추어서 혼자 벗어나면 되니 시도할만한 것 같긴 한데..남자의 옆쪽에 내가 달아날 경로를 파악하고 있던 중에 밑층에서 문소리가 들려왔다.저 사람의 일행인 건가?발걸음 소리는 올라오고 있는지 점차 커져왔다.발걸음의 주인공은 다행히 일행은 아니었음에 안도감이 몰려왔다."예정일보다 일찍 오셨군요! 소식을 늦게 들어서 듣자마자 왔습니다."멜 아주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그를 반겼다."아,아주머니..?""아인? 아인 여기 있었구나. 인사를 나누던 중이셨군요!"맞아요. 칼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아시는 사이세요?""그럼-이곳 별장의 주인분이신걸."멜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혼이 나갈듯한 머리로 짜 맞춰보았다.그럼 좀도둑이 아니었어?멜은 멍한 아인을 모른 채 남자에게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다."미르 님께서 일찍 오실 줄 알았으면 더 빠르게 청소를 끝마쳤을 텐데 이를 어쩌죠. 아직 청소가 끝이 나지 않았네요. 어.. 그런데 칼은 왜..?"멜은 말하다가 시야에 들어온 칼에 당황하며 물었다.미르라는 남자는 멜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아인을 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인이 들고 있는 책에 시선이 머물렀다.스릉미르라는 남자는 검집에 검을 넣었다."그 책이 있던 곳에는 청소하지 마. 서재 또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쉬어야겠어 오늘은 그만들 갔으면 좋겠군.""알겠습니다. 아인, 오늘은 이만 가보자꾸나.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멜 아주머니는 내게 눈짓을 하며 미르라는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계단을 내려갔다."그 책은 놓고 가고.""네? 아, 네."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는 멜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일층 바닥에 놓여있던 장작들을 정리하던 멜을 보고는 같이 정리를 하고는 바로 밖을 나왔다.별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곧바로 아인은 입을 열었다."저 자.. 아니 저 분이 주인이라구요? 이 별장의 주인이요?"나이대가 나랑 큰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별장을 아예 통째로 갖고 있다니."응? 아인, 니켈리아 가家 못들어봤니?""네? 아뇨.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제국에 큰 상단을 운영하는 가문이란다. 가주분이 몸이 안좋아지셔서 돌아가셔서 일찍이 장남 미르 님이 이어서 이어가고 있지.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가주시란다."달칵별장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미르는 곧바로 욕실로 향하였다.몸을 씻은 뒤, 가운을 걸친 채로 나와 서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목걸이에 달려 있던 열쇠를 이용해 보석함에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더니 손에 의해 열린 보석함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붉은 연기 속에서 무릎 정도 오는 키의 작은 남자아이가 나타났다"날 놓고 가다니 못됐어!"소년은 심통 맞은 얼굴로 미르를 쏘아보았다."금방 온다더니 이제야 오고!"미르는 아이가 뭐라 하든 무시하고 뒤돌아서 나갔다."날 밖에도 못 나가게 봉인까지 해놓고 나가다니 너무한 거 아냐?"아이는 위층으로 향하는 미르를 뒤따라가며 계속해서 투덜거렸다.미르는 계속해서 아무런 대꾸 없이 걸어 침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창가에 앉았다."미니, 네가 사고 칠 게 뻔하니까.""내가 무슨 사고를 친다고. 아, 미니라고 부르지 말라니까!""무슨 일은 없었고?""아까 나간 그 여자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 걔는 정체가 뭐야?""아까 들었잖아. 일하러 왔다잖아.""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느꼈어? 아, 너는 못 느끼겠지. 그 아이 마법사야. 능력이 좀 있나 봐? 신수까지 끼고 있는 거 보면."미르의 무감했던 얼굴에서 조그마한 표정 변화가 생겨났다."신수?""그래. 겉모습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정령도 아니고 신수를 끼고 있더라고."일순간 미르의 얼굴에 조그마한 미소가 뗬다."신수라.. 재미있네.최대한 빨리 청소를 끝마치기 위해 내일 아주머니와 같이 일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고 혼자서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였다.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있을 텐데..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무거워.."아인, 오늘도 너네 아버지가 또 손찌검을 하면 내가 복수해 줄게."실리아나가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안심하라는 듯이 말했다.복수해준다는 말에 작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해 볼게요."혹여나 아버지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면 그것 또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기에 실리아나의 도움은 있으면 안 되었다."또 바닥에서 자게 되면 그땐 어떡해?"오늘도 어쩌면 맞을 수도 있었다.그렇지만 그래도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한두 번도 아니었으니 맞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실리아나의 걱정하는 말에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한 뒤, 집 문을 열었다.우연히도 문 앞쪽을 지나가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다녀왔습니다.""그래, 일하고 온 거니?""네."아인의 대답을 끝으로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다.정적이 불편했던 아인이 입을 열었다."식사하셨어요?"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아인이 오지 않아 저녁을 안 먹었을까 봐 물었다."했단다."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쉬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꼬르륵배 속에 뱃고동 소리가 울리고 갑자기 찾아온 큰 공복감에 부엌으로 향하였다.식사를 마친 아인은 간단히 씻고 이불에 몸을 뉘었다.똑똑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네?""내일도 일하러 가는 게냐?""네. 내일까지 하기로 했어요.""그래. 그럼 내일모레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내일모레 무슨 일 있나요?"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버렸는지 내 물음에 답이 없었다."뭐야, 또 무슨 꿍꿍이인 거야?"실리아 나는 나와 같은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게요..""허유.. 저 인간은 정말.."실리아 나는 내일모레 집에 절대 있지 말라는 말을 하며 나를 걱정하는 여러 말들을 하였고, 계속 듣던 나는 감기는 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오늘은 어제보다 몸이 더 좋지 않았다.목은 부어서 답답했고, 머리도 두통과 어지러움이 동반되어 불편함이 배가 되었다.눈 주위에는 열기가 올라와 뜨거웠다.세수를 하니 그나마 정신이 맑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씻는 것을 마저 끝내고 옷을 갈아입은 뒤 별장으로 향하였다.실리아나는 아직 자고 있는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찬바람에 추워 옷을 여며가며 빠른 걸음으로 별장으로 향했다.별장 안에는 아직 멜 아주머니가 않았는지 조용하였다.'으, 추워 장작 좀 피우자.'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들을 보며 몸을 녹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약속 시간에서 10분 정도 지났음에도 멜 아주머니가 오지 않자, 먼저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켜서 이층으로 가려는데"악!" 이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뒤돌았더니 눈앞에 별장 주인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뭐, 뭐야. 놀랐잖아요."인기척도 없이아인은 놀란 걸 진정시키고는 다시 미르를 쳐다보았다."잘 주무셨어요?" "그래.""네."별장 주인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뭐야, 무안하게.'"그럼 이만.." 뻘쭘하게 계속 서 있느니 차라리 자리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이층으로 올라갔다.'후우 진짜..' 아인이 치미는 짜증에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앞머리를 바람으로 불었다. 가뜩이나 몸에 열이 올라 더운데 한 사람이 더 열이 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청소하는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며 열 걸음 내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미르가 너무도 거슬렸다.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인의 질문에도 그저 청소하라고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보고 있었다.멜은 오기로 한 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둘만의 불편한 시간이 별장 안에 흐르고 있었다.정확히 말하자면 아인의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멜이 오면 이 불편한 시간이 끝날 거란 생각에 계속 기다렸음에도 이 불편한 시간은 현재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혹시.. 제가 서재 안에 들어갈까 봐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신 거면 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미르라는 남자는 아인을 그저 쳐다볼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대꾸 좀 해주지.얼른 끝내고 피해버리자.아인은 너무도 지쳐있었지만 있는 힘, 없는 힘 모두 끌어내서 어지러운 걸 참아가며 청소를 하였다."아, 다끝냈다. 이제 내려가야겠어."이제는 안 따라오겠지?별장 남자를 힐끗 쳐다보며 혼잣말한 뒤 일층으로 내려갔다.-장작을 정리할 때도식탁을 정리할 때도바닥을 청소할 때도어김없이 남자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변태인가.별장 주인은 감이 좋게도 내 이상한 시선을 눈치챈 듯이 내 시선에 미간을 언짢은 듯 찌푸렸다.그 시선은 뭐냐고 물어왔지만 나는 눈을 돌려 창문 너머의 바깥을 보며 모른 척하였다."멜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안 오시지? 걱정되네?""멜 부인? 왔었어.""네? 아, 오셨구나. 그런데 왔었다니요? 그런데 왜 과거형이에요?""내가 돌려보냈거든.""아, 그러셨.. 네?"아인은 자신이 잘 못 들은 건가 싶어 물었다. "빨리 끝내기 위해 널 도와주러 왔다던데 굳이 빨리 끝낼 필요가 없으니 가라고 했지.""아.. 네 그러셨구나. 하. 하."아인은 썩은 웃음을 지은 뒤, 얼른 끝내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긴 후 열심히 바닥을 닦아갔다.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미르를 올려보았다."저기요."미르는 말해보란 듯이 턱짓을 하며 아인을 내려다보았다."바닥을 닦아야 하는데 계속 앉아계실 건가요?"아인이 미르의 주변을 제외한 바닥을 다 닦는 중에도 의자에 앉아 비킬 생각도 없이 아인만 뻔히 쳐다보는 시선에 아인은 짜증이 올라있었다."아."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자리를 비켜 주었고, 곧바로 닦아갔다."얼굴이""네?""아침 하고 딴판이군.""네..? 아 뭐, 땀 흘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깐요."땀 흘리며 좀 망가진 걸 말하는 거라 생각한 아인이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숨도 차고 두통에 제대로 들을 생각도 없이 대꾸한 것이지만."안색이 안 좋다는 말이야. 새하얘졌군. 입술은 혈색도 없어졌고. 몸이 안 좋은 가본데.""아녜요. 괜찮습니다."괜스레 민망함에 입술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다시 청소를 이어나갔다.ㅡ드디어 그 자리의 바닥 청소까지 마친 아인은 허리를 펴며 몸을 세웠다.휴 끄읕이다!급히 겉옷을 챙겨 들고는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미르를 향해 인사했다."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뒤돌아서 뛰어나가다시피 밖을 향하는 아인의 어깨에 손이 얹어졌다.눈을 떠보니 여신의 그림이 그려진 천장이 보였다.'여긴 어디지?'뜨기 힘든 무거운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보았다.내가 잠을 잤었나?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곳의 침대에 내가 누워져 있었다.낯설기도 하면서 왠지 와본 적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팔에 힘을 주며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사이에 현기증이 일었지만 낯선 이곳에 편히 누워 있을 수는 없어 정신을 곤두세우며 앉았다.'여긴.. 별장?''그래, 별장이야. 청소하러 들어온 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길?'생각에 빠지던 중 끼익, 하고 문이 열리며 어린 소년이 들어왔다."깼네? 너 진짜 오래 잔 거 알아?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오가는 데도 푹 자더라? 너 꼬박 하루를 잤어."내가 그렇게 오래 잤다고? 아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귀엽게 옹알대듯이 말하였다.이 아이는 누구지?"그런데 꼬마야 넌 누구니?""꼬마? 꼬마라니! 말이 심하네. 내가 지금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아이는 볼을 부풀리며 씩씩대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아인에겐 너무도 귀여웠다.평상시에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런 화내는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보였다.가주의 형제인가 싶었지만 그러기엔 나이차가 너무 많아 아닌 것 같고 자식이구나. 꽤 이른 나이에 결혼했나 보네. 나랑 나이차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아인은 웃으며 말했다"아버지는 어디 계시니?""아버지? 나 그런 거 없어."아인의 질문에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없다고? 그럼 형제인가?'"난 애초에 부모가 없었어.""저런..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에 없나 보구나."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서운해하시니까 없다고하면 안돼"아인은 형제라고 단정 지으며 아이를 타일렀다."아니라니까. 나는 누가 낳은 게 아니라.."끼익"미르!"아이가 말하던 중 문이 열리며 미르가 들어왔다."깨어났군.""제가 왜 여기에.."[ 하루 전 ]미르의 별장에 있는 보석함 속에 살고 있던 데이비는 여자아이가 청소를 끝내고 집에 갈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명령에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미르가 없는 동안에도 보석함에 갇혀 있었고, 미르가 온 뒤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니 너무도 갑갑했다."나쁜 놈, 나한테 이렇게 대하다니."자신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한참 투덜거리다가 결국에는 인내가 사라지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내가 나오면 지가 뭐 어쩌려고!"말은 그렇게 해도 찝찝했는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뎠다.그렇게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여자 아이와 미르가 보였다.'지금은 내려가면 안 될 거 같은데.'아이와 미르를 보고서는 걸음을 멈추고서 조용히 그 둘을 지켜보았다.어제 마법사이며 신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던 미르의 얼굴을 떠올리며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궁금했다.'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거리가 가깝지 않은 만큼 둘의 대화는 데이비에 귀에 들리지 않았다.뭐라 뭐라 말을 하더니 뒤돌아서서 나가려는 아인의 몸이 미르의 힘에 의해 멈춰지며 그대로 쓰러졌다.놀란 데이비가 입을 떠억 벌리며 뛰쳐 내려갔다."야!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그렇지. 기절을 시켜?"평상시에도 미친놈이라 생각했던 놈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미쳤을 줄이야.계단의 거치대에 의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데이비는 미르가 여자아이의 급소를 쳐서 기절을 시킨 거라고 오해하고 미르를 미친놈 보듯이 보았다.그런 데이비의 시선은 알 바 아니란 듯, 미르는 말하였다."의원을 불러야겠군.""뭐? 불러서 뭐라 하게? 급소를 쳐서 쓰러졌는데 깨워달라고 말하려고?"미르는 한숨을 내뱉으며 한 손으로 앞머리를 뒤로 넘겼다."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거야. 어깨를 잡았다고 기절하는 사람은 없어."미르는 두 팔이 이용해 아인을 안아 들고는 위층으로 향하였다.손님들 방에 아인을 눕혀 놓고서 새를 시켜 의원을 부르고 는 방에서 나갔다.뒤따라온 데이비는 멀뚱히 서서 아인을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으며, 하얗게 질려서는 입술도 핏기가 없는 안 좋은 상태였다.미르 때문에 기절했다기보다는 미르의 말대로 쓰러졌다는 게 더 일리가 있어 보였다. 손등을 이마에 붙었더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많이 안 좋은가 보네."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의원이 몸살로 인한 쓰러짐이라는 말을 하며 현재는 자고 있는 상태이며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서 열을 내려주라고 말하고서는 약을 주고 떠났다.의원의 말을 따라 데이비가 수건을 적셔 아인의 이마 위에 올려주었다.잠든 아인의 눈은 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이 되어서도 별장에 사용인들이 시끄럽게 오가는데도 깨어나질 않았다.그러다가 오후쯤 되어서 아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데이비에게 여태 있었던 일을 들으며 상황 파악을 했다.그러니까 쓰러진 나를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는 게 옳았다."저기.."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어중간하게 미르를 불렀다."감사합니다."아인은 그 말 한 뒤, 고개를 돌려 데이비를 쳐다보았다."고마워."데이비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아인이 이불 밖으로 몸을 내보내며 바닥에 발을 놓았다."몸은 좀 괜찮아졌나.""네? 아, 네 한 숨 자니 괜찮아졌어요."몸살 기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푹 잔 덕에 몸이 어제보다 가벼웠다."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식사를 하고 가지.""그래, 좀 챙겨 먹어야겠어. 몸이 그 정도로 약한 거 보니."데이비가 미르의 말을 거들었다.어쩌다 보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와 별장 주인이 마주 보고 있었다.고요한 분위기, 어색하고도 뻘쭘함.체할 것 같은 이 자리에 나는 앉아 식사를 할 것이다.어제부터 쫄쫄 굶어 배가 고프긴 했지만 그럼에도 몹시 사양하고 싶은 자리였으나 어찌 이렇게 됐는지.이렇게 된 거 후다닥 먹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어.사람이 없어 조용했던 이 별장 안에는 언제 왔는지 사용 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오가는 사람 중에 군데군데 나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보는 시선들이 보였다.음식들이 차려지는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내 앞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다소 불편함에 모른 척 시선을 맞추지 않으며 창 밖의 풍경을 구경하는 척했다. 그러는 동안 음식은 다 차려졌고, 사용 인들을 다 물린 뒤에 조용한 식사 타임이 이어졌다.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불편한 식사에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들이 얹힐 것만 같았다.결국 불편한 분위기를 버티지 못해 입을 열었다."데이비는 식사를 안 하나요?"데이비라도 있으면 덜 불편할 것 같은데."네가 깨어나기 전에 식사를 마쳤어.""아, 그렇군요.."또다시 아무런 대화 없이 식사를 이어갔다."의원이 약을 지어주고 갔어. 챙겨가서 먹어.""네, 감사합니다."차갑게 생긴 것과는 반대로 나름 따뜻한 면이 있네."청소 같은 일을 하며 사는 거 같은데 식사 예절은 어디에서 배워왔지? 식기 잡는 법하며, 예법이 몸에 배어 있군.""아, 어릴 때 조금 배웠어요."어릴 때 나는 나름 귀족 생활을 해왔기에 걸음걸이, 식사예절 등등 여러 예법을 배웠었다."그렇군, 지금 생활은 힘들지 않나?"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의아했으나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아니요.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나름 재미있습니다.""그래도 아팠던 걸 보니 힘에 부치는 것 같은데.""요새 조금 바빠서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이렇지 않습니다."음식은 맛이 있었으나 자리가 불편하여 깨작대며 먹다가 먹는 것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마법사라던데.""풋!"생각지 못한 말에 놀래서 면전에다가 그대로 물을 뿜어버렸다."콜록, 죄송합니다."놀래서 다리 위에 올려 뒀던 천을 들 고 일어나 닦아주러 가려는 찰나에 남자가 손을 들어 나를 제지하였다."내가 닦지.""죄송합니다."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내려뜬 두 눈은 너무 차가워 무서웠다."마법도 쓸 줄 알면서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저기서 일 할 곳이 많을 텐데."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마법을 연습할 때 보았나?어찌할지 몰라 머리의 사고 회로는 멈추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아직은 아무도 알면 안 돼. 이 동네에서 소문났을 때 아버지 귀에도 들어갈 수 있어.'아인은 놀란 표정을 숨기며 무표 정인채로 고개를 들어 마주 보았다."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마법을 쓸 줄 몰라요."목이 타들어 가서 물을 크게 한 모금 입에 털어놓았다."마법사가 아닌데 신수가 계약되어 있을 수 있나?""풉!"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남자에게 의도치 않게 물분수를 선보였다."실수인 줄 알았는데 고의인가?""콜록! 콜록! 크흠흠, 그럴 리가요."사래로 인한 기침은 멈췄으나 멈춰지지 않은 척 계속 기침을 하며 시간을 벌면서 머리를 굴렸다.'신수를 어떻게 알게 된 거지?'이게 어떻게 된일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멘붕에 빠졌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이 자리를 도망쳐야겠단 계산이 나왔다.얼른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해.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나중에 가서 알아 되면 되는 일이고 지금은 회피가 정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콜록!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았나 봐요. 콜록! 콜록!"연기로 하는 기침이었지만 격하게 해서인지 눈물이 맺혀와 잘 속일수 있겠단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콜록! 이러다가 감기를 옮길 수 있으니 이만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집으로 가려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나는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슬쩍 눈을 올려보니 얼음장같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어쩌면 좋아!이 별장의 주인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에게로 다가왔다.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자식아!남자의 무서운 얼굴에 섬뜩하여 속에서는 눈물이 나왔다.그대로 얼어붙은 내 몸을 질질 끌어 내가 앉았던 의자에 다시 앉혀놓고는 자신도 자기 자리에 앉았다.미르는 자리에 앉은 채로 잠시간 아인을 빤히 보더니 바람 새는 웃음을 흘렸다."너는 어디 가서 거짓말은 못하고 살겠어."확실히 저 남자는 웃는 얼굴과 굳은 얼굴이 천사와 악마처럼 극과 극이라고 아인은 생각했다."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굳이 숨길 필요는 없어. 그거 가지고 무엇을 협박할 일도 없고. 나는 단지 너에게 제안을 하려고 해.""제안이요?""알아보니 힘들게 살고 있다더군.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나는 말없이 눈만 깜박이며 바라보았다."지금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어. 내 밑에서 일 해.""무슨 일이요?""자세한 건 일하게 되면 말해주지. 뭐, 기사단 같은 거라고 보면 돼."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아인은 더 이상 숨기기는 힘들거라 생각하고는 아닌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터놓고 말했다."저는 그다지 실력이 좋지 않아요. 마법을 쓸 줄 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됐고요.""잠재력이 있으니 신수를 곁에 줄 수 있는 거겠지."내 말에 당연히 실망할 거라 예상했지만 반응은 태연했다."그 잠재력을 내가 믿어보지.""이, 일단은 제 질문에 대답 먼저 부탁드려요.""말해봐.""제가 마법사인 거는 어떻게 아셨나요? 아니, 그전에 신수랑 계약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아인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속사포처럼 질문을 뱉어냈다."미니를 봤었지?""미니요?""데이비 말이야.""아, 네."아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그 아이도 신수이지. 다만 내가 마법사가 아니어서 정식 계약을 하지 못해서 활동을 못하고 그저 별장 안에 지내고 있지."데이비가 신수?"그 아이가 너의 곁에 있는 신수를 보았어. 같은 신수이니 동지를 알아본 거지.""아..""그러기에 나는 마법사가 필요해. 내가 쓰지 못하는 네가 마법을 대신 써주었으면 좋겠군." '상단일을 하면서 마법을 굳이 쓸 이유가 있나? '물어보고 싶었으나 일하게 되면 알려준다고 하니 물어볼 수 없었다.애매한 내 반응을 읽었는지 부가적인 말을 이어나갔다."어디가서든 실력이 미미해도 마법사로 일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다른 곳보다도 내가 대우를 잘해줄 거야. 어디에서든 받지 못할 대우를."남자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큰 자신감이 보였다. "집에도 빚이 많다던데 그것 또한 내가 해결해주지." 날 안지 지 얼마나 됐다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알아내다니. 이런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면 뒤 끝이 무섭지 않을까 걱정되었다.어찌 보면 나는 꿈꿔왔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마법 실력을 늘려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실력을 늘리기도 전에 나를 고용하다니.돈을 벌면서 마법 연습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가 눈 앞에 있었다.'일단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한들 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집에 가서 시리아 나랑도 상의 좀 해봐야겠고."생각 좀 해볼게요.""조건이 맘에 들지 않나?""아니요, 조건은 좋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더 할 시간을 주세요." 연보랏빛 눈동자가 말없이 나를 보았다. 살짝 찡그렸던 것 같기도 하고."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진 않았으면 좋겠어."인사를 하고 나와 별장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실리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그럴 줄 알았어, 역시 별장에 모가 있었어.""실리아나, 왜 여태 말이 없었어요?""어지간하면 내가 말 걸거나 나타날 수 있지만 네가 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되어있던 나도 타격이 있었어."실리아나의 말을 들어보자면 실리아나와 나는 계약되어 있는 몸이고, 내가 몸이 안 좋던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실리아나도 타격이 있다는 말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몸 상태가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나저나 아인, 일할 거야?""글쎄요.. 조건은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그러게, 조건은 좋은데 고용주가 지랄이네." 실리아나의 말은 다소 험했으나 그 말은 맞았다. "더러운 성격은 그렇다 치지만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리아나의 말에 공감했다.그렇게 둘이 대화하던 중 집에 도착하였고, 아인은 문을 열었다."아, 아인! 오늘 집에 안 들어가기 했잖아."아, 오늘 아버지가 집에 있으라고 해서 실리아나가 느낌이 안 좋다고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있다고 했었지. 왜 그게 이제야 생각 난 걸까.눈 앞에 뒷걸음질 쳐서 달아나고 싶은 상황이 펼쳐져있었다.그 남자였다.한때 나랑 혼인 얘기가 오고 갔던 자작.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강제로 혼인시키려 했던 남자.'처음 만났을 때도 저렇게 더럽게 보고 있었지.'그 당시 혼인 직전까지 갈 뻔했으나 다른 남자가 더 큰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 자작과 혼인 얘기는 취소되었고 다른 남자가 왔었다. 그 남자는 날 보러 온 날 벽에 내던져지며 쓰러지고, 깨어나고 나서는 겁에 질려 도망갔지.그 남자가 그때 마법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남자랑 결혼했을 거였다. 어쩌면 그날이 기념적인 날이었다. 마법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결혼도 없던 일로 만든 날이니.자작은 전에 없던 콧수염이 생겨나서는 나를 보며 콧수염을 손으로 쓸며 음흉하게 쳐다보는 게 과장해서 말하자면 토가 쏠렸다.'저 인간이 왜 여기를.'"아버지."자작을 마주 보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불렀다."아인,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일이 좀 있었어요.""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라.""저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아인은 그렉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질문을 던졌다."저 사람이라니, 자작님에게 말조심해라.""그래, 남편이 될 사람에게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 쓰나. 이제 살 부대끼며 살아갈 사이에."디몬 자작은 히죽히죽 웃으며 능글맞게 맞장구쳤다."살이.. 뭐요? 남편?""너도 이제 곧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미룰 생각이냐."아인의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전에 제가 일해서 버는 돈 가지고 말하신 적 있으시죠. 그깟 돈으로 빚을 어느 세월에 갚냐고.아인은 고개를 돌려 디몬 자작을 노려보았다."절 혼인이란 명목으로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뜻이었나요?""말조심해라, 아인."그렉은 낮은 목소리로 굳은 얼굴로 아인에게 조그마한 경고를 보낸 뒤, 자작을 보며 웃었다. 마치 두 얼굴처럼."허허, 아직 딸아이가 많이 어립니다.""어려서 그러는 거니 그 정도는 감내해야겠지요. 허허"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허허거리며 웃었다."그런데.. 전에 치마를 보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자 같이 다니다니요. 저 얼굴 가리는 머리도 그렇고."그런데.. 전에 치마를 보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자 같이 다니다니요. 저 얼굴 가리는 머리도 그렇고. 쯧"더 보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자인데 자기 취향에 맞춰서 사라고 돈까지 보내주었는데 바뀐게 없다는 말을 덧붙혔다.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전에 저에게 주었던 그 옷이 이 사람이 사준 옷이었나요?""하하, 이 아이가 일을 하는 날은 아무래도 실용성 입고 다닙니다.""흠, 제가 곁에서 많이 가르쳐야 할 것 같군요." 이것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떠들어댔다. 그 덕분에 나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지만."저는 결혼 안 해요. 가보겠습니다."밖으로 나가려는 내 앞에 디몬 자작이 막아섰다."짐은 다 챙겨놓았어.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니, 미리 말하지. 나는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어,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 식은 생략하고 오늘 바로 내 저택으로 가면 된다.""난 안가요."" 네 아버지가 말 안 해줘서 오늘 많이 놀란 건 알겠지만 예전부터 준비해왔던거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미리 말했어도 오늘 말했어도 저는 이 결혼 생각이 없어요."내 말을 들은 자작이 순간, 웃는 얼굴은 사라졌다."나도 내 생각을 굽힐 생각은 없어. 여태까지 준 돈이 얼만데."자작은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빚까지 갚아 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일이 해결됐으니 꺼지라는 말로 밖에 안 들리는데."나는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손을 내 손으로 쳐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아버지가 한 행동에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제가 갚아나갈게요."생각 같아서는 다 뒤집어엎고 싶었지만 이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자식으로서의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하하, 아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가시지요."아버지는 내 말을 끊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와 자작을 슬며시 집 문 쪽으로 떠밀었다.나는 곧바로 그 팔을 걷어치우며 결혼 안 할 거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다.그러나 내 말은 처참히 무시당하며 또다시 떠밀렸다.몸을 요리조리 돌리며 가까스로 그 둘에게서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었다.대화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에는 도망을 선택해 열었다.내 선택에는 거리가 좀 더 멀어진 것 같았지만."누구세요?"문 앞에는 모르는 남자 둘이 서 있었다."잡아."자작의 말에 서 있던 두 남자는 내 팔을 거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이거 놔요! 놓으라니깐!"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거센 남자들의 힘에 뿌리치는 건 나에게는 역부족이었다.문까지 갔던 몸은 남자들의 의해 집 안쪽으로 문에서 멀어지며 열린 문은 닫혔다,"허허, 거 참 거센 사냥감 같구먼."자작은 아인을 보며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콧수염을 쓸었다.저 얼굴에 달려있는 수염을 있는 힘껏 다 잡아 한 번에 뽑아버리고 싶었다. 저딴 웃음을 지을 수 없게."갈길이 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군. 마차를 얼른 준비시켜. 바로 떠나지.""네."한 명은 대답하며 마차를 준비시키기 위해 내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고 다른 한 명은 내가 어디 가지 못하게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실리아나의 도움은 마지막 카드였기에 함부로 쉽게 쓸 수 없었다. 마법사인 것을 아직은 알리고 싶지 않아.'어떻게 해야 되나.. 돈으로 솔깃하게 만들어봐?'아인은 그렉을 보며 말했다."아직 일한 값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많이 벌었고요."돈 얘기를 하니 아버지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다. 여태 내가 했던 말에는 개무시를 하더니 돈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그래, 뭐 좋은 반응이긴 하지. 내가 원한 반응이니.'"일자리도 구했어요. 이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에 대우 조건이 좋아요.""그래?"'오, 호응한다. 반응이 좋아.'"네, 빚도 갚고 생활비도 나오는 좋은 조건이죠. 제가 떠나면 아버지에게 생활에 보탤 돈도 갖다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일 더하기 일 정도의 산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조건이 결혼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냥 빚만 갚아주냐 아니면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주기적으로 나오냐 이 차이점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으니까.내가 사라지면 이제 술값이든 놀 돈이든 생활비는 자기 자신이 벌어야 하는데 여태 일도 안 하고 놀던 사람이 그게 쉬울 수가 없었다"하하하"아버지는 내 말이 웃기다는 듯 폭소를 터트렸다."이런, 아인 네가 이 아비를 걱정하다니 생각이 갸륵하구나."감동한 말투와는 다르게 얼굴은 웃긴 걸 보듯 비웃음이 담겨있었다."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디몬 자작님이 생활비까지 여유 있게 챙겨 주셨단다. 굳이 일할 필요 없이 남편 내조에만 신경 쓰면 된단다.""준비되었습니다."마차를 준비시키던 남자가 들어와 출발 준비를 알렸다."이제 가지.""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말을 다 무시하며 나를 진짜처럼 옮기기 시작했다."안 간다니까!"찰싹!있는 힘껏 몸부림을 치다 나를 붙잡고 있는 자작의 사용인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쳐버렸다.남자는 기분이 나빠 보였지만 최대한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이 악물고 말했다."아가씨, 그냥 편하게 가시죠."자작과 같이 온 남자는 내가 꽤 귀찮은 듯했다.내 몸은 끌려서 문 쪽까지 다다랐고 곧이어 집 문이 열렸다."오랜만이야."문 너머로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실랑이하다가 옆으로 돌아가 있던 몸이 서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다.'지금 이 상황이 꿈은 아닐 텐데.. 그렇지? 근데 왜 여기에..?'점차 자신만 있던 때처럼 금방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아인이 떠난 지 얼마 뒤 아침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당연히 아인이 달려 나갈 거라 생각하며 카엘은 좀 더 자기 위해 눈을 감았으나 당연히 들릴 거라 생각했던 누구세요?라고 묻는 아인의 목소리는 들려오질 않았다.계속해서 들려오는 노크소리는 점차 재촉하듯이 커지면서 두드리는 간격이 빨라지는 동시에 아인이 떠난 것을 생각했다.며칠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거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적응이 된 건가? 고작 며칠 있다 갔는데.똑똑 두드리던 소리는 이내 쾅쾅 소리로 커져갔고, 카엘이 부스스한 채로 일어나 문을 열었다."왜 이렇게 늦게 여십니까?"며칠 동안 멀리 일하러 갔던 데인이 지친 얼굴로 찾아왔다.카엘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소파에 앉았다."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데인의 활기찬 모습에도 불구하고 카엘은 아무런 대꾸 없이 심드렁한 기색을 비추며 피곤하다는 듯이 소파에 반쯤 누워버렸다."궁금하지 않으십니까?""뭔데.""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없다니, 알려주기 싫어지는 걸요."데인은 기운 빠진 다는 듯이 힘을 쭉 빼며 의자에 흘러내리듯이 앉았다."아인님은요?""없어.""어디 가셨습니까?""떠났어.""어딜요?""집에.""예?""집에 갔다고.""예?"데인은 바보 같은 얼굴로 예?라고 되묻기만 했다.데인의 되묻는 횟수가 늘수록 카엘의 얼굴에는 짜증이 늘어났다.카엘은 대답 없이 옆으로 돌아누웠다."집에 가셨다고.. 예?! 벌써 가셨습니까? 혹시 내쫓은 것입니까?"카엘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냐고 반문하려다가 더 피곤해질 것 같아 말을 삼켰다"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내보내신 겁니까?"데인의 말에 카엘이 한숨을 쉬었다."자기 발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니까 안심해.""그분을 그렇게 보내시면 어쩝니까."데인이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으며 말했다.간다는 사람한테 자신이 어째야 하는지. 카엘은 데인 쪽으로 돌아누우며 말했다."그러면 데리고 살까? 엉?""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걔가 뭐!""그분이 아인 발렌스입니다!""그래, 나도 알아. 아인 발렌스인데 뭐!""아인 발렌스라고요!""그래. 아인 발렌스!.. 뭐? 발렌스?""예! 발렌스가 의 여식이란 말입니다. 그토록 찾으시던 그 가족이요!"데인의 말에 남아있던 잠이 싹 달아났다."제가 그걸 알자마자 달려왔는데 갔다니요! 언제 떠나신 겁니까? 얼마 안 되었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며칠 전에 떠난 사람을 어떻게 잡는 단말인가."못 따라잡아. 집에 도착하고도 많이 지났어."데인은 자신이 출장 갈 일만 없었더라면 늦지 않았을 거라는 미련 가득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생각해보니 레모네이드에서 들었던 발렌스가 의 여식의 특징과 아인이 맞아떨어졌다.은색의 긴 생머리, 새하얀 피부, 얼굴을 가린 머리.그때 왜 아인 생각을 못했을까."집에 갔다니.. 그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 집에 가다니요."데인이 침울하게 말했다."왜.""그 아버지가 가문 팔은 것도 모자라 지금도 도박에 술에 그로 인해 빚까지 있답니다. 빌린 돈을 제때 이자도 내지 않아 사채업자도 집에 쳐들어갔었다고 하더군요."데인이 자기 일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이대로는 아인님이 그 집에 계신 건 많이 위험할 텐데 거길 가시다니 너무 걱정되네요.""그새 정들었나 보네.""좋으신 분이잖습니까? 카엘님 성격도 다 받아주시고.."데인이 눈을 굴렸다."여하튼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 너무 걱정되네요."카엘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이 없었다."찾으시던 목걸이는 어쩌죠."카엘은 대답 없이 아인이 보던 책꾸러미를 내려다보았다. 저 책을 눈 빠질 정도로 집중해가며 마법 실력을 늘리기 위해 어찌나 노력을 하던지.옆에서 말장난을 걸면 눈빛으로 쏘아버릴 것처럼 어찌나 강렬하게 노려보던지.오랜만에 그 모습이 다시 보고 싶었다.카엘은 데인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가지.""네?""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준비를 해야겠네. 갈 준비 해. 백마 탄 왕자님처럼 위험에 빠진 여인을 구해줘야겠어."그 말에 데인이 카엘을 흘겨보며 말했다."아뇨, 백마 탄 목걸이 뜯으러 온 놈이겠죠."데인은 그것은 명백한 신분위조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 후 삼십 분을 데인은 볼이 꼬집혀 벌겋게 부었다."카엘..?"진짜 카엘이야? 꿈이 아니야?아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럼에도 카엘은 보였다.'여길 어떻게? 왜?'눈 앞에 나타난 남자는 아인을 내려다 보며 작게 웃었다."응, 오랜만이야."카엘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내가 방해한 건가?"눈 앞에 재미난 상황이 벌어졌다는 표정이었다."여긴 어떻게..""손님인가? 때에 안 맞게 왔네 비키게."자작은 내 말을 가로채며 더 이상 시간 지체하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물려 보내려 했다.하지만 카엘은 문 앞을 막아서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난 저 아이랑 볼일이 있는데. 남자 둘이 여자 한 명을 붙들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설명 좀 해봐.""넌 알바 아니니 비키라니까."자작이 카엘을 밀쳤다.힘껏 밀친 것 같지만 카엘은 그 자리에서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굳건하게 서있어서 다소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었다.디몬 자작은 밀려나지도 않는 카엘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화난 얼굴로 카엘에게 손가락을 들이댔다."이놈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내가 어떻게 알아. 넌 내가 누군지 알아?""너 뭐야!""넌 뭔데?""이놈이!"디몬 자작은 카엘의 말장난에 화가 나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씩씩거렸다.무엇보다도 자신보다 두 뼘은 큰 남자를 올려다보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불쾌했다."좋은 말 할 때 비켜!""그래."카엘 의외로 순순히 길을 비켜 나갈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카엘이 만들어준 길에 남자 둘이 아인을 붙잡은 채 지나갔다. 아니, 지나가려 했다. 아인이 팔목을 잡히기 전까지.남자 둘이 각자 아인의 왼팔 오른팔을 붙잡고 거기에 카엘이 아인의 왼팔에 손을 올렸다.세 사람이 아인 하나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그런데."카엘이 남자 둘을 보았다."애는 놓고 가."그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아인,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건 아니지?"그럴 리가."아니요."나는 고개를 세차게 돌리며 말했다."들었지?"카엘이 턱으로 출구를 가리키며 나가라고 몸짓했다."이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누구 앞에서!"자작의 사용인 한 명이 카엘의 멱살을 힘껏 잡았다."이러지 마세.."팍내 말이 끝마쳐지기도 전에 카엘이 남자의 가슴팍을 쳤고 그다지 힘을 싣지 않은 것 같은데 남자는 컥 하며 날아가다시피 붕 떠서 바닥에 몸이 던져졌다.카엘의 행동에 화가 난 남자가 카엘에게 달려들었다. 내 한쪽 팔을 잡고 있던 다른 사용인도 합세해 카엘에게 달려들었다.카엘은 달려오다시피 다가오는 둘을 보며 옆에 걸린 빗자루를 쥐었다.빗자루를 거꾸로 든 카엘이 요리조리 몸을 피해 두 남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그 광경은 몹시..'보는 내가 기분 나빠.'아인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두당 세대씩 맞았을 때에서 야 남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다가 다섯 대쯤 더 맞은 뒤에는 자신들이 공격하는 게 먹히지 않을걸 인지했는지 둘 다 일제히 자작의 눈치를 보았다."쯧, 쓸모없는 것들."자작은 두 손으로 옷 속에 있던 두 장의 종이를 펼쳐 카엘에게 들이밀었다.엄연히 이아이의 집과 얘기가 다 끝난 일이다. 약속대로 나는 데려가는 것이니 비켜라.종이에는 한 장의 혼인계약서에 자작과 아버지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부채를 갚아주고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이걸로 나와 혼인을 한다는 계약서가 있었다.혼인계약서에 딸자식은 아버지가 서명을 하면 국가에서 혼인을 허하기에 내가 서명을 안 해도 혼인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나를 끌고 가는 거에는 달리 내가 거부할 권리나 남이 말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었다.'이렇게 진짜 끝나는 건가.'아인은 망연해진 기색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내가 그 돈의 열 배를 주지."응?푹 숙여있던 아인의 고개가 놀라 다시 올라갔다.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카일에게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열 배를 줄 테니 깔끔하게 혼인계약서를 파기해.이걸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크흠."찾아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인의 아버지 또한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리대금업자에게 갚아 준 돈만 해도 상당히 큰데 그 금액의 열 배 그리고 부가적으로 준 생활비 열 배.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무리해서 이 집의 여식을 산거는 없던 일로 하고 상단을 더 크게 키워 갈 수 있는 건 물론 저택도 사고도 남을 금액이니 더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자작의 상황으로 보자면 횡재한 거나 다름없었다.전부터 침 흘리며 봐왔던 계집을 못 데리고 가는 건 살짝 아쉬웠지만."흐흠, 내가 돈 가지고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싫어?""아, 아니 싫다고는 안 했다네."자작은 재빨리 승낙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체면이 체면인지라 돈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얼굴을 지었다.얼굴에 흘러내리는 식은땀은 가릴 수 없었지만.잠시간 고심하는 척하던 자작이 입을 열었다."뭐.. 정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을 모른 체 할 수는 없겠구먼."자작은 자신이 인정에 약한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고개를 내저었다.카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쉽게 그 큰돈을 지불했다. 나중에 두말할까 봐 계약서를 태워버리는 것은 물론, 나중에 다른 말하지 않기로 서류까지 작성하는 섬세함까지 보여주었다.서류에 서명까지 한 자작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내며 인사를 하곤 바람같이 가버렸다.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내뜻대로 되지도 않던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다니 다행이면서도 허탈했다.집에는 나와 아버지 그리고 카엘이 서 있었다.그렇게 큰돈을 쉽사리 내어 주다니.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그랬냐고 해야 할지.하긴 나도 말릴 수 있으면서도 기회가 기회이니만큼 말릴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 시집가긴 싫었으니."저..""좀 더 늦었으면 못 볼 수도 있었겠네. 일이 생긴 걸 팽개치고 오길 잘했어."".. 감사해요."아인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돈은 제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갚아나갈게요."찰칵, 하고 문이 열렸다."잡아 왔습니다 허유, 죽는 줄 알았네요. 아인님, 오랜만입니다. 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데인이 반갑게 인사하다가 내 얼굴을 보더니 웃던 얼굴에서 곧바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다."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아인이 자신의 볼을 쓰다듬으며 답했다.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말안장에 그려진 블리스 가의 인장이 그렉의 눈에 들어왔다. 그 인장을 본 그렉의 눈이 커졌다."블리스 가(家)의 분이십니까?"그렉이 카엘을 보며 물었다.카엘은 그렉을 보며 말이 없었다. 카엘이 말없음은 인정을 의미했다.카엘의 반응에 그렉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늦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렉이라고 합니다. 아인의 친아비지요. 실례지만 아인이랑 무슨 사이 신지요?"그렉의 질문에 카엘이 그렉을 지그시 쳐다보았다."이런 상황에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낙천적이라고 해야 하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나?"카엘은 두 걸음 가까이 그렉에게 다가갔다."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자식의 인생까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카엘의 차가운 말에 데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딱히 대답을 듣기 위해 한 말이 아니어서 카엘은 고개를 돌려 데인을 바라보았다."데인, 늦었네. 말은?""도시를 벗어나 외곽지역 근처까지 달아나서 늦었습니다. 잘 데리고 왔습니다."데인은 더 빨리 올 수 있었으나 카엘이 백마를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카엘의 말 중에 제일 성질이 더러운 백마를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성격이 더러운지 카엘을 발로 차고 도망가고, 잡아와서 가다 보면 또 뒷발로 차고 도망가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설명해주었다."카엘님이 어릴 때부터 키우던 말이어서 그런지 카엘님을 꽤 닮았죠."데인이 아인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하하.. 그런데.. 여기까진 어쩐 일로 오셨나요?""아, 그게-""아인."카엘이 나를 불렀다."네?""돈 갚는다고 했지?""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금액이 워낙 커서 갚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야. 어쩌면 갚다가 갚다가 시간에 세월이 다 지날지도."금액이 크다 보니 카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어느 세월에 갚을까 라는 만큼의 큰 금액이었으니.아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카엘이 싱그럽게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좋은 제안을 하나 제시할까 하는데."제안?"어떤 제안이요?""일단은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것도 그러니 따로 나가서 얘기하지."말없이 보고 있던 그렉이 중간에 끼어들었다."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세워놓다니."그렉은 테이블 의자를 빼내었다."여기 앉으시지요. 아인, 차를 내오너라."차가 어디 있어, 장을 봐온 것들도 다 먹어서 먹을 거라곤 물밖에 없는데. 그리고 방금까지 질질 끌려가던 얘한테 차 심부름까지 시키다니, 그게 할 소리냐?"우리 둘만 얘기하고 싶은데."카엘이 손을 저으며 말하였다.무슨 이유에선지 잘 보이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아, 예. 제가 그러면 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는 대화가 끝나면 부르라고 내게 말하고는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밖에 나가서 얘기할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까?"카엘은 나와 있는 의자를 잡고 앉았다.아인은 뭐라도 있을까 찬장을 뒤적거리다 없는 걸 재차 확인 한 뒤 잔에 물을 따르고 카일에게 슥, 밀었다."차는 없어요. 물이라도 드세요."그러고는 대인에게도 똑같이 물 한 잔을 내놓았다.드르륵데인은 카엘의 옆에 앉았고 아인은 그 맞은편에 앉아 서로 마주 보았다."제안이라니요?"아인이 카엘을 보며 물었다."내가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알지?""네.""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데도 못 찾았지 뭐야."아인은 눈을 끔뻑 거리며 카엘을 쳐다보았다."아인 발렌스.""네. 왜.. 아니, 잠깐.. 네?"내 성을 어떻게 알았지? 카엘에게 내 성을 말한 적이 없는데?"제가 성을 얘기했던가요?""아니, 그래서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아인님, 아인님이 발렌스 가일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내지 못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늦게 알아냈을 테죠."데인은 자신의 능력에 감격한듯했다.".. 전에부터 찾던 사람이 저라고요?"카엘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하였다."흐음.. 정확히는 목걸이를 찾고 있지."목걸이?"빛에 비추어 볼 때 금색으로 빛나는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 알고 있지?"카엘이 말하는 물건은 엄마가 준 그 목걸이였다."그건 어떻게?""전부터 찾고 있었거든. 발렌스 전 가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을 어찌나 찾기가 힘들던지."카엘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돈 대신 그것으로 갚는 게 어때?"동생에게 그 목걸이는 꽤 좋은 보석이라고 전에 듣기는 했었다. 그런데 그 큰돈을 이 목걸이 하나로 끝낸다고?'아무리 좋은 보석인들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 텐데.'"그 목걸이가 그렇게 큰 가치는 하지 않을 텐데요?""아니."카엘이 단호하게 답했다."나에겐 그 정도의 가치야."카엘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어차피 팔아서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니 주어도 상관이 없었다.그런데.."카엘에게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고는 싶은데..""싶은데?""목걸이는 지금 저한테 없어요."공간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정적으로 흘렀다.시계침 소리만이 이 곳의 정적에서 울려퍼졌다."가지러 이곳까지 오셨는데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설마."아인이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했던 카엘이 현실부정을 택했다."아뇨, 진짜 없어요."".. 설마 팔은 거야?""아니요."팔려고는 했었지.아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지금은 동생이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내 아리송한 말에 데인의 눈꼬리가 내려갔다."아마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 목걸이의 가치가 크다며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걸 쉽게 팔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동생분을 찾아야겠네요.""그렇다면 동생을 찾아 목걸이를 찾는 것으로 다 갚는 걸로 하지.""그러면 다시 북부로 떠나시는 겁니까?""그쪽에 있을 확률이 크니 가서 찾아봐야겠지.""시간이 지체돼서 좋을 게 없으니 빨리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바로 출발하는 겁니까?""잠시만요!"데인과 카엘이 아인을 바라보았다."제가 여기 하던 일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으니 지금은 출발은 할 수 없어요.""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카엘이 물었다."한분 만나 뵙고 가면 돼요.""얼마 안걸리겠네. 그러면 같이 가지."데인과 카엘은 밖으로 먼저 나가 있었고 나는 아버지가 있는 방문을 열었다."그래, 아인. 대화는 끝났나보구나.""네."내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곧바로 방을 나갔다.방을 나간 아버지는 두리번거렸다."그분은 나가신 게냐?""네.""아니, 내가 대화가 끝나면 부르랬지. 나가면 부르라고 했느냐? 아, 사업에 대해서 대화 좀 나눠보려 했거늘."'사업에 관한 대화하는 척 접근해서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네.'아버지는 많이 아쉬운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그분이랑 친분이 있었다니, 미리 말하지 그랬느냐."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잘도 알려주고 싶겠다."그래, 어찌 되었건 잘하였구나. 그런 연줄이 있으면 참 좋지.""그러려고 알게 된 건 아니었어요.""그건 그렇고 다음에 또 언제 오시느냐? 그땐 제대로 사업설명을-""이제 안 와요."나는 널브러진 내 짐들을 한 군데에 모으고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그리고 전 이제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거고요.""뭐?""디몬 자작에게 절 팔아넘긴 순간부터 저와 아버지와 인연은 끝났죠. 안 그래요?""아인, 그건 집을 위해서-""아뇨. 아버지를 위한 거겠죠.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든 그래도 자식 도리로 열심히 일하며 뒷바라지했었죠. 그 대가가 이렇게 팔아넘겨지는 거였고요."순간 울컥했지만 이내 진정시키고는 말을 이어나갔다."저를 짐짝처럼 밀어낼때는 언제고.. 아까 그 사람이랑 지금 아버지가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드는게 진짜 웃기네요."나는 모아놓은 짐들을 들고는 다시 아버지를 보았다."이젠 아버지 스스로 일하며 살아보세요. 남에게 바라지 마시고요."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돌아서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카엘에게 걸어갔다. 한 대 정도는 때려주고 했나?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홀가분했다.아인의 얼굴에는 행복이 피어 올랐다."아인, 고생 많았다.""감사합니다."아인은 손에 가득 채워지는 금전 들을 바라보며 화사하게 웃었다."다른 일거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해보겠니?""아니요. 제가 멀리 떠날 일이 있어서요.""어디가길래?""찾을 게 있어서 멀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그리고?"멜이 갸웃거리며 물었다."이제 제 삶을 찾아서 떠나보려고요.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는 삶이 아닌 저를 위한 삶이요."아인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는 듯했다."그러면.. 이제 안 돌아오는 거니?"멜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아마.. 그럴 것 같아요."멜은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인의 손을 두 손으로 쓰다듬었다."그래.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아쉽지만 네가 행복하다면 되었어."그러고는 아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멜이 말했다."가서 꼭! 잘 지내고 꼭 행복해야 한다."멜의 다정스러운 말에 아인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록 멜은 가려진 앞머리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빨개진 코는 가려지지 않았다.오랫동안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준 멜과의 헤어짐은 너무 아쉬움이 컸다."아주머니도 잘 지내셔야 해요. 이 쪽에 오게 되면 들를게요."아인이 결국 훌쩍이며 말했다.멜은 뚝, 소리를 내며 아인을 꼭 안았다.그렇게 작별 인사를 마친 아인은 기다리고 있는 카엘과 데인에게 걸어갔다."아, 별장 주인!"'갑작스러운 일들의 연속에 까먹고 있었어. 고민을 해볼 시간조차 없었네.'오늘 가기 전에 먼저 말하고 떠나야겠지?집에 빚도 해결했고 이제 북부로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갈 수는 있겠지만 이 곳에 지낼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직 능력이 미미한 나를 받아주는 좋은 직장 자리이지만.."그래도 거절해야겠어."카엘과 대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카엘에게 말했다."카엘, 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거기 좀 갔다가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아인님이 다시 여기 올 필요 없이 거기 갔다가 바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데인이 말했다.셋이 가는 거는 크게 상관없었다.'하지만..'아인은 카엘과 데인의 뒤에 서있는 생물체들을 흘끗 보았다.뒤에 서 있는 기사들과 말들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다 같이 움직이기엔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저 혼자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아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였다."다 같이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버거울 것 같은데."카엘이 턱짓으로 가리켰다.가리킨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 궁금한 듯 다 기사 쪽을 보고서 웅성이는 게 구경거리 보는 것 같았다."같이 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을 듯 하니 갔다가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그렇게 카엘과 데인 그리고 아인 그리고 여러 마리의 말과 여러 명의 기사들이 다 같이 미르에 별장으로 향했다.길거리는 많은 수의 발걸음 소리와 여러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저 행렬은 뭐지?""감찰 나왔나 보고만.""아니, 뭔 일이 났었는가?""세상에, 저기 그 집 딸 아녀?""뭘 잘못했나 보구먼.""잉? 잡혀가는 거야?"아인은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 말해줄까?"카엘이 옆에서 속삭이듯이 말했다."됐어요."그냥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데인이 그 모습을 보고 큭큭 거렸다."카엘님, 계획과 다른데요?"백마 탄 왕자님과 다소 거리가 먼 공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왕자님 모습에 데인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구출은 했잖아."데인이 큭큭 거리며 말하던 사이 별장 앞까지 다다랐다.아인이 앞에 보이는 별장을 가리켰다."저기예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 갔다 올 테니 여기 계세요."카엘은 아인이 가리킨 별장을 가리키며 말했다."저 별장이라고?""네.""카엘님, 저 문에 인장은 혹시..""같이 들어가지.""네?""아는 사람인 것 같아."그렇게 카엘과 아인 둘은 별장으로 걸어갔다.똑똑똑똑똑집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았다."집에 없나?"손잡이를 잡고 당겨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열렸다."위층에 있어서 안 들리나?"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계세요?"아이는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위층에 있나 보군."카엘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아니, 잠시만!"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는 집에 함부로 위층으로 올라가도 될까 망설여졌다.스스럼없이 계속 올라가는 카엘의 소매를 잡아세웠다."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그럼 계속 기다리게?""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야겠어요.""아니. 있어."확신이 보이는 말을 하고는 카엘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고 아인도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결국 따라 올라갔다."안 계시나?"손잡이를 잡고 당겨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쉽게 열렸다."위층에 있나?"둘은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계세요?"아인은 큰 소리로 불렀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위층에 있나 보네."카엘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아니, 잠시만!"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함부로 위층으로 올라가도 될까 망설여졌다.하지만 카엘은 스스럼없이 계속 올라갔고, 아인도 결국엔 따라 올라갔다.다다닥복도에 울리는 뛰어가는 소리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졌다.이층 복도 끝 쪽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서재로 달려가 문을 닫는 것이 보였다."역시."카엘은 그 말을 하고는 데이비가 들어간 방을 향해 걸어갔다."저 방은 들어가면 안-"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었다.아인은 당황에 황급히 카엘 쪽으로 달려갔다."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아인은 말하며 방을 쓱 들여다보았다.방 안에는 데이비는 없고 미르만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언짢은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미르는 둘이 온 걸 알았던 듯 놀란 기색이 없었다."안녕하세요.""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떨거지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어.""떨거지라니, 오랜만에 봤는데 할 소리야? 섭섭하네."미르는 섭섭하다는 말을 듣고 미간이 좁혀지며 말했다."둘이 아는 사이인가?""꽤 친한 사이지."미르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더 심해졌다.카엘은 서재의 책들을 보며 말했다."제국에서 쫓겨났다더니, 거처를 이쪽으로 온 건가?"쫓겨나?아인이 미르를 쳐다보았다."상단을 뺏기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야? 참 인심이 좋지, 제국은. 아닌가 특별 대우 인가? 내쫓는 것만으로 끝나다니.""물건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서 팔아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가?"카엘의 말에 미르가 코웃음 치며 말했다."암시장이라면 말은 다르지."'암시장을 했다고?'"저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혹시 유디안이라고 아시나요?"아인이 손을 들고 물었다."유디안? 갈색머리 남자아이를 말하는 건가?""네! 맞아요.""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예뻐해서 기억하고 있지. 걔는 왜 묻지?""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보셨나요?""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제국의 황성 근처에서 보았지만 그 당시는 잠시 들린 거라 현재는 없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현재 북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북부.. 미르의 말에 확실히 북쪽 지역에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북부에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곳에 온 거지?""볼일 보러."온 목적을 생각한 아인이 말을 못 꺼내고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저기.. 전에 말씀하셨던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이랑 무엇을 찾으러 북부로 가기로 했거든요.""무슨 일?"카엘이 물었다"마법사를 구하신다고 하셔서 저를 채용하신다고..""마법사?"카엘이 내 말에 갑자기 크게 웃었다."뭘 하려는 생각인지 눈에 훤히 보이네. 이 아이를 어디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이용이요?""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듯한데.""뭐가 아니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굳이 네가 마법사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요새는 상단에서도 마법사가 필요한가?""아인, 조심해. 세상은 위험해. 특히 저 놈은 예전부터 양아치 같은 적이 많았거든.""너만 할까. 예전만큼 실력도 없는 놈이 입만 살아가지고."미르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는 곧바로 아인에게 말했다."실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곳은 흔치 않아.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말 잘하네. 그렇지만 아인, 저거에 넘어가면 안 돼. 저 놈은 너의 단물만 다 빼버리고 버릴 거야.""저 놈은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놈이라 북부까지 같이 가면 네가 꽤 고생할 거야.""남의 의욕이랑 열정을 네 멋대로 재단하지 말지.""오죽하면 신수도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너는 그 발판을 만들었고, 그렇지?""예전 같이 힘도 못쓰는 놈이.""예전부터 힘도 없던 놈이.""그, 그만 하세요."둘이 으르렁대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는 아인이 손을펼쳐 둘을 말렸다.후우."죄송해요, 제가 갚을 빚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북부를 떠나고 싶어요.""아예 오지 않겠다는 건가?"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네, 이제 제 삶을 한번 찾아 떠나 보려고요.""들었지? 그러시다네. 잡고 싶은 그 마음 고이 집어넣어."카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싸늘한 표정이던 미르도 같이 빙그레 웃었다."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그 미소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한 건 기분 탓일까?"잠가."미르의 말이 끝나자 철컥, 소리가 들려왔다.문이 잠겼어?"이게 무슨 상황이죠?""이젠 솔직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네. 사실 난 마법사가 필요한 건 아냐. 있으면 편한 것도 있겠지. 하지만 이미 난 마법사를 두고 있어. 그것도 실력이 꽤 좋은. 실력이 미흡해서 집안일하며 돈 버는 마법사는 관심 없어.""그럼 절 왜 고용하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미르는 비꼬는 말을 하며 싱긋 웃었다."신수.""신수요?""그래, 네가 계약한 그 신수. 너의 승인하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그 신수.""그래서요? 신수가 왜요?"의중을 모르겠는 아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계약을 끝내고 그 신수를 나에게 넘겨.""뭐라고요?"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다른 방법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자가 죽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없어져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지."카엘을 슬쩍 곁눈질해서 보았지만 카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나는 다시 미르를 바라보았다."신수는 물건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그냥 보내주세요."내 말에 눈앞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니켈.""엄마! 깜짝이야."아인의 뒤쪽에서 음침해 보이는 드루이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 미르 쪽으로 걸어가 옆에 섰다."상등급 마법 시험까지 합격한 훌륭한 능력 자지. 그에 비해 내 앞에는 힘을 잃은 한 명과 새발의 피정도 마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네?"우쭐한 태도로 미르는 여유롭게 그 둘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무표정의 카엘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승리는 제 편이었으니 나름 봐줄 만하였다."아인."카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네?""거봐, 이런 얘야.""이 상황에 그걸 짚는 건 여유예요..?"아인이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게 작게 말했다. 미르의 귀에는 들리는 작은 목소리였지만.덕분에 미르는 또다시 언짢아질 수 있었다."..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노력해도 마법을 전혀 못쓰는데 실력 없는 애송이가 신수랑 계약까지?미르는 아인을 경멸하듯이 쏘아보았다."데이비를 데려다가 이런 짓할 때 이용하는 건가? 신수를 이렇게 대하다니 데이비, 넌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계약을 끝내자고 한 거였어?"데이비가 숨어있는 곳을 보며 카엘이 말하였다."아냐! 카엘 넌 그 당시 나를 품기엔 몸이 상당히 위험했...""미니."미르는 데이비를 부르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주었다."내 말을 아예 끊어버리는군. 네 녀석은 항상 거슬렸어. 마법 쓸 줄 아는 거 가지고 내 위를 올라가고.""그래서 그만둔 거야? 자존심 상해서?""네가 마법 빼면 뭐 하나 잘난 게 없는데 같은 입사동기인데 차별 따위를 하는 마법을 우선시하는 곳에 내가 왜 있어.""마수 전쟁 갔을 때 마수들이 떼거지로 달려오니 걸음아 나 살려라 뛰어간 게 누구지?""내가 언제!"카엘의 말에 미르는 급 시간에 얼굴이 빨개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전쟁도 무서워하는 놈을 계급을 어떻게 올려줘. 제국 기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아닌 알고 지낸 정으로 유지되었다면 전쟁 나갈 때마다 많은 기사들이 너처럼 칼을 집어던지고 달아나다가 잡아먹힐 거야"카엘이 어깨를 으쓱였다."그때는!!.. 어렸어!"'웃으면 안 된다.'때에 안 맞게 미르의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하는 말에 웃음이 터질 뻔하였지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참아내는 데 성공했다."그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나부랭이 시절이었지. 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험한 일은 피하면서 승진을 바라고 있었던걸 기억에서 지웠어?"이 말싸움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미르는 대화를 끝내버렸다."후, 너는 오늘 무사히 나가지 못할 거다. 이런 날을 기다리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 갑작스레 그런 생각지도 못한 날이 찾아오다니."미르는 크큭거리며 웃었다."니켈, 저 놈 먼저 처리해.""아인, 멀리 떨어져.""네?"콰직쾅니켈이 란마 법사 앞에 돌로 된 괴물이 나타나 카엘을 내리쳤다.카엘은 순식간에 옆에 서있는 아인을 뒤로 밀치며 자리를 피했다.카엘이 비켜 간 자리에는 바닥이 부서지다 못해 뚫려버렸다."아야.. 어? 저건.. 배웠어요. 골렘! 골렘맞죠?""그래, 열심히 공부했네. 쟤는 건물을 부시려고 소환한 건가?"골렘의 체격에 감당 못한 건물은 층고기 꽤 놓은 높이의 건물임에도 천장이 뚫려버렸다."미친! 여기에 골렘을 소환하는 모지리가 어딨어?"미르 또한 예상을 못했는지 니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상대는 카엘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전만 하지 않다 한들 전기 사단장이란 말입니다."니켈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는 태도로 답하였다."후우, 그래 그럼 제대로 처리해."이렇게 된 거 제대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얼른 죽이라고 까딱거리며 손짓했다.골렘은 큰 몸으로 빠른 속도로 팔을 휘두르며 카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방 치고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었지만 이리저리 골렘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하기엔 다소 힘든 공간이었다.가까스로 빈틈을 이용하며 피했지만 끝내 완전히 피하지 못해 얼굴 한쪽을 비껴 맞았다."카엘!"그 모습을 본 아인이 놀라 큰소리로 외쳤다."골렘을 어떻게 상대할 거야? 불로는 상대가 안될 텐데. 큭."아인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아, 실리아나! 실리아나를 소환해야겠어."실리아나."붉은 머리칼이 차분히 내려앉으며 실리아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실리아 나는 눈앞의 골렘을 바라보았다."실리아나, 카엘 좀 도와줘요. 돌에 불마법을 쓰지 못해서 피하기만 하나 봐요.""흠.. 나도 불이라 돌은 불로 태울 수 없어."아인은 실리아나의 말에 낙담하는 얼굴을 지었다."그렇지만.""그렇지만?"실리아 나는 고개를 돌려 니켈을 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얼핏 무서워 보였다."다른 것들은 불로 상대할 수 있지."실리아 나는 곧바로 니켈을 상대로 불을 만들어 공격을 시작해댔다.니켈 또한 공격해오는 실리아 나를 향해 불을 쏘아 댔고 둘은 서로 불로 힘겨루기 하는 상황이 되었다.그의 타격으로 안에 있던 책 몇 권과 커튼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불이 나고.. 건물이 부서지며 상황은 개판 그 자체였다.이를 보던 미르가 입을 떼었다."미니, 저거 처리해. 아니다 카엘 블리스 저 새끼 먼저 죽여."미르의 말에 데이비는 고개를 저었다."미르, 나는 카엘을 해 칠 수 없어..""하?"미르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데이비를 내려다보았다."뭐라고?""나는 카엘을 해칠 수 없어."데이비는 또다시 거절 의사를 보냈다."데이비."미르는 싸늘한 낯으로 데이비를 보았다."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데이비의 멱살을 잡아끌었다."넌 이미 저 놈을 버렸어. 나를 선택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싫어. 그래도 안 할 거야. 난 못해."데이비는 미르에게 잡힌 채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또다시 거절했다."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겠지?"미르는 데이비를 바닥으로 밀치며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아무래도 골렘과 불의 싸움은 불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마법을 포기하고 몸으로 싸우고 있는 카엘이 보였다.이대로라면 골렘과 데이비가 합세해서 싸운다면 쉽게 끝날 싸움이라 아쉬웠지만 시간이 걸려도 골렘이 이길 확률이 높았다. 골렘의 주인 니켈까지 거든다면.의외의 복병이 이 정도로 걸리적거릴 줄은 몰랐지만.마법사의 능력치에 따라 계약한 신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지는데..내가 저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였나?상대도 안될 것 같았던 계집의 신수는 상급 불의 마법사를 나름 잘 상대하고 있는 듯했다."걸리적거리는군."미르의 미간이 크게 구겨졌다.실리아 나와 니켈은 서로 불을 던지고 날아오는 불을 피하거나 막아가며 싸워댔다. 방안은 불로 인해 연기가 자욱했고 책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은 애초에 다 타버렸고 책이 꽂혀있던 책장까지 불이 붙어 여기저기 붙은 불이 점점 커져갔다.그 광경을 본 니켈이 입을 열었다."후우, 질질 끌지 않고 한 번에 끝내주지."니켈은 잠시간 멈추더니 눈앞에 커다란 불을 만들어 실리아 나를 공격하였다. 이를 본 실리아 나도 니켈과 같은 공격을 하였고 서로가 보낸 불은 서로 밀어 대고 있었다.그러나 실리아 나는 니켈만큼 힘을 쓰지 못하였고 거기에 아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막까지 만들어주니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윽!"실리아 나는 힘겨운 듯 신음하였고 그 모습을 본 아인은 안절부절못하였다.'어떡하지?'내가 도울 수는 있을까? 한없이 작은 능력인데 저기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고민했다.망설이던 아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일단은.. 해보는 거야."아인은 두 눈에 힘을 주며 앞으로 한걸음 내디뎠다.퍽!두두둑내 앞에서 골렘의 상체와 하체가 나눠지며 바닥에 내려앉았다.정확히는 니켈에게 마법을 쓰려고 했었다.그때, 니켈과 내 사이에 카엘이 피하다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뒤를 쫓아 바닥과 천장을 부셔대며 골렘이 카엘을 쫓아 내 앞 을지 나가던 중 니켈에게 공격한 마법이 조준을 잘못해서 빗겨 나갔는데 그걸 운 좋게 골렘이 맞아버렸다."아인 잘한다!"실리아나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말했다."제법이네."카엘은 박수까지 쳐주었다.실리아 나와 카엘이 차례로 칭찬을 보낸 뒤 그 뒤로 이어서 니켈의 절규가 이어졌다.나누어진 하체가 일어나서 기어가더니 상체가 팔을 이용해 하체를 붙이려고 애를 써대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그 둘의 만남은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기만 했고 다들 싸움을 멈춘 채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았다.아인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 없는 경악을 하고 있었다.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카엘의 흑룡이 몸을 감싸며 합체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 볼 수 없게 되었다.붙잡힌 몸은 손가락만 까딱거렸다."조무래기 실력일 줄 알았는데 한방에 골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니."아인이 정확히 의도한 공격이라 오해한 미르가 당황함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냈다.일이 이렇게 제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나.미르는 이를 갈았다.신수라고 들여놓은 것은 무엇하나 하는 것 없이 멀뚱히 서있었고 큰 금액을 주고 데려온 상급 마법사라는 것은 자신의 골렘을 보며 안절부절못하다 이내 울먹거리기에 이르렀다.건물은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흔들거리기 시작하던 그때 카엘이 자신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데 여유로워 보이는 미소에 속에 있는 것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미르를 보던 카엘이 고개를 돌려 건물을 훑어보았다."이대로면 건물에 깔릴 것 같은데."언제 왔는지 아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다."카엘, 여기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그러게.""안돼!"카엘이 흑룡에게 눈짓을 보내자 흑룡은 골렘을 더 힘을 주어 몸을 조각조각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를 본 니켈이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를 질렀다.니켈은 골렘에게 달려가 조각조각을 맞춰보며 몸을 붙이려 애를 써댔고 그걸 잠시 구경하던 카엘이 미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미르의 몸 전체를 위아래로 느릿하게 훑던 카엘이 말했다."대체 언제 철들래?"미르의 속을 제대로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의도한 것인지 답답해서 그런지 카엘은 쯧, 혀를 차기까지 했다."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어."미르가 이를 악물고는 되받아쳤다."노력 없이 가진 게 많아서 세상 쉽게 사는 네놈이 아무리 노력해도 네 놈 밑에 있는 나에게 그딴 말을 해? 언제나 내려다보는 그 눈깔! 내가 꼭 바꿔줄 거야."미르의 분노 어린 말을 듣던 카엘은 진지한 얼굴과는 다르게 어깨는 으쓱이며 말했다."열등감은 노화의 근원이야."미르는 어이가 없어할 말을 잠시 잃었을 때 카엘은 그대로 뒤돌아 아인에게 돌아갔다.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아 못 들은 아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무슨 말을 했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지?미르의 얼굴은 차가운 표정일 때가 많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배를 능가했다.무서워..찌그러진 미간이며 움직이는 입은 욕을 하는 것 같은 입모양,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모든 분노가 담긴듯한 얼굴을 본 아인은 겁에 질려 제 팔을 감쌌다."갈까, 이제?"아인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뒤돌아 출구로 걸어갔다.둘을 뒤따라가려던 실리아나가 뒤돌아 데이비를 바라보았다."너."실리아나의 부름에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이비가 주위에 누가 있나 두리번댔다."너 말이야. 두리번대는 너."실리아나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신수면 신수답게 살아. 인간의 꼬봉 짓 따위 하지 말고."가오 떨어지게.그 말을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고 데이비는 멍하니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말을 탈 줄 모르는 나는 카엘의 말에 같이 타서 어색하게 북부로 향하는 중이다.카엘이 내 뒤에 앉아 내 앞에 있는 말의 고삐를 잡아서 얼핏 안긴듯한 자세로 앞만 보고 가는 이 상황이 부끄러웠다.카엘의 뒤에 앉고 싶었지만 데리고 온 백마의 성격이 난폭해 수틀리면 패대기를 치기에 뒤에 앉으면 제일 먼저 날아갈 거라는 카엘의 말에 가만히 앞에 앉아 가는 중이다."카엘님, 식사는 안 합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식당을 찾기 힘들 텐데요."카엘은 열 시간 넘게 공복으로 허기가 진 사람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사람들은 많이 배고팠는지 눈을 반짝이며 다 같이 카엘을 바라보았다."돈 없어.""네?! 두둑하게 챙겨 오지 않았습니까? 과할 정도로 챙기는 거 제 두 눈으로 봤는데요 목걸이 산다고 왕창 챙겨 오셨잖습니까? 목걸이는 없었으니 쓸 일도 없었는데.. 설마?"데인이 카엘을 흘겨보았다."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 없어."데인을 포함한 기사들에게서 정적이 흘렀다."아까 다 썼어."카엘은 무심히 말하였다."설마 그때 다 쓰신 거예요..?"아인의 물음에 데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무슨 일 있으셨습니까?""식사는 도착해서 하도록 하지."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허기 진채로 떠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괜히 미안한 마음에 손가락을 꼼지락대며 말했다."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됐어. 어차피 배 채우고 떠나면 밝을 때 못가. 이 놈도 피곤하다면서 또 난리 칠 거고."카엘이 말고삐를 흔들며 말하셨다.말은 심기가 불편한 듯 콧구멍으로 거센 바람을 내보냈다."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돈이 없는 건 아니야.""무슨 뜻이에요?""물주는 아직 있다는 뜻."그 말을 끝내고서 말없이 가고 있었다.가던 중, 말의 움직임이 앞굽을 올리려 할 때 카엘이 말의 눈에 불을 보여주며 얌전히 가라는 말을 했고 알아들은 건지 백마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말없이 앞만 보고 가려니 점차 졸음이 쏟아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졌다.느릿하게 깜빡이던 눈은 점차 스르르 감겼다."이제 내려야 해.""으음?"언제 잠이 들었는지 카엘의 가슴팍에 기대어 눈을 깜빡이고 있는 제가 보였다."아, 죄송!"아인이 재빨리 카엘에게서 몸을 떼어 상체를 바로 잡았다.카엘은 먼저 내려 아인의 허리를 잡아 내려주었다.그로 인해 아인의 볼은 붉게 물들여졌다. 크흠, 괜히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척 얼굴을 돌렸다.주위에는 해가 져서 어두웠지만 앞에 호텔이 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다른 기사들은 어디 갔어요?"주위를 둘러보던 아인이 물었다."식당으로 갔어.""여긴 어디예요?""숙소."호텔에서 걸어 나오는 데인이 보였다."이렇게 부조리하다니요, 부하직원에게 돈 뜯는 상사라니."데인은 돈주머니를 흔들며 투덜거렸다."오늘은 늦었으니 식사만 하고 쉬어야겠어. 자면서 조금씩 기침도 하던데 추우니 밖에 나가지 말고 숙소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게 낫겠어."그 말을 하고는 바로 데인을 불렀다."네네."데인이 사준 음식을 먹고서 데인은 내일 오겠다며 떠났고 카엘의 방 옆에 잡힌 방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발끝으로 참방 거리며 물장난을 치다가 천장을 보았다.'좋다.'오랜만의 여유를 즐긴 뒤 나른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쯤 씻고 가운을 걸친 채 침대에 대자로 뻗었다."이제 그럼 그 집에는 완전히 벗어난 거네?"실리아나가 물었다."네."'이젠 절대 가지 않을 거야.'"널 밀면서 그 아빠뻘 되는 놈에게 보내려던 때는 정말 혼내주고 싶었어."아인은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아주 다사다난한 하루였다."어떻게 보면 잘됬어요. 떠나기 홀가분했으니까."어쩌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라는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었다.'그래. 잘된 거야.'실리아나의 아버지의 욕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고 듣던 아인은 점차 욕이 자장가같이 들리며 스르르 눈이 감겼다.똑똑깨어난 아인은 카엘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싶어 준비하고 나와 옆방을 두드렸다."아직 자나?"같이 지낼 때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일찍 일어날 때도 있어서 깨는 시간을 가늠하지 못해 어중간한 시간에 나왔음에도 카엘은 자는 듯 문은 열리지 않았다.하긴 말 타고 장거리를 왔으니. 나는 잤지만 카엘은 잘 수없었으니 많이 피곤할 거야.기다리던 아인은 다시 제방으로 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카엘의 방문이 탈칵하며 열렸다."무슨 일이야."부스스한 머리로 나온 카엘은 잠에 덜 깨서 나른한 눈매에 앞머리가 살짝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잠시 넋 놓고 보았다.사 기적인 얼굴이 틀림없다며 홀리는듯한 느낌에 빠져들던 아인이 점점 이상하게 보는 카엘의 얼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왜 그래?"카엘이 손을 들어 아인의 앞머리를 넘기고는 이마에 손을 올렸다."몸이 안 좋은가?"순간 얼굴에 모든 열기가 모이는 듯했다.아인은 재빨리 뒤로 한걸음 물러나 앞머리를 정리하며 자신의 붉어진 얼굴을 가렸다."아뇨, 아니에요."아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아! 식사해야죠 제가 살게요!""나가서?""네.""귀찮아. 안에서 먹을래."카엘이 마른세수를 하듯 얼굴을 쓸어냈다."안에서 같이 먹든지.""셀러리는 몸에 좋아요."셀러리를 피해서 샐러드를 먹는 카엘을 보며 편식하지 말라며 말했다."콩부터 먹고 말하지?""크흠."언제부터 보고 있었지?아인이 카엘을 올려다보았다."대놓고 밀어대는데 못 볼 수가 있겠어?"자신의 생각을 읽은 듯 카엘이 답했다."셀러리는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요.""콩도 그래."맞는 말에 반박을 못한 아인이 고기를 푹 찔러 입안에 넣었다."키 좀 커야지? 편식하면 크지 않아. 물론 난 더 클 필요는 없지만 너는?"카엘이 얄밉게 웃으면서 약 올리듯 말하였다."키 커서 좋으시겠어요."나도 나름 작지는 않은 편인데. 그러고 보니 키가 크지 않는 것 같아. 성장이 끝난 건가?침울한 표정으로 아인이 샐러리를 물어뜯다시피 먹었다.그 모습을 보던 카엘이 피식 웃었다.창가 앞의 새가 창문을 부수고 싶다는 생각인지 힘껏 주리로 두드려댔다."여기 있는 것까지 알아내다니. 제법 무서워지네."카엘은 창문을 열어 날아 들어온 새의 다리에 묶인 종이를 풀고는 곧바로 손짓을 보내며 가버리라는 의사를 보냈다.새는 잠시간 카엘을 노려보는 듯하더니 쌩하고 날아가버렸다"그게 뭐예요?""스토커가 보낸 서신.""스토커요?"카엘은 말없이 서신을 내려놓고서 식사를 이어갔다.식사를 마친 뒤, 숙소 직원이 그릇을 찾으러와 정리 한 그릇들을 돌려주고는 다시 앉아 홍차 한 모금을 홀짝이던 아인이 카엘을 바라보았다.의자에 힘 빼고 눕다시피 있던 카엘은 이내 얼굴이 천장을 향한 채 눈을 감았다."카엘.""왜?""잘 거예요?""응, 데인 오면 깨워."그 말을 끝내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카엘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마땅히 할 것 없던 난 홍차를 마시며 경치를 구경했다.무엇을 사러 가거나 식당을 가기엔 거리가 살짝 있지만 많이 멀지는 않았고 거리가 있어도 운치가 있으니 나름 괜찮았다.그래도 밤엔 좀 무섭겠다.경치를 감상하던 아인의 시야에 창가 끝쪽에 카엘이 놓은 편지봉투가 들어왔다.편지봉투엔 '좋은 말할 때 들어와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편지 내용을 봉투에 써놓은 거 보면 편지를 안 볼 거라 예상하고 쓴듯한데. 그런데 스토커가 저런 말을 쓰나?스토커라면 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오지 않나? 아인의 시선은 편지봉투에 적힌 글에서 실링 왁스로 찍은 도장을 향하였다.'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뭐더라?'똑똑"누구세요?"문쪽으로 걸어가며 아인이 물었다."데인입니다."딸칵"같이 계셨군요.""네, 식사는 하셨어요?""네, 했습니다."데인은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카엘은 언제 깼는지 움직임 없이 그 자세 그대로 눈만 깜빡이며 데인을 보았다.상황 보고하라는 눈짓임을 알아챈 데인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하루 사이에 찾기는 힘들더군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찾기 힘든 율을 빨리 찾으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직접 찾으러 가봐야겠어.'"그러면 저는 암시장 쪽으로 돌아볼게요.""암시장이라면.. 아 그때 찾는 사람이 동생분이었군요?"이제는 굳이 숨길 필요성이 없다 생각한 아인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혼자서는 위험하십니다. 아, 카엘님이랑 같이 가보시면 되겠군요.""아뇨, 저 혼자 가도..""안됩니다."데인이 단호하게 말했다."제가 암시장에 관해서 장소 등 알아내겠습니다.""그래, 나랑 가."카엘의 말에 조용히 끄덕였다."마법이 늘었긴 하지만 아직은 위험해.""마법이 늘었습니까?""골렘도 때려잡을 수 있어."카엘이 웃으며 말했다."골렘이요?""아, 아뇨. 그건 공격이 빗나갔는데 골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맞은 거예요.""이야, 운도 실력이잖습니까. 힘도 있으니 타격이 있었을 테고."데인의 칭찬에 멋쩍게 웃었다."그런데.."밝게 웃던 데인의 얼굴이 일순 어두워졌다."골렘이랑 싸울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고 계셨던 겁니까? 위험 속에 살고 계셨던 겁니까?""아니요, 그건 아닌데..""그럼 어떻게 골렘을 만난 겁니까? 골렘이라면 마법사의 의식으로 만든 것이니 마법사가 소환했다는 뜻인데 마법사랑 대련을 하셨을 리는 없.. 대련을 하신 겁니까?"별 장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르는 데인이 계속해서 물어왔다.카엘은 고개를 들고는 손가락을 튕기며 주전자 밑에 놓여있는 초에 불을 붙여 커피를 데웠다."어제 있었던 일이야.""네? 어제 그럴 일이.. 설마?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데인이 휘둥그레 눈을 뜨며 물었다."그 녀석이 판을 만들어놨더라고.""데이비 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법도 못쓰지 않습니까?""그러니 미리 준비를 한 거겠지. 마법사까지 모셔와 놓고 아인의 신수를 뺏으려고 한 거지.""신수요? 아니 신수 컬렉터 놀이한답니까? 마법사도 아니면서 신수에 왜 그리 애착을.. 그래서 그 판에 골렘이 있었고요?"카엘은 끄덕이고는 찻잔을 들어 보이며 마실 거냐고 물었고 데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진짜 위험했군요. 저는 늦으시길래 안에서 그저 여느 때 와 같이 말싸움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카엘은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다가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데인은 카엘의 얼굴을 보았지만 모른 체 무시하고는 한쪽 손으로 턱을 쓸며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다가 다시 말하였다."아인님은 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법 실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그 인간.. 아니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 특히 마법사들이 그 신수를 욕심 낼 거거든요."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신수보다도 아인님, 아인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훈련은 필수입니다."추운 겨울이 곧 끝나가는지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따뜻한 날씨였다.호텔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인적이 드문 폐가 옆 들판에 한 명은 나무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었고 둘은 열정적으로 마법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잘했습니다. 이제 빛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익혔으니 그 빛의 크기를 유지시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죠."크기를 유지시킨 채로 조심히 좌우로 움직이는데 어찌나 긴장되고 큰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지 식은땀이 흘렀다.조금의 움직임으로 좌우로 움직이자 데인은 좀 더 크게 움직여 보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로 삼십 분쯤 연습해서야 아인의 키만큼 거리를 움직이는 데 성공하였다."하아.."결국엔 지쳐서 빛이 깨지며 아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잘하셨습니다. 습득 속도가 확실히 빠르시네요."데인이 신기하다는 얼굴로 말하였다."빠른 건가요?""보통은 이것들을 하루 안에 다 해내기는 힘들죠."데인은 빛의 크기를 키우는 거만 해도 대단하다며 글자를 외운 아이를 보고 감격하듯 아인을 칭찬해주었다."오늘은 이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데인은 지친 기색이 가득한 아인에게 손을 내밀어 아인을 일으켜 세웠다."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데인이 멀어지며 말하였다."네? 카엘은.."잠든 카엘을 내버려 둔 채 쿨하게 떠나려는 데인을 보고는 아인이 세웠다."제가 깨우기는 버거워서요."데인은 제가 깨우면 싫어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오늘 배운 건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기술이니 꼭 연습하라는 말을 덧붙이고는 가버렸다.카엘은 잠이 제법 깊게 들었는지 이렇게 떠드는데도 미동도 없이 곤히 잠들어있었다.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은 카엘 쪽으로 다가가 근처에 풀썩 앉았다.'아직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좀 더 기다릴까?'아인은 다시 빛을 만들어 내었다. 단순한 기본 동작임에도 다른 생각을 하기 힘들 만큼 큰 집중력이 필요한 동작이었다.빛을 움직이여 빛이 있는 쪽으로 눈도 따라갔다.한참 요리조리 움직여보다 저도 모르게 카엘의 눈앞으로 빛을 옮겨놓았다.계속 보고 싶었던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다니 행복했다.'못본새 이목구비가 좀 더 뚜렷해진 것 같기도 하고?'카엘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때, 카엘의 눈가가 꿈틀 하더니 바로 눈이 번쩍 뜨였다.팟놀란 아인이 빛을 깨뜨려버렸고 빛은 깨지며 환한 빛을 뿜어냈다.눈앞에 강한 빛이 퍼져 카엘이 손으로 눈을 감쌌다."괜찮아요?!"놀란 아인이 카엘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깨우는 게 과격한데..""깨우려 한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카엘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눈을 뜨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데인은 갔어?""네."카엘은 아인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왜 그러지?카엘의 행동에 눈만 깜빡이며 쳐다보았다."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얼굴에 핏기를 뺏긴 것같이.""그래요?"아인은 제 볼을 쓸었다.'감기 기운은 약해져서 몸은 괜찮은데 오늘 너무 무리했나?'카엘은 기지개를 켜며 상체를 세웠다."방에 가서 쉬어.""카엘은요? 어디 가요?""난 찾아보러 갔다 올게.""제 동생이요?"카엘이 고개를 끄덕였다."같이 가요.""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 쉬는 게 좋겠어.""괜찮아요. 얼른가요."아인이 제 볼을 세게 비비며 일어났다."진짜 괜찮아요."카엘은 못 이기겠다는 얼굴을 하고는 따라 일어섰다."그럼 찾으러 가볼까?""네!"카엘은 피식 웃으며 따라오라고 말하고는 일어나서 걸어갔고 아인도 뒤따라서 따라갔다.까악 까악이상하게도 가는 길에는 많은 수의 까마귀들이 널려있었다.'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까마귀들을 구경하다 앞에서 우뚝 멈춰 선 카엘의 등에 코가 부딪히며 같이 멈춰 세워졌다."오랜만에 뵙습니다."카엘의 어깨너머로 한 삼십 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카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다."여긴 어쩐 일이야?""이제 그만 들어오시라고 하셨습니다.""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나를 미행하였나?"카엘의 눈매가 서늘해졌다.그 모습을 본 남자는 눈을 내리깔았다."본의 아니게 미행한 점 사과드립니다.""얼마 전부터 눈에 거슬리던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게 됐네."카엘은 남자에게 다가가 귓가에 아인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이듯 말하였다."미안할 짓 다음부턴 하지 말고 비켜서."또 이런 일이 있다면-카엘의 말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흠칫한 남자는 한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한번 숙였다.카엘은 그대로 지나쳐서 걸어갔다.뒤따라가던 아인이 고개를 돌려 조심스레 물었다."저 사람이 스토커예요?""음.. 그중 하나지?""그 중 하나요? 아니, 그럼 몇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카엘은 놀라서 묻는 아인을 보고는 피식 웃더니 앞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따라 들어선 건물 안에는 한 사람이 서있었다.그 사람은 카엘을 알아보고는 우왕좌왕하더니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오랜만입니다요."카엘은 가까이 다가가 데스크 위에 팔을 걸쳤다."그 집안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낸 것은?""그것이.. ""아직도인가?""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북부에서 있는 한 저희 눈에서 숨기는 힘든데요."정보원은 자신의 볼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말하였다."아무래도 누군가 숨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큰 분 밑에서 있을 확률이 크고요. 저희가 찾기 힘들다는 것은 일반적인 무리에는 없단 뜻이니까요."카엘은 정보원을 지그 시보며 말하였다."실력이 예전만큼 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카엘의 말에 정보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구겨졌다."저희가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아닙니다."정보원은 팔로 엑스자로 만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이렇게 헛걸음질을 시키다니. 보상을 해줘야겠어."정보원은 떨떠름한 듯 입꼬리가 내려가다가 다시 억지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일단 한번 들어 보고 정하겠습니다.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지..?""별거 아니야. 암시장에 관한 정보를 내가 헛걸음질 할 때마다 다 말해.""그건 좀..""그럼 여태 헛걸음하고 이리 지체되는 걸 기다릴만한 다른 보상을 제시해봐."카엘은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을 이어나갔다."가령 환불이라던지."정보원은 끄응 대더니 이내 못마땅한 얼굴로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다."알겠습니다. 암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정보원은 서류들을 뒤적거렸다."현재 단속이 강화되어 한 곳만이 열려 있습니다. 체젠 보석 가게 밑 지하에서 은밀하게 암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정에 열어서 새벽 네시까지 단시간만 운영 중이며 보안이 철저하고 아무나 받지 않고 초대받은 사람만이 초대장을 들고 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기는 힘드실 겁니다.""초대장을 구할 방법은?""더 이상은 안됩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정보원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얼마? 나중에 줄게.""선불입니다."정보원은 손가락을 세 개를 피고는 다시 아홉 개를 펴 보였다."서른아홉?"정보원은 고개를 젓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삼백구십 골드.""어떻게 할 생각이에요?"아인이 작게 속삭였다."기다려봐."카엘은 돈이 없었고 아인은 있었지만 그리 큰돈을 내기엔 부담스러웠기에 암시장에 들어갈 초대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걸 포기하고 숙소로 갔다.숙소로 들어온 둘은 일층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아인이 자신이 음식을 산다고 말했지만 카엘은 나중에 사라며 데인의 이름을 달아놓고 식사를 하곤 헤어져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아인은 당연히 포기한 걸로 생각하고 밤이 되어 자기 위해 누웠을 때, 방문 노크소리가 들리고는 '나야.'라는 카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카엘이 벽에 기대어 서있었다."안 가?""네?"아인은 눈을 돌리다 입을 열었다.".. 암시장이요?"그렇게 지금 암시장에 온 둘은 건물 뒤에 숨어 암시장을 보는 중이다.카엘은 아인의 뒤에서 아인의 머리 위에 자신의 얼굴을 내려놓고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로브를 걸쳐서 얼굴까지 가려버린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암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그 모습은 혹시나 암시장을 몰래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있나 둘러보는 조심스러움이 보였다."따라와."카엘은 그 말을 하고는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손난로 그 남자의 목을 쳐 기절을 시키고는 그 남자를 들쳐 메고 빠른 속도로 입구의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사라졌다.그 모습을 멍하니 보던 아인이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카엘이 사라진 쪽으로 뛰어갔다.골목길을 계속 들어가 보니 벽에 기대어 있는 기절한 사람과 그 앞에 서있는 카엘이 보였다."이게 뭐예요?!"아인이 작은 목소리로 숨소리를 내다시피 말하였다."일이 생겼어.""일을 만들었으니 생겼죠!"카엘은 고개를 저었다."그게 아니라."카엘은 초대장을 보여주었다.이게 왜?카엘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초대장 뒤에 있는 것도 보여주었다."신분증이네요?"카엘은 끄덕였다."그래, 이걸로 본인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데."그게 왜?"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야."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체격이 나름 있어서 당연히 남자일 줄 알았는데 여자였구나.잠깐만.. 그렇다는 건?"허..?""어쩔 수 없네. 조만간 여자가 깨어날 거야. 그전에 암시장을 빨리보고 나와야 해.""누가요? 내가?"아인은 벙찐 얼굴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카엘은 아인에게 다가가 아인의 어깨를 잡았다."십 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데리러 들어갈게."꿀꺽."하아.."암시장 앞 건물에 숨어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이다.'할 수 있어. 어차피 혼자 가려고 했었잖아.'그렇지만 혼자 가려고 결정한 뒤에 혼자 들어가는 것과 갑작스레 혼자 가게 되는 것은 달랐다.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가기는 힘들잖아!아인은 제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정신 차려. 시간이 얼마 없어. 이렇게 지체하면 안 돼."후우.."깊은 심호흡 끝에 나는 조심히 암시장으로 발길을 이끌었다.암시 장안에 있는 직원들은 문지기를 포함해 전부 얼굴을 가리는 검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가면에 가려져 얼굴엔 눈동자밖에 보이질 않았다."초대장을 보여주시죠."안으로 한걸음 내딛자마자 문지기가 손을 내밀었다.나는 아무 말 없이 옷 속에 넣어둔 초대장과 신분증을 꺼내어 건네주었다.문지기는 신분증과 초대장을 보고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로브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하는 것 같아 심장이 요동을 치며 머리에서는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어왔다.일분이 지났을까. 나에겐 한 시간 같은 무거운 시간이 지나고 문지기는 신분증과 초대장을 건네주었다."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문지기를 지나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직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고 여기로 온 손님들도 죄다 로브나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찾기는 너무 어려웠다.머리색만으로 찾아야 하는데 영 쉽지 않아 십 분 안에 나가기는 버거울듯한데..여기저기 훑어보고 있던 중 나란히 열 맞춰서 진열되어 있는 병들이 눈에 들어왔다.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가루는 반짝이며 보라색 같으면서도 분홍색 같은 오묘한 색을 띠고 있었다. 병들 앞에는 '넥타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이건 뭐지?'고개를 숙여 병을 유심히 보던 그때 아인의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졌다."안녕하십니까! 넥타르를 사시려는 겁니까?"빨리 나가야 하는데 가루에 정신이 팔리다니.아인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직원에게 손을 저으며 아니라는 몸짓을 보였다.".. 아!"남자의 감탄사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들켰나?'"말을 못 하시군요. 이 가루로 말할 것 같으면.."제 생각과 달리 자신의 제스처를 오해한 직원이 장황하게 설명이 시작되었다. 말이 길어질듯하여 말을 자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행복을 가져다주는 신비의 마법약이라고도 하지요."'행복?'아인이 돌아서려던 몸을 세웠다."허허, 저는 이걸로 아이도 만들었지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아이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듣고 싶지 않았던 아인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였다."하나만 사십니까? 이 넥타르는 다른 넥타르와는 달리 최고급 재료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넥타르는 구하기도 힘들지요."남자의 긴 설명이 이어질 것을 느낀 나는 말을 끊기 위해 다시 한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뭐, 정 그러시다면."넥타르의 가격은 전에 샀던 눈알의 반의 반값이었다. 저렴하게 쓸만한 물건을 샀다는 생각에 내심 흐뭇해하며 결제하고서는 옷 속에 집어넣으며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났다.'시간이 얼마나 흘렀지?'시계가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해 불안이 엄습해왔다.급히 물건들을 둘러보는척하며 걸어가던 와중에 앞을 보니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앞에 세명의 우람한 남자 셋이 서서 하나같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나는 놀라서 뒤로 한걸음 물러나 얼어붙어버렸다.카엘은 쓰러진 여자의 맞은편에 쭈그려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가만히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다.남자로 착각할 만큼 체격이 좋은 것으로 보아 깨어났을 때 다시 기절시키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거라고 예상하던 그때, 가까워져 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어쩔까?골목의 안쪽까지 들어온다면 저 사람도 기절시켜야 할 텐데.카엘은 일어서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다.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와 입구 안으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골목 안을 메워왔다.탁, 탁. 걷던 발소리 하나가 멈췄다.골목 안으로 걸어오던 사람은 골목 안쪽에 들어오다 멈춰 서서 궐련을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이고 있었다.궐련을 태우러 들어온 것을 본 카엘은 다시 뒤돌아서서 여자가 쓰러진 쪽으로 걸어갔다.여자가 있던 곳으로 걸어가던 카엘의 걸음이 멈춰졌다."이런."여자가 기절해 있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